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 고대 하타씨(秦氏) 연구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일어일문학과

최 경 진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 고대 하타씨(秦氏) 연구

지도교수 김 상 규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일어일문학과

최 경 진

최경진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21일



위원장 최 광 준 (인)

위 원 고 용 환 (인)

위 원 노 선 숙 (인)

위 원 신 종 대 (인)

위 원 김 상 규 (인)

# 목 차

|                      |    |
|----------------------|----|
| 표목차 .....            | v  |
| 그림목차 .....           | v  |
| Abstract .....       | vi |
| I. 서론 .....          | 1  |
| 1. 연구 배경과 목적 .....   | 1  |
| 1.1 연구 배경 .....      | 1  |
| 1.2 연구 목적 .....      | 3  |
| 2. 연구 방법과 구성 .....   | 5  |
| 2.1 연구 방법 .....      | 5  |
| 2.2 연구 구성 .....      | 7  |
| 3. 연구사 .....         | 9  |
| II. 본론 .....         | 12 |
| 제1장. 秦氏의 출신지 .....   | 12 |
| 1. ‘秦’의 표기와 발음 ..... | 12 |
| 2. 秦氏의 출신지 .....     | 21 |

|                              |    |
|------------------------------|----|
| 제2장. 고대 秦氏의 거주지에 관한 연구 ..... | 28 |
| 1. 머리말 .....                 | 28 |
| 2. 선행연구와 문제의 제기 .....        | 29 |
| 2.1 선행연구 .....               | 29 |
| 2.2 문제제기 .....               | 31 |
| 3. 秦氏의 고대 거주지 분포 .....       | 34 |
| 3.1 大和國 .....                | 34 |
| 3.2 山城國 .....                | 38 |
| 3.3 河內國 .....                | 42 |
| 3.4 攝津國 .....                | 48 |
| 3.5 近江國 .....                | 50 |
| 3.6 播磨國 .....                | 53 |
| 3.7 豊前國 .....                | 58 |
| 3.8 그 외의 지방분포 .....          | 61 |
| 3.9 ‘ハタ’ 地名의 분포 .....        | 62 |
| 3.10 秦氏의 同族 .....            | 65 |
| 4. 秦氏의 이동 .....              | 65 |
| 4.1 人的 이동 .....              | 65 |
| 4.2 秦公系 .....                | 66 |
| 4.3 秦勝·秦人·秦人部·秦部系 .....      | 69 |
| 4.4 己智系 .....                | 79 |

|                            |     |
|----------------------------|-----|
| 제3장. 秦氏와 八幡神과의 관련성 .....   | 82  |
| 1. 머리말 .....               | 82  |
| 2. 선행연구 .....              | 82  |
| 3. 八幡神의 제사 씨족과 秦氏 .....    | 84  |
| 3.1 辛島氏와 秦氏 .....          | 85  |
| 3.2 宇佐氏와 秦氏 .....          | 90  |
| 3.3 大神氏와 秦氏 .....          | 96  |
| 제4장. 秦氏와 賀茂氏의 관련성 .....    | 102 |
| 1. 머리말 .....               | 102 |
| 2. 선행연구 .....              | 102 |
| 3. 賀茂氏의 출신지 .....          | 103 |
| 3.1 葛城賀茂氏(地祇系賀茂朝臣) .....   | 104 |
| 3.2 山城賀茂氏(天神系鴨縣主) .....    | 107 |
| 3.3 秦氏와 賀茂氏의 관련성 .....     | 112 |
| 제5장. 秦氏와 新羅明神과의 관련성 .....  | 120 |
| 1. 머리말 .....               | 120 |
| 2. 선행연구와 문제제기 .....        | 121 |
| 2.1 선행연구 .....             | 121 |
| 2.2 문제의 제기 .....           | 122 |
| 3. 秦氏와 新羅明神과의 관련성 .....    | 129 |
| 3.1 福井縣南条郡今生の 新羅明神 .....   | 129 |
| 3.2 島根縣仁多郡奥出雲町の 新羅明神 ..... | 132 |

|                               |     |
|-------------------------------|-----|
| 3.3 兵庫縣姫路의 新羅明神 .....         | 135 |
| 3.4 大津園城寺의 新羅明神 .....         | 139 |
| <br>제6장. 秦氏와 河內源氏와의 관련성 ..... | 144 |
| 1. 神前元服式의  사실성 .....          | 144 |
| 2. 河內源氏와 諸神과의 관련성 .....       | 145 |
| 3. 秦氏와 清和源氏와의 관련성 .....       | 151 |
| <br>III. 결론 .....             | 158 |
| [참고문헌] .....                  | 166 |



## 표 목 차

|                                |     |
|--------------------------------|-----|
| (표 3-1) 大和国の 秦氏 .....          | 35  |
| (표 3-2) 山城国の 秦氏 .....          | 40  |
| (표 3-3) 河内国の 秦氏 .....          | 43  |
| (표 3-4) 摂津国の 秦氏 .....          | 48  |
| (표 3-5) 近江国の 秦氏 .....          | 51  |
| (표 3-6) 播磨国の 秦氏 .....          | 54  |
| (표 3-7) 豊前国の 秦氏 .....          | 58  |
| (표 3-8) 그 외의 国の 秦氏 분포 .....    | 61  |
| (표 3-9) ‘ハタ’ 地名의 분포 .....      | 63  |
| (표 4-1) 각 지역의 다양한 勝姓의 분포 ..... | 72  |
| (표 6-1) 經基와 滿仲의 연령 비교 .....    | 153 |

## 그림목차

|                        |    |
|------------------------|----|
| (그림 1) 부산항 앞 古智島 ..... | 38 |
|------------------------|----|

# The Study of Ancient Hata Uji

Choi Kyung-Jin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According to 'Nihon Shoki(日本書紀)', the population of Hata Uji, the arrival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6th year of Emperor Ojin(285 A.D.), reached about 170,000 in 540. In the 700s, the residence of Hata Uji is confirmed anywhere in Japan. In particular, in the mid-to-late 700s, they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of royal palaces. Based on this economic wealth, they established Hachiman Jinja, Inari Jinja and Matsuo Taisha Temple. The ancient Hata lived in 81 counties in 32 prefectures, with 43 family names stretching out from Hata Uji.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origin of Hata, the movement and distribution of their population, the relevance of Hata and Yoshiie's three brothers' adult ceremony, and the combination of Seiwa Genji and Hata Uji.

In 'Sinsenshogiroku(新撰姓氏録)', the descendants of Qin Shi Huang of China, but they settled in Gaya for nearly 700 years by the time the kingdom was destroyed in 207 B.C. Therefore, the theory that Hata Uji is a descendant of the Qin dynasty and is Chinese is unreasonable, a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ay that is from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ncient times, there are three points where the Korean immigrants arrived in Japan. First, it is a route that they departed from the south coast and arrived in Kyushu. Hata Uji in this area established Hachiman Jinja. The second route was stopping over at Izumo and they arrived in Tsuruga and finally settled in Omi. Hata Uji worshipped Shilla Myojin(新羅明神) in Onjoji Temple in Omi. The last route was that they arrived at Naniwa via Setonaikai and settled

in Katsuragi Gose where was the native land of both Yamashiro Hata Uji, and Kamo Uji who established Shimo-Kamojinja in Kyoto. Minamoto Yoshiie, Yoshitsuna and Yoshimitsu who were the middle ancestors of Minamoto Yoritomo, the founder of Kamakura Bakufu, held an adult ceremony in front of God Yawata, God Kamo and Shilla Myojin respectively and each was called by Yawata Taro, Kamojiro and Shillasaburo, depending on each God's name.

Minamoto Masanobu, son of Atsusane, the eighth son of Emperor Uda, was granted the surname Uda Genji in 936. Among his descendants, Sukenori Minamoto went down to Omi Prefecture and joined with Sasaki Uji, a powerful local tribe in Omi, to form a group of Omi Genji Bushi(武士). They changed their God from God Sukunahikona that was Sasaki's God to Uda Genji's ancestor. In the case of Seiwa Genji who was also granted the surname of Genji from the Emperor Seiwa, Minamoto Mitsunaka joined Tada Latifundia in Setsu Prefecture, and formed a group of Seiwa Genji Bushi. Later, his descendant changed Tada Jinja's God from Otadaneko which originated from Gaya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Peninsular to Mitsunaka and his children. In the late 900s, Hata Uji who was rich and Minamoto Mitsunaka assume a similar combination as Uda Genji's case.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 wealthy Hata Family and emerging family of Genji might have had some kind of relationship in Tada Latifundia.

Ever since the arrival of the Hata Uji to Japan, many embankment works, mines, salt fields, and unexplored sites must have had a hard time. Over time, Hata Uji people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ancient Japan's industry, culture and entertainment, and are still loved by the Japanese. The family characteristics of Hata Uji are generally defined as Labor work groups, local-oriented, and lower-class clan groups, and this perception is supported by many researchers. However, if you look closely at Rikokushi(六国史), Shinsenshojiroku, it is easy to see that Hata Uji was the largest clan group in Japanese ancient times. Therefore, there is a gap between recognition and facts and one of the intents in this study is to try to convert them. They provided Iron, the foundation of the industry and water management to buildup new towns. Given the mass concentration of Hata Uji,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early Japan's infrastructure was built in Hata Uji.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1 연구 배경

가마쿠라바쿠후(鎌倉幕府)를 창설한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의 선조이자 무로마치바쿠후(室町幕府)를 창설한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의 선조인 미나모토 요시이에(源義家)와 그의 동생 요시쓰나(義綱), 요시미쓰(義光) 삼 형제는 각각 교토(京都) 이와시미즈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의 야와타노카미(八幡神), 시모카모진자(下鴨神社)의 가모타케쓰누미노미코토(賀茂建角身命), 오미국(近江國)-현滋賀縣- 오쓰(大津) 온조지(園城寺)의 신라묘진(新羅明神)<sup>1)</sup> 앞에서 성인식을 올려 하치만타로(八幡太郎), 가모지로(賀茂次郎), 신라사부로(新羅三郎)<sup>2)</sup>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삼형제는 神前에서 성인식을 올렸는데, 이를 ‘神前元服’라 한다. 일본 중세 무사들의 성인식은 주로 주군 앞에서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義家 삼 형제처럼 神前元服은 과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셋째인 義光는 신라겐지(新羅源氏)<sup>3)</sup>로 불리었는데, 후손인 오가사와라(小笠原) 가문은 義光가 죽은 이후 350년간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일본 최고의 무사집단인 가와치겐지(河内源氏)의 중조(中祖) 義光는 왜 신라 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던 것인

1) ‘新羅明神’은 『日本歴史地名大系』(平凡社)·『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日本人名大辭典』(講談社)등에서 모두 ‘しんらみょうじん’으로 표기하고 있다.

2) 新羅明神과 마찬가지로 사전 등에는 ‘しんらさぶろう’로 표기하고 있다.

3) 仏書刊行會編纂(1915)「園城寺伝記三之四 新羅源氏事」『大日本仏教全書』127卷 仏書刊行會, p.27.

‘新羅源氏’의 발음은 天保九年(1838)에 쓴 伝記『新羅源氏南部御家御系譜并由緒書』에서 ‘しんらげんじ’로 읽고 있다(출처: 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義家 삼형제가 성인식을 올린 신사와 절이 고대에 도래한 하타씨(秦氏)와 관련이 있고, 제신들은 秦氏의 집단거주 지역에 鎮座하고 있었던 神임을 알게 된다.

고대 秦氏가 일본열도로 건너온 경로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sup>4)</sup> 이 중에서 동해남부 해안, 혹은 남해안으로 여겨지는 秦氏의 도래경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산(낙동강유역)→거제도→규슈(九州)이며, 두 번째는 한반도 남해안→기타쿠슈(北九州)→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나니와(難波)→가와치(河内)→나라(奈良), 세 번째는 동해(남부)안→이즈모(出雲)→오우미(近江)를 거친 경로이다. 九州 지역에는 義家が 성인식을 올린 石清水八幡宮(京都)의 본궁인 우사하치만구(宇佐八幡宮)가 있다. 이 신사의 祭神인 八幡神은 秦氏 일족이 모시던 神이다. 義綱의 下鴨神社는 秦氏가 일찍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의 제사 씨족인 가모씨(賀茂氏)와 연계되어 있다. 『日本書紀』 應神十六年(285)八月条에 낙동강 유역의 도래인 秦氏는 가쓰라기고세(葛城御所)의 아사즈마와키가미(朝妻間掖上)-현 奈良縣御所市-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賀茂氏 또한 가야의 도래인이다<sup>5)</sup>. 近江에는 神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래신인 新羅明神이 園城寺에 모셔져있다. 近江國는 ‘도래인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반도 도래인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도 秦氏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

도래 이후 秦氏에 관한 기록은 광산, 제방공사, 염전 등의 노동현장과 관련된 것이 많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河內國-현 大阪-의 만다(菟田) 제방공사에 동원된 秦氏는 하리마(播磨)-현 兵庫縣 서부-의 제방공사를 위해 揖保郡에 이주해

4) 윤명철(1995) 「해양조건을 통해본 고대 한일 관계사의 이해」 『日本學』 14권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pp.84-107.

5) 金祥圭(2007) 「三輪山伝承考」 『일어일문학』 제3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231.  
瀬間正之(2018) 「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 『東洋文化研究』 第20 東洋文化 研究, pp.150-151.  
위 논문에서 三輪氏は 가야로부터 도래한 씨족임이 밝혀져 있는데, 『古事記』 崇神朝를 보면 ‘미와노키미(神君 혹은 三輪君)와 가모키미(鴨君)는 조상이 같다’라고 하므로, 鴨氏(혹은 賀茂氏)는 가야 도래인임을 알 수 있다.

와 살았다. 그리고 부젠노쿠니(豊前國)-현 福岡縣東部와 大分縣北部- 다가와 가와라다케(田川 香春岳)-현 福岡縣田川郡香春岳-의 광산에서 일하던 秦氏는 고대 제철의 발상지라는 播磨國 지구사가와(千種川) 유역에 27개의 오사케진자(大避神社)-祭神은 秦河勝-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 5세기 말에 이르면, 秦氏의 인구는 17만 명에 달했고, 8세기에는 京都의 궁궐을 조성할 정도로 경제력도 키웠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치수작업과 산업의 근간인 철을 제공했던 秦氏는 일본인의 고유 신앙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어, 고대 일본의 사회 기반시설을 쌓아올린 씨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秦氏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일본열도에 상륙한 이래,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서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사집단이 된 河內源氏가 왜 한반도 도래인 출신인 秦氏와 관련이 있는 神들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는가 하는 의문이다. 과연 그들은 秦氏의 후손인가? 아니면 전혀 의미 없이 유명 신사에서 성인식을 치른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清和源氏와 이 집단에서 분파되어 간 河內源氏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秦氏의 씨족적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을 통한 생산적 활동에 주력한 씨족으로 규정짓고 있다. 『日本書紀』 欽明元年(540)八月條에 따르면, ‘귀화해온 秦氏 등을 각 지방에 분산배치하고 호적에 기재하였다. 秦氏의 호구 수는 전부 7,053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호당 인구를 대략 25명에서 40명이라 본다면, 秦氏의 인구는 약 17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게 된다.<sup>6)</sup> 후기 고분(古

6) 正倉院文書에 大寶二年(702)의 美濃國味蜂間郡春部里·栗栖太里, 肩縣郡肩々里·各務郡中里, 豊前國上三毛郡塔里·加目久也里·仲津郡丁里 등의 고대호적이 남아 있다. 각 지역의 호적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면, 美濃國의 1호 당 인구수는 19.2명, 西海道는 23.7명, 下總는 23.7명이다.

墳) 시대 일본열도의 총 인구는 200만 여명으로 추산<sup>7)</sup>하는데, 총 인구의 8%에서 15%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기록이나 고대 호적, 목간 등을 검토하면 당시 秦氏의 전국적 거주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서기 700년경에는 일본 전국 어디에서도 秦氏의 거주를 확인할 수 있다. 고대 秦氏 집성촌은 32개 國-행정구획 상 표현으로 현재의 県과 유사하다-의 81개 郡에 이를 정도로 고대 최대 규모의 씨족이다.<sup>8)</sup> 특히 700년대 중후반대의 秦氏는 막강한 경제력으로 새로운 도읍인 京都 건설에 이바지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창건하고 관여하였던 후시미이나리진자(伏見稻荷神社)와 九州의 宇佐八幡宮 등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가장 많은 신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秦氏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경제, 문화, 종교에 깊이 관여한 씨족이었다. 따라서 고대의 거대 씨족집단이었던 秦氏를 노동생산과 세금납부를 위한 ‘殖産的’ 씨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존 秦氏의 씨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河内源氏의 中祖인 義家 삼 형제는 秦氏와 관련이 있는 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연유로 그러하였을까? 귀

(澤田吾一(1927)『奈良時代民政經濟の數的研究』富山房, p. 286.).

한편, 小林照郎는 고대의 1호당 인구를 50-60명으로 하고 있다.

(小林照郎(1910)『社會學論叢』第二卷, 金港堂書籍 p.143, p.239.)

그리고 加藤謙吉는 1호당 인구를 10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加藤謙吉(2000)『秦氏とその民』白水社, p.75. )

참고로 우리나라 고대의 경우, 1호당 인구수를 25.8명으로 하고 있으며, 저자윤종유의 계산에는 1호당 인구를 일률적으로 5명으로 하고 있다.

(윤종유(1985)「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少考」표1, 표2 『한국인구학』 8(2)

한국인구학회, p.5)

7) Jean-Noël Biraben(1993), "Le Point sur l'Histoire de la Population du Japon," *Population* Vol.48(no.2), pp.443-472. : Wikipedia Japan에서 재인용.

참고로 鬼頭宏는 725년의 일본인구를 451만 명으로 추정하였다(재인용: 高橋正憲(2012)「日本古代における農業生産と經濟成長」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p.4.). 그리고 小林照郎는 推古朝十八年(610)의 인구를『太子伝』에 근거하여 4,988,842명 이라 하였다(앞의 註6 참조).

8) 加藤謙吉(2000)『秦氏とその民』白水社, p.25.

족을 대신하여 幕府를 만들어 일본을 지배한 河內源氏는 한반도 도래인 출신인 秦氏와 어떤 관련을 가졌는지 궁금해진다.

성인식을 올린 당시의 義家 가문은 경쟁 상대인 헤이케(平家) 집안과 더불어 무사집단의 한 축으로 인정받아 왕성의 수호와 치안유지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義家の 石清水八幡宮는 이세진구(伊勢神宮)에 뒤이어 제2의 宗廟로 불리며 천황이 빈번하게 행차하던 중요한 신사였다. 京都에는 조정에서 공물과 봉헌사를 보내는 賀茂祭·石清水祭·春日祭의 3대 축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역사서에 매년 개최 일자가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던 축제가 賀茂祭이다. 義綱는 이를 거행하는 下鴨神社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따라서 삼 형제의 神前元服는 수도 경비를 담당했던 河內源氏 가문이 유명신사에서 올린 화려한 성인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 같다. 義家 삼 형제가 秦氏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성인식을 올린 것은 역사적 사실로, 清和源氏를 창설한 미나모토 미쓰나카(源滿仲)의 경제적 기반은 秦氏의 집단 거주지인 세쓰국(攝津國)-현 兵庫縣-가와베군(河辺郡), 니시나리군(西成郡)의 다다은광(多田銀山)에 있었으므로 두 씨족의 연관성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清和源氏 무사의 시조인 源滿仲에 초점을 맞추어 秦氏와 河內源氏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2. 연구 방법과 구성

### 2.1 연구 방법

고대 秦氏의 씨족적 특성을 재인식하기 위해 鎌倉幕府 이전까지의 사서와 고대 호적, 목간에 나타나는 秦氏 관련 기록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그리고 秦氏와 河內源氏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義家 삼 형제의 神前元服에

주목한다. 清和源氏は 세이와 천황(清和天皇)으로부터 臣籍降下<sup>9)</sup>한 왕자(親王)에서 비롯되었으며 천황으로부터 ‘源’라는 우지(氏)를 하사받았다.<sup>10)</sup> 중세에 이르러攝津國 다다인(多田院)에서 清和源氏를 창시한 무사는 滿仲인데, 그의 셋째 아들로 서자출신인 요리노부(賴信)는 河內지역으로 분파(分派)하여 河內源氏를 열었다. 이 가문은 훗날 鎌倉幕府와 室町幕府를 만들어 수백 년간 일본을 지배한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와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를 배출하였다. 滿仲의 재산과 직위를 물려받은 적자 賴光에 비해 서자출신인 賴信는 형에 비해 출세도 더디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이런 賴信는 다른 무사들과는 달리 손자인 義家 삼 형제를 神前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한다. 尾形裕康는 “적당한 加冠者가 없는 경우, 혹은 관례적으로 정해져있는 加冠者에 대해 불평등이 있어 이를 거부하고 할 수 없이 神前에서 거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였다.<sup>11)</sup> 義家 삼 형제의 神前元服는 당시 무사들의 성인식에 비해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기록상 이들과 그의 일부 자손 외에는 예를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賴信는 永承元年(1046) 후루이치(古市)-현 大阪府 히비키노시(羽曳野市) 후루이치(古市)-에 있는 오진 천황(応神天皇)의 陵 앞에 ‘요리노부코몬(賴信告文)’이라는 일종의 선언문을 올리는데, 이 선언문 속에 “자신은 応神天皇의 후손”임을 자처

9) 조정의 재정적 이유로 황족에서 신하로 신분이 바뀌며, 천황으로부터 성(姓)을 하사받는 것을 臣籍降下라 한다. 대표적인 성씨가 源氏와 平氏로, 중세의 대표적인 무사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두 가문의 투쟁을 다룬 작품이 『平家物語』로, 일본 軍記物語의 대표작이다.

10) 『三代實錄』 清和天皇 貞觀十二年(870) 二月十四日 親王 14명이 미나모토 아손(源朝臣)이라는姓을 天皇으로부터 하사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河內源氏의 선조인 사다즈미(貞純) 親王의 賜姓기록은 없다.  
(散位從四位下元長王.侍從從四位下兼善王. 无位名實王. 篤行王. 善王. 近善王. 音恒王. 是恒王. 舊鑒王. 貞恒王. 成蔭王. 清實王. 是忠王. 是貞王十四人. 賜姓源朝臣).  
한편, 위의 貞純親王의 아들이며, 清和源氏 무사집단의 시조 源滿仲의 아버지인 미나모토 츠네모코(源經基)에 관한 源氏賜姓 기록은 『尊卑分脈』 天德五年(615)에는 나와 있으나,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11) 尾形裕康(1950) 「成年礼の史的考察」 『日本學士院紀要』 第8卷3号 日本學士院, p.380.

한다.<sup>12)</sup>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이러한 의식을 거행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応神天皇은 현재 八幡神으로 모셔져 있다. 원래 八幡神은 秦氏 일족이 모시던 가야의 여신 ‘가라쿠니 오키나가 오오히메 오오메노미고토(辛國息長大姫大目命)’<sup>13)</sup>인데 6세기 경 야마토 조정의 정책에 의해 応神天皇로 변환되었다.<sup>14)</sup> 따라서 손자인 義家를 八幡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한 것도 秦氏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씨족 간의 연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각 神들의 유래와 지역적 배경을 검토하기로 한다.

## 2.2 연구 구성

서론의 1절에 연구 배경과 목적, 2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3절에서는 秦氏에 대한 연구사를 기술하였다. 秦氏의 본격적인 도래는 『日本書紀』에 따르면 서기 285년에 시작되었는데, 秦氏의 오랜 도래 역사에 비해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에도(江戸) 시대의 국학자 반 노부토모(伴信友)의 「세미노오가와(瀬見の小川)」에 언급된 秦氏와 賀茂氏의 관계에 대한 비평을 秦氏 연구의 시초로 잡았으며, 秦氏의 도래를 귀화인이나 도래인 속의 한 씨족

- 
- 12)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所編(1909)『大日本古文書. 家わけ四之一,』東京帝國大學, コマ77.  
(<http://dl.ndl.go.jp/info:ndljp/pid/1915619/6?tocOpened=1>, 國會デジタル, 검색일: 2019.08.02)  
所謂曾祖陽生天皇者權現之十八代孫也。賴信者彼天皇之四世孫也。
- 13) 皇典講究所(1929)『延喜式校訂上卷』大岡山書店, p.410.  
田川郡三座, 辛國息長大姫大目命神社, 忍骨命神社, 豊比賣命神社。  
伊藤常足編(1908), 『太宰管内志』中卷, 日本歴史地理學會豊前之二(田川郡上), コマ179.  
(<http://dl.ndl.go.jp/info:ndljp/pid/766661/169?tocOpened=1>, 검색일: 2019.07.18)  
田川郡辛國息長大姫大目命神社有り、辛國は、加羅久爾、息長は、於支奈我、大姫は、於保比咩、大目命は於保米能美許登と讀むべし。御名ノ義、辛國は、新羅國より來ませる神なれば負せたるべし。
- 14) 본 논문 p.97의 3.3 大神氏と秦氏 참조.  
6세기 후반 大和조정에 의해 宇佐지방에 파견된 오가히기(大神比義)는 ‘이와의 난(磐井の亂)’ 이후 쇠퇴한 우사씨(宇佐氏)의 뒤를 이어 약간가와(驛館川) 右岸에 본거지를 두고, 가라시마씨(辛島氏)와 함께 八幡神의 제사씨족이 되었다.

으로 파악한 1920년대부터의 연구, 그리고 秦氏를 귀화인이나 도래인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연구 주제로 삼은 오늘의 연구로 구분하였다. 본론은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 1장의 1절과 2절에서는 秦氏의 성씨에 대한 유래와 출생지에 대해 논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름의 발음과 표기, 그리고 출신지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다. ‘秦’를 두고 ‘하타’로 발음한다거나, 秦氏가 중국 秦始皇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기록도 있다. 제 2장은 고대 秦氏의 거주지 분포와 인식에 대해 논하였는데,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절과 2절에서 秦氏에 대한 기존의 씨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3절에서는 大和國, 山城國, 河內國, 攝津國, 近江國, 播磨國, 豊前國에서의 고대 秦氏의 거주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제 4절은 연대에 따른 秦氏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는데, 秦氏가 한반도로부터 상륙한 豊前國, 山城國, 近江國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 확산되어 갔다. 제 3장에서는 義家が 성인식을 올린 八幡神과 秦氏와의 관련성, 제 4장에서는 義綱가 성인식을 올린 下鴨神社의 제사씨족 賀茂氏와 秦氏와의 관계, 제 5장에서는 義光의 新羅明神과 秦氏와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6장에서는 秦氏와 河內源氏 무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였는데, 清和源氏 창시자인 滿仲의 출신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그들의 본거지인 다다노쇼(多田莊) 부근에 집단 거주하는 秦氏의 존재를 근거로 두 씨족의 연관성을 추출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고대 기록의 분석을 통해 秦氏의 전국적 분포와 업적을 거론하며 秦氏가 일본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씨족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거주지 분포의 분석을 통해 義家 삼 형제가 성인식을 올린 神들과 秦氏의 집단 거주지역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체적 결론에서는 秦氏는 노동 생산적 직무에 성실한 ‘殖産的’ 씨족이 아닌, 현대 일본의 경제와 문화, 종교에 큰 영향을 끼친 거대씨족이었으며, 秦氏와 清和源氏 滿仲는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3. 연구사

지금까지 秦氏에 관한 연구는 근세 이후에 시작되었다. 초창기는 秦氏가 연구 주체가 아닌 다른 주제 중의 관련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江戸時代의 국학자 伴信友는 京都 賀茂神社에 대한 고증을 하는 과정에서, 賀茂神社의 명문 賀茂氏와 秦氏が ‘니누리아(丹塗矢)’ 전승을 공유하고 있다는 「秦氏本系帳」<sup>15)</sup>의 내용에 대해서 秦氏의 ‘偽説’이라고 비판하였다.<sup>16)</sup> 이에 대해 肥後和男는 「賀茂伝説考」에서 ‘하나의 신화는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賀茂氏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씨족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고 神話學的 입장에서 반론하고 있다.<sup>17)</sup> 또한 역사학자 喜田貞吉는 일본 역대 수도(首都)의 지정과 건설과정, 천도배경에 대한 설명 중에서 구니쿄(恭仁京)-木津川市-, 나가오카쿄(長岡京)-長岡京市-, 헤이안쿄(平安京)-京都市- 축성 때의 秦氏의 공헌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喜田貞吉의 설명은 秦氏 연구사에서 秦氏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 평가라 하겠다. 특히 平安京의 궁궐이 하타노카와카쓰(秦河勝)의 집터였다는 언급은 秦氏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sup>18)</sup>

다음은 독립적 연구주제는 아니나, 秦氏를 일본에의 도래인 혹은 귀화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씨족으로 보는 연구관점이다. 上田正昭<sup>19)</sup>, 關晃<sup>20)</sup>가 대표적인 연구자인데, 秦氏를 후미베(史部), 아야히토(漢氏) 등의 초기 귀화인 속의 한

15) 塙保己一編(1902)「卷第八十一 本朝月令」『群書類從』第五輯 經濟雜誌社, p.91.

(『山城國風土記逸文』의 형태로 남아있음)

16) 伴信友(1907)「瀬見小川 三之卷 秦氏本系帳の中の疑説」『伴信友全集』第2國會刊行會, p.306.

此文なべては縁起に依り, 言をかへて造りたるものなるが, まづ首に初秦氏女子出葛野川云々と書出したるは, 玉依日賣の賀茂川にての云々の事を秦氏の女子と称ひて秦氏すなはち建角身命の裔なりといふべく, 巧みこしらえたるものにしてこれぞ此偽説せる事のもとなりける(中略).

17) 肥後和男(1945)「賀茂伝説考」『日本神話研究』河出書房 第5版, p.255

18) 喜田貞吉(1939)『帝都』日本學術普及會, p.259

19) 上田正昭(1994)『歸化人』中央公論社.

20) 關晃(2009)『歸化人』講談社.

부류로 파악하며, 특히 漢氏와 秦氏를 상호비교하며 그 활동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현대의 秦氏 연구 경향은 秦氏를 독립된 연구 주제로 보고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연구는 두 권에 걸친 大和岩雄의 『秦氏の研究』이다.<sup>21)</sup> 여기서 秦氏는 고대에만 활약한 도래인이 아닌, 전 시대에 걸쳐 일본의 경제, 문화, 종교에 깊이 관여한 씨족으로 평가하고 있다. 加藤健吉 또한 秦氏를 독립된 연구 주제로 다루어 『秦氏とその民』<sup>22)</sup>에서 秦氏의 조직 구성과 생산 활동, 秦氏 집단 주거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후기 고분시대부터 거대한 집단을 이루었던 秦氏族에 대해 ‘세금 납부를 위한 의제적(擬製的) 거대 집단’으로 규정하고, 집단의 구성을 하타우지(秦氏)·스구리(勝)·하타히토(秦人)·하타베(秦部)·하타히토베(秦人部)로 분류하여 秦部, 秦人部를 현지 일본인 농부로 보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欽明朝元年(540)에 이미 17만에서 20만에 이른 대규모의 秦氏 인구에 대한 설명을 위해 현지 일본인의 합류설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水谷千秋도 『謎の渡來人 秦氏』<sup>23)</sup>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秦氏의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秦氏와 賀茂氏의 긴밀한 관계를 규명한 中村修也의 『秦氏とカモ氏』<sup>24)</sup> 또한 秦氏의 이름과 출신지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한 현재의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국내의 연구현황은 연구 서적이 아닌 학술논문을 통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영역은 秦氏의 이름이나 출신지에 대한 근원적 연구가 중심이다. 秦氏의 출신지에 대한 연구로, 이원홍은 「진씨 설화를 통해 본 고대 한일관계」<sup>25)</sup>에서 秦氏를 ‘가야계 신라인’이라 했으며, 연민수는 「秦氏의 渡來傳承과 후

21) 大和岩雄 『秦氏の研究』(1993) 『續秦氏の研究』(2013), 大和書房.

22) 앞의 논문 註 8.

23) 水谷千秋(2009) 『謎のと渡來人秦氏』 文芸春秋.

24) 中村修也(2004) 『秦氏とカモ氏』 臨川書店.

25) 이원홍(2002) 「진씨설화를 통해 본 고대 한일관계」 『어문연구』 제 38집 어문연구학회, p.p.254.

예씨족의 활동」<sup>26)</sup>에서 경북 울진의 優由國을 秦氏의 출자(出自)로 보았다. 진은숙은 「秦氏의 도래전승 및 명의고찰」<sup>27)</sup>에서 ‘김해 지명설’과 ‘울진 波止지명설’을 언급하면서 “秦氏의 출자 및 어원에 관해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추론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보경은 「8세기 秦氏의 씨족 분화와 官人化」<sup>28)</sup>에서 고대 秦氏의 본류가 아닌 8세기의 신흥 秦氏가 등장하여 관인화의 길을 걷게 되고, “8세기 후반에는 ‘秦’자를 띠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씨명을 내세우며, 개별 씨족의 독자성을 씨명에 드러내기 시작하였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전금선은 秦氏의 출신지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자료가 아닌 고대의 예능을 연구수단으로 하였는데, 「도래인 하타씨(秦氏)의 고대예능 연구」<sup>29)</sup>에서 “노가쿠(能樂)의 대가 제아미(世阿彌)에 의해 하타노카와카쓰(秦河勝)가 사루가쿠(猿樂)의 조신이 된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루가쿠 이전의 다수의 고대예능이 이미 하타씨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라와의 연관관계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향후 과제는 秦氏의 출신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이다. 일본에서는 도래 이후 秦氏의 행적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으나, 모국인 한반도에서의 출신지와 행적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26) 연민수(2017) 「秦氏의 渡來傳承과 후예씨족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제58집 한일관계사학회, pp.14-15.

27) 진은숙(2016) 「秦氏의 도래전승 및 명의고찰」 『日本語文學』 제72집 일본어문학회, p.436.

28) 서보경(2016) 「8세기 秦氏의 씨족 분화와 官人化」 『日本研究』 제67호 일본연구소, p.124.

29) 전금선(2012) 「도래인 하타씨(秦氏)의 고대예능 연구」 『비교일본학』 27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II. 본론

### 제1장 . 秦氏의 출신지

#### 1. 「秦」의 표기와 발음

‘秦氏’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古事記』는 応神朝, 『日本書紀』에서는 雄略朝十二年(468)十月条에 보인다.

하타노미야쓰코(秦造)의 조상과 아야노아타에(漢直)의 조상, 그리고 술을 담글 줄 아는 사람으로 이름은 니하(仁番)라 하며, 또 다른 이름은 스스코리도모(須須許理等)인데, 모두 일본으로 건너 왔다.<sup>30)</sup>

『古事記』에서는 応神朝에 ‘秦造’를 ‘하타노미야쓰코’로 읽고 있다. ‘秦’은 우지(氏)로, 조상을 같이하는 동족집단을 뜻하고, ‘미야쓰고(造)’는 작위(爵位)나 직업에 붙는 관직 같은 것으로 카바네(姓)라 한다. 天武朝十三年(684)에 도입된 ‘야쿠사노카바네(八色姓)’라는 신분제도이다. 마히토(真人), 아손(朝臣), 스쿠네(宿禰), 이미키(忌寸), 미치노시(道師), 오미(臣), 무라지(連), 이나기(稻置)의 8가지 姓이 있는데, 眞人が 가장 높은 신분이며, 秦에 부여된 ‘造’는 稻置의 다음 계급이다.<sup>31)</sup> 秦造는 ‘秦氏의 직능 집단 중의 리더’라는 의미로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니다. 한편 『日本書紀』에서 ‘秦氏’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秦’자를 어떻게 읽었을까? 『日本書紀』

30) 『古事記』 応神朝

又秦造之祖、漢直之祖、及知釀酒人・名仁番、亦名須須許理等、參渡來也。

31) 『日本書紀』 天武天皇十三年 (684) 十月条

冬十月己卯朔。詔曰。更改諸氏之族姓。作八色之姓。以混天下萬姓。一曰真人。二曰朝臣。三曰宿禰。四曰忌寸。五曰道師。六曰臣。七曰連。八曰稻置。

에서 秦氏 집단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応神朝十四年(283)二月条에 나온다.

유즈키노키미(弓月君)가 백제로부터 일본에 와서 이르기를, ‘저는 120현의 백성을 이끌고 왔습시다만, 신라가 방해하여 가락국에 머물고 있습니다’라 하였다.<sup>32)</sup>

그리고 285년에 弓月와 그의 백성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위 인용문의 어디에도 弓月와 그의 백성들이 秦氏라는 기록은 없다. 세월이 흘러 815년에 완성된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錄)』에서 비로소 弓月가 秦始皇의 후손이며 秦氏의 선조가 弓月라고 기록함으로써 위에 나오는 ‘弓月와 그의 백성’이 秦氏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 雄略朝十二年(468)条를 보면,

천황은 미타(田耜)가 우네메(采女)를 범하였다고 의심하여 田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노노베(物部)에게 인계하였다. 그때, 하타노사케키미(秦酒公)는 천황의 곁에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거문고를 켜서 천황의 정신이 들게 하였다.<sup>33)</sup>

위 인용문에서 ‘秦酒公’을 ‘하타노사케키미’로 읽고 있으므로 『日本書紀』의 기록상 ‘秦’를 ‘하타’라고 읽었던 최초의 시점은 위의 雄略朝十二年(468)이 된다. ‘기미(公)’는 允恭朝-412년 즉위-에 도입된 오미무라지 제도(臣連制)로, 기미(公)-혹은 君-, 무라지(連), 아타이(直), 오비토(首), 후히토(史)가 있었는데 公는 가장 높은 신분이다. 따라서 秦자에 公가 붙는 가문은 후세에 秦氏의 종가(宗家) 역할을 하며, 후손들은 ‘公’의 신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雄略朝十二年(468) 이전에는 ‘秦’라 쓰고 ‘ハタ’라고 읽었는지, 혹은 ‘ハタ’라고 발음하는 다른 문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후세에 ‘秦’로 바꾸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日本書紀』 雄略朝十五年(471)条에 나오는 ‘우즈마사(禹豆麻佐)’라

32) 弓月君自百濟來歸。因以奏之曰。臣領己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然因新羅人之拒。

33) 天皇、便疑御田耜其采女、自念將刑而付物部。時秦酒公、侍坐、欲以琴聲使悟於天皇

는 성(姓)의 경우를 보면,

秦氏의 백성은 오미(臣), 무라지(臣連) 등에게 분산배치 되어 그들이 마음대로 혹 사하였다. 秦氏의 관리자인 하타노미야쓰코(秦造)에게 맡겨도 소용이 없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하타노미야쓰코사케(秦造酒)는 천황에게 사정을 아뢰었다. 이를 어여 뻔 여긴 천황은 秦氏의 백성들을 모아 하타노사케키미(秦酒公)에게 하사하였다. 하타노키미(公)는 180여 무리의 스구리(勝)족을 시켜서 비단을 짜서 조정(朝廷)에 바쳤는데, 산더미처럼 쌓였다하여 (천황은) 우즈마사(禹豆麻佐)라는 성을 하사하였다.<sup>34)</sup>

471년 雄略天皇는 秦酒公가 비단을 산더미처럼 쌓아 조정에 바쳤다하여 ‘우즈 마사(禹豆麻佐)’라는 성을 하사하였다는데, 실제로 六國史<sup>35)</sup>에서 ‘禹豆麻佐’를 ‘太 秦’로 바꾸고 ‘우즈마사’라고 읽은 기록은 『續日本紀』 聖武朝天平十四年(742)八月 条에 최초로 나타난다.

천황은 造營의 사건(錄) 하타시모 시마마로(秦下嶋磨)를 불러서 우즈마사키미(太秦 公)의姓을 하사하고, 錢 백 관, 견직 백 필, 삼배 이백 단, 비단 이백 돈을 함께 내렸다. 구니쿄(恭仁京)의 궁궐 담장을 조성하여 바친 공로이다.<sup>36)</sup>

그러므로 六國史에서 雄略朝十五年(471)부터 聖武朝天平十四年(742)八月 이 전까지는 ‘禹豆麻佐’라 쓰고 ‘우즈마사’로 읽었겠지만, 742년부터는 ‘太秦’라 바꾸

34) 十五年、秦民、分散臣連等、各隨欲驅使、勿委秦造。由是秦造酒、甚以爲憂而仕於天皇。天皇愛寵之、詔聚秦民、賜於秦酒公。公、仍領率百八十種勝、奉獻庸調絹縑、充積朝廷、因賜姓曰禹豆麻佐。一云「禹豆母利麻佐」皆盈積之貌也。

35) 『日本書紀』 720년刊 舍人親王撰, 『續日本紀』 797년刊 菅野眞道·藤原繼繩撰, 『日本後記』 840년刊 藤原冬嗣·藤原緒嗣撰, 『續日本後記』 869년刊 藤原良房·春澄善繩撰, 『日本文德天皇錄』 879년刊 藤原基經·菅原是撰, 『日本三代實錄』 901년刊 藤原時平·大藏善行撰.

36) 詔授造宮錄正八位下秦下嶋麻呂從四位下。賜太秦公之姓。并錢一百貫。絁一百疋。麻布二百端。綿二百屯。以築大宮垣也。

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秦’의 경우에도 이전에 ‘하타’라고 발음하는 다른 문자-예를 들면, 波多·波陀·幡多·羽田·八田·幡·八太 -가 있었고, 후세의 어느 시점부터 ‘秦’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古事記』 孝元朝를 보면, “다케시우치 스쿠네(建内宿禰)의 자식 아홉 명 가운데 하타(波多) 야시로노스쿠네(八代宿禰)”가 있었다 하므로<sup>37)</sup>, ‘秦’ 이전에는 ‘波多’ 혹은 ‘波陀’로 쓰고 ‘ハタ’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秦’은 중국의 秦나라와 秦始皇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하타’라고 불리는 씨족의 후손들이 秦始皇의 자손임을 내세우기 위해 ‘秦’자로 바꾸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면 ‘秦’을 ‘하타’로 발음한 유래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秦은 중국발음으로는 ‘Qin’, 韓國에서는 ‘Jin’이라고 읽는데, 왜 일본에서만 ‘ハタ’라고 읽었을까?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인 弘仁6年(815)에 사가텐노(嵯峨天皇)의 명을 받아 편찬된 고대 씨족의 족보책인 『新撰姓氏錄』의 야마시로노쿠니(山城國)의 하타 이미키(秦忌村)조에 발음의 단서가 기록되어 있다.

호무다 천황(譽田天皇), 시호(諡号)는 応神, 14년에 내조(來朝)하였다. (弓月)가 상소하여 127현의 백성을 이끌고 귀화하였다. 그때 금은주옥, 비단 등의 여러 가지 보물을 바쳤다. 천황은 대단히 기뻐하며 야마토 아즈마와키가미(大和朝津間腋上)의 땅을 하사하여 그들을 살게 하였다. 아들 眞徳王, 다음에 普洞王, 옛 서적에는 浦東君라고도 한다. 오호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大鸕鷀天皇), 시호(諡号)는 닌토쿠(仁徳), 시절에 하타(波陀)라는 성을 하사 받았는데 지금 秦字의 발음이 되었다. <sup>38)</sup>

37) 此建内宿禰之子、并九。男七、女二。波多八代宿禰者、波多臣、林臣、波美臣、星川臣、淡海臣、長谷部君之祖也。

38) 万多親王「右第二十四卷 山城國諸藩 秦忌寸」『新撰姓氏錄』三卷, p.130.  
譽田天皇、諡応神、十四年來朝。上表して更に歸國し、百廿七縣伯姓を率て歸化す。并せて金銀玉帛種々宝物等を獻る。天皇之を嘉びたまふ。大和朝津間腋上の地を賜ひて居す。男眞徳王、次普洞王、古記に浦東君と云ふ。大鸕鷀天皇諡仁徳、御世に姓を賜て波陀と曰ふ。今、秦字の訓なり。

『新撰姓氏錄』는 천황의 칙명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각 씨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록 전부를 신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고대 씨족의 근간을 연구하는데 유력한 자료이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仁德天皇으로부터 하타(波陀)라는 성을 하사받아 이를 ‘秦’의 발음으로 하였다”고 하므로 이것이 발음의 단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同書 左京의 우즈마사 키미스쿠네(太秦公宿禰) 항목에서 발음의 유래가 나타나 있다.

닌토쿠 천황(仁德天皇) 시절에 127현의 秦氏를 각 군에 분산배치 하였다. 그래서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 바치었다. 천황이 이르기를, 秦王이 바치는 실과 솜, 비단을 짐이 사용해보니 따뜻하기가 피부(肌)와 같다하였다. 그런 까닭에 하타(波多)라는 성을 내렸다. 39)

‘秦氏가 바친 비단의 착용감이 피부와 같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波多라는 성을 하사하였다’는 유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사받은 ‘波多’는 언급한 바와 같이 建内宿禰의 장남인 ‘波多八代宿禰’와 동일한 氏이다. 建内宿禰는 景行天皇로부터 仁德天皇까지 약 350년간 6명의 천황을 보좌한 전설상의 인물로, 한반도를 정복했다는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아들 応神의 즉위를 도왔다. 神功皇后는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자손이며, 応神天皇는 八幡信仰의 主神으로 모셔져있다. 그리고 建内宿禰의 아홉 명 아들 중, 8번째인 가쓰라기 나가에소츠히코(葛城長江曾都毘古)-葛城襲津彦-는 『日本書紀』에 따르면, 神功皇后 시절에 경남 양산의 백성을 연행하여 葛城-현 奈良縣御所市-의 4개 마을에 살도록 하였으며, 応神天皇朝에서는 가야에 머물고 있었던 弓月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 葛城 朝妻間掖上에 거주시킨 인물로, 낙동강 유역 가야와 관련이 깊은 고대의 무인(武人)이

39) 앞의 책 註38, 「右第二十卷 左京 諸藩上 太秦公宿禰」, p.109.

仁德天皇御世に、百廿七縣秦氏を以て、諸に分置す。即ち養蚕織絹して之を貢しむ。天皇詔して曰はく、秦王獻ずる所の糸綿絹帛は、朕服用して柔軟にして、溫煖なるは肌膚の如し。仍ち姓、波多を賜ふ。

다. 따라서 ‘하타(波多)’를 둘러싼 여러 정황이 한반도 낙동강 유역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므로, 위의 『新撰姓氏錄』의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바친 비단이 피부와 같이 부드럽다 하여 仁德天皇이 하타(波多)라는 성을 하사하였다’는 인명 유래담은 설화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설화적인 유래담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까?

위에 예시한 『日本書紀』 雄略朝의 禹豆麻佐 설화와 『新撰姓氏錄』 應神朝의 山城國 諸蕃秦忌寸条의 波陀설화, 그리고 同書 仁德朝의 左京諸蕃上, 太秦公宿禰 波多설화의 내용을 전부 합친 내용이 平安時代 官人이었던 齋部廣成(齋部廣成)가 大同2年(807)에 편찬한 『古語拾遺』에 있다.

하쓰세노아사쿠라 시절(長谷朝倉朝)-현 奈良縣櫻井市黑崎로 추정. 雄略天皇시대-, 秦氏가 분산되어 다른 씨족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秦酒公가 천황을 위해 출사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천황은 흠어져 있는 秦氏를 불러 모아 酒公에게 하사하였다. 180부류의 스구리베(勝部)를 이끌어 견직물을 궁정에 가득하게 쌓았다. 이에 宇豆麻佐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실로 가득 쌓아 올림을 말한다. 바친 비단은 피부처럼 부드럽다. 따라서 秦라는 자(字)를 波陀라고 읽는다. 秦氏가 바친 비단을 제사 때 祭神의 칼머리에 두른다. 이 풍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秦氏와 직물(베를 짤)과의 인연을 말한다.<sup>40)</sup>

위 인용문의 중간부분까지는 『日本書紀』 雄略朝의 宇豆麻佐에 대한 유래, 후반부는 815년에 완성되는 『新撰姓氏錄』의 내용이다. 齋部廣成은 궁중 제사장의 자리를 놓고 나카토미씨(中臣氏)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였는데, 그의 지위로 보아 궁중 내의 사정이나 유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이 완성된

40) 塙保己一編(1893) 『古語拾遺』 『群書類從』 第拾七輯 經濟雜誌社, p.9

秦氏分散 寄隸他族 秦酒公進仕蒙寵 詔聚秦氏 賜於酒公 仍率領百八十種勝部 蠶織貢調充積庭中 因賜姓宇豆麻佐[言、隨積埋益也 所貢絹綿 軟於皮膚故訓秦字謂之波陀 仍以秦氏所貢絹 纏祭神劔首 今俗猶然 所謂秦機織之緣也。

해가 807년이고, 『新撰姓氏錄』이 815년 완성이므로 『新撰姓氏錄』 편찬자가 『古語拾遺』의 秦氏 관련 설화를 채택했거나, 秦氏 가문이 중국의 秦始皇과 연계 시키기 위해 스스로 이러한 설화내용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新撰姓氏錄』의 편찬목적이 자신의 가문이 중국이나 한반도의 왕족 출신임을 사칭하는 도래인이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함이라<sup>41)</sup> 하였으니, 秦氏는 『新撰姓氏錄』 편찬에 앞서 가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편찬시의 기준으로 ‘三例’라는 것이 있어 “出自, 同祖之後, 之後의 三例가 있어, 出自는 本宗의 씨로 古記와 本系帳에 모두 실려 있어 그 계보관계가 확실한 氏, 同祖之後는 古記와 本系帳 어느 쪽인가에는 기록이 보이는 氏, 之後는 古記에 누락되어 있지만, 선조에 관한 기록에는 오류가 없는 씨족으로, 단지 本枝關係가 분명하지 않는 씨를 의미한다”고 했으므로<sup>42)</sup>, 秦氏는 자신들을 秦始皇의 자손으로 주장하기 위해 명백한 역사적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姓氏의 詐稱문제는 이미 400년 전에도 발생하고 있었다. 『日本書紀』 允恭朝四年(415)九月九日条를 보면, “천황이 이르기를, 上古에는 나라가 안정되어 백성들은 소득을 얻고 姓氏에 틀림이 없었다. 지금 짐이 踐祚하여 4년이 흘렀는데, 상하가 서로 다투고 백성도 편하지 못하다. 잘못하여 자신의 성을 잃어버리는 백성도 있다. 혹은 고의적으로 고귀한 氏를 詐稱하는 자도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 출신지가 불분명한 도래인들의 姓氏 詐稱이 815년 『新撰姓氏錄』이 편찬되기 400년 전에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sup>43)</sup>

41) 앞의 책 註38, 「新撰姓氏錄序」 『新撰姓氏錄』一卷, p.6.

勝寶年中, 特有恩旨, 聽許諸蕃, 任願賜之。遂使前姓後姓, 文字斯同, 蕃俗和俗氏族相疑。萬方庶民陳高貴之枝葉, 三韓蕃賓, 稱日本之神胤。時移人易 (孝謙天皇 9년, 천황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 도래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성을 하사했으나, 결국에는 전에 사용하던 성과 후에 사용하는 성의 문자가 같아지며 도래인 씨족과 일본인 씨족이 서로 의심하게 되었다. 모든 서민들이 고귀한 자손임을 얘기하고, 삼한의 도래인들이 일본의 신의 자손임을 칭한다)

42) 서보경(2012)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p.44

43) 四年秋九月辛巳朔己丑、詔曰上古之治、人民得所、姓名勿錯。今朕踐祚於茲四年矣、上下相爭、百姓不安、或誤失己姓、或故認高氏。其不至於治者蓋由是也、朕雖不賢、

이상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秦」의 발음은 주로 직물과 관련된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설도 존재한다. 江戸시대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古事記傳』에서,

따듯한 피부라고 운운하며, 古語拾遺에서도 비단이 피부처럼 부드럽다하여 秦의 자를 하타(波陀)라고 읽는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뜻이라면 따뜻함이나 부드러운 의미를 가진 자를 이름으로 해야지 피부의 하다(肌)를 이름으로 할 것은 아니다. 아라이씨(新井氏)<sup>44)</sup>도 이 논리를 지지하는데, 波陀는 한국어이다.<sup>45)</sup>

本居宣長の 반론과 동일한 논조를 보이는 세키 아키라(關晃)도 『歸化人』에서 “우즈마사 설화만 제외하면 秦氏가 직물기술이 뛰어난 씨족이라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sup>46)</sup>라고 언급, 秦氏의 직물과 관련된 종래의 ‘식산(殖産) 씨족설’을 부정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는 秦氏의 고대 기록을 검토해 보면, 서기 700년대에 이미 전국적 거주 분포를 보이는 거대 씨족 집단이었다. 위와 같은 설화에 의해 秦氏를 양잠, 베짜기, 저수지, 제방 건설 등의 노동 생산적 씨족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秦’의 발음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1988년 1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농토작업 중 ‘蔚珍鳳坪新羅碑’가 발견되었다. 이 비는 신라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문 중에 ‘하단(波旦)’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어 이 문자가 ‘秦’의 발음인 ‘波陀’의 근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蔚珍鳳坪新羅碑의 波但이라는 문자가 波陀·波多의 근거

豈非正其錯乎、群臣議定奏之。

44) 江戸時代中期의 旗本・政治家・朱子學者인 新井白石을 말한다.

45) 本居宣長 『古事記傳』 44卷 [33], pp.37-38.

さて溫煖肌膚云々と所貢古語拾遺にも絹綿軟於肌膚。故秦字謂之波陀とあれど、若これらの義ならば溫或は軟の言を取てこそ名くべけれ。肌と云言を取べき由なし。新井氏も此說を信づて、波陀は韓國の語なり。

46) 關晃(2009) 『歸化人』 講談社學術文庫, pp.112-113.

47) 居伐牟羅尼牟利一伐弥宜智波旦組只斯利一智阿大兮村使人奈尔利杖六十葛尸條村使人奈尔利居尺男彌只村使人異杖百於即斤利杖百悉。

가 된다고 하면, 이 주장은 秦氏의 출신지를 추정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신라비의 근거를 받아들인다면 秦氏의 출신지는 동해 울진이 된다.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日本書紀』 應神十六年条에서 秦氏의 선조로 지명되어 있는 弓月君가 가야국에 머물러 있다가 도래하였다는 기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해안인 울진으로부터 해류를 따라 항해를 하면, 리만해류와 쓰시마해류에 의해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즈모(出雲)에 도착한 후, 敦賀-현 福井縣-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 출신의 秦氏에게는 울진을 고향으로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大和岩雄는 “바다를 건너 대집단으로 도래한 가야(혹은 가라)계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왔다는 의미의 pada와 많다는 의미의 hata를 중첩하여 하타(ハタ)라고 말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한국어의 바다(bada)를 ‘波陀’의 유래로 언급하고 있다.<sup>48)</sup>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井上滿郎는 “분명히 조선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바다가 있지만, 그렇다면 도래인 전부가 같은 조건에 있다. 바다를 씨족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든 도래인에 공통하는 것이 되어 어떤 씨족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가 없으므로 찬성할 수 없다”고<sup>49)</sup> 했다. 秦氏만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며 아야히토(漢人)의 경우도 경남 함안의 ‘아라’로부터 도래하였으므로, 秦氏만 바다와 관련하여 ‘하타’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秦氏에 대한 발음과 문자의 유래는, 애초에 ‘하타’라고 발음되는 다른 문자, 예를 들면 ‘波多’나 ‘波陀’ 같은 문자가 있었고, 후세에 중국 진나라를 의식한 ‘秦’자로 바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8) 앞의 책 註21 『秦氏の研究』 p.41.

49) 井上滿郎(1999) 『古代の日本と渡來人』 明石書店, pp.108-109.

## 2. 秦氏의 출신지

『日本書紀』에서 秦氏의 출신지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곳은 應神十四年(283)条이다.

이 해에 弓月君가 백제로부터 돌아와 이뢰기를, 120현(縣)의 백성을 이끌고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했으나, 신라인이 이를 방해하므로 모두 가야에 머물고 있다하였다. 그래서 가쓰라기 소쓰히코(葛城襲津彦)를 가야에 보내어 弓月君의 백성을 불러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葛城襲津彦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sup>50)</sup>

同書 十六年(285)八月条에 應神天皇은 쓰쿠노스쿠네(木菟宿禰) 등의 장수를 신라에 보내어 葛城襲津彦과 弓月君의 백성이 함께 일본으로 돌아오게 하였다.<sup>51)</sup> 이 기록을 바탕으로 秦氏의 출신지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먼저 弓月君가 秦氏의 선조임을 나타내는 기록은 『日本書紀』의 완성으로부터 115년 후(815년)에 편찬된 『新撰姓氏錄』山城國諸蕃 漢 秦忌寸, 그리고 左京 漢 太秦公宿祢(우즈마사키미스쿠네)이다.<sup>52)</sup>

秦忌寸은 우즈마사키미노스쿠네(太秦公宿禰)와 같이 秦始皇帝의 자손이다.

秦公宿祢는 진시황제 3세손 孝武王의 자손이다. 그의 후손인 功滿王이 仲哀天皇 8년에 來朝하였고, 아들 融通王, 일명 弓月王가 호무다 천황(譽田天皇)- 應神天皇- 16년에 127縣의 백성을 이끌고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50) 是歲。弓月君自百濟來歸。因以奏之曰。臣領己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然因新羅人之拒。皆留加羅國爰遣葛城襲津彦。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然經三年而襲津彦不來焉。

51) 襲津彦久之不還。必由新羅人拒而滯之。汝等急往之擊新羅披其道路。於是木菟宿禰等進精兵莅于新羅之境。新羅王愕之服其罪。乃率弓月之人夫。與襲津彦共來焉。

52) 앞의 책 註38, 秦忌寸, p.130.

太秦公宿祢同祖秦始皇帝之後也。

앞의 책 註38, 左京諸蕃 太秦公宿祢, p.128.

左京 諸蕃 漢 太秦公宿祢 出自秦始皇帝三世孫孝武王也 男功滿王。帶仲彦天皇[諡仲哀] 八年來朝。男融通王[一云弓月王]譽田天皇[諡應神]十四年。來率廿七縣百姓歸化金銀玉帛等物。大鷦鷯天皇[諡仁德]御世。以百廿七縣秦氏。分置諸郡。

위 인용문에 따르면 秦氏는 弓月君의 자손이며, 弓月君의 조상은 秦始皇이다. 그러나 720년에 완성된 『日本書紀』에는 秦氏와 弓月君, 秦始皇과의 혈연관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로부터 약 100년이 흘러 815년에 편찬된 『新撰姓氏錄』에 비로소 이들의 혈연관계가 언급되었다. 그런데 史書인 六國史에서 최초로 언급한 때는 『三代實錄』 貞觀五年(863)九月五日條로, “山城國 하타 이미키순푸(秦忌寸春風)와 하타 이미키모로나가(秦忌寸諸長) 등 3명에게 도키하라 스쿠네(時原宿祢)의 성을 하사하였는데 이들은 秦始皇의 후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53)</sup> 즉 『日本書紀』 283년 弓月君의 기사로부터 『三代實錄』 863년 時原宿祢까지 六國史에는 秦氏와 秦始皇 사이의 혈연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815년 『新撰姓氏錄』에서 혈연관계를 언급하기 이전까지는 秦氏와 弓月君, 秦始皇 사이의 혈연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新撰姓氏錄』의 서문(抄)<sup>54)</sup>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성씨를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한반도 제국(諸國)의 왕이나 중국황제의 후예라고 칭하기도 하였다”<sup>55)</sup>고 하니,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秦始皇과의 혈연관계는 800년대 초반 경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新撰姓氏錄』이 편찬되었을 무렵, 秦氏의 경제력은 막강하였다. 『續日本紀』 天平十四年(742) 쇼무텐노(聖武天皇)의 구니쿄(恭仁京)-木津川市-건설, 延暦三年(784) 칸무텐노(桓武天皇)의 나가오카쿄(長岡京)-長岡京市-축성, 그리고 794년 헤이안쿄(平安京) 궁궐 건설에 秦氏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700년대에는 秦氏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본 어디에서도 秦氏의 주거가 확인될 만큼 거대씨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桓武天皇은 각 씨족의 근원을 바로 잡는다하여 799년 12월 29일 삼한(三韓)의 도래인을 포함한 전국의 씨족은 선조의 근원을 밝힌 ‘혼케이조(本系帳)’를 조정에 제출하도록 하였다.<sup>56)</sup>

53) 山城國葛野郡人圖書大允從六位上秦忌寸春風。但馬少目正八位上秦忌寸諸長等三人。賜姓時原宿祢。其先。秦始皇之後也。

54) 앞의 책 註41.

55) 앞의 논문 註42, p.51.

56) 『日本後紀』 延暦十八年(799)十二月廿九条.

秦氏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秦氏 일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조정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日本書紀』의 応神十四年(283)条에서 弓月君이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돌아와 아뢰기를, “자신의 백성이 일본으로 귀화하려 했으나 신라가 방해하여 가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3년 후 木菟宿禰, 葛城襲津彦, 弓月君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 한다. 이 기록에 백제, 신라, 가야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기사가 秦氏의 출신지를 추정하는데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 이 기록에 따라 秦氏의 출신지를 3개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백제인 설인데, 이의 문헌적 근거는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옛날에 秦나라 사람들이 사역을 피해 한국에 망명해 왔으며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나누어 주었다” 라는 『三國志』 「魏書東夷傳」의 기술일 것이다. 마한을 이어받은 것이 백제이고, 마한의 동쪽이 진한이므로 秦氏의 출신지는 백제라고 하는 설이다. 두 번째는 가야인 설이다. 弓月가 말하기를, “신라가 방해하여 가야에 머물고 있다” 하였는데, 그렇게 머물렀던 기간이 약 700년이다. 井上滿郎는 “秦나라가 멸망한 때가 기원전 207년이므로 일본에 도래하기까지 약 700년 가까이 가야에 살았으므로, 秦氏가 秦왕조의 자손으로 중국인이라는 설을 지지하지 않는다”<sup>57)</sup>고 했다. 세 번째로 신라인설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나타났다.

1938년 경성에서 독학으로 지명을 연구하던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雜攷·第二輯』<sup>58)</sup>에서 『三國史記』 「地理誌」의 기록을 언급하였다.

울진군은 본래는 고구려의 于珍也縣인데 경덕왕 때 개명하여 현재까지 따른다. 속해있는 현은 하나인데, 海曲으로 西縣이라고도 쓴다. 원래는 고구려의 하차현(波且縣)으로 경덕왕 때 개명하였으나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른다.<sup>59)</sup>

---

勅天下臣民。氏族已衆。或源同流別。或宗異姓同。欲據譜牒。多經改易。

至檢籍帳。難辨本枝。宜布告天下。令進本系帳。三韓諸蕃亦同。

57) 앞의 책 註49, p. 107.

58) 鮎貝房之進(1938) 『雜攷·第二輯』下卷. (大和岩雄 『秦氏の研究』 참조)

同書 고구려 편을 보면 164개의 州郡縣 중의 ‘何瑟羅州’-현 강원도 강릉시-내에 波且縣이 소속 되어 있다.<sup>60)</sup> 鮎貝房之進은 위 기록들을 바탕으로 秦氏를 ‘波且縣’ 출신이라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50년 후인 1988년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蔚珍鳳坪新羅碑’가 발견되어 秦氏의 출신지를 울진으로 추정하는데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비문을 보면,

거벌모라(居伐牟羅)의 니모리일벌(尼牟利一伐)과 미선지하단(弥宜智波旦), 조척사리일궤지(組只斯利一궤智), 아대혜 마을(阿大兮村)의 일꾼 나이리(奈尔利)는 (형벌로써) 곤장 60대, 조시조 마을의 일꾼 나이리 이거궤척남(奈尔利居궤尺男)과 남미척 마을(男彌只村)의 일꾼 이궤(異궤)은 곤장 백 대, 어즉척리(於卽斤利)도 장백 대에 처한다.<sup>61)</sup>

이 비에는 고구려에 속해 있던 거벌모라(居伐牟羅)-경북 울진군-가 신라의 영토로 된 것에 항거, 백성들이 불을 질렀고, 신라의 중앙관료들이 파견 나와 주모자들에게 각각 60대, 혹은 100대의 태형에 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문 내용 중의 ‘미선지하단(弥宜智波旦)’이라는 인명 속에 ‘하단(波旦)’의 문자가 秦자의 발음과 비슷하며, 이 사람들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간 秦氏이다’는 주장으로, 秦氏의 출신지를 파악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연민수는 “5세기 후반 울진의 優由國의 지배세력의 일파는 동해를 건너 일본열도로 이주하였으며 秦氏를 ‘하다’라고 부르는 기원은 신라 봉평비의 ‘波且’와 연결되어 있고, 京都 太秦의 훈인 ‘우즈마사’도 울진의 옛 지명

59) 金富軾(2011) 卷三十五 雜誌第四 地理二·蔚珍郡 『三國史記』 한길사, p.383.

60) 앞의 책 註59 卷三十七 雜誌第六·何瑟羅州, p.395.

何瑟羅州 一云河西良, 一云河西. 乃買縣, 東吐縣, 支山縣, 穴山縣, 遼城郡 一云加阿忽. 僧山縣 一云所勿達. 翼峴縣 一云伊文縣. 達忽. 猪遼穴縣 一云烏斯押. 平珍峴縣 一云平珍波衣, 道 臨縣 一云助乙浦. 休壤郡 一云金惱. 習比谷 一作吞. 吐上, 岐淵縣, 鵠浦縣 一云古衣浦, 竹峴縣 一云柰生於. 滿若縣 一云滿., 波利縣, 于珍也郡, 波且縣 一云波豐. 也尸忽郡, 助攬郡 一云才. 攬青已縣, 屈火縣, 伊火芴縣, 于尸郡, 阿兮縣, 悉直郡 一云史直., 羽谷縣. 右高勾麗州郡縣, 共一百六十四. 其新羅改名及今名, 見新羅志.”

61) 居伐牟羅尼牟利一伐弥宜智波旦組只斯利一궤智阿大兮村使人奈尔利杖六十葛尸條村使人奈尔利居궤尺男彌只村使人異궤杖百於卽斤利杖百悉。

인 우유촌, 우유국과 언어학상으로 유사하며 지명의 기원으로 추정된다”<sup>62)</sup>하여, 秦氏의 고향을 경북 울진으로 추정하고 있다.

『新撰姓氏錄』에서 仁德天皇은 귀화한 秦氏들을 大和朝津間腋上に 살게 하였는데, 만약 秦氏의 고향이 울진이라면, 葛城襲津彦는 그들을 어떤 경로로 奈良御所の 朝津間腋上까지 이끌고 왔을까? 울진에서 출발하여 朝津間腋上に 도착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울진에서 동해 루트인 敦賀로 가는 경로, 둘째는 나니와(難波)-大阪-로 상륙하는 경로인데, 전자의 경우, 고대 항해술은 지형을 이용하여 항해했을 것이므로, 울진에서 위도가 같고 익숙한 울릉도나 독도를 향해 가다가 다시 오키섬(隱岐島)을 목표로 하여 항해하다 이즈모(出雲)나 나가토(長門)에 기항한 다음, 쓰시마해류를 따라 동해를 북상하여 敦賀에 상륙한다. 이후는 敦賀→비와코(琵琶湖)→우지가와(宇治川)→기즈가와(木津川)→葛城의 경로로 朝津間腋上に 도착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후자는 울진을 떠나 리만해류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대마도까지 내려가 기타큐슈(北九州) 방면에서 세토나िका이(瀬戸内海)로 진입하여 나니와(難波)에 도착한 다음, 요도가와(淀川)→기즈가와(木津川)→葛城→朝津間腋上の 경로를 밟았을 것이다. 첫 번째의 항로는 출발지는 동해안이 아닌 남해안이긴 하나, 『日本書紀』垂仁朝의 대가야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가 아나토(穴戸:長門)→出雲→敦賀의 경로를 밟고 있다. 또한 노성환은 영일만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연오랑과 세오녀」<sup>63)</sup>의 정착지를 出雲로 추정하고 있으므로<sup>64)</sup>, 대체적으로 동해안을 출발하면 첫 번째의 항로를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번째 항로는 출발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垂仁朝때 신라왕자 天日槍가 택한 경로와 유사하다. 天日槍는 하리마노쿠니 시소(播磨國 宍粟)-현 兵庫縣宍粟市

62) 앞의 논문 註26.

63) 『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一 「延鳥郎 細鳥女」.

64) 노성환(2012) 「일본 현지설화를 통해서 본 연오랑과 세오녀의 정착지」 『일어일문학』

56 대한일어일문학회, p.329.

→宇治川→琵琶湖 주변마을→와카사노쿠니(若狹國)-현 福井縣→다지마노쿠니(但馬國)-현 兵庫縣북부-의 경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北九州→瀬戸内海를 경유하는 항로는 거리상으로 보아 주로 한반도의 남해안(부산, 김해, 거제, 고령 등)에서 출발한 도래인이 택하는 경로로, 秦氏가 영일만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한 울진에서 출발하여 北九州까지 남하하여 瀬戸内海로 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秦氏가 울진에서 출발하여 敦賀에 상륙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실 敦賀와 琵琶湖 주변은 예부터 한반도 동해안 출신의 도래인이 많아 ‘도래인의 나라’ 라고 불렸으며, 近江國-현 滋賀縣-의 에치군(愛知郡)은 ‘秦氏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秦氏가 많이 거주하였다. 石原進·丸山龍平은 正倉院文書, 東大寺文書, 續日本紀, 新撰姓氏錄 등의 현존기록에 보이는 고대 近江의 한반도 출신의 명단을 분석하였는데, 총 343명 중 60%인 205명이 秦氏이며, 그 중에 에치하타씨(依智秦氏)가 180명에 이를 만큼 愛知郡은 秦氏의 집단주거지였다.<sup>65)</sup> 그러나 愛知郡 依智秦氏의 선조가 울진을 출발하여 朝津間腋上에 정착한 秦氏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朝津間腋上에 분치된 秦氏는 ‘마요와 오(眉輪王)’의 변에 의해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걸쳐 京都방면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는데, 여기서 山城秦氏의 일부가 近江지방으로 떠난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울진에서 동해를 건너 敦賀에 상륙한 秦氏가 近江를 거쳐 葛城의 朝津間腋上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 6세기에 역방향인 京都로 떠났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大橋信弥는 “愛知郡의 依智秦氏는 원래 山城에 본거지를 둔 秦氏 본 종가의 일족으로, 사이메이조(齊明朝)-655년 즉위-보다 훨씬 이전에 신천지를 찾아 近江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하고 보고 있다.<sup>66)</sup> 따라서 신라의 방해를 받아 가야에 머물고 있던 弓月君의 백성은 葛城襲津彦와 함께 가야를 출발하여 거제도→쓰시마→北九州→瀬戸内海 항로를 선택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출발지인 가야

65) 石原進·丸山龍平(1984) 『古代近江の朝鮮』 新人物往來社, pp.222-231.

66) 大橋信弥(2004) 『古代 豪族と渡來人』 吉川弘文館, pp.257-259.

가 秦氏의 출신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부산으로부터 일직선으로 180여 km떨어져 있는 무나가타(宗像)-현 福岡縣宗像市-의 가네자키(鐘崎)는 한반도 남부지방을 출발하여 현해탄을 건너 北九州에 상륙하기 위한 주요 지점이었는데, 이 현해탄의 항로를 지키는 무나가타 세여신(宗像三女神)은 『日本書紀』에서 북쪽 해로(北の海路)를 지키는 수호신(道主貴)으로 기술되어 있다.<sup>67)</sup> 그런데 宗像三女神 중의 한 여신인 이치기시마노히메(市杵嶋姬)가 秦氏가 창건한 京都 마쓰오타이사(松尾大社)의 제신으로 모셔져 있다. 秦氏와 관련이 있는 여신이 동해안이 아닌 현해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것은 秦氏의 출신지를 추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秦氏의 출신지가 가야라고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欽明朝元年(540)八月条에 “하타히토(秦人), 아야히토(漢人)의 귀화인을 각 지방에 배치하면서 호적을 만들었는데, 秦人의 호수가 7,053호이다”<sup>68)</sup>라고 해서 약 176,000명에 이른다하였다. 더구나 秦氏는 秦, 스구리(勝), 秦人, 하타히토베(秦人部), 하타베(秦人部)의 5부류가 있었다하므로<sup>69)</sup>, 만약 이 기록이 秦人 7,053호라는 의미였다면 당시 秦氏 일족 전체 인구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당시의 운반수단을 고려할 때 수만 명의 秦氏가 한꺼번에 특정지역에서 일본으로 도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秦氏의 고향이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 일본열도로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7) 『日本書紀』 神代上,

即以日神所生三女神者。使隆居于葦原中國之宇佐嶋矣。今在海北道中。號曰道主貴。

68) 인구 계산의 근거는 앞의 註6, 註7 참조.

召集秦人。漢人等諸蕃投化者。安置國郡。編貫戶籍。秦人戶數惣七千五十三戶。

69) 加藤謙吉(2000)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pp.81-89. 94-96.

秦氏는 본가의 유력집단이며, 스구리(勝)는 귀화씨족으로 秦氏의 일족이거나 같은 생활범위에 있는 사람으로 秦氏 지배집단의 관리인, 秦人는 도래인으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 秦人部, 秦部는 일본 현지의 농민으로 秦氏에 합류한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秦氏-勝-秦人의 통솔체계가 있었다 한다.

## 제2장. 고대 하타씨(秦氏)의 거주지에 관한 연구

### 1. 머리말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秦氏는 흔히 殖産的 씨족이라 불리며, 양잠·배 짜기·양조(釀造) 등의 노동 생산적 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초기 秦氏의 활동이 제방 및 저수지 공사, 혹은 광산지역에 자주 보여 이런 인식이 생겼을 것이다. 따라서 종래 秦氏에 관한 연구는 다른 고대 유력씨족인 가쓰라기씨(葛城氏)·모노노베씨(物部氏)·소가씨(蘇我氏)·후지와라씨(藤原氏)에 비해 비정치적이며 생산 활동에 주력한 씨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대 秦氏의 거대한 조직에 대해서도 의제적(擬製的) 거대 씨족집단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경제 및 종교에 걸쳐 현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 씨족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가졌던 秦氏에 관하여, 먼저 고대의 씨족 거주지 분포와 역할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씨족집단으로서의 규모와 실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 속에 고대의 秦氏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을 살펴본다. 검토대상의 문헌은 사서기록과 고대 호적 및 나라시대 목간, 가계(家系)사전으로 하며, 대상 범위는 秦氏의 43개 동족-己智部氏·日佐氏·秦冠氏·大里氏·高尾氏 등-도 포함한다. 해당 인물의 출신지와 연도가 명기된 인명을 추출하며, 도래 기사가 보이는 『日本書紀』로부터 가마쿠라(鎌倉) 시대 이전까지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sup>70)</sup> 현존하는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大和朝廷) 시대까지는 문서로 작성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sup>71)</sup>, 720년에 완성된 『日本書紀』를 최초의 역사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토대상 문헌은 서

70) 일본 고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鎌倉幕府 창설(1185년) 이전까지로 한다.

71) 久武綾子(1991) 「古代の戸籍」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芸術・保健体育・家政・技術科學』 第40輯 愛知教育大學, p.144.

적은 『日本書紀』를 호시로 헤이안(平安) 시대까지 조정에서 엮었다는 六國史<sup>72)</sup>—『日本書紀』·『續日本紀』·『日本後記』·『續日本後記』·『日本文德天皇實錄』·『日本三代實錄』, 700년대 초중반에 완성된 각 지방 『風土記』<sup>73)</sup>, 고대로부터 이어진 씨족의 근원을 수록한 『新撰姓氏錄』<sup>74)</sup>등으로 하며, 『姓氏家系大辭典』<sup>75)</sup> 등의 사전류도 참조한다.

秦氏에 관한 기록으로서 일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호적(戶籍)이 있다. 『日本書紀』欽明朝元年(540)八月條에 귀화해온 秦氏 등을 각 지방에 분산배치하고 호적에 기입하였다는 기사가 보이지만, 문제의 호적기록은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大化二年(702)부터 작성된 秦氏의 호적 일부가 『正倉院文書』중에 남아있고, 682년부터 798년 사이의 나라(奈良)시대의 목간도 전해지고 있어서 본 장의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 2. 선행연구와 문제의 제기

### 2.1. 선행연구

秦氏의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연구서로는 우선 栗田寬의 『新撰姓氏錄考証』<sup>76)</sup>를 들 수 있다. 『新撰姓氏錄』의 내용에 따라 각 씨족의 조상과 출신지를 자세하게 나열하였고, 栗田寬이 사망 직전까지 관여한 『大日本史 志』<sup>77)</sup> 역시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서로는 秦氏 일족의 집단거주지를 군별(郡別)

72) 앞의 註35 참조.

73) 성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續日本紀』和銅6年(713)5月2日條에 『風土記』의 작성 제출을 命하는 기록이 있다.

74) 塙保己一編(1898)『新撰姓氏錄』『群書類從』第十六輯 經濟雜誌社, p.131.  
815년 嵯峨天皇의 명으로 편찬된 것으로, 皇別 神別 蕃別이라는 세가지로 분류하여 편집하였으며, 左京, 右京, 大和, 山城, 河内, 和泉, 攝津에 거주하는 1,182 씨족의 근원을 밝힌 고대의 족보. (國會圖書館デジタル)

75) 太田亮(1942)『姓氏家系大辭典』國民社.

76) 栗田寬(1900)『新撰姓氏錄考証』吉川弘文館.

77) 源光圀 編(1907)『第128-130 志』『大日本史』徳川總子.

로 분류하여, 秦氏의 동족인 勝의 지역분포를 열거한 加藤謙吉의 『秦氏とその民』<sup>78)</sup>가 있다. 近江國 내의 고분과 유적을 통해 고대 近江秦氏의 생활환경을 알 수 있는 石原進·丸山龍平의 『古代近江の朝鮮』<sup>79)</sup>, ‘秦王國’이라 불렀던 나카쓰군(仲津郡)-福岡縣行橋市-, 미게군(三毛郡)-福岡縣豊前市 및 大分縣中津市 일부-의 秦氏를 자세하게 기술한 大和岩雄의 『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sup>80)</sup>, 가쓰라기(葛城)·야마시로(山城)에서의 秦氏 활동을 조명한 中村修也의 『秦氏とカモ氏』<sup>81)</sup>, 그리고 『日本書紀』와 『新撰姓氏錄』의 연대순에 따라 고대 秦氏의 활동지역을 기술한 水谷千秋의 『謎のと渡來人秦氏』<sup>82)</sup>가 있다. 연구논문으로 秦氏 동족 고치씨(巨智氏)에 대해 언급한 平野邦雄의 「秦氏の研究」<sup>83)</sup>, 山城 지역의 巨大古墳의 출현과 秦氏의 활동을 기술한 飛野博文의 「古墳からみた5・6世紀の山城地方」<sup>84)</sup>, 河内지역의 신사(神社)와 秦氏의 관련성을 언급한 築山治三朗의 「河内における古代聚落と歸化人」<sup>85)</sup>, 부젠(豊前)-현 北九州, 大分 일부-, 다가와 카와라타케(田川香春岳)의 철광산 지역에서의 秦氏의 활동을 기술한 井上孝夫의 「古代採鋇民族の構成-長門周防豊前を中心に」<sup>86)</sup>등이 있어 고대 秦氏의 지방거주와 활동상황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秦氏의 거주지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으로는 深草·葛野秦氏의 전반적 활동을 기술한 연민수의 「하타씨의 도래전승과 후예씨족의 활동」<sup>87)</sup>이 있다.

78) 加藤謙吉(2000)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79) 石原進·丸山龍平(1984) 『古代近江の朝鮮』 新人物往來社.

80) 大和岩雄(1993) 『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 白水社.

81) 中村修也(2004) 『秦氏とカモ氏』 臨川書店.

82) 水谷千秋(2009) 『謎のと渡來人秦氏』 文芸春秋.

83)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一) 『史學雜誌』 第七十輯 史學會.

84) 飛野博文(1984) 「古墳からみた5・6世紀の山城地方」 『京都大學構内遺跡調査研究年報』 京都大學.

85) 築山治三朗(1954) 「河内における古代聚落と歸化人」 『西京大學學術報告 人文』 4卷 西京大學.

86) 井上孝夫(1992) 「古代採鋇民族の構成-長門周防豊前を中心に」 『下關市立大學論集』 36 下關市立大學學會.

87) 연민수(2017) 「秦氏의 도래전승과 후예씨족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 관계사회.

## 2.2. 문제 제기

가장 오래된 정사(正史) 기록인 『日本書紀』 仁德十一年(323)十月条를 보면 나니와호리에(難波堀江)-현 大阪市大川 부근-수로공사와 근처의 만다제방(茨田堤)-현 大阪市寝屋川市-공사의 기록이 있고, 『古事記』 仁德朝에는 이 공사들에 秦氏가 동원되었다 한다. 雄略朝十五年条(471)에는 秦氏씨가 조정에 비단을 바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하여 천황이 우즈마사(太秦)-京都市太秦-라는 성(姓)을 하사했다고 한다. 또한 同書十六年条에는 전국의 ‘國縣’에 누예를 보급, 이를 秦氏가 관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초기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흔히들 秦氏의 씨족적 특성을 殖産的 씨족으로 규정한다. 즉 직물이나 건설 노동 활동에 종사하던 씨족으로 보게 되었으며, 秦氏의 씨족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다. 平野邦雄는 “일반적으로 秦氏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 토호적 성격을 견지하여 씨족의 공동체적 조직을 온존하고, 고유의 기술을 동일 씨족 내에 잘 전달하여 확대한 殖産的 씨족”<sup>88)</sup>이라 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日本書紀』 欽明朝元年(540)八月条에 秦氏 전체 인구가 약 17만 명<sup>89)</sup>에 이른다 하였는데, 이러한 거대집단에 대해 加藤謙吉는 “조정에 공물을 납부하고 왕권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지에 도래인 세력을 규합하여 성립한 擬製的 거대 씨족집단”<sup>90)</sup>이라 하였다. 中村修也는 “秦氏가 중앙의 유력호족이 아닌, 중앙에서는 하급의 씨족이었고, 지방에서는 재지적(在地的) 성격이 강한 씨족 이었다”<sup>91)</sup>고 하며, 水谷千秋는 “(秦氏의) 비정치성, 정치의 전면에는 중립성을 지키며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sup>92)</sup>고 정의하였다.

앞서 인용했던 加藤謙吉는 秦氏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擬製的 거대 씨족집

88)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 (二) 『史學雜誌』 第七十輯, 史學會, pp.61-62.

89) 앞의 註6 참조.

90) 加藤謙吉(2002) 『大和の豪族と渡來人』 吉川弘文館百水社, p.31.

91) 앞의 책 註81, p.86

92) 앞의 책 註82, p.222.

단이라 규정한다. 비록 欽明朝부터 중앙집권제가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서기 540년의 후기 고분시대에 약 17만 명의 도래인을 擬製의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중앙정부가 강력했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600년대 秦氏의 거주 기록은 이미 大和·山城·近江·播磨·若狹·越中·備前國에 나타나고, 700년대에는 일본 전국 어디에도 秦氏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것은 700년대에 이미 전국적 규모의 거대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日本書紀』의 기록을 보는 한, 秦氏가 殖産的, 지방적, 하급의 씨족만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雄略朝十二年(468)十月十日条를 보면 천황의 시중을 들던 궁녀가 음식을 쏟아 천황이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타노사케키미(秦酒公)가 간언해 살아났다는 기록<sup>93)</sup>이 있고, 欽明朝 도입부(538)에 황태자 시절 꿈에 나타난 사람을 즉위한 후에 찾아보니 山城國紀伊郡 深草里-현 京都市伏見區深草-에 사는 하타 오쓰치(秦大津父)로 천황의 최측근으로 삼았다.<sup>94)</sup> 또한 推古朝十一年(603)十一月条에는 하타 카와카쓰(秦河勝)가 신라불상을 성덕태자(聖德太子)로부터 물려받아 京都 하치노오카데라(蜂岡寺)-현 廣隆寺-를 창건하였다.<sup>95)</sup> 聖德太子는 고모 推古天皇로부터 황태자로 지명받은 후 사망하여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권력의 정상에 있었고, 그 측근이 秦河勝였다. 따라서 秦氏 일족은 일본 고대 조정에 이미 권력의 중심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70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 秦氏는 궁궐조성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하치만 신사(八幡神社)-본궁은 大分縣宇佐八幡宮-와 이나리 신사(稻荷神社)-본궁은 京都市伏見區深草-를 창건했는데, 두 신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사

93) 時有伊勢采女。仰觀樓上。怪彼疾行。顛仆於庭。覆所擎饌。饌者。御膳之物也。天皇便疑御田奸其采女。自念將刑而付物部。時秦酒公侍坐。欲以琴聲使悟於天皇(略)。於是天皇悟琴聲。而赦其罪。

94) 天皇幼時夢。有人云。天皇寵愛秦大津父者。及壯大。必有天下。寤驚遣使普求。得自山背國紀伊郡深草里(略)天皇曰。必此報也。乃令近侍。優寵日新。大致饒富。及至踐祚。拜大藏省

95) 皇太子謂諸大夫曰。我有尊佛像。誰得是像。以恭拜。時秦造河勝進曰。臣拜之。便受佛像。因以造蜂岡寺。

를 가지고 있다.<sup>96)</sup>

秦氏는 고대의 최대 씨족이었으며<sup>97)</sup> 秦氏로부터 뻗어나간 가문은 「姓氏類別大觀」에 따르면 알려진 성씨만으로 약 43개 씨족<sup>98)</sup>에 이르고, 加藤謙吉는 고대 秦氏 집성촌은 32개 현의 81개 군<sup>99)</sup>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秦氏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역사적 사실과는 괴리가 있고,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96) 東洋經濟オンライン編集部(2016)「日本に多い神社仏閣名トップ500」東洋經濟オンライン版: 1위 八幡神社(4,809사), 2위 稻荷神社(2,652사). (<https://toyokeizai.net/articles/-/110031>).

97) 앞의 책 註81, p.86.

98) 「姓氏類別大觀」、[http://www.myj7000.jp-biz.net/clan/fclan\\_index.htm](http://www.myj7000.jp-biz.net/clan/fclan_index.htm).  
國背穴人氏·己智部氏·日佐氏·櫻田氏·三林氏·秦冠氏·大里氏·高尾氏·寺氏·彈氏·太秦氏·朴市秦氏·朝原氏·時原氏·物集氏·大藏秦氏·秦井手氏·秦子氏·香登氏·高橋(高椅)氏·井手氏·川辺氏·達布氏·小宅氏·前氏·常氏·山村許智氏·山村氏·奈良許知氏·大瀧氏·岩城氏·奈良譯語氏·長岡氏·市村氏·井村氏·宮崎氏·宮島氏·徳田氏·小川氏·田宮氏·中村氏·水取氏 등은 ‘하타씨’로부터 분파된 일족들이다.

99) 앞의 책 註78, p.25.

### 3. 秦씨의 고대 거주지 분포

『日本書紀』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기록으로 垂仁朝二年(기원전 28)二月条의 대가야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 그리고 垂仁朝三年三月条의 天日槍가 있다. 그러나 垂仁朝에 대한 정확한 시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있으므로, 설화의 수준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도래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다. 유사 이래 秦氏의 대규모 집단주거지로 가장 일찍 나타나는 곳은 大和高所(御所)-御所市-이므로 大和國부터 검토한다. 그리고 700년대에는 秦氏의 주거 기록이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 大和國, 山城國, 河內國, 攝津國, 近江國, 播磨國, 豊前國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 3.1. 大和國

『日本書紀』 286년 葛城襲津彦는 弓月君의 백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 도래한 127현의 백성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 大和國 아사즈마노와키가미(朝妻間掖上)-御所市朝妻·掖上-였다.<sup>100)</sup>

가쓰조군(葛上郡)은 낙동강 유역 출신의 도래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日本書紀』 神功皇后五年(206)春三月条를 보면, 葛城襲津彦가 부산 다대포에 정박한 다음,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양산의 백성들을 연행하여 葛上郡 구와바라(桑原)-御所市池之内- · 사비(佐糜)-御所市東佐味·西佐味- · 다카미야(高宮)-御所市鴨神·伏見·高天-오시누미(忍海)-葛城市新庄-의 4개 마을에 살게 하였다고 한다.<sup>101)</sup> 이들의 정착지와

100) 『新撰姓氏錄』山城國 諸蕃 漢 秦忌寸.

山城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祢同祖 秦始皇帝之後 功智王。弓月王。譽田天皇(謚応神)十四年來朝。上表更歸國。率百廿七縣伯姓歸化。并獻金銀玉帛種々宝物等。天皇嘉之。賜大和朝津間掖上地居之焉。”

101) 『日本書紀』神功皇后 五年(206) 春三月条

次于踏鞬津。拔草羅城還之。是時俘人等。今桑原。佐糜。高宮。忍海。凡四邑漢人等之始祖也。”

(표 3-1) 大和國の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葛上郡                                                | 朝妻間掖上    | 秦公宿禰        | 応神朝十四年(283)               | 日本書紀<br>新撰姓氏錄 |
| 城上郡                                                | 秦庄       | 秦氏族         | 5세기말-6세기 초                | 磯城郡誌<br>莊園志料  |
| 添上郡                                                | 山村<br>山村 | 己知部<br>山村己知 | 欽明朝元年(540)                | 日本書紀<br>新撰姓氏錄 |
|                                                    | 大安寺      | 奈羅譯語<br>秦仙  | 推古天皇十六年(608)<br>弘仁二年(811) | 日本書紀<br>日本後紀  |
| 高市郡                                                |          | 傳燈大法師勤操     | 弘仁四年(813)                 | 日本後紀          |
| 그 외, 秦勝古麻呂, 三林公(己智同祖), 櫻田連(己智同祖), 朝妻造(韓國人都留使主의 후손) |          |             |                           |               |

秦氏의 거주지인 朝妻間掖上은 지리상 가까워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주위에 「鴨三社」라 하여 京都 賀茂神社(上賀茂神社·下鴨神社)를 비롯한 전국의 가모(鴨·賀茂·加茂)신사의 총본산인 다카카모진자(高鴨神社-祭神은 阿遲鉏高日子根-), 가모쓰바진자(鴨都波神社-祭神은 事代主神와 下照姬命-), 가쓰라기미토시진자(葛木御歳神社)가 있다.<sup>102)</sup> 이 신사의 제사씨족은 가모씨-鴨氏 혹은 賀茂氏-로, 가장 오래 된 신사의 하나인 미와진자(三輪神社)-奈良縣櫻井市-의 제사씨족 三輪氏와 동족으로<sup>103)</sup>, 가야출신 오타다네코노미고토-意富多多泥古命, 혹은 大田々根子-를 선조로 한다. 이들은 광개토왕의 가야침공으로 일본으로 도래한 가야인의 후

102) 御所市の 남쪽에 있는 高鴨神社는 가미카모사(上鴨社), 북쪽에 있는 鴨都波神社를 시모카모사(下鴨社), 중간에 위치하는 葛木御歳神社를 나카카모사(中鴨社)라 부르고 있다.

103) 『古事記』崇神天皇朝 三輪山伝説条  
此意富多多泥古命者、神君・鴨君之祖。

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sup>104)</sup> 秦氏와 賀茂氏는 니누리아(丹塗矢) 전설을 공유하며, 장인과 사위의 인척관계에 있다.<sup>105)</sup> 이와 같이 賀茂氏, 三輪氏 秦氏는 모두 가야 출신임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 安康朝三年(456)八月에 소위 ‘마요와오의 변란(眉輪王の變)’이 일어나는데, 葛城襲津彦의 손자 쓰부라노오미(門大臣)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雄略天皇에게 살해당한다. 이로써 葛城 가문은 멸족하게 되고, 보호를 받던 秦氏는 賀茂氏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御所지역을 떠나게 된다. 이후 秦氏는 가쓰라가와(桂川) 서안에 정착하여 궁궐 건설에 이바지 하였고, 賀茂氏는 鴨川에 上賀茂神社·下鴨神社를 창건하였다.

시키노가미군(城上郡)-奈良縣磯城郡-의 다와라모토조(田原本町)는 고대부터 秦氏가 집단 거주하였던 마을로 알려져 있다. 京都로 향하던 秦氏의 일부는 田原本町에 정착하여 秦氏의 집단주거지인 하타쇼(秦莊)를 건설한다. 大和岩雄는 “朝妻間掖上に 살던 秦氏씨족은 5세기말부터 6세기말에 걸쳐 秦莊가 있는 田原本町에 이주를 하였다”<sup>106)</sup>고 한다. 秦莊내에는 진라쿠지(秦樂寺)라는 사찰이 있는데, 『磯城郡誌』에 의하면 秦河勝의 집터<sup>107)</sup>라 한다. 田原本町 부근에는 가라코(唐古)유적과 가라히토노이케(韓人池)가 있는데, 『日本書紀』 應神朝七年(276)九月에 “고려인, 백제인, 가야인, 신라인을 동원하여 가라히토노이케(韓人池)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五畿内誌』에 의하면 “唐古村에 있는 韓人池를 지금은 柳田池라고 부른다”<sup>108)</sup>고 하므로, 韓人池 공사에 田原本町에 사는 秦氏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日本書紀』 欽明朝元年(540)二月条에 “백제인 고치베(己知部)가 귀화하여 大和國 소에가미군(添上郡)-현 奈良市·天理市·郡山市의 일부지역- 야마무라(山村)에 거주토록 하였는데, 이들이 야마무라 고치(山村己知)의 선조이다<sup>109)</sup>”라고 기록되

104) 金祥圭(2007) 「三輪山伝承考」 『 일어일문학』 제3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231.

105) 塙保己一編(1902) 「卷第八十一 本朝月令」 『群書類從』第五輯 經濟雜誌社, p.91.

106) 大和岩雄(2013) 『續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 94

107) 奈良縣磯城郡編(1915) 『磯城郡誌』 磯城郡, p.431.

108) 並河永(1929) 『五畿内誌』 中卷 日本古典全集刊行會, p.325.

韓人池唐古村今呼柳田池。

어 있어 己知部和 山村己知가 동족임을 알 수 있다. 『新撰姓氏錄』 大和國 諸蕃·漢의 ‘己智’씨 항목을 보면 己智의 선조는 秦始皇의 아들 ‘胡亥’로 나와 있어서 같은 秦始皇을 시조라 주장하는 秦氏와 己智는 동족이 된다. 同書에서 “大和國의 미바야시 이미키(三林公) · 나가오카 이미키(長岡忌寸)· 사쿠라다 무라지(櫻田連)는 모두 己智와 선조를 같이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이들도 모두 秦氏의 동족이다. 『日本書紀』 推古朝十六年(608)九月條에 “나라오사에묘(奈羅譯語惠明)를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었다<sup>110)</sup>”는 기사가 나오는데, ‘奈羅譯語’-혹은 奈羅曰佐라고도 쓰며 통역전문 씨족이다 -도 己知部の 동족이다.<sup>111)</sup> 나라(奈羅)는 櫛(나라)라고 쓰기도 하는데, 현재 奈良縣天理市櫛町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그런데 「姓氏類別大觀」를 보면 奈羅己知·山村己知·奈羅譯語의 선조가 秦始皇의 후손 가나코치(伽那巨智)로 분류되어 있는데, ‘伽那(가나)’와 ‘伽耶(가야)’는 흡사하므로 가야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추정된다.<sup>112)</sup> 大和岩雄는 『秦氏の研究』에서 조선시대의 『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東萊縣 古知島」를 秦氏 일족인 己智氏의 고향으로 지적하고 있다.<sup>113)</sup>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絶影島神祠, 毛等辺神祠 모두 동평현 남쪽 1리(一里)에 있다. 古知島神祠는 (東萊)縣에서 남쪽으로 23리에 있다. 돌로 단을 만들었으며, 옛날에는 비가 오기를 빌어 효험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sup>114)</sup>고 한다. 문제의 古智는 부산항 앞의 조도와 태종도 사이에 존재하였던 섬으로 부산 북항 개축공사로 인해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sup>115)</sup>

109) 『日本書紀』 欽明天皇元年二月,

二月, 「百濟人己知部投化。置倭國添上郡山村。今山村己知部之先也。

110) 『日本書紀』 推古天皇十六年九月,

是時。遣於唐國學生倭漢直福因。奈羅譯語惠明。高向漢人玄理。新漢人大國。

學問僧新漢人日文。南淵漢人請安。志賀漢人惠隱。新漢人廣齊等并八人也。

111) 太田亮(1942) 『姓氏家系大辭典』 第四卷 國民社, p.4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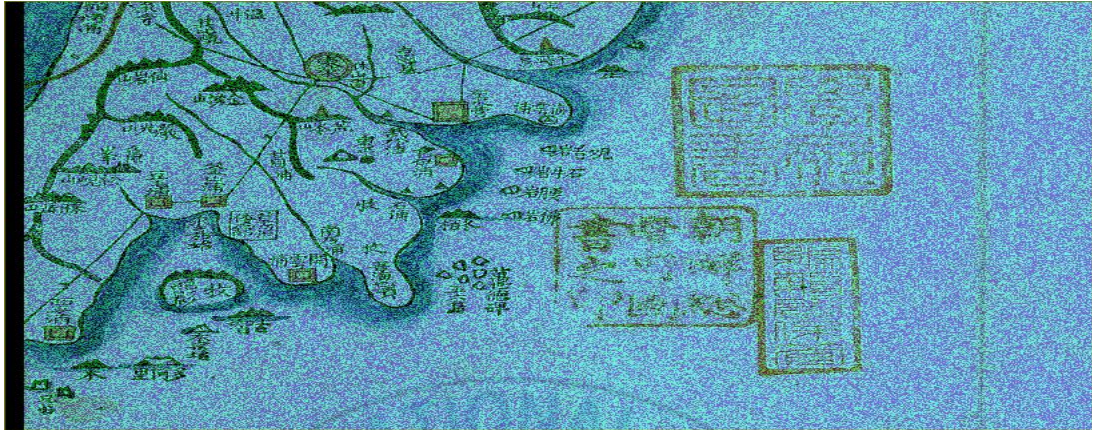
112) 「姓氏類別大觀」 (<http://www.myj7000.jp-biz.net/clan/03/03001.htm#002> ,

검색일: 2019.06.27)

113) 大和岩雄(2016) 『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p.29-29.

114) 李荇(1530) 『신증동국여지승람』 卷之二十三 東萊縣 祠廟.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판)

115) 崔景振·金祥圭(2017) 「秦氏と新羅明神との係わりについて」 『동북아 문화연구』



(그림 1.) 부산항 앞 古智島(출처: 대동여지도)

### 3.2 山城國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眉輪王’의 변에 의해 秦氏는 京都로 떠나는데, 일부는 도중에 기즈가와강(木津川) 근처의 소라쿠(相樂)에 머물게 된다. 『日本書紀』 天武朝元年(六七二)六月廿九日條에 ‘하타노미야쓰코쿠마(秦造熊)’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거의 발가벗은 채로 말을 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sup>116)</sup>, 秦河勝의 동생 하타 와카(秦和賀)의 아들이다. 秦和賀는 木津川市山城町 가바다(綺田)에 가니만지(蟹滿寺)를 창건하였다. 相樂郡은 예부터 다양한 출신의 도래인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五畿內志』<sup>117)</sup>에 의하면, 이곳에 秦氏 출신의 오사씨(曰佐氏), 고구려 출신의 고마 미야쓰코씨(狛造氏)와 기부미 무라지씨(黃文連氏), 백제 출신의 스구리씨(村主氏)등이 살았다 한다. 綺田로부터 木津川를 거슬러 올라가면 奈良시대의 조폐국인 山城町 제즈(錢司)-현 木津川市加茂町錢司-<sup>118)</sup>마을이 나타나는

52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411.

116) 乃汝內應之。既而繕兵於百濟家。自南門出之。先秦造熊令犢鼻。而乘馬馳之

117) 앞에 책 註108, p.241.

데, 부근에 철광산 지역이 있었다. 『三代實錄』貞觀七年(865)九月廿六日条에 “옛날 錢司라고 불리던 相樂郡 오카다(岡田)에서 銅을 채취하였다<sup>119)</sup>” 고 하는데, 이 岡田는 「山城國風土記」에 나오는 지역임에 차이가 없다. 秦氏와 함께 京都로 떠난 賀茂氏의 이동경로가 「山城國風土記」에 의하면 “山代國의 오카다(岡田)의 賀茂에 이르렀다<sup>120)</sup>”고 한다. 賀茂神社의 제사를 담당하는 賀茂氏가 岡田에서 철광을 캐었다고는 추정하기 어렵고, 철광신인 야와타신(八幡神)을 모시는 秦氏가 채광하였을 것이다.

5세기말 경에 京都분지에 도착한 秦氏는 가도노군(葛野郡)을 중심으로 한 葛野 秦氏와 기이군(紀伊郡) 후시미후카쿠사(伏見深草)-현 京都市伏見區深草-에 거점을 둔 深草秦氏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두 秦氏 없이는 平安京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葛野郡·紀伊郡의 고대 秦氏의 특징은 거대한 집단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서 활약했으며, 막대한 부(富)와 함께 일본의 고유 신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이다. 『日本書紀』雄略朝十五年(471)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秦氏를 하타노 키미사케(秦公酒)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180부류의 스구리(勝)들이 이들을 이끌었다<sup>121)</sup>” 고 하는데, 勝氏는 秦氏 일족이다. 그리고 『新撰姓氏錄』山城國 諸蕃 漢秦忌寸条에서 山城國의 “秦氏 인구는 92부 18,670명이다<sup>122)</sup>”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同書 欽明朝元年(540)八月条에 “秦氏의 호구 수는 전부 7,053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18) 木津川市 HP, <https://www.city.kizugawa.lg.jp/index.cfm/8,28723,36,420,html>

119) 廿六日甲辰。勅木工寮。採銅於山城國相樂郡岡田舊鑄錢司山。

120) 大倭の葛木山の峯に宿りまし、彼より漸に遷りて、山代の國の岡田の賀茂に至りたまひ、山代河(木津川)の隨に下りまして、葛野河(桂川)と賀茂河との會ふ所に至りまし、賀茂川を見廻(はる)かして。

121) 而仕於天皇。天皇愛寵之。詔聚秦民賜於秦酒公。公仍領率百八十種勝。

122) 天皇遣使使小子部雷。率大隅阿多隼人等。搜括鳩集。得秦民九十二部一万八千六百七十人。遂賜於酒。爰率秦民。

(표 3-2)山城國의 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相樂郡  |            | 秦造熊                                                                                                   | 天武元年 (672)                                          | 日本書紀                                          |
| 紀伊郡  | 深草里        | 秦大津父<br>秦忌寸比津麻呂 <sup>123)</sup>                                                                       | 欽明即位前紀(539)<br>貞觀五年 (863)                           | 日本書紀<br>三代實錄·卷七                               |
| 乙訓郡  | 訓世郷        | 國背穴人                                                                                                  |                                                     | 新撰姓氏錄                                         |
| 葛野郡  | 大堰郷<br>川辺郷 | 秦河勝<br>川辺<br>그 외<br>田村公(749)·秦伊美吉(755)·常<br>(755)·物集(755)·秦連(762)·秦<br>忌寸箕造(776)·秦足長(784)·時<br>原(863) | 推古十一年(603)<br>和銅二年(709)                             | 日本書紀<br>正倉院文書                                 |
| 左京   |            | 太秦公宿祢<br>山村許智大足·長岡忌寸<br>秦忌寸貞仲<br>秦宿祢永原                                                                | 雄略十五年(471)<br>光仁寶龜八年(777)<br>天長十年(833)<br>齊衡三年(856) | 日本書紀<br>續日本紀<br>續日本後記<br>文德實錄                 |
| 右京   | 八條<br>三條   | 秦常忌寸秋庭<br>秦小宅牧床외 9명<br>長丘連<br>秦忌寸善子(863)·秦宿祢永厚·<br>秦忌寸永宗(883)                                         | 天平五年 (733)<br>天平五年 (733)<br>寶龜七年(776)               | 八條一坊·<br>三坊計帳 <sup>124)</sup><br>續日本紀<br>三代實錄 |

|                                     |     |        |             |          |
|-------------------------------------|-----|--------|-------------|----------|
| 愛宕郡                                 | 雲下里 | 高椅외 5名 | 神龜三年 (726)  | 愛宕郡雲下里計帳 |
| 宇治郡                                 |     | 山村曰佐豊國 | 天平宝字五年(761) | 東大寺文書    |
| 그 외 秦倉人·佐比<br>佐·栗栖野·加美能·中家·秦冠·令宗·廣幡 |     |        |             |          |

540년 당시 秦氏의 추정인구는 대략 176,000명-7,053호x25명-에 이르러 당시 일본의 총 인구 200만명<sup>125)</sup>의 8.5%가 되는데 喜田貞吉는 호수로는 전국의 28분의 1에 이른다 고 추정했다.<sup>126)</sup> 聖武天皇의 恭仁京-木津川市-의 천도에 맞추어서, 『續日本紀』 天平十四年(742)八月에 秦下嶋麻呂가 궁궐의 담장을 조성하여 기부, 관위가 14계나 올랐고<sup>127)</sup>, 延暦三年(784)十二月十八条에는 桓武天皇의 長岡京-長岡京市-축성 때는 秦寸足長가 궁궐건설을 지원하였으며<sup>128)</sup>, 平安京 궁궐의 정전인 태극전은 秦河勝의 집터였다<sup>129)</sup>고 하니, 당시의 秦氏들의 막강한 경제력 없이는 교토의 왕궁(皇居)은 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秦氏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紀伊郡 伏見深草에 稻荷神社를, 葛野郡에 松尾大社-京都市左京-를 창건하였다. 한편 賀茂氏의 上賀茂-下鴨神社의 제사권은 하타씨 혼케이쵸(秦氏本系帳)에 의하면 장인 秦氏가 사위인 賀茂氏에게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30)</sup>

123) 西島政之編(1914)「日本三代實錄」卷七 清和天皇『國史大系』經濟新聞社, p.151.

山城國紀伊郡人大炊大屬從六位下秦寸比津麻呂復本姓民伊美吉。

124)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編(1925)『大日本古文書』卷之一 東京帝國大學, pp.494.(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データベース, 검색일 2019.06.30, <https://dlcimg.hi.u-tokyo.ac.jp/viewer/view/data/850/8500/05/0001/0494?m=all&s=033&r=20>)

125) 앞의 註7 참조.

126) 喜田貞吉(1912)『讀史百話』三省堂書店, p 233.

127) 詔授造宮錄正八位下秦下嶋麻呂從四位下。賜太秦公之姓。并錢一百貫。一百疋。布二百端。綿二百屯。以築大宮垣也。

128) 山背國葛野郡人外正八位下秦忌寸足長宮城。授從五位上。

129) 喜田貞吉(1939)『帝都』日本學術普及會, p.259.

130) 塙保己一編(1902)「卷第八十一 本朝月令」『群書類從』第五輯 經濟雜誌社, p.91.

### 3.3 河内國

『新撰姓氏錄』에 등재되어 있는 近畿 5개국(大和,山城 河内 和泉 攝津)의 도래인 124氏族 중에서 河内國-현 大阪府東部-을 본관으로 하는 氏族이 72氏 (未定雜姓 포함)에 이를 만큼 河内國은 도래인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다.<sup>131)</sup> 그 이유는 아마 고분에 있을 것이다. 河内國 내에서만 총 123기의 고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 仁德天皇陵으로, 그 크기는 세로 485m, 가로 약 240m, 높이 약 35m이며<sup>132)</sup>, 応神天皇陵도 비슷한 규모이다. 仁德天皇陵의 경우, 일본의 대형 건설사인 오바야시구미(大林組)의 계산에 의하면, 작업 인원수 680만 7,000명, 공사기간 15년 8개월, 일(日) 노동자수 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33)</sup>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도래인이 대량 투입되었을 것이다. 고분군의 건설 작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로공사에도 도래인이 동원되었다. 茨田郡 茨田堤와 만다미야케(茨田三宅) 공사, 와니이케(丸瀬池)-현 大阪府富田林市栗ヶ池町 추정-, 요사미노이케(依網池)-현 大阪市住吉區 大依羅神社 부근-, 난바 堀江 제방공사, 오하시노에(小椅江)-현 大阪市天王寺區小橋町- 제방공사, 그리고 스미에노쓰(墨江之津)-현 大阪市住吉區- 항만공사 등에 많은 秦氏들이 동원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sup>134)</sup> 이후 茨田郡 秦氏의 흔적은 일본 전국의 여러 수로공사에서 볼 수 있다. 『日本書紀』持統朝四年(690)二月五日条에 천황이 와키가미노쓰쓰미(腋上陂)-현 御所市池之内- 부근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腋上陂는 근처의 葛城川の 제방을 가리킨다. 이 제방 밑의 사라기(蛇穴) 마을에는 大阪의 茨田 마을

---

鴨氏の人秦氏の習と爲る。秦氏習を愛ひむとして鴨祭を以ちて譲り与ふ。故今鴨氏禰宜して奉祭る。此れ其の縁なり。

131) 『新撰姓氏錄』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六國史나 역사적 자료에 의해 선조의 근원이 확인되지 못한 씨족.

132) 堺市 HP 참조(<http://www.city.sakai.lg.jp/index.html>), 검색일: 2019.08.25)

133) 門脇禎二 외 4명(1988) 『河内王朝論』 六興出版, p. 64.

134) 『古事記』 仁德天皇朝、

又役秦人、作茨田堤及茨田三宅、又作丸瀬池・依網池、又掘難波之堀江而通海、又掘小椅江、又定墨江之津。”

(표 3-3) 河内國의 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高安郡                    |     | 秦船人<br>寺淨麻呂  | 天平勝宝七歲(755)<br>宝龜十一年(780) | 姓氏家系大辭典<br>上同 |
| 丹比郡                    |     | 秦虫足          | 天平宝字二年(758)               | 正倉院文書         |
| 大縣郡                    | 高尾邑 | 高尾忌寸<br>朝原宿祢 | 宝龜十一年(780)<br>承和十五年(848)  | 姓氏家系大辭典<br>上同 |
| 茨田郡                    | 幡多郷 | 茨田勝          |                           | 新撰姓氏錄         |
| 그 외 秦忌寸·秦宿祢·秦姓·秦人新撰姓氏錄 |     |              |                           |               |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다. 따라서 腋上陂의 공사에도 秦氏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播磨國風土記」 播磨國 이보군(揖保郡) 히라카타사토(枚方里) 항목을 보면 “河内國 茨田郡 枚方里의 아야히토(漢人)가 와서 살았다” 한다. 『倭名類聚鈔』의 茨田郡에는 하타고(幡多郷)<sup>135)</sup>가 있었는데, 秦氏의 흔적은 현재에도 寢屋川市の 太秦櫻が丘·太秦高塚町·太秦中町·太秦東が丘·太秦緑が丘·太秦元町, 그리고 秦町·八幡台 등의 동네 명으로 남아있다.

『倭名類聚鈔』 다지히군(丹比郡)-현 大阪市, 堺市, 松原市, 羽曳野市, 藤井寺市の 일부-에는 요사미 마을(依羅郷)과 미야케 마을(三宅郷)이 등재되어 있다. ‘依羅’는 同書에 ‘與佐美’라고 읽음으로, 앞의 依網池가 있는 동네이다. 三宅郷에는 ‘미야케(屯倉)’가 있는데, 屯倉라 함은 조정의 직할지에서 생산한 쌀을 저장하는

135) 源順 撰(1617) 「河内國 第七十 茨田郡」 『倭名類聚鈔』 20卷 [3] 那波道圓.

창고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古事記』 仁德朝에 “秦人를 시켜 茨田堤와 茨田三宅, 그리고 와니이케(丸瀨池)와 依網池를 축성하게 하였다”는데, 依網池의 축성에 투입된 秦氏의 거주지가 依羅郷이었을 것이고, 依網池 부근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한 쌀을 저장한 곳이 三宅郷이다.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三宅郷의 屯倉의 출납 관리자는 依網池를 축성한 秦氏이었을 것이다. 『日本書紀』 欽明朝 초반부를 보면, 황태자 시절에 꿈속에 나타난 하타 오쓰치(秦大津父)를 즉위 후 오쿠라(大藏)-현 일본의 財務省- 책임자로 임명하였다는 기사<sup>136)</sup>가 나오는데, 秦大津父의 본거지인 伏見深草에도 屯倉가 있어 관리자는 秦氏이었다. 대대로 秦氏는 大藏의 출납의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續日本紀』 天平十八年 (746) 三月条에는 “秦忌寸朝元를 가즈에노쓰카사(主計頭)로 임명하였다<sup>137)</sup>”고 한다. 主計頭는 당시의 세금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朝元는 遣唐留学僧과 遣唐使節로 두 번이나 당나라를 방문한 당대의 親唐派 인물이었다. ‘主計’라는 기능은 현대까지 이어져 일본의 국가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지금의 財務省 主計局으로 남아 있다.

『日本書紀』 天智朝六年(667)十一月条에 “大和國에 高安城을 지었다<sup>138)</sup>”는데 이 성은 충남 서산 앞 바다에서 벌어진 ‘白村江’ 전투에서 당나라와 신라에 패한 天智天皇가 나당 연합군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香川縣의 야시마조(屋島城), 대마도의 가네다조(金田城)와 함께 高安郡-현 八尾市東部-의 高安山에 高安城을 쌓았는데, 조선식 산성이라 한다.<sup>139)</sup> 이 성을 쌓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 지역에 다카야스 쿠라토(高安倉人) 다카야스 스구리(高安村主) 등 秦氏 관련 성씨가 기록에 나타난다.<sup>140)</sup> 실제로 『續日本紀』 宝龜十一年(780)五月十六条에 “河內

136) 天皇曰、必此報也。乃令近侍優寵日新、大致饒富。及至踐祚、拜大藏省

137) 『續日本紀』 天平十八年 (746) 三月,

從四位下紀朝臣麻呂爲民部卿。外從五位上秦忌寸朝元爲主計頭。

138) 是月。築倭國高安城。讚吉國山田郡屋嶋城。對馬國金田城。

139) 吉川弘文館編(1979)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 高安城 項.

140) 『新撰姓氏錄』에는 “河內國 未定雜姓 高安忌寸 忌寸 阿智王之後也”로 백제

國 高安郡人 데라 키요마로(寺淨麻呂)에게 다카오 이미키(高尾忌寸)라는 성을 하사하였다”는 기록<sup>141)</sup>이 있다. 그런데 高尾氏は『新撰姓氏錄』에 따르면 秦氏 동족이다.<sup>142)</sup> 高安城 축성을 위해 이 지역의 도래인과 秦氏가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군내에는 秦興寺, 敎興寺 터가 남아있는데, 秦興寺는 秦氏의 거주 지역 내에 있었고, 敎興寺는 聖德太子가 秦河勝에게 명하여 건립된 절이다.<sup>143)</sup>

오아가타군(大縣郡)-현 大阪府八尾市와 柏原市の 일부-은 한반도 출신 도래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지역이다. 『五畿內志』에 의하면, 大縣郡에 살았던 씨족으로 백제인 다카오카 스쿠네(高岡宿禰)<sup>144)</sup>, 신라인 다케하라 무라지(竹原連)<sup>145)</sup>, 고구려인 오코마 무라지(大貊連)·코마 조메베(狛染部)<sup>146)</sup>, 그리고 秦氏계 高尾忌寸·오사토 후미(大里史)·도코요 무라지(常世連)·아사하라 스쿠네(朝原宿禰) 등이 기록되어 있다. 高尾忌寸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秦氏 동족이며<sup>147)</sup>, 大里史 또한 秦氏의 동족이다.<sup>148)</sup> 常世連는 『續日本紀』 寶龜八年(777)四月十四日條에 “河內國 大縣郡에 사는 아카소메 히토타리(赤染人足)외 13인이 도코요노무라지(常世連)라는 성씨를 하사받았다<sup>149)</sup>”고 하는데, 赤染氏는 秦氏의 동족, 적어도 동일한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同書 ‘河內國 諸蕃 漢 高安造’에는 하치노헤 후미와 조상이 같다고 하며, (八戶史同祖 盡達王之後也), ‘八戶史’는 한 광무제의 후손(出自後漢光武帝孫章帝也)이라 하므로 高安氏의 출처는 불분명하다. 단, 위에 언급한 高安倉人·高安村主의 경우, 秦氏 동족인 하타쿠라히토(秦倉人), 하타 스구리(秦勝)와 유사한 村主라는 관직이 붙어 있으므로, 이들은 秦氏 계열로 추정된다.

141) 河內國高安郡人大初位下寺淨麻呂賜姓高尾忌寸。

142) 河內國 諸蕃 漢, 高尾忌寸 秦宿祢同祖 融通王之後也。

143) 吉川弘文館編(1979)『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 高安城 項。

144) 『新撰姓氏錄』河內國 諸蕃 漢, 高丘宿祢 宿祢 出自百濟國公族大夫高侯之後廣陵高穆也。

145) \_\_\_\_\_. 未定雜姓, 竹原連 連 新羅國阿羅々國主弟伊賀都君之後也。

146) \_\_\_\_\_. 未定雜姓, 狛染部 高麗國須牟祁王之後也。

147) 앞의 註141·註142 참조.

148) 『新撰姓氏錄』河內國 諸蕃 漢, 大里史 史 太秦公宿祢同祖 秦始皇五世孫融通王之後也。

생활 집단을 형성한 도래계 씨족임이 알려져 있다.<sup>150)</sup> 朝原宿禰도 『續日本後紀』 承和十五年(848)三月에 “河内國의 하타 스쿠네요치오(秦宿禰世智雄)에게 朝原宿禰의 성을 하사하였다<sup>151)</sup>”하므로 秦氏 동족임을 알 수 있다.

奈良 東大寺 루샤나부쓰(盧遮那仏)-東大寺 大仏라고도 함-는 745년 쇼무 천황(聖武天皇)에 의해 발원(發願)되어 752년 그의 딸 고겐 천황(孝謙天皇) 때 개안 공양회(開眼供養會)가 거행되는데, 이 大仏의 조성에는 大縣郡의 秦氏 일족과 깊은 관계가 있다. 『續日本紀』 天平勝寶元年(749)十月九일에 聖武天皇는 大縣郡의 지시키지(智識寺)를 방문하여 안치되어 있는 盧遮那仏을 보고 大仏의 조성을 결심하게 된다.<sup>152)</sup> ‘智識’라는 것은 ‘善智識’의 줄임말로, 善業을 쌓기 위해 寺院에 금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인데, 智識寺의 터는 현재의 柏原市大縣의 高尾山 밑에 있었다 한다. 이 절의 주위에 秦氏를 비롯하여 高尾忌寸·大里史·常世連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盧遮那仏을 조성하였던 것이다.<sup>153)</sup> 7살 때 아버지인 文武天皇를 여의고, 정신적 불안장애를 가진 어머니 후지와라 미야고(藤原宮子)를 태어나서 처음 상면한 것이 聖武天皇가 37살 때 이었다. 불안정한 상태의 聖武天皇는 741년부터 5년간 수도 平城京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sup>154)</sup> 즉위 바로 전에 발생한 ‘하야토(隼人)’의 亂 (720년)<sup>155)</sup>과 재위 중 740년의 후지와라 히로쓰구의 난(藤原廣嗣の亂)<sup>156)</sup>, 그리고 끊임없는 화재와 지진의 발생으로 마음 편한

149) 『續日本紀』 宝龜八年(777)四月十四日：右京の人で從六位上の赤染國持ら四人、河内國大縣郡の人で赤染人足ら十三人(略) 常世連の氏姓を賜った。

150)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一)」 『史學雜誌』 70篇3号 史學會, p.73.  
赤染氏は秦氏と同族、また同一の生活集團を形成した氏族で恐らく新羅系歸化人と思われ、常神信仰の母体をなしたと想定できよう。

151) 三月庚申朔。河内國河内郡人大初位下秦宿禰世智雄賜姓朝原宿禰。

152) 冬十月庚午。行幸河内國智識寺。以外從五位下茨田宿禰弓束女之宅。爲行宮。

153) 大和岩雄(2016) 『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p. 203-205.

154) 瀧浪貞子(1990) 「大仏造立への道程：聖武天皇の彷徨五年」 研究紀要 (03) 京都女子大學宗教・文化研究所, p. 87.

155) 養老4年(720)에 九州 남부에 사는 하야토(隼人)가 大和 조정에 대해 불만을 가져 일으킨 반란. 관군에 의해 1年만 만에 제압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大和 조정은 九州 남부를 평정,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날이 없었던 聖武天皇는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隼人’의 亂에서 조정의 정벌군은 豊前國 下毛郡의 코모진자(薦神社) 경내의 미스미이케(三角池)에서 자라는 薦로 만든 배개를 八幡神의 靈驗으로 앞세워 隼人를 정벌하게 된다. 聖武天皇는 중국의 隋·唐의 황제와 같이 중생을 구하는 보살황제(菩薩皇帝)를 지향하여 ‘隼人’의 난에 영험을 보여준 八幡神를 수도(首都)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받아들여 奈良에 盧遮那仏를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sup>156)</sup> 豊前國 田川郡 香春岳의 秦氏 일족은 大仏 조성을 위해 철을 공급하였고, 아카소메씨(赤染氏)-도코요씨(常世氏)-는 도금공으로, 大里氏, 高尾氏, 寺氏는 주물공으로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応神天皇을 祭神으로 하는 현재의 八幡神의 원형은 香春岳의 秦氏 일족이 모시던 철광신이었다. 大縣郡의 秦氏는 宇佐의 지방신이었던 八幡神를 전국적인 신으로 만들고, 오늘의 奈良 東大寺 大仏를 있게 한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하겠지만, 豊前國 下毛郡의 薦神社 경내의 三角池 축조자는 秦氏였다.

156) 奈良時代に 일어난 내란으로, 藤原廣嗣가 조정에 불만을 가져 九州의 大宰府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157) 飯沼賢司(1997) 「八幡大菩薩の登場の歴史的背景-聖武天皇の國家構想と關連して」 『史學論叢』 27号 別府大學史學研究會, pp.51-52.

### 3.4 攝津國

세쓰노쿠니(攝津國)-현 大阪府北中部와 兵庫縣南東部-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이나가와(猪名川)를 거슬러 올라가면 내륙지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오사카만(大阪湾)에 도착한 도래인들이 이 강을 따라 올라가 정착한 흔적이 보인다. 猪名川の 주변인 니시나리군(西成郡)-현 淀川 하구 지역-과 가와베군(河辺郡)-현 川西市, 尼崎市, 宝塚市 부근-, 데시마군(豊島郡)-현 池田市, 箕面市 부근-에 많은

(표 3-4) 攝津國の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西成郡                |     | 秦神嶋                | 神護景雲三年(769)                              | 續日本紀                                                     |
| 川辺郡                |     | 秦美丘伴利<br>秦乙麿       | 天平勝宝三年(751)                              | 姓氏家系大辭典                                                  |
| 豊島郡                | 手嶋郷 | 井手小足<br>秦豊穂<br>秦法麿 | 神護景雲三年(769)<br>天平神護元年(765)<br>天平十五年(743) | 續日本紀<br>大日本古文書 <sup>158)</sup><br>大日本古文書 <sup>159)</sup> |
| 그 외 長田三山·倉人·秦忌寸·秦姓 |     |                    |                                          | 姓氏家系大辭典                                                  |

158)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編(1925), 『大日本古文書』 卷之五, 東京帝國大學, pp.495.(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データベース, 검색일 2019.06.30,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ldata/850/8500/05/0005/0495?m=all&s=0488&n=20>

159) 앞의 註158, 『大日本古文書』 卷之二四, p.257.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ldata/850/8500/05/0024/0257?m=all&s=0257>

秦氏가 거주하였다. 『日本續紀』神護景雲三年(769)五月에 “攝津國 豊島郡 이데 타리(井手足) 등 15인에게 秦井手 忌寸의 성을 하사하였고, 西成郡 秦神島, 秦廣立 등 9명에게 秦忌寸의 성을 하사 하였다”한다. 豊島郡은 『倭名類聚鈔』에 ‘하타노카미 마을(秦上郷)’과 ‘하타노시모 마을(秦下郷)’이 있을 정도로 秦氏 집단거주 지역이었다. 河辺郡에는 東大寺奴婢帳에 사카고 마을(坂合郷) 호주(戶主) 秦美丘 伴利와 호구(戶口) 秦乙磨의 이름<sup>160)</sup>이 보인다. 『新撰姓氏錄』에는 秦宿祢, 秦忌寸, 高尾忌寸, 秦人, 秦公, 秦姓 등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猪名川 주변의 西成郡, 河辺郡, 豊島郡에는 秦氏가 집단 주거지를 이루고 살았는데, 당시의 河辺郡 이나가초(猪名町)-현 兵庫縣 川西市 猪名川町-와 豊島郡-현 池田市-사이의 10km에 걸쳐 다다은광(多田銀山)의 광맥이 존재하였다. 이름 자체는 은광이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철광도 생산되었다. 清和源氏の 창시자인 源滿仲는 이 부근에 다다인(多田院)을 건립, 多田銀山을 개발하였다. 여기로부터 채광되는 은과 동은 清和源氏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多田院의 세력범위는 川辺郡 북부 전체에 이르게 되었다. 은광은 후손들인 鎌倉幕府의 頼朝, 室町幕府의 足利尊氏를 거쳐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明治시대에는 미쓰비시(三菱)에 인수되었으나, 日本鉱業을 거쳐 현재에는 폐광되었다. 문제는 多田銀山과 秦氏와의 관련성이다. 뒤에 설명하겠으나, 秦氏의 집단거주지 옆에는 항상 철광산 지역이 존재하며 그 지역에 新羅明神이 鎮座하고 있다. 위 표3-4와 같이 攝津國의 西成郡, 河辺郡, 豊島郡 지역에 秦氏가 집단거주 하였다는 700년대의 기록이 다수 남아있고, 거주지 주변에 多田銀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多田銀山과 秦氏의 관련성을 추측하게 한다. 多田銀山の 개발이 滿仲부터 행해졌다고 하나, 이 광산의 개발은 이미 弥生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西尾次郎는 「維新以前二於ケル本邦ノ鉱業」에서 745년 奈良 東大寺 盧遮那仏의 조

160) 太田亮(1925) 「河辺郡」 『日本國誌資料叢書』磯部甲陽堂, p.516.

성을 발원한 聖武天皇는 “천황은 (大仏造成에 필요한) 금속의 산출을 크게 장려하여 銅은 攝津國 多田銀山, 但馬國 明延銅山, 長門國 長登銅山, 그 외 山陽諸國의 銅山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sup>161)</sup>”고 한다. 그리고 吉野裕는 “淀川-大阪-항구는 외국 향로의 종착역으로, 그 하천 변에는 신라계, 백제계, 그 이외의 많은 도래 부족이 밀집하여 있었고, 뛰어난 제철기술을 지닌 호족이 존재하였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특히 淀川の 상류에는 秦氏의 대집단이 있었다”고 하며, “多田銅의 채광은 이미 弥生시대에 행해졌으며, 부근에 거주지가 형성되어 당시의 여러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sup>162)</sup>”고 했다. 또한 多田銀山 부근을 가야계 토기인 “스에키(須惠)의 생산지대”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多田銀山과 秦氏, 清和源氏의 상호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 3.5 近江國

『日本書紀』垂仁朝二年条 (기원전 28)<sup>163)</sup>에 대가야의 왕자라는 쓰누가노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가 近江國의 접도(接道)인 코시노쿠니(越國)-福井縣-의 게히우라(筥飯浦)-敦賀灣-에 나타났다.<sup>164)</sup> 왕자의 도래 경로는 나가토(長門)→이즈모(出雲)→敦賀로 되어 있다. 윤명철은 고대에 남해안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반적 도래항로는 김해(부산)→거제→대마도→큐슈라 하였는데<sup>165)</sup>, 대가야 출신인 왕자는 김해나 거제, 혹은 고령을 출발하여 야마구치현(山口縣)의 長門에 상륙하여 出雲를 거쳐 敦賀灣에 도착한 것이 된다. 왕자가 택한 항로는 흔히 동해남부·동

161) 西尾次郎(1911)「維新以前二於ケル本邦ノ鉱業」日本鉱業會誌 27卷 313号 日本鉱業會, p.190.

162) 吉野裕(1975)「タタラと大田田根子の話」日本文學24卷 8号『日本文學會』, p.79-81.

163) 「欠史八代」라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164) 一云御間城天皇之世。額有角人。乘一船泊于越國筥飯浦。故號其處曰角鹿也。問之曰。何國人也。對曰。意富加羅國王之子。名都怒我阿羅斯等。

165) 윤명철(1995)「해양조건을 통해본 고대 한일 관계사의 이해」『日本學』14권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pp.85-87.

(표 3-5) 近江의 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愛知郡  | 大目郷<br>大國郷 | 朴市秦造田來津<br>秦友足<br>依知秦公父子<br>秦公宗直 | 大化元年(645)<br>天武元年(672)七月<br>延暦二年(783)十一月<br>貞觀8年(866)十月 | 日本書紀<br>日本書紀<br>東大寺文書<br>東大寺文書 |
| 野洲郡  |            | 曰佐외 2명                           |                                                         | 姓氏家系大辭典                        |
| 犬上郡  | 火田郷<br>火田郷 | 簀秦畫師외 1명<br>簀秦畫師笠麻呂              | 天平勝宝九年(757)<br>弘仁 6 年(815)                              | 姓氏家系大辭典<br>日本後記                |
| 淺井郡  |            | 秦常尙                              | 元慶元年(877)                                               | 三代實錄                           |
| 蒲生郡  |            | 秦刀自女                             | 大同二年(807)                                               | 姓氏家系大辭典                        |

해안 출신자의 도래경로이므로 남해안 출신 왕자의 행로로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혹은 왕자가 長門나 出雲 기착 이전에 이미 일본열도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敦賀灣에서 시오쓰가이도(塩津街道)를 따라 近江 비와코(琵琶湖)까지는 약 20km정도이므로 손쉽게 近江國에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近江國을 “도래인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 도래인의 유입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石原進·丸山龍平는 “近江의 조선관련 인명부 343명 가운데 60%인 205명이 秦氏이다<sup>166)</sup>”라고 하였는데, 近江國은 九州의 미야코군(京都郡)·치쿠조군(築上郡)·시모게군(下毛郡)과 더불어 「秦氏의 왕국」이라 부른다.

近江國 愛知郡은 秦氏의 집단거주지인 ‘秦庄’가 있었다. 고대의 愛知郡에 秦氏 집단거주지가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광활한 미개척지였기 때문이다. 군내를 愛知

166) 石原進·丸山龍平(1984) 『古代近江の朝鮮』 新人物往來社, pp.222-231.

川가 흘러 강의 제방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이 지역에 투입된 도래인은 秦氏 뿐만 아니라 백제멸망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백제인들도 포함되었다. 백제멸망 이후, 백제 부흥을 노린 일본은 663년 170척의 선박과 만 명의 병력으로 나당연합군과 금강 앞바다에서 격돌, 대패하게 된다(白村江 전투). 패배 후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들은 愛知川 左岸에 인접한 간자키군(神崎郡), 가모군(蒲生郡)에 보내어졌다. 『日本書紀』 天智朝四年(665)二月条를 보면 백제인 남녀 400여명을 神崎郡에 이주시켰고<sup>167)</sup>, 天智天皇八年(669)에는 백제인 700명을 蒲生郡에 이주시켰다.<sup>168)</sup> 함께 보내어진 余自信과 鬼室集斯는 백제의 왕족과 귀족이었다. 역사상 愛知郡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에치하타 미야쓰코타쿠쓰(朴市秦造田來津)이다. 『日本書紀』에 따르면, 朴市秦는 齊明天皇七年(661)九月에 일본에서 귀국하는 백제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 扶余豐璋-부여豐-을 병사 5,000명과 함께 백제까지 동행하였다. 2년 후에 벌어진 白村江 전투에 참전, 충남 서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sup>169)</sup> 大津市 園城寺 新羅善神堂에는 新羅明神이 모셔져 있는데, 정자관을 쓴 기이한 노인의 좌상(座像)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神像이 후세에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이한 모습인데, 『八幡宇佐宮御託宣集』에는 応神天皇의 전신이라고도 할 기이한 모습의 ‘카지야 노인(鍛冶屋翁)’이 나타난다. 그 모습이 新羅明神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鎌倉幕府를 창설한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의 선조인 源義光가 新羅明神앞에서 성인식을 올려 新羅三郎로 불리었다. 이후 義光는 ‘新羅源氏’의 시초로 불렸는데, 그의 후손 중의 하나인 오가사와라(小笠原) 가문은 350년간 新羅明神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167) 勘校百濟國官位階級。仍以佐平福信之功。授鬼室集斯小錦下。其本位達率。復以百濟百姓男女四百餘人居于近江國神前郡。

168) 又以佐平餘自信。佐平鬼室集斯等。男女七百餘人遷居近江國蒲生郡。

169) 『日本書紀』天智天皇二年(663)八月十七条。

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須臾之際。官軍敗績。赴水溺死者衆。艫舳不得廻旋。

朴市田來津仰天而誓。切齒而嗔殺數十人。

### 3.6 播磨國

하리마노쿠니(播磨國)에서 秦氏의 존재는 『播磨國風土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平野邦雄는 “『播磨國風土記』에서 天日槍의 설화가 있는 지역은 秦氏의 거주지역과 완전히 중복된다<sup>170)</sup>”고 하였는데, 天日槍의 행로를 따르면 秦氏의 거주지가 파악된다. 『播磨國風土記』에서 묘사된 天日槍의 싸움은 揖保郡揖保里 이히보오카(粒丘)-현 たつの市揖保町-, 시소군(宍粟郡) 川音村-현 宍粟市山崎町川戸-, 同郡 우바타니(奪谷)-소재 불명-, 同郡 가시와노사토(柏野里) 伊奈加川-현 宍粟市山崎町 스가노가와(菅野川) 부근-, 波加村-현 宍粟市 波賀町, 미카타 마을(御方里)-현 宍粟市一宮-, 神崎郡 누카오카(糠岡)-현 姫路市船津町-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 揖保郡揖保里 粒丘

이히보오카(粒丘)란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天日槍命가 가라쿠니(韓國)로부터 건너와서 우즈 강(宇頭川) 하구에 도착하였다. 잠자리를 얻고자 아시하라시코오노미코토(葦原志舉乎命)에게, ‘당신은 이곳의 주인이므로, 내가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시코(志舉)는 天日槍命가 바다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때 天日槍命는 지니고 있던 칼로써 바닷물을 휘저은 후, 잠을 잤다. 天日槍命의 화려한 솜씨를 본 葦原志舉乎命는 먼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粒丘까지 달려가 식사를 하였다. 이때 입에서 밥알이 떨어졌다 하여 粒丘라 불렀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天日槍와 지역의 유력자 葦原志舉乎는 揖保里 粒丘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다. ‘粒丘’는 현재 たつの市揖保町 나카진(中臣)에 있는 나카토미 이다테진자(中臣印達神社)의 경내에 ‘粒丘’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粒丘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揖保郡에서의 秦氏 거주는 『播磨國風土記』에 나타나 있다.

170)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二) 『史學雜誌』第七十輯 史學會, p.60.

揖保郡 枚方里

히라카타(枚方) 마을 이름의 유래는 河内國 茨田郡 枚方마을의 아야토(漢)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기 때문이다.

少宅里

오야케(少宅) 마을 이름의 유래는 가와라와카사(川原若狹)의 조부가 少宅秦公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 집을 少宅라 불렀다.

위 揖保郡의 기사는 河内 茨田堤공사 때 茨田郡 枚方の 秦氏를 동원하였다는 『古事記』의 기사가 있는데, 이들의 후손이 播磨國 揖保郡枚方리로 이주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주의 목적은 주변의 揖保川の 제방공사를 위한 것이라 추정된다. 少宅里에는 少宅秦公가 살고 있었는데, 少宅里는 현재 たつの市 타쓰노초

(표 3-6) 播磨國의 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揖保郡  | 少宅里            | 秦公の娘                         | 庚寅年(690)                       | 播磨風土記                                                   |
| 飾磨郡  | 余部莊<br>巨智里     | 播磨秦氏<br>巨智·山村                | 貞觀6年(864)                      | 名所図會<br>播磨風土記                                           |
| 赤穂郡  | 大原郷<br>坂越郷·神戸郷 | 秦造内麻呂<br>秦造吉備人<br>秦爲辰<br>秦大姫 | 貞觀6年(864)<br><br>1075年<br>753年 | 三代實錄<br>平城宮出土木簡<br>東寺百合文書 <sup>171)</sup><br>赤穂郡坂越神戸兩郷解 |
| 佐用郡  | 中川郷            | 秦部田加                         |                                | 奈良縣石神遺跡木簡                                               |
| 賀茂郡  | 山田郷            | 秦人足嶋                         | 天平勝宝5年<br>(753)                | 大日本古文書 <sup>172)</sup>                                  |

(龍野町) 小宅北로 여겨진다. 따라서 天日槍가 처음 나타난 곳인 揖保町中臣과 秦氏 거주지인 揖保郡枚方里, たつの市龍野町小宅北 마을은 지리상으로 모두 揖保川 동쪽에 위치하는 이웃마을이므로, 天日槍의 행적과 秦氏의 거주지는 일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播磨國風土記』 揖保郡에는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기사가 다수 나와 있어 韓人의 집단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다. 군내의 ‘오타 마을(大田里)’에 구레노스구리(吳勝)가 가라쿠니(韓國)로부터 건너왔다고 한다. 이름에 ‘스구리(勝)’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秦氏 일족임에 닮음이 없다. 그런데 吳勝의 이주 경로가 韓國→기이군 나구사 오타 마을(紀伊郡名草大田)→현 和歌山縣名草郡→세쓰노쿠니 미시마가미군(攝津國三嶋賀美郡)→揖保郡大田里로 나와 있는데, 한반도부터 紀伊郡名草까지의 이동경로가 궁금해진다. 한반도에서 名草까지 오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반도→敦賀→山城→吉野→名草에 도착하는 경로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로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九州→瀬戸内海→難波→河内→奈良→吉野→名草인데, 이 경로 또한 예상 가능한 여정이다. 세 번째가 한반도→九州→瀬戸内海→難波까지 이동하여, 難波에 상륙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나가 大阪湾→구마노나다(熊野灘)→名草로 직행하는 경로이다. 그런데 이 경로는 초대천황 神武天皇의九州에서 奈良 가시하라노미야(橿原宮)까지의 東征의 여정과 닮아 있다. 葛城襲津彦가 경남 양산의 백성을 연행하여 奈良의 御所까지 가는 행로가 앞의 두 번째 경로인데, 어쩌면 가쓰라기소쓰히코(葛城襲津彦)는 難波에 상륙하지 않고 神武天皇처럼 구마노나다(熊野灘)를 거쳐 名草의 경로를 밟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天日槍와 葦原志舉乎의 대결은 揖保川→菅野川→千草川→引原川→揖保川の 강가

171) 앞의 註158 참조, 『大日本古文書』 播磨國赤穂郡司秦爲辰解案 p.18. 東寺百合文書.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ldata/300/3071.62/2/311/00000018?m=all&f=00000018%2C00000019>)

172) 앞의 註158 참조, 『大日本古文書』 卷二五, p.130.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ldata/850/8500/05/0025/0130?m=all&s=0130>)

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두 진영의 대결은 사실은 철(鐵)을 둘러싼 친구 주 도권 다툼임이 잘 알려져 있다. 『日本書紀』垂仁天皇朝三月條에 “신라의 왕자 天日槍가 배를 타고 播磨國 宍粟郡에 도착, 천황이 미와키미(三輪君)의 선조인 오 토모누시(大友主)와 야마토 아타이(倭直)의 선조 나가오치(長尾市)를 播磨에 파견 하여 天日槍의 정체를 물었다”한다. 天日槍의 행적은 주로 宍粟郡內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宍粟郡內를 흐르는 지쿠사 강(千種川)은 양질의 사철(砂鐵)을 생산 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지쿠사(千種)’와 ‘시소(宍粟)’는 일본의 고대 제철의 발 상지로 알려져 있다. 天日槍는 宍粟郡 가시와노사토(柏野里) 伊奈加川에서 葦原 志舉乎와 맞닥뜨리는데, 이 柏野里는 현재의 사요마을(佐用町)과 千草町를 포함 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秦氏가 宍粟郡에 거주하였다는 문헌은 찾을 수 없으나, 표 3-6에서 佐用郡에 하타베 타가(秦部田加)의 거주기록이 있으므로, 柏野里에서 도 天日槍와 秦氏의 거주지는 일치하고 있다. 『播磨國風土記』 宍粟郡 柏野里 시 키쿠사 마을(敷草村)-현 宍粟市千草町-項에 ‘敷草村에는 산이 있고, 남쪽으로 10 리 정도 가면 二町 정도의 작은 개울이 있다. 사초(莎草)가 자라고 있는데 갯을 만드는데 최적이며 (略) 鐵이 생산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쿠사 강(千種川) 하류의 아코군(赤穂郡)에는 많은 秦氏들이 거주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표 3-6에 나오는 1075년 하타 타메토키(秦爲辰)는 赤穂郡의 행정 책임자인 郡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千種鐵’로 유명한 千種川 유역에는 전 지역에 걸쳐 고대 제철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유역에 秦河勝를 제 신으로 하는 오사케진자(大避神社)가 27개나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본사 인 赤穂市 사코시(坂越), 니시우네(西有年), 기즈(木津), 가미고오리초큐지(上郡町 休治), 아이오이시(相生市) 나바미나미혼마치(那波南本町)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많은 秦氏들이 거주하며 千草川 유역에 제방을 쌓고 양질의 砂鐵을 생산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播磨國風土記』 시카마군(飾磨郡)-현 姫路市の 일부-의 秦氏의 주거는 고치

노사토(巨智里)-현 姫路市御立, 田寺, 辻井, 山吹 부근-와 오가와사토(少川里)-현 姫路市花田町-의 도요쿠니(豊國)-현 姫路市飾東町豊國-項에 잘 나타나있다.

#### 巨智里

巨智씨가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되었다. 구사가미(草上)라고 부르는 유래는 가라히토 야마무라(韓人山村)의 먼 선조인 고치가나(巨智賀那)가 이 땅을 개간했을 때, 한 뭉치의 풀뿌리가 썩어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草上라 이름지었다.

#### 少川里豊國村

豊國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쿠시(筑紫)의 豊國의 神, 이곳으로 건너와 살았기 때문에 豊國村라고 부른다.

巨智리의 巨智氏, 韓人山村氏, 巨智賀那氏가 秦氏의 동족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했으며, 豊國는 九州의 豊前國, 豊後國로 나뉘기 전의 국명으로, 한반도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豊國의 神’이란 豊前國 田川郡香春岳와 京都郡, 築上郡, 下毛郡의 秦氏 일족이 모시던 ‘辛國息長大姫大目命’를 이른다. 따라서 九州의 秦氏가 播磨國로 이주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河内國 枚方 마을의 백성이 播磨로 이주했다고 했는데, 播磨에는 九州와 山城의 양 방향에서 秦氏가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3.7 豊前國

부젠노쿠니(豊前國)-福岡縣東部, 北九州市, 大分縣일부-는 지형상 한반도의 남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고대 한일 간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지역이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5km, 거제도로부터는 80여km, 대마도에서 이키섬(壹岐島)까지는 53km정도, 壹岐島에서 北九州까지는 20여km 거리이므로 해류를 따라 대마도와 壹岐島를 중간기착지로 하여 안전하게 北九州까지 도달할 수 있다.<sup>173)</sup>

(표 3-7) 豊前國의 秦氏

| 군(郡) | 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三毛郡  | 塔里    | 秦部66명, 塔勝49명, 强勝 1명, 調勝 1명, 梢勝 1명, 檜 1명<br>(마을 총인구 129명)                                                    | 大 宝 二 年<br>(702) | 塔里戶籍(正倉院文書) <sup>174)</sup> |
| 上三毛郡 | 加目久也里 | 秦部 26명, 川辺勝 15명<br>上屋勝 13명 (총인구 74명)                                                                        | 大 宝 二 年<br>(702) | 加目久也里戶籍<br>(正倉院文書)          |
| 仲津郡  | 丁里    | 秦部 239명, 丁勝 51명, 狹度勝 45명<br>川辺勝33명, 古溝勝 15명, 大屋勝 10명<br>高屋勝 3명, 阿射彌勝 1명, 黑田勝 1명<br>門勝 1명, 田部勝 1명 (총인구 480명) | 大 宝 二 年<br>(702) | 仲津郡丁里戶籍<br>(正倉院文書)          |

173) 앞의 논문 註165, p.75.

174) 앞의 책 註158, 卷之一, p.142.

<https://cloing.hi.u-tokyo.ac.jp/viewer/view/data/850/8500/05/0001/0142?m=all&s=0333&n=20>

『豊前國風土記』- 720년에서 740년경 완성-에는 “豊前國 田川郡香春岳-현 福岡縣田川郡香春町-에 신라의 신이 스스로 건너 와 살았으며, 철과 석탄이 풍부하였다<sup>175)</sup>”고 기록하고 있다. 香春岳는 대규모의 철광산 지역으로, 秦氏 일족이 채광한 동(銅)으로 奈良 東大寺大仏을 조성 하였고 ‘와도카이친주센(和銅開珎鑄錢)’-700년대에 사용된 동전화폐-을 주조하였다.<sup>176)</sup> 田川香春岳의 秦氏는 점차 九州의 평야를 향해 동진(東進)하여 나카쓰군(仲津郡)-福岡縣行橋市-, 미게군(三毛郡)-福岡縣豊前市の 일부와 大分縣中津市 일부-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한다. 중국 수(隋)나라의 사신 裴世清이 608년 일본을 방문하여 이 지역을 통과했는데<sup>177)</sup>, 裴世清은 『隋書』 倭國伝에서 이 지역을 ‘秦王國’<sup>178)</sup>이라 불렀다. 앞서 豊前國 호적에 하타베(秦部), 스구리(勝)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秦氏 동족이다. 『日本書紀』 雄略朝十五年(471)条에는 秦酒公에게 ‘180부류의 스구리(勝)’의 관리를 맡기는데, 豊前國 호적에서만 22부류가 등재되어 있다.<sup>179)</sup> 호적 속의 ‘勝’집단은 ‘하타베(秦部)’와 같은 호구에 거주하며 동족(同族), 동성(同姓)과의 혼인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三毛郡, 上三毛郡, 仲津郡의 마을 전체인구의 70%에서 90%가 秦氏 일족이므로 ‘秦王國’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加藤謙吉는 秦氏를 하타우지(秦氏)·스구리(勝)·하

175) 小學館(1994) 「豊前國風土記 鹿春郷」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p. 548.

昔者、新羅國の神、自ら度り到來りて此の河原に住みき。便即ち、名けて鹿春神と曰ふ。又、郷の北に峯有り。頂に沼有り。周り三十六步計りなり。黄楊樹生ひ、兼、龍骨有り。第二の峯には銅、並びに黄楊龍骨等有り。第三の峯には龍骨有り。(鹿春郷)

176) 秦氏와 豊前國香春岳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3장 ‘辛島氏と秦氏’ pp.92-96을 참조

177) 『日本書紀』推古十六年夏四月,

十六年の夏四月に、小野臣妹子、大唐より至る。唐國妹子臣を号けて蘇因高と曰ふ。即ち大唐の使人裴世清、下客十二人、妹子臣に従ひて、筑紫に至る。難波吉士雄成を遣し、大唐の客裴世清等を召す。唐の客の爲に、更新しき館を難波の高麗館の上に造る。

178) 唐魏徵等奉勅撰(1844) 『隋書』85卷 [25] 列伝 倭國 高松講道館、コマ17. (國會図書館デジタル) 明年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 度百濟行至竹島南望聘羅國經都斯麻國迫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以爲夷洲疑不能明也 又經十餘國達於海岸自竹斯國以東皆附庸於倭。

179) 기록상의 勝氏: 勝部, 勝族, 秦勝, 各務勝, 不破勝, 丁勝, 調勝, 強勝, 楯勝, 榎本勝, 河邊勝, 上屋勝, 阿射弥勝, 黒田勝, 古溝勝, 田部勝, 高屋勝, 狹度勝, 大屋勝, 門屋勝, 木勝

타히토(秦人)·하타베(秦部)·하타히토베(秦人部)로 분류하여, 먼저 秦氏는 지배계급이며, ‘勝’는 도래인 출신 관리자, ‘秦人’는 특수기술을 보유한 도래인, ‘秦部’·‘秦人部’는 秦氏에 소속된 일본 현지인 농부라 한다.<sup>180)</sup> 그러나, 뒤에 언급하겠지만, 同姓同本の 혼인 풍속을 가졌던 秦氏 일족과 ‘일본 농부 현지인 설’은 모순이 있다고 본다.

『續日本紀』和銅七年(715)三月十五條를 보면, 豊前國의 秦氏 일부인 200戶는 南九州의 사쓰마노쿠니(薩摩國)-현 鹿兒島-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sup>181)</sup>, 중앙정부에 순응하지 않는 하야토(隼人)를 순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豊前國 秦氏의 흔적은 薩摩國의 풍습이나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가라쿠니다케(韓國岳)이다. 또한 鎌倉시대부터 메이지유신 전까지 약 700년간 鹿兒島藩을 지배한 씨족이 시마즈씨(島津氏)로 이 씨족 또한 秦氏에 속한다.

『三代實錄』元慶七年(883)十二月廿五日條를 보면 秦氏가 고레무네씨(惟宗氏)로 성을 바꾸게 되는데, 惟宗氏의 자손이 島津氏로서 메이지유신을 성공으로 이끈 최대 조력자이기도 하였다.<sup>182)</sup>

豊前國 秦氏는 일본의 현대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宇佐八幡宮의 祭神은 応神天皇·比賣大神(宗像三女神)·神功皇后인데, 秦氏의 神인 辛國息長太姬大目命는 宇佐八幡宮에 比賣大神的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秦氏는 宗像三女神의 한 여신인 이치기시마히메(市杵嶋姬)를 자신들이 창건한 京都의 松尾大社에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日本書紀』神代卷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가 낳은 宗像三女神은 한반도로 향하는 뱃길인 “우미노 키타미치(海北道)”의 안전항해를 지키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다.<sup>183)</sup> 또한 秦氏가 처음 살았던 御所の 朝妻에는 市杵嶋姬神社가 있다.

180) 加藤謙吉(2000)『秦氏とその民』百水社 pp.77-89.

181) 隼人昏荒。野心未習憲法。因移豊前國民二百戶。令相勸導也。

182) 從五位下守大判事兼行明法博士秦公直宗、山城國葛野郡人外從五位下行音博士秦忌寸永宗、右京人主計大充正六位上秦忌寸越雄、左京人右衛門少志秦公直本等、男女十九人、賜姓惟宗朝臣。

183) 卽以日神所生三女神者。使隆居于葦原中國之宇佐嶋矣。今在海北道中。號曰道主貴”

### 3.8 그 외의 지방분포

秦氏의 주요 집단 거주지인 大和, 山城, 近江, 豊前國 이외에도 이미 700년대에 는 秦氏의 기록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 만큼 秦氏는 일본 전국에 연결고리를 가진 고대 최대의 집단으로서 현대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씨족이었다.

(표 3-8) 그 외의 國의 秦氏

| 지역  | 군·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美濃國 | 肩懸郡肩々里<br>本簀郡栗栖太里<br>各務郡中里<br>加毛郡半布里<br>味蜂間郡春部里<br><br>香河郡<br>厚見郡三宅里 | 秦人稻賣<br>秦人部4명,<br>高椅 1명<br>秦人乎夜賣<br>秦人409명·秦人<br>部2명<br>(전체인구<br>1,056명)<br>秦人部阿尼賣<br>秦人(荒)人<br>秦人部永楫<br>秦公 | 大宝二年(702)<br>大宝二年(702)<br>上同<br>上同<br><br>上同<br>文武二年(698)<br>承和九年(842)<br>天平四年(732) | 肩々里戶籍(正倉院文書)<br>栗栖太里戶籍(正倉院文書)<br>中里戶籍(正倉院文書)<br>半布里戶籍(正倉院文書)<br><br>春部里戶籍(正倉院文書)<br>木簡庫 <sup>184)</sup><br>續日本後記<br>姓氏家系大辭典 |
| 讃岐國 | 山田郡<br>香川郡<br>三木郡<br>多度郡<br>大內郡                                      | 秦公<br>秦勝倉下·秦部<br>福依<br>原公<br>秦忌寸·秦子上<br>成<br>太秦·服人                                                          | 天平宝字7年(763)<br>(769)·(835)<br>神護景雲三年(769)<br>(864)·(865)<br>(1004)·(1004)           | 姓氏家系大辭典<br>上同·續日本後記<br>姓氏家系大辭典<br>姓氏家系大辭典·三代實錄<br>姓氏家系大辭典                                                                   |
| 和泉國 |                                                                      | 秦連<br>秦忌寸·秦勝                                                                                                | 天武十二年(683)                                                                          | 日本書紀<br>新撰姓氏錄                                                                                                               |
| 若狹國 | 遠敷郡                                                                  | 秦人船 秦人足結<br>秦人孔子                                                                                            | 688)·(718)·(728)<br>天平宝字四年(760)                                                     | 木簡庫<br>木簡庫                                                                                                                  |

|     |                                                    |                                                                   |                                                                                   |                                                |
|-----|----------------------------------------------------|-------------------------------------------------------------------|-----------------------------------------------------------------------------------|------------------------------------------------|
|     | 遠敷郡遠敷郷<br>大飯郡木津郷<br>三方郡                            | 秦人牟都麻呂<br>秦人申<br>秦勝綱刀自                                            | 文武四年(700)<br>貞觀10年(868)                                                           | 木簡庫<br>三代實錄                                    |
| 越中國 | 礪波郡・射水郡                                            | 越中の 여러<br>秦氏                                                      | (759)・(827)                                                                       | 姓氏家系大辭典                                        |
| 筑前國 | 嶋郡 川辺里                                             | 秦部2명                                                              | 大宝二年(702)                                                                         | 川辺里戶籍(正倉院文書)                                   |
| 越前國 | 敦賀郡津守郷伊部<br>足羽郡村刈郷<br>大野郡大沼・<br>大山郷<br>坂井郡赤江坂井郡    | 廣幡牛飼<br>秦下子公麻呂・<br>白佐山<br>井出月磨<br>秦人部武志麻呂<br>秦奥麻呂・秦豊足<br>秦浄人・秦乙麻呂 | 天平二十年(748)<br>(766)・(766)<br>天平神護二年(766)<br>延暦二年(783)<br>延暦十年(791)<br>(792)・(832) | 續日本紀<br>姓氏家系大辭典<br>上同<br>上同<br>木簡庫<br>木簡庫・日本後記 |
|     | 그 외 江沼郡彌太郷, 足羽郡足羽郷・上家郷, 坂井郡赤江郷・水尾郷・金戸郷의<br>越前の 諸秦氏 |                                                                   |                                                                                   |                                                |
| 備前國 | 屋久郡香登郷・積梨郷<br>和氣郡<br>上道郡                           | 香登・秦部<br>秦刀良<br>秦大兄<br>秦春貞                                        | (766)・(774)<br>宝龜元年(770)<br>文武二年(698)<br>仁和元年(885)                                | 姓氏家系大辭典<br>上同<br>續日本紀<br>三代實錄                  |

### 3.9 ‘ハタ’ 地名의 분포

秦氏의 확산을 파악하기 위해 인명의 분포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명의 분포도 중요하다. 平安시대에 편찬된 『倭名類聚』를 통해서 고대 일본의 전국에 확산되었던 ‘ハタ’ 지명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184) 松村恵司「木簡庫」, 奈良文化財研究所,  
(<https://mokkanko.nabunken.go.jp/ja/> 검색일: 2019.06.21)

(표 3-9) ‘ハタ’ 지명의 분포<sup>185)</sup>

| 國  | 郡                                   | 郷                                                          |
|----|-------------------------------------|------------------------------------------------------------|
| 山城 | 相樂(사가라가)                            | 蟹幡(간하타)                                                    |
| 大和 | 高市(다케치)                             | 波多(하타)                                                     |
| 河内 | 石川(이시가와)<br>茨田(만다)                  | 波多<br>幡多(하타)                                               |
| 攝津 | 豊嶋(데시마)<br>有馬(아리마)                  | 秦上(하타노가미)<br>秦下(하타노시모)<br>幡多                               |
| 武藏 | 都筑(쓰즈키)<br>男衾(오부스마)<br>幡羅(하라)       | 高幡(다카하타)<br>幡屋(하타노야)<br>幡々(하타하타)<br>上秦(가미쓰하타)<br>下秦(시모쓰하타) |
| 伊勢 | 壹志(이치시)                             | 八太(하치타)                                                    |
| 遠江 | 麤玉(아라타마)<br>長下(나가노시모)               | 霸田(하타)<br>幡多<br>幡羅                                         |
| 下總 | 匝瑳(소사)                              | 幡間(하타마)                                                    |
| 常陸 | 新治(니하리)<br>河内<br>茨城(이바리키)<br>那賀(나가) | 大幡(오하타)<br>眞幡(미노하타)<br>大幡<br>幡田(하타)                        |

185) 奈良文化財研究所, 『古代地名検索システム』.  
(<https://mokkanko.nabunken.go.jp/ja/>, 검색일: 2019.09.04)

|    |                     |               |
|----|---------------------|---------------|
| 近江 | 栗太(구리타)             | 治田(하타)        |
| 佐渡 | 雜太(사와타)             | 八多(하타)        |
| 但馬 | 二方(후타가타)            | 八太(하타)        |
| 出雲 | 飯石 (이시)             | 波多            |
| 備前 | 上道(가미쓰미치)           | 幡多            |
| 備中 | 下道(시모쓰미치)           | 秦原(하타하라)      |
| 備後 | 三次(미요시)             | 播次(하타스기)      |
| 紀伊 | 在田(아리다)             | 幡陀(하타)        |
| 淡路 | 三原(미하라)             | 幡多<br>八太村     |
| 豊前 | 築城(즈이키)             | 綾幡(아야하타)      |
| 豊後 | 大分(오이타)             | 判太(하타)        |
| 肥後 | 飽田(아키타)<br>天草(아마쿠사) | 加幡(가하타)<br>波太 |
| 薩摩 | 薩摩(사쓰마)             | 幡利(하타리)       |

### 3.10 秦氏의 同族

秦氏 중에서 천황으로부터 성을 하사(賜姓) 받아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秦忌寸로부터 姓을 바꾸어 아사하라 스쿠네(朝原宿祢), 아사하라 이미키(朝原忌寸), 時原宿祢, 奈良忌寸, 惟宗朝臣, 伊統(코레무네)朝臣처럼 전혀 다른 姓을 가진다. 역으로 長岡, 오사다(長田), 倉人, 아나쿠이아자마로(穴咋些麻呂), 井手, 혹은 무성(無姓)에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아 秦忌寸나 秦宿禰 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山城國葛野郡 하타 미노쓰쿠리(秦箕造)가 朝原忌寸로, 攝津國豐島郡 井手小足가 秦井手忌寸로, 攝津國 長田氏가 秦忌寸로, 山城國伏見深草 稻荷神社의 大西神主는 원래는 秦宿禰였다. 그리고 正倉院文書 山城國計帳에 秦栗栖野라는 이름이 보여 栗栖野氏도 同族이며, 川辺氏도 같은 경우이다. 『新撰姓氏錄』山城國 未姓 雜姓에 구제 시시비토(國背穴人氏)가 중국 秦始皇의 후손이라 하므로, 역시 秦氏 同族이며, 越前國 秦人部武志磨가 구루마모치(車持氏)로 바뀌었다. 그 외, 前氏, 下氏, 쿠라씨(椋氏), 高橋氏, 高崎氏, 닛푸씨(達布氏), 田村氏, 常氏, 寺氏, 長岡氏, 長倉氏, 中村氏, 中家氏, 原氏, 히로하타씨(廣幡氏), 松本氏, 오타키씨(大瀧氏) 등의 성씨로 바뀌었다.

## 4. 秦氏의 이동

### 4.1 人的 이동

고대 秦氏의 분포와 확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시의 각 지역에 거주하여 정착하고 있는 秦氏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秦氏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로 한다. 즉, 『日本書紀』에 나오는 秦氏의 중간 선조인 秦酒公을 시작으로 山城國에서 활동한 秦河勝派와 伏見深草에서 활동한 秦大津父의 계보 상의 후손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디로 이동하였는가를 파악하

고자 한다. 고대 秦氏의 일본 열도 상륙지는 近江, 九州, 瀬戸内海를 통한 難波 등의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역의 秦氏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각 지역으로 확산 이동해 갔는가는 秦氏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筑前國의 宗像三女神 중의 市杵嶋姬가 왜 山城國의 松尾大社에 秦氏의 祭神으로 모셔져 있는가는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古事記』 仁德朝에 “秦人를 시켜 茨田堤와 茨田三宅、그리고 와니이케(丸邇池)와 요사미이케(依網池)를 축성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日本書紀』 持統朝四年(690)二月五日条에 천황이 와키가미 제방(腋上陂)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제방 밑의 사라기(蛇穴) 마을-현 奈良縣御所市 蛇穴-에 살고 있는 茨田連는 河內國의 茨田제방을 축조한 秦氏의 후손 들이다. 또한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枚方里的 항목에 “河內國 茨田郡枚方里的 아야히토(漢人)가 와서 살았다” 한다. 이 기록을 통해 秦氏 일족인 河內國 茨田氏가 大和國 葛城 蛇穴, 그리고 播磨國 揖保郡 枚方리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六國史에 나오는 秦氏일족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 4.2 秦公系

『日本書紀』 雄略朝十五年(471)条를 보면 ‘秦酒公’라는 이름이 나온다. 여기서 기미(公)는 가바네(姓)인데, 유력호족에 내리는 작위(爵位)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세습되었다. 公는 그 역사가 允恭天皇 때-실태는 알 수가 없으나 412년에 즉위하였다-에 도입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길다. 『日本書紀』 允恭朝 四年九月九日条에 “잘못하여 자신의 姓을 잃어버리거나 고의로 고귀한 姓을 사칭하기도 하므로, 이를 바로 잡도록 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때 도입된 것이 ‘臣連制度’로, 기미(公·君), 오미(臣), 무라지(連), 아타이(直), 오비토(首), 후히토(史), 스구리(村主) 등의 姓이 신분에 맞추어 주어졌다. 따라서 가장 고귀한 등급의 ‘公’의 姓을 하사받은 秦酒公의 후손들은 이 姓을 고수하였으며, 이름에 公의 姓를 가진 秦氏는 전체

秦氏の 본가(本家)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성이 있는 秦公系의 이름을 추적하면 본가의 확산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応神朝十六年(285)八月에 弓月가 이끌고 온 127縣의 백성은 葛城御所 朝妻掖上에 살게 되는데, 이들의 후손이 바로 秦酒公로, 雄略朝十五年(471)에 우즈마사(禹豆麻佐)의 성을 하사 받는다. 456년 ‘眉輪王’의 변에 의해 호족 葛城氏が 멸망하자 秦氏は 京都 方面으로 떠나 葛野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 秦氏의 宗家가 된다. 秦酒公와 秦河勝의 대를 이은 永原는 『三代實錄』 陽成朝元慶七年(883)十二月二十五日에 惟宗朝臣의 姓을 하사 받는다.<sup>186)</sup> 惟宗氏는 다시 島津氏로 改姓, 島津忠久는 1185년 鎌倉幕府의 源賴朝로부터 오스미국(大隅國)-현 鹿兒島縣- 守護에 임명되고, 이후 島津氏는 南九州의 유력씨족이 되어 약 700년간 鹿兒島藩을 지배하게 된다. 惟宗氏의 자손은 中世시대에도 각 지역에서 크게 번성한다. 다자이후(大宰府)-현 福岡-에는 직계인 惟宗朝臣의 이름이 承平四年(937) 天承二年(1132), 文治二年(1186), 文永二年(1265) 등 4차례에 걸쳐 등장하고, 히젠국(備前國)-현 岡山縣 東南部, 香川縣 일부, 兵庫縣赤穂市 일부-에는 康和四年(1102)에 惟宗成季의 이름이 나오고,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도사국(土佐國)-현 高知縣-을 통일한 조소가베씨(長宗我部氏), 그리고 大隅國, 와카사국(若狹國)-현 福井縣-, 豊前國 등의 각 지역에 惟宗氏의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秦公系列은 大和國→山城國 葛野→若狹國→備前國→土佐國→大隅國→豊前國 등 전국적 분산을 보인다. 秦公系가 전국적 확산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조정에 등용되어 관리로서 각 지역에 널리 임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天智朝에 百濟國 ‘百村江’-현 금강 하구-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近江 愛知郡의 朴市秦田來津는 ‘依智 秦公’의 姓을 쓰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公’는 오래된

186) 左京人從五位下行下野權介秦宿祢永原・從五位下守大判事兼行明法博士秦公直宗、山城國葛野郡人外從五位下行音博士秦忌寸永宗、右京人主計大充正六位上秦忌寸越雄、左京人右衛門少志秦公直本等、男女十九人、賜姓惟宗朝臣。永原等自言。秦始皇帝十二世孫、功滿王子、融通王之苗裔也。

姓의 하나로, 후손이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依智秦氏 또한 秦公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依智秦公이라는 성씨를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하고 있다. 大橋信弥가 조사한 796년부터 1133년 사이의 『平安遺文』<sup>187)</sup>내에 수록된 愛知郡內의 고대 인명을 보면, 大國郷에 거주하였던 100명의 秦氏·依智秦 중에서 ‘公’姓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 78명, 八木郷 거주 15명의 秦氏·依智秦 중에서 15명 전원, 蚊野郷의 7명 중에 3명, 養父郷의 10명 중에 7명, 그 외 마을에서 48명 중에서 33명이 ‘公’姓을 유지하고 있는 점<sup>188)</sup>으로 보아 ‘公’姓이 가지는 秦氏 종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近江지방은 敦賀를 통해 한반도 동해남부 해안 출신의 도래인이 상륙하여 크게 번성한 지역인데, ‘公’를 유지하는 依智秦氏의 경우는 山城의 秦河勝의 후손임을 의미하므로, 한반도 동해안 출신이 아닌, 가야로부터 도래하여 葛城의 朝妻掖上에 정착한 秦公의 자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依智秦氏는 山城國에서 近江 愛知郡으로 이주한 것으로 본다. 大橋信弥도 이 같은 지적을 하면서, 依智秦氏는 “山城로부터 近江에 이주<sup>189)</sup>”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702년의 正倉院文書 美濃國 当麻郡三宅里戶籍의 秦公曆, 713년 편찬의 명(命)이 내린 『播磨風土記』의 ‘揖保郡少宅里’ 秦公, 東大寺文書 貞觀8年(866)10月の 愛知郡 大國郷 秦公宗直의 기록을 보아 秦公은 播磨國, 美濃國에도 널리 확산되어 왔다. 秦公은 大和國에서 山城國→近江國→美濃國→播磨國·讃岐國 등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187) 竹内理三가 平安時代(781년부터 1185년 사이의 고문서)의 문서를 정리한 사료집으로, 1947년부터 1967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전 15권.

188) 大橋信弥(2004) 『古代豪族と渡來人』 表10 ‘愛知郡の古代人名一覽’ 吉川弘文館, pp.234-246.

189) 앞의 책 註188, p.257.

#### 4.3. 秦勝·秦人·秦人部·秦部系

秦氏は 秦公·秦宿禰·秦忌寸·秦造·太秦公宿禰처럼 우지(氏)의 뒤에 신분을 나타내는 가바네(姓)를 가진 상층계급의 秦氏와 우지(氏) 뒤에 직능(職能)을 나타내는 秦勝·秦人·秦人部·秦部와 같이 상층계급인 秦氏의 지배를 받거나 속해 있는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상층계급의 직, 간접적 지배를 받았던 秦人部·秦部는 秦氏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계층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신분이다. 문헌 속에 신분이 상승한 경우도 보이기는 하나<sup>190)</sup> 극히 드문 경우로, 이 姓氏는 신분상승이 어려우므로 姓氏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秦氏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한 가지 어려움은 이 계층의 구성인에 대한 학설이다. 앞에서 加藤謙吉는 秦勝의 “勝姓은 한반도 도래계의 氏族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하며 “秦人·秦人部·秦部를 관리하는 신분”이라 한다. 그리고 秦人는 “한반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아도 지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秦人部·秦部の 경우는 “秦人와는 달리 이차적, 부속적으로 설치된 집단의 가능성이 크다”하며, “秦氏에 의한 秦人의 지배체제가 성립한 다음, 새롭게 이 조직에 더해진 현지의 농민이라고 추측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秦氏族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력인 秦人部·秦部는 현지의 일본인 농민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학설이 대두한 배경 중의 하나는 『日本書紀』에 기록된 秦氏의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때문이라 생각된다.

『日本書紀』應神朝十四年(283)條에 弓月君가 백제로부터 건너와 이르기를 “저는 120현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만, 신라가 방해하여 가락국에 머물고 있습니다(臣領己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然因新羅人之拒)”라 하였고, 『新撰姓氏錄』의山城國의 秦忌村條에는 應神朝十六年(285)에 “弓月君가 127縣의 백성을 이끌고 귀화하였다(百廿七縣伯姓を率て歸化す)”고 한다. 『新撰姓氏錄』의 숫자를 신뢰한다

190) 『續日本紀』神護景雲三年(769)五月條에 攝津國西成郡 秦人廣立를 秦忌寸로, 『續日本後紀』承和二年(835)條에 秦部福衣에게 秦公를 하사한 경우.

면 127縣의 백성이 일본에 도래한 것인데, 이 ‘127縣’은 몇 명일까?

위 『日本書紀』 應神朝十四年(283)條의 ‘百廿縣’의 읽기는 ‘ももあまりはたちのこほり’인데, ‘こほり’는 분명 우리나라의 ‘고을’에서 유래되었으나, 삼국시대 고을의 인구수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단지 『日本書紀』 欽明朝元年(540)八月條에 “귀화해온 秦氏 등을 각 지방에 분산배치하고 호적에 기재하였다. 秦氏의 호구수는 전부 7,053호였다(編貫戶籍。秦人戶數惣七千五十三戶)”고 하므로 다행히 당시의 秦氏의 구체적 인구수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1호구 당 인구 수(평균 25명)를 바탕으로 秦人의 총 인구수를 약 176,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이 숫자는 당시 인구(200만)의 8.5%<sup>191)</sup>에 달하는 것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두 가지의 해석방법이 있는데, 첫째 이 숫자를 당시의 실제 도래인 인구수로 보고, 한반도 도래의 역사가 기원전부터 시작이 되어 540년대에 이르러 17만 여명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또 둘째는 加藤謙吉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의 도래인에 이차적으로 현지의 일본인 농부가 합류하였다는 해석이다. 첫 번째 해석은, 『日本書紀』에 의하면 신라의 왕자 天日槍命가 垂仁朝三年(기원전 27)에 일본에 도래하였고, 가야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の 도래 기사 또한 垂仁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도래인의 역사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平野邦雄을 포함한 다수의 학자가 『播磨風土記』에서의 天日槍의 여정이 秦氏의 거주지와 일치한다고 하므로, 가능한 해석이다. 두 번째의 경우, 正倉院文書에 남아있는 秦部和 秦人部の 혼인풍속을 분석해 출신지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正倉院文書에 남아있는 702년의 豊前國 三毛郡塔里·上三毛郡加目久也里·仲津郡丁里戶籍의 秦部の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3개 군(郡)의 총 15쌍의 배우자(아내) 성씨 중, 12쌍이 남편과 같은 秦部, 3쌍이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sup>192)</sup> 일본은

191)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의 고구려(AD 481년의 추정치), 백제(554년 추정), 신라(576년 추정)의 총 인구수는 2,708,72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2) 앞의 주 註124, p.142.

1896년 이전까지는 부부별성(夫婦別姓)<sup>193)</sup>이므로, 당시는 同姓간의 혼인이 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배우자(아내)인 12쌍의 秦部는 도래인 아니면 일본 현지인이다. 그런데 702년 美濃國 味蜂間郡春部里 戶籍<sup>194)</sup>를 보면, 도래인 秦人의 23쌍의 경우, 배우자(아내)의 성씨는 남편과 같은 秦人が 16쌍, 別姓이 1쌍, 아내 부재(不在)가 6쌍이다. 加藤謙吉에 따르면 秦人は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농부라고 하므로, 16쌍의 배우자 秦人は 도래인이다. 즉 秦人は 同姓에다 같은 도래인 출신인 秦人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豊前國의 秦部 또한 15쌍 중, 13쌍이 남편과 같은 姓氏이며, 美濃國 秦人의 혼인풍속을 보아, 豊前國秦部도 같은 도래인 출신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

豊前國 塔里·加目久也里·丁里戶籍에서 도래인 출신인 勝姓의 혼인 13쌍을 보면, 배우자(아내)의 성씨가 秦部인 경우가 5쌍, 勝姓이 5쌍, 別姓이 3쌍으로, 勝姓은 도래인 출신에게만 붙는 姓이므로 5쌍의 아내 勝姓은 도래인 출신이다. 그리고 앞의 豊前國과 美濃國에서 보이는 동일 출신과의 혼인경향을 볼 때, 秦部 또한 도래인 출신으로 본다. 따라서 秦氏 일족은 대체적으로 도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秦部和 秦人部가 현지 농민이라는 구체적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秦勝·秦人·秦人部·秦部를 도래인 출신으로 간주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하기로 한다.

## ＊ 秦勝

秦勝에 대한 초기 기록을 보면, 奈良시대 전기 이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河內國의 ‘하타하이 지 터(秦廢寺跡)’-현 大阪府貝塚市-가 秦勝氏의 氏寺로 알려져 있다. 藤原宮 출토의 奈良시대 목간에 若狹國 三方郡-현 福井縣三方郡-에 거주하는

(<https://doi.org/10.1111/1368-0733.12001>)

193) 佐藤一明(2016), 「夫婦別姓」 『日本経大論集』 45(2), 日本経済大学, p.p.99-100.

194) 앞의 註124, p.1.

(<https://doi.org/10.1111/1368-0733.12001>)

秦勝稻足の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800년대에는 『三代實錄』貞觀十年三月(868)에 三方郡에 秦勝綱刀自의 이름이 보인다. 大和國의 경우, 『續日本紀』天平神護二年(766)에 “秦勝古鷹을 秦忌寸의 성을 하사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同書 神護景雲三年(769) 讚岐國 香川郡에는 秦勝倉下が 있고, 攝津國는 『新撰姓氏錄』諸蕃漢 和泉國의 秦勝와 『續日本後紀』承和4年(837)九月의 秦勝眞身の 이름이 보인다.

위의 기록을 보면, 秦氏族 내의 관리인 신분인 秦勝의 이동경로는 대체로 2곳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우선 한반도 도래인의 주요 상륙 지점이었던 若狹國, 近江國가 있고, 역시 낙동강 변 도래인이 정착한 大和國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또 다른 주요 거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若狹 지역의 秦勝 집단과 大和國를 중심으로 攝津國→ 讚岐國로 전개되어간 또 하나의 秦勝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다음은 전국에 분포해 있는 다양한 勝姓의 이동경로를 살펴 보기로 한다.

(표 4-1) 각 지역의 다양한 勝姓

| 지역  | 군·마을                              | 인명                                       | 연대                                 | 출전                              |
|-----|-----------------------------------|------------------------------------------|------------------------------------|---------------------------------|
| 美濃國 | 不破郡遠佐郷<br>各務郡中里<br>上同<br>加茂郡半布里戶籍 | 勝部支佐手<br>勝都賣<br>勝族千依賣<br>不破勝族漢賣          | 持統四年(690)<br>大宝二年(702)<br>上同<br>上同 | 奈良縣高市郡木簡<br>各務國中里戶籍<br>上同<br>上同 |
| 豊前國 | 上三毛郡塔里                            | 丁勝稻手<br>調勝馬手賣<br>強勝波利<br>楯勝赤賣<br>榎本勝牟久提賣 | 大宝二年(702)                          | 上三毛郡塔里戶籍                        |
|     | 上三毛郡加目久也里                         | 河邊勝鳥賣<br>上屋勝羊賣                           | 上同                                 | 加目久也里戶籍                         |
|     | 仲津郡丁里                             | 阿射弥勝布施賣<br>黑田勝赤賣                         | 上同                                 | 仲津郡丁里戶籍                         |

|     |                  |                                                        |                 |                     |
|-----|------------------|--------------------------------------------------------|-----------------|---------------------|
|     |                  | 古溝勝伊志賣<br>田部勝等許太利<br>高屋勝羊<br>狹度勝古麻呂賣<br>大屋勝衣麻呂<br>門勝龍賣 |                 |                     |
| 山城國 | 愛宕郡雲上里           | 木勝小玉賣                                                  | 神龜三年(726)       | 愛宕郡雲上里記帳            |
| 隱岐國 | 海部郡海部鄉<br>海部郡佐作鄉 | 勝部黑嶋<br>勝部由手                                           | 天平七年(735)<br>未詳 | 奈良縣高市郡木簡<br>奈良市二條木簡 |
| 近江國 | 未詳               | 勝首益磨                                                   | 延曆四年(785)       | 續日本紀                |
| 大和國 | 未詳               | 上勝<br>不破勝                                              | 未詳              | 新撰姓氏錄<br>上同         |
| 出雲國 | 大原郡佐世鄉           | 勝部□智麻呂                                                 | 未詳              | 奈良市雜町木簡             |
| 讚岐國 | 未詳               | 勝部乎坂                                                   | 未詳              | 奈良市二條木簡             |
| 因幡國 | 氣多郡勝部鄉           | 勝部人磨                                                   | 未詳              | 奈良市佐木町木簡            |

다양한 勝姓의 이동경로는 4 개의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豊前國 지역, 近江→美濃國 지역, 出雲國→因幡國→隱岐國 지역, 그리고 大和國→山城國→讚岐國 (혹은 尾張國→美濃國) 지역의 4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美濃國 진입이 近江를 통해서 인가, 아니면 山城國→尾張國을 통한 美濃國 진입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近江國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秦氏의 집단 거주지로 유명한데, 敦賀→近江를 거쳐 비과호(琵琶湖) 東岸을 지나 유명한 關ヶ原<sup>195)</sup>를

195) 일본에는 東海道の 鈴鹿關, 北陸道の 愛發關, 東山道の 不破關 등의 ‘三關’가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엄격한 통제, 검문, 검색이 따른다. 不破關가 ‘關ヶ原’ 마을에 있었는데, 관동지역에서 관서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

통과하면 美濃國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續日本紀』靈龜元年(715)七月廿七日条에 “오와리노쿠니(尾張國)-현 愛知県-의 무시로다키미(席田君)와 신라인 74가구를 美濃國으로 옮겼다<sup>196)</sup>”고 한다. 그런데 이 신라인들은 사실은 가야인이었다. 『續日本紀』天平宝字二年(758)十月廿八日条를 보면 “美濃國 席田郡의 姓이 없는 아시(吾志)가 이르기를, ‘6대 조상이신 오루노시치(乎留和斯知)가 가라국(賀羅國)에서 천황의 덕을 숭상하여 이곳으로 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일본의 풍속을 잘 몰라 姓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희 고향나라 이름에 따라 성을 내려 주십시오’ 하여 가라 미야쓰코(賀羅造)라는 姓을 하사하였다<sup>197)</sup>”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新撰姓氏錄』未姓雜姓<sup>198)</sup> 河內國項을 보면 “賀羅姓은 신라국 郎子王의 자손이다”라고 하므로, 賀羅氏는 가야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新撰姓氏錄』의 기사 때문에 ‘賀羅’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續日本紀』에서 美濃國의 秦氏一族의 선조가 ‘賀羅’姓을 가졌는데, 이 ‘賀羅’가 위 『新撰姓氏錄』에서 언급한 신라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한 금관가야의 ‘伽羅’를 뜻하는 것인가에 따라 이들의 이동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신라출신으로 동해남부 연안을 출발했다고 하면, 연안을 떠나 리만해류를 타고 남하하다가 일본의 出雲 부근에서 쓰시마(對馬) 해류를 타고 북상하여 敦賀→琵琶湖 東岸→近江國 요네하라(米原)-현 滋賀縣米原市- →關が原→美濃國에 진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勝族의 美濃國 진입은 近江國를 통해서이다. 만약 낙동강 주변의 伽羅 출신이라면, 부산(혹은 거제)→對馬→北九州→瀬戸内海→難波→山城國→美濃國, 혹은 尾張國를 거쳐 美濃國에 진입하였을 것이다.

본 고찰에 있어서는 당시의 일본에서는 신라에 합병당한 가라국을 신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播磨風土記』飾磨郡 少川里豊國村에 “豊國라고 부르

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196) 尾張國人外從八位上席田君邇近及新羅人七十四家。貫于美濃國。始建席田郡焉。

197) 美濃國席田郡大領外正七位上子人。中衛无位吾志等言。子人等六世祖父乎留和斯知。

自賀羅國慕化來朝。當時未練風俗。不著姓字。望隨國号。蒙賜姓字。賜姓賀羅造。

198) 姓이 없거나 근본이 확인되지 않는 姓의 뜻.

는 이유는 筑紫의 豊國의 神, 이곳으로 건너와 살았기 때문에 豊國村라고 부른다”는 九州와 本州와의 연관성, 九州의 筑前國에 똑 같은 지명인 席田郡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美濃國 勝氏를 남해안 지역의 가야출신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席田郡 뿐만 아니라 표 4-1에 예시한 바와 같이 美濃國 가카미군(各牟郡), 후하군(不破郡), 가모군(加茂郡)에 걸쳐서 다수의 秦勝族가 거주하였으므로, 美濃國도 고대 秦氏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00년 徳川家康와 毛利輝元 사이의 천하의 승부를 가르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 ‘세키가하라(關ヶ原)’였다. 이곳은 美濃國의 不破郡 關ヶ原町の 不破關 근처이었는데, 이곳에 秦氏一族 不破勝가 거주하였다.

#### ＊ 秦人

秦人は 이른 시기부터 若狹國와 美濃國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들의 흔적은 奈良縣과 近江國의 여러 유적지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볼 수 있다. 若狹國에는 持統朝一年(687) 大飯郡의 秦人小金, 文武二年(698) 遠敷郡의 秦人船, 文武二年(700) 大飯郡의 秦人申, 養老二年(718) 遠敷郡의 秦人足結, 神龜五年(728) 遠敷郡의 秦人孔子, 天平勝宝七年(755) 遠敷郡의 秦人鷹, 天平宝字四年(760) 遠敷郡의 秦人牟都麻呂, 그리고 滋賀縣高島郡 鴨遺跡에서 출토된 873년 遠敷郡 小丹里的 秦人足嶋 등 다양한 지역에서 풍부한 목간기록이 발견되었다. 특히 持統朝一年(687) 大飯郡의 秦人小金·文武二年(698) 遠敷郡의 秦人船의 목간기록은 650년 이전의 기록을 보기 어려운 일본의 상황에서 대단히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그리고 若狹國 오뉴군(遠敷郡)-현 福井縣 遠敷郡-에서 秦氏 관련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한반도 동해남부 지역 출신이 쓰시마 해류를 따라 자연히 이르는 지점으로, 대가야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가 상륙한 敦賀灣 부근이다.

美濃國에는 전 지역에 걸쳐 秦人의 분포가 나타난다. 먼저 奈良縣 가시하라(橿原市) 高殿町에서 출토된 목관에 文武二年(698) 厚見郡의 秦人(荒)人의 이름이

나오고, 美濃國 大宝二年(702) 戶籍에 秦人의 집단 거주 기록이 보인다. 肩懸郡 肩々里의 秦人稻賣, 本簀郡栗栖太里的 秦人阿久田賣, 各務郡中里的 秦人乎夜賣의 이름이 나오고, 加毛郡半布里에서는 마을 전체 인구 1056명 중, 秦人乎意比止賣를 비롯한 秦人 132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國郡 미상이기는 하나 山城國으로 추정되는 計帳에 21명의 秦人 집단거주 기록<sup>199)</sup>이 나온다. 『新撰姓氏錄』 諸蕃 漢의 右京에 秦人廣幡, 河內郡에는 『新撰姓氏錄』에 秦人의 이름이 나오고, 『續日本紀』 神護景雲3年(769)5월에 攝津國 西成郡의 秦人廣立, 同書 天平神護二年(766)에 이요국(伊予國)-현 愛媛縣-의 秦毗登淨足 이름이 나온다. 사이카이도(西海道)-현 九州, 宮崎, 鹿兒島 등 전 지역-를 보면 『續日本紀』 文武二年(698) 五月二十五日条에 “大宰府에 명하여 오노(大野), 키이(基肄), 구구치(鞠智)의 三城을 수리하게 하였다”는데, 鞠智城은 肥後國-현 熊本縣-에 있다. 1967년부터 시작된 鞠智城 발굴조사에서 최근에 ‘秦人忍□五斗’라고 쓰인 목간이 발견됨으로써 秦人가 성의 축조에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하였다. 豊前國의 광부 秦氏 일족과 연관이 있는 周防郡 철광지역인 구가군(玖珂郡)에는 延喜戶籍(902)에 秦人秋虫女 이하 95인의 이름이 나와 있다. 또한 近江國 愛知郡에 延暦二十一年(802)의 秦人阿, 弘仁11年(820)에 秦人乙麻呂, 秦人國行, 秦人福足 등의 이름이 보인다. 豊前國에서 秦人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부근인 肥後, 周防 지역에서 秦人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豊前國에 秦人가 살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秦人和 秦勝는 분포지역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199)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編(1925), 『大日本古文書』 卷之一, 東京帝國大學, pp.505.(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データベース, 검색일 2019.06.30, <https://cioling.hi.u-tokyo.ac.jp/viewer/view/icdata/850/8500/050001/0494?m=all&s=0333&n=20>) 해당 항목에는 國郡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바로 밑 부분에 “이 計帳은 연월(年月)미상이나 미루어 보건데 天平五年(733)으로 보이며, 新撰姓氏錄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山城國의 計帳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新撰姓氏錄』에는 백제출신으로 山城國의 ‘廣幡’가 기록되어 있다.

있다. 秦勝의 이동경로를 豊前國→讃岐國지역, 出雲國→因幡國→隱岐國 지역, 大和國→山城國→美濃國→(혹은 讃岐國) 지역, 그리고 若狹國→近江→(혹은 美濃國) 지역의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秦人 역시 豊前國을 중심으로 한 肥後國→周防國→伊予國→讃岐國 지역, 若狹國→近江國→(혹은 美濃國) 지역, 그리고 山城國→美濃國→攝津國→(혹은 讃岐國)의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 秦部·秦人部

秦氏 일족 중에서 실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계층이므로 인원이 많아 다른 계층에 비해 많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다. 두 계층은 집단 거주지의 분산도 같은 秦氏 일족에 비해 좁았고, 주로 지방에 산재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秦部の 기록이 많은 지역은 한반도 남해안 출신자들이 쉽게 상륙한 豊前國이다. 正倉院文書에 남아있는 大宝二年(702)의 豊前國 三毛郡塔里戶籍을 보면 149명의 마을 인구 중 秦部多祁留 외 63名, 上三毛郡加目久也里에는 총 74명 중 秦部黑賣 외 26名, 仲津郡丁里에는 533명 중 秦部掠賣을 비롯한 234名이 秦部로, 기술한 바와 같이 ‘秦王國’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築前國-현 福岡縣 서부-에는 大宝二年(702) 筑前國嶋郡川辺里戶籍에 秦部船賣, 秦部咩豆賣의 이름이 나온다. 이세국(伊勢國)-현 三重縣, 愛知縣 弥富市, 岐阜縣 海津市の 일부-에서 『續日本紀』 天平勝宝四年(752)十月八日条에 “伊世國 이노군(飯野郡)의 이마로(飯麻呂) 등 17명에게 秦部姓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무성(無姓)에서姓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續日本後紀』 承和二年(835)十月六日에는 “讃岐國 출신 秦部福依와 동생 福益 등 3명에게 秦公의 姓을 하사하였다”하니 극히 드문 신분 상승의 예이다. 또한 『三代實錄』 貞觀三年(861)六月廿日条를 보면 “讃岐國 아사게군(朝明郡)의 秦部美豆岐가 3명의 남자 아기를 출산하여 벼 300속(束)을 하사받았다”는 기사도 있다. 宝龜五年(774) 正倉院文書の ‘沙弥勘籍啓’에 備前國 邑久

郡 積梨郷의 秦部國人が 보인다.

당시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동(關東) 지방의 시모쓰케노쿠니(下野國)-현 栃木縣-와 무사시노쿠니(武藏國)-현 東京都, 埼玉縣, 神奈川縣-에도 秦部の 기록이 나온다. 下野國에는 『文德實錄』 齊衡元年(854)三月에 “秦部正月滿의 아내 秦部總成女에게 남편이 사망 후 정절을 지켰다 하여 상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다. 『日本書紀』 持統元年(687)三月廿二일에 “귀화한 신라인 14명을 下野國에 보내어 밭을 제공하여 생업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였다”는 기사 이래, 持統三年과 四年에도 신라인을 下野國에 이주시키고 있다. 武藏國에도 『續日本紀』 天平宝字二年(758)八月廿四일에 “귀화한 신라 승 32명과 여승 2명, 남성 19명, 여성 21명을 武藏國의 미개척지(閑地)에 보내었는데, 이것이 新羅郡의 시작이다”는 기사와, 2년 후에는 귀화한 131명의 신라인을 재차 武藏國에 보내었다. 武藏國 하라군(幡羅郡)에는 上秦郷·下秦郷가 있고, 니이구라군(新座郡)에는 시라기군(新羅郡)이 변형된 시키 마을(志木郷)이 있고, 쓰즈키군(都築郡)에는 다카하다 마을(高幡郷), 하타야 마을(幡屋郷), 그리고 오부스마군(男衾郡)에도 하타 마을(幡多郷)이 있을 정도로 秦氏, 秦部와 깊은 연관을 보이는 지역이다. 關東지방 이주목적은 사람이 살지 않은 황폐한 지역을 개척하기 위함인데, 현대에도 關東지역의 곳곳에 秦氏의 손길이 보인다. 이들은 주로 제방공사에 많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도쿄에는 하다노시(秦野市)-현 神奈川縣-라는 지명이 있고, 아사쿠사(淺草) 스미다강(隅田川) 부근에는 秦氏들의 집단거주지인 奈良縣磯城郡의 타와라모토초(田原本町)와 닮은 지명인 田原町가, 아라가와(荒川)와 토네가와(利根川)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幡羅郡, 그리고 도쿄 시부야(澁谷)의 하타가야(幡ヶ谷) 등 秦氏와 관련된 지명들이 보인다. 熱海驛 앞의 마을이름 역시 田原本町이다.

## ＊ 秦人部

大宝二年(702) 御野國 味蜂間郡春部里, 本簀郡栗栖太里, 山方郡三井田里 호적에는 많은 秦人部の 인명이 올라와 있고, 備中國 都宇郡建部郷에 秦人部稻麿, 辛人里 秦人部弟嶋의 이름이 나온다. 讃岐國에는 ‘知識優婆塞貢進文’에는 香川郡 幡羅里의 秦人部長田가 있고, 『續日本紀』 延暦二年(783)七月一八日条에 “越前國大飯郡의 秦人部武志麻呂依가 車持의 姓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備中國 氷上郡 출토 목간에서도 秦人部の 이름이 나왔다. 秦人部の 기록은 인구수에 비해 적다.

대체로 秦部和 秦人部는 유사한 이동경로를 보이는데, 豊前國-筑前-筑後 지역, 山城國를 중심으로 한 伊勢國과 美濃國 지역, 그리고 近江→丹後→越前→越中에 의 확산경로를 보였다. 秦部和 秦人部の 공통점은 인구수에 비해 기록이 적으며, 이동경로는 지방 중심의 확산이며, 同族同姓의 혼인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 4.4 己智系

欽明朝元年(540)二月条에 “백제인 己智部가 귀화하였다. 야마토국(倭國)의 添上郡 山村에 살게 하였다. 山村己智部の 선조이다”는 기록으로 보아 ‘己智’도 고분시대부터의 오래된 姓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新撰姓氏錄』에 “三林, 長岡, 櫻田는 秦氏와 동족이다”고 하므로, 이 姓氏도 己智氏 계열의 이동경로에 포함시킨다. 오다키씨(大瀧氏)도 『續日本後紀』 承和十年(843)十二月条에 “데와국(出羽國)-현 山形県, 秋田縣-의 奈良己智 등 5인에게 大瀧宿祢의 姓을 하사하였다 200)”고 하므로, 같은 범주에 넣는다.

欽明朝元년에 大和國 添上郡에 己智部, 山村己智部와 長岡氏, 櫻田氏, 『續日本紀』 宝龜七年(776)十二月에 보이는 右京의 奈良忌寸가 있고, 『播磨風土記』 飾磨郡의 巨智氏의 기록이 있으며, 『續日本紀』 光仁朝宝龜十一年(780)三月에는 伊

200) 出羽國河邊郡百姓外從五位下勳八等奈良己智豐繼等五人。賜姓大瀧宿祢。其先百濟國人也。

勢國-현 三重縣-의 三林氏, 그리고 攝津國의 御林宿禰의 기록이 보인다. 近江國 野洲郡에 曰佐氏, 天平神護二年(766) 越前國의 秦曰佐, 丹波國 船井郡의 秦曰佐의 기록이 있다.

己智氏의 이동경로는 간결하게 2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大和國 →山城國→攝津國의 경로와 近江國→越前國→丹波國→出羽國의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이상으로 고대 秦氏 일족의 이동경로를 살펴 보았는데, 대체로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지점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남해안 출신의 상륙지인 豊前國과 또 다른 경로인 瀬戸内海-山城國 권역, 그리고 동해남부 출신의 상륙지인 近江 등, 이 3개의 秦氏 집단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각 인접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 豊前國의 秦氏가 山城國까지,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을가는 의문이다. 『播磨風土記』 飾磨郡에서 豊前の 신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고, 역방향으로 河内國 茨田의 秦氏가 播磨國에 이주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더구나 大宝元年(701)에 筑紫 胸形神社의 여신 市杵嶋媛命을 京都의 松尾大社에 모신 것으로 보아 豊前國의 秦氏와 山城國의 秦氏는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도래인 秦氏의 씨족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식산적(殖産的), 지방 지향적, 하급 씨족집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다수의 연구자에게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대 正史 기록인 六國史를 비롯하여 고대 목간과 호적, 여타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秦氏는 간과할 수 없는 고대의 거대 씨족 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 인식과 역사적 실체 사이에는 괴리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료에 기초하여 바로 잡아 보고자 하였다. 六國史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초기단계에서 秦氏는 이미 최고 권력의 중요층근이 있으며, 欽明朝 무렵 일본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할 정도의 거대 집단이기도 하였다. 700년대 들어서는 秦氏의 집단 거주 기록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해당 지역의 유력씨족이 되었다. 특히 恭仁京·長岡京·平安京의 왕궁(皇居) 건설에 秦氏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도 보였다. 이를 배경으로 秦氏는 현대일본의 주요 신사로 자리 잡은 八幡神社·稻荷神社·松尾大社를 창건하였다.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도래인이 일본에 도착하는 지점은 3군데가 있다. 우선 남해안을 출발하여 九州에 도착하는 항로로 豊前國 秦氏의 거점이며, 여기에 秦氏는 宇佐八幡宮의 기초를 쌓았다. 두 번째 경로는 한반도 동해남부 해안에서 출발하여 出雲 등을 거쳐서 敦賀에 도착하여 近江에 정착하는 경로로, 이 지역에는 大津園城寺 新羅明神이 진좌하고 있다. 세 번째 항로는 남부지방을 출발하여 瀬戸内海를 경유하여 難波에 도착하여 葛城御所に 정착하는 경로인데, 葛城秦氏, 山城秦氏의 근원지로 御所の 賀茂氏는 京都 鴨川에 下鴨神社를 창건하였다. 鎌倉幕府를 창설한 源頼朝의 中祖 源義家は 宇佐八幡宮로부터 勸請한 岩清水八幡神 앞에서, 둘째 義綱는 下鴨神社의 賀茂大明神 앞에서, 셋째 義光는 大津園城寺 신라명신(新羅權現) 앞에서 성인식을 가져 각각 八幡太郎, 賀茂次郎, 新羅三郎라고 불렸다.

이상과 같이 秦氏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일개 도래집단으로서 殖産的 씨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거대집단이며, 왕조와도 밀접한 고리를 가진 씨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다.

### 제3장. 하타씨(秦氏)와 야와타노카미(八幡神)와의 관련성

#### 1. 머리말

源義家와 義綱·義光 삼형제는 京都 石清水八幡宮의 八幡神, 下鴨神社의 賀茂建角身命, 大津 園城寺 新羅明神 앞에서 神前元服式을 올려 八幡太郎, 賀茂次郎, 新羅三朗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올린 신사나 절이 모두 가야 도래인 秦氏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河内源氏 中興의 祖로 불리고 있는 만형 義家が 성인식을 치른 岩清水八幡宮의 八幡神<sup>201)</sup>와 秦氏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2. 선행연구

먼저 八幡神의 기원부터 성립 및 발전에 관한 연구로는 저서에 八幡信仰의 기원과 습합과정, 応神天皇에의 八幡神의 변환과정, 발달 과정을 치밀하고 규명한 中野幡能의 『八幡信仰』<sup>202)</sup>, 八幡神의 발생과 宇佐의 지방신에서 전국적인 神으로 확산되는 八幡神의 발전과정을 연구한 達日出典의 『八幡神と神仏習合』<sup>203)</sup>, 田川 香春岳의 秦氏一族과 ‘秦王國’이라고 불린 京都郡, 築上郡, 下毛郡의 秦氏 집단 주거지역에 대해 논한 泊勝美의 『古代九州の新羅王國』<sup>204)</sup>, 秦氏연구의 집대성이라고도 불러 손색이 없는 大和岩雄 『秦氏の研究』<sup>205)</sup>가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201) ‘八幡’의 읽기에 있어서, ‘야와타’로 읽는 것은 민속학적 의미(많은 천 혹은 깃발)이며, ‘하치만’은 불교식 한자음인데, 불교사상이 이 신앙에 이입된 것은 후대이므로 “야와타”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202) 中野幡能(2000) 『八幡信仰』 塙書房.

203) 達日出典(2007) 『八幡神と神仏習合』 講談社現代新書.

204) 泊勝美(1974) 『古代九州の新羅王國』 新人物往來社.

205) 大和岩雄(2016) 『秦氏の研究』 大和書房.

寺尾美智子 「八幡信仰の成立」<sup>206)</sup>, 佐志傳 「八幡信仰の起源について」<sup>207)</sup>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검토대상인 宇佐氏 관련 논문으로는 北條勝貴 「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姫命の鎮座について」<sup>208)</sup>, 龜井輝一郎 「古代の宗形氏と宗像信仰」<sup>209)</sup>가 있으며, 辛島氏에 관한 연구로는 大和岩雄 『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sup>209)</sup>, 大神氏와 三輪氏에 관해서는 上田正昭 『三輪山の神々』<sup>210)</sup>, 鈴木正信 「五～八世紀における大神氏の氏族的展開」<sup>211)</sup>와 金祥圭 「三輪山伝承考」<sup>212)</sup>, 瀬間正之 「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sup>213)</sup>, 그리고 ‘隼人’의 亂에 대해서는 『隼人の古代史』<sup>214)</sup>, ‘磐井’의 亂은 山尾幸久 『古代最大の内戦磐井の亂』<sup>215)</sup>가 있다. 또한, 국내의 八幡信仰에 관한 연구로는 宇佐八幡宮의 祭神인 “比咩大神는 香春神社의 사이도쇼(採銅所)에 모셔져 있는 신라의 도래신 도요히메(豊比咩)”라고 한 진은숙의 「우사하치만궁 제신에 관한 고찰」<sup>216)</sup>, 일본의 중세 신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老翁神의 발원 전승에 대한 규명, 그리고 이러한 “老翁神 전승의 대표적인 것이 秦氏집단이 모시던 八幡神이며,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전승”이라고 한 김현옥의 「秦氏と八幡信仰」<sup>217)</sup>, 宇佐八幡宮의 祭神인 “応神天皇와 神功皇后는 전형적인 모자신앙(母子信仰)의 형태”라고 한 김후련의 「모자신과 하치만 신앙」<sup>218)</sup> 등이 있다.

- 
- 206) 寺尾美智子(1999) 「八幡信仰の成立」 『種智院大學密教資料研究所紀要』 種智院大學密教資料 研究.
- 207) 佐志傳(1957) 「八幡信仰の起源について」 『史學』 30卷2号 三田史學會.
- 208) 北條勝貴(1997) 「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姫命の鎮座について」 『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 第72集 國立歷史民族博物館.
- 209) 大和岩雄(1993) 『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 白水社.
- 210) 上田正昭 편(2004) 『三輪山の神々』 學生社.
- 211) 鈴木正信(2012) 「五～六世紀における大神氏の氏族的展開」 『滋賀大學經濟學部研究年報』 第19卷 滋賀大學經濟學部.
- 212) 金祥圭(2007) 「三輪山伝承考」 『日語日文學』 第35輯 대한일어일문학회.
- 213) 瀬間正之(2018) 「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 『東洋文化研究』 第20号 東洋文化研究所.
- 214) 中村明藏(2001) 『隼人の古代史』 平凡社新書.
- 215) 山尾幸久(외 2명의 저자)(1985) 『古代最大の内戦磐井の亂』 大和書房.
- 216) 진은숙(2017) 「우사하치만궁 제신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 第78輯 일본어문학회.
- 217) 金賢旭(2005) 「秦氏と八幡信仰」 『일어일문학연구』 54권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 218) 김후련(2004) 「母子신과 하치만(八幡신앙)」 『동아시아 고대학』 第9輯 동아시아고대학회.

### 3. 八幡神의 제사 씨족과 秦氏

八幡神는 현재 九州大分縣宇佐市の 宇佐八幡宮에 진좌하고 있으며, 祭神은 야와타노오가미(八幡大神), 히메노오가미(比賣大神), 神功皇后의 3신이다. 八幡神은 15대 応神天皇, 比賣大神는 宗像三女神, 神功皇后는 応神天皇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八幡神의 원형은 가야에서 건너온 도래신으로, 가야의 도래인 秦氏계 가라시마 씨(辛島氏)의 祭神 豊比咩神와 고대 宇佐지방의 지주신(地主神) 히메가미(比賣神)가 결합하여 초기 八幡神가 형성되었고, 그 근본은 여성 신에 있다.<sup>219)</sup> 그러나 발전과정에 있어서 6세기 말에 중앙 정부로부터 파견된 미와(三輪)의 제사족인 오가씨(大神氏)가 応神天皇를 主神 八幡神로 바꾸었고 (8세기 이후), 이로부터 약 100년 후에 神功皇后를 祭神으로 추가함으로써 比賣大神와 더불어 현재의 八幡三神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八幡信仰의 발전과정은 加羅의 도래인 秦氏계 辛島氏의 신과 宇佐의 신이 합쳐지고, 大和의 三輪神社의 제사 씨족 大神氏가 합류하여 八幡神을 형성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八幡信仰은 자연숭배, 샤머니즘, 도교, 불교, 신도가 혼합된 종교사상으로, 그 기원과 성립, 전개과정이 너무나 복잡다난하여, 이광래는 실로 중층적 융합의 총합체<sup>220)</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八幡信仰의 종교사상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고대 八幡神의 3대 제사족인 辛島氏, 宇佐氏, 大神氏와 秦氏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豊前國의 제사씨족인 쓰루가씨(鶴賀氏), 아카소메씨(赤染氏), 나가미쓰씨(長光氏)와 秦氏와의 관계, 그리고 宇佐지방 호족 宇佐氏의 조상신 宗像三女神, 그리고 宇佐氏 재할의 토대가 되었던 고모진자(薦神社)와 秦氏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三輪神社의 제사씨족인 三輪氏의 후손인 大神氏와 賀茂氏,

219) 앞의 논문 註207, p.107

220) 이광래(2000) 「일본고대의신화적習合現象으로서 八幡神信仰에 관한연구」, 『일본역사연구』 11집 일본사학회, p62.

秦氏와의 관계 순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宇佐 지방의 유력씨족 宇佐氏와 한반도 도래인 辛島氏, 그리고 大和 지방의 제사씨족 大神氏의 관계는 대체적으로는 경쟁관계로 보고 있다. 물론 기존세력은 새로운 참여자를 견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3개 씨족이 宇佐에 합류하게 되는 바탕을 보면 이들이 秦氏에 의해 연결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八幡神와 관련된 3 씨족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 3.1 辛島氏와 秦氏

『豊前國風土記』에 “豊前國田川郡香春岳에 신라의 신이 스스로 건너와 살았으며, 철과 석탄이 풍부하였다<sup>221)</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太宰管内志』를 보면, 철광물을 채굴했던 “香春山 산노다케(三ノ岳) 사이도쇼(採銅所) 마을 안에 도요히메노미코토진자(豊比咩命神社)가 있는데, 이 신이 바로 신라의 신이며, 고미야하치만구(古宮八幡宮)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관은 鶴賀氏이다<sup>222)</sup>”고 한다. 鶴賀氏は『日本書紀』垂仁朝에 등장하는 대가야국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sup>223)</sup>를 연상시키는데, 香春山 採銅所 부근에는 아라히토진자(現人神社)가 있다. 신사의 祭神은 都怒我阿羅斯等이며, 신관 또한 鶴賀氏임을 보아 鶴賀 씨족은 가야계 도래인

221) 小學館(1994) 「豊前國風土記 鹿春郷」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p. 548.

昔者、新羅國の神、自ら度り到來りて此の河原に住みき。便即ち、名けて鹿春神と曰ふ。又、郷の北に峯有り。頂に沼有り。周り三十六歩計りなり。黄楊樹生ひ、兼、龍骨有り。第二の峯には銅、並びに黄楊龍骨等有り。第三の峯には龍骨有り。(鹿春郷)

222) 伊藤常足編(1908) 『太宰管内志』中卷 日本歴史地理學會 豊前之二(田川郡上): 辛國ノ神と比咩神との事聞ゆ。豊比咩命神社は今三ノ岳の麓にして中採銅所村ノ内に在て古宮八幡宮と云。(略)神官一家在り鶴賀氏なり。又云鏡山の神官も鶴賀氏なり。

223) 『日本書紀』垂仁天皇二年條: 一に云はく、御間城天皇の世に、額に角有ひたる人、一の船に乗りて越の國の筭飯浦に泊れり。故、其の處を號けて角鹿と曰ふ。これに問ひて曰す。何の國の人ぞ。對へて曰す。意富加羅國の王子、名は都怒我阿羅斯等。亦名は、于斯岐阿利叱智干岐と曰ふ。

秦氏 계통의 인물로 여겨진다. 大和岩雄도 “秦氏와 연관이 있는 쓰루가(敦賀)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이 씨족은 秦氏계 씨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224)</sup>”고 한다. 敦賀는 고대 秦氏의 집단 주거지역이며<sup>225)</sup> 한반도 동해안과 마주보고 있어 예부터 쉽게 도래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927년에 완성된 『엔기시키킨묘쵸(延喜式神名帳)』를 보면 “田川郡香春神社에 辛國息長大姫大目命, 오시호네노미코토(忍骨命), 豊比賣命의 三座가 진좌한다<sup>226)</sup>”고 하며, 『太宰管内志』에는 “辛國息長大姫大目命, 忍骨命의 신관은 赤染氏, 豊比賣命의 신관은 鶴賀氏<sup>227)</sup>”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同書에 ‘辛國息長大姫大目命의 辛國발음을 加羅久爾(가라구니)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 신은 가야에서 온 신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신을 모시는 신관인 赤染氏は 가야-정확히는 加羅- 도래인 출신임에 틀림이 없다. 백승옥은 “가야는 가야가 존재했던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이다. 당대에는 ‘가라’라는 국명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가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가라는 경남 김해와 경북 고령 두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 이름이다<sup>228)</sup>”고 했다. 또한 “駕洛, 伽落, 加耶, 伽耶는 12세기 이후에 편찬된 사서에만 보일 뿐, 그 이전에 편찬된 사서들에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辛國발음을 加羅久爾(가라구니)로 한다’는 『太宰管内志』의 표기는 이 여신이 한반도 고령이나 김해에서 도래한 신으로, 이 신을 모시는 秦氏도 이 지역 출신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구는 秦氏의 출신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續日本紀』 宝龜八年(777)四月十四日条에 “河内國 오아가타군(大縣郡)-大阪府 柏原市 일부와 八尾市 일부-에 사는 아카소메 히토타리(赤染人足)외 13인이 도코요 무라지(常世連)라는 성씨를 하사받았다<sup>229)</sup>”고 한다. 『倭名類聚抄』에 赤染氏が

224) 앞의 책 註209, p.23.

225) 加藤謙吉(2000)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p.27.

226) 皇典講究所(1929) 『延喜式校訂上卷』 卷十 神祇十 神名下 豊前國 大岡山書店, p.410.

227) 앞의 책 註222 참조: (香春神社に) 神官三家あり。赤染氏二、鶴賀氏一家あり。

228) 백승옥(2017) 「가야의 개념, 그리고 그 위치와 영역」 『내일을 여는 역사』

68집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pp.140-141.

살았던 大縣郡内に 오사토고(大里郷)<sup>230)</sup>가 있는데, 『新撰姓氏錄』에 따르면 여기에 사는 大里氏는 “秦始皇의 자손 弓月の 후손으로 太秦公宿祢와 조상이 같다”고 하므로 秦氏 씨족<sup>231)</sup>이다. 인근의 다카오씨(高尾氏), 데라씨(寺氏) 또한 秦氏 동족<sup>232)</sup>이다. 秦氏와 赤染氏와의 혈연관계에 대해 泊勝美는 “赤染氏와 秦氏씨는 동족, 적어도 동일한 생활 집단을 형성한 도래계 씨족이었음을 확정할 수 있다<sup>233)</sup>”라고 하였으며, 平野邦雄도 「秦氏の研究」에서 동일한 언급<sup>234)</sup>을 하고 있다. 또한 奈良 東大寺大仏 조성에 있어서 聖武天皇가 740년 秦氏와 그의 일족 赤染氏が 거주하는 大縣郡의 智識寺를 방문, 안치되어 있는 루샤나부쓰(盧遮那仏)를 보고 감명을 받아 京都 東大寺의 대불조성의 직접적 발원을 가지게 되었다.<sup>235)</sup> 香春山の 秦氏 일족은 대불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동(銅)을 공급하였으며, 秦氏는 주물 공으로, 赤染氏는 도금공으로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八幡神는 조성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탁(神託=託宣)을 내려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으며, 749년 11월, 대불의 주조가 완성되자 八幡神는 규슈의 宇佐를 출발, 12월 27일 천황부부와 함께 奈良 東大寺를 참배하였다. 이로서 일개 지방 신에 지나지 않았던 八幡神는 전국적인 신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숨은 공로자는 香春岳 광산지역의 秦氏 일족, 그리고 河内國 大縣郡의 大里氏, 인근의 高尾氏, 寺氏 등의 주물기술자들이었다. 752년 4월 9일, 신라의 왕자 김태렴(金泰廉)은 700여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대불의 개안공양(開眼供養)의 날에 참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36)</sup>

229) 『續日本紀』 宝龜八年(777)四月十四日：右京の人で從六位上の赤染國持ら四人、河内國大縣郡の人で赤染人足ら十三人(略) 常世連の氏姓を賜った。

230) 源順(1617) 「河内國 第七十 大縣郡」 『和名類聚抄』20卷 (3) 那波道円。

231) 『新撰姓氏錄』河内國 諸蕃 漢。

大里史 史 太秦公宿祢同祖 秦始皇五世孫融通王之後也。

232) 太田亮(1934) 『姓氏家系大辭典』 赤染氏 大里氏 高尾氏 寺氏 各條項. 姓氏家系大辭典刊行會。

233) 泊勝美(1974) 『古代九州の新羅王國』 新人物往來社, p.75.

234)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一)」 『史學雜誌』70篇3号, 史學會, p.73.

赤染氏は秦氏と同族、また同一の生活集團を形成した氏族で恐らく新羅系歸化人と思われ、常神信仰の母体をなしたと想定できよう。

235) 『續日本紀』聖武天皇 天平勝宝元年(749) 十月九日条

宇佐八幡宮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호쵸에(放生會)<sup>237)</sup>인데, 放生會의 출발지가 香春山 採銅所 앞의 豐比賣命가 모셔져 있는 古宮八幡宮이다. 여기서부터 八幡神의 神体인 銅鏡을 미코시(神輿)에 태우고 宇佐의 해안가까지 순행하게 된다. 이 동경을 제작하는 씨족이 香春山 採銅所의 세이사덴(清祀殿) 신관 長光氏인데, 長光氏는 赤染氏의 동족으로 秦氏계 일족임이 밝혀져 있다. 中野幡能는 “宇佐八幡宮의 최초의 제사씨족인 辛島氏와 長光氏는 香春社에 봉사하는 赤染氏와는 동족, 또는 赤染氏 그 자체이지 않을까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238)</sup>”고 했으며, 三木彊도 『宇佐八幡宮原像』에서 “清祀殿社地에 있는 長光寺의 창고 벽면의 문장(土藏紋)이 染인 것으로 보아 長光氏도 아마 赤染氏이지 않을까<sup>239)</sup>”라 언급하고 있다. 放生會의 여정을 보면, 香春山 採銅所로부터 미야코군(京都郡)→지쿠조군(築上郡)→고우게군(上毛郡)→시모게군(下毛郡)→우사와마하마(宇佐和間浜)를 순행하는데, 이 지역은 『隋書』 「倭國伝」에서 이르는 ‘秦王國’<sup>240)</sup>을 지칭한다. 倭國伝에서 말하는 “文林郎裴淸을 왜국에 파견하였다(文林郎裴淸使於倭國)”라는 기록은, 『日本書紀』推古朝十六年(608)四月의 기사에도 사절단 대표 ‘裴世淸’의 이름이 등장함으로 정확한 내용이라 하겠다.<sup>241)</sup> 이처럼 裴世淸은 「倭國伝」에서 당시 일

236) 『續日本紀』孝謙天皇 天平勝宝四年(752) 三月二十二日条

237) 720년에 일어난 가고시마의 하야토의 반란(‘隼人’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大和 조정과 宇佐지방의 토벌군은 八幡神을 앞세우고 정벌을 행하였다. 721년 7월에 반란을 진압하였는데, 이때 전사한 하야토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례를 말함.

238) 中野幡能(1975) 『八幡信仰史の研究 上巻』 「八幡信仰の研究について」 吉川弘文館, p.154.

239) 三木彊(1980) 『宇佐八幡宮原像』 學生社, p.109.

大和岩雄(2016) 『續 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154.에서 재인용

240) 唐魏徵等奉敕撰(1844) 『隋書』85卷 [25] 列伝 倭國, 高松講道館, コマ17.

(國會図書館デジタル)

明年 上遣文林郎裴淸使於倭國 度百濟行至竹島 南望耽羅國經都斯麻國迥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以爲夷洲疑不能明也 又經十餘國達於海岸 自竹斯國以東皆附庸於倭。

241) 『日本書紀』推古十六年夏四月条,

十六年の夏四月に、小野臣妹子、大唐より至る。唐國妹子臣を号けて蘇因高と曰ふ。即ち大唐の使人裴世淸、下客十二人、妹子臣に従ひて、筑紫に至る。難波吉士雄成を遣し、大唐の客裴世淸等を召す。唐の客の爲に、更新しき館を難波の高麗館の上に造る。

본인과 다른 ‘華夏人’으로 보이는 이방인들이 북부 규슈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아닌 秦씨족들이었다. 실제로 正倉院에 남아있는 平安시대의 京都郡, 築上郡, 下毛郡의 호적을 보면, 거주자의 80% 이상이 秦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放生會의 여정은 香春山の 제사씨족인 秦氏 일족의 宇佐평야를 향한 東進의 길이기도 한데, 이들은 아마쿠니가와(山國川)를 건너 宇佐 약간가와(驛館川)의 左岸에 이르러 辛島郷을 건설하였다. 辛島郷의 秦씨족은 자신들의 신인 辛國息長大姫大目命와 驛館川 右岸의 토착세력인 宇佐氏의 오모토 산(御許山) 신앙과 습합하여 초기 八幡信仰을 형성하였다.

현재의 宇佐八幡宮의 祭神은 八幡大神, 比賣大神, 神功皇后의 3신으로 되어 있으나, 초기의 八幡神은 여성 신이었다. 6세기 말에 大和조정에 의해 파견된 大神氏에 의해 八幡神가 応神天皇로 변환되고, 秦氏를 대표하는 辛島氏は 새로운 八幡神의 제사씨족으로 계속 활약하게 된다. 八幡神가 応神天皇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묘사한 문서가 844년에 작성된 「우사하치만구 미로쿠지곤류엔기(宇佐八幡宮弥勒寺建立緣起)」이다. 그 중에서 「가라시마야누시케조(辛島家主解狀)」<sup>242)</sup>를 보면, “欽明天皇시절에 応神天皇가 宇佐郡 가라쿠니 우즈타카시마(辛國宇豆高島)에 강림하였다<sup>243)</sup>”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秦氏 일족의 본거지인 辛島郷의 뒷산인 ‘이나쓰미야마(稻積山)’를 지칭한다. 또한 제사장인 가라시마 스구리오토메(辛島勝乙目)가 八幡神의 또 다른 강림지 마키미네(馬城峯)에 가서 참배를 하였다는 同書의 기록은 秦氏를 대표하는 辛島氏와 八幡神와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辛島氏は 900년경까지 八幡神의 제사씨족으로 큰 활약을 하였고, 대대

242) 「辛島家主解狀」은 814년에 작성된 문서인데, 「宇佐八幡宮弥勒寺建立緣起」에 「一曰」의 奥書 형태로 실려 있다.

243)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所編(1909) 「宇佐八幡宮弥勒寺建立緣起」 『大日本古文書』家わけ四ノ二 東京帝國大學, コマ17. (國會図書館デジタル).  
一曰。大御神者、初天國排開廣庭天皇御世、宇佐郡辛國宇豆高島天降坐。從彼大和國膽吹嶺移坐、從彼紀伊國名草海島移坐、從彼吉備宮神島移坐、從彼豊前國宇佐郡馬城嶺始現坐。是大菩薩者、比志方荒城潮邊移坐。爾時家主上祖辛島勝乙目、大御神之御許參向。

로 신의 소리(神託)를 전하는 여성 네기(禰宜)의 역할을 맡았다. 같은 제사족인 宇佐氏, 大神氏와 달리, 辛島氏は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여성 샤먼(shaman)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존재였다. 『豊前國風土記』에서 신라의 신이 스스로 香春山에 와서 살았다고 하는데, 香春山の 광부인 秦氏 일족이 모셨던 「豊比咩」혹은 「辛國息長大姫大目命」은 그들을 지켜주는 무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추측이 된다. 그러나 이 여성신이 고향인 가야에서는 어떤 신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 3.2 宇佐氏와 秦氏

宇佐지방의 御許山の 三巨石를 지주신으로 모시고 살던 宇佐氏は 이 바위를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三女神으로 전환시킨다. 『日本書紀』神代에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와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와의 사이에서 다고리히메(田心姫)·다기쓰히메(湍津姫)·이치기시마히메(市杵嶋姫)의 三女神이 탄생하였다. 이 여신들은 지쿠시(筑紫)지방의 무나가타씨(胸肩氏)가 모시는 신이라 기록되어 있다.<sup>244)</sup> 이어서 “一書에 이르기를”의 형태로, 一書 第一·第二에는 三女神의 강림지를 각각 筑紫國<sup>245)</sup>와 무나가타(宗像)로 하고 있다. 『古事記』에서는 三女神이 宗像郡의 오키노시마노 오키쓰미야(沖ノ島の沖津宮), 오시마노 나카쓰미야(大島の中津宮), 다지마노 헤쓰미야(田島の辺津宮)에 진좌하고 있으며, 胸形君이 모시는 신이라 하였다.<sup>246)</sup>

한편 『日本書紀』「一書(第三)」에서는 天照大神가 三女神을 우사노시마(宇佐嶋)에 강림시킨다.<sup>247)</sup> 그리고 同書 神武天皇朝에 따르면, 동정(東征)을 위해 휴가(日

244) 『日本書紀』神代上 本文: “此の三の女神、悉に是爾が兒なり」とのたまひて、便ち素戔鳴尊に授けたまふ。此則ち筑紫の胸肩君等が祭る神、是なり。”

245) 앞의 책 註244 참조, 一書(第一): 是に、日神、方に素戔鳴尊の、固に惡しき意無きことを知しめして、乃ち日神の生せる三の女神を以て、筑紫洲に降りまさしむ。

246) 『古事記』上卷·須佐之男命。

247) 앞의 책 註244 참조, 一書(第三),

向)-현 宮崎-를 떠난 神武天皇가 宇佐에 도착하였을 때, 宇佐지방관 우사노쿠니 노미야쓰고(宇佐國造)의 선조인 우사쓰히코(宇佐津彦)·우사쓰히메(宇佐津姬)가 宇佐川-현 驛館川-에서 神武天皇를 접대하고, 神武天皇는 측근인 아메노타네코노미코토(天種子命)와 宇佐津姬를 결혼 시킨다.<sup>248)</sup> 이 신화를 따른다면, 宇佐氏가 모셨던 御許山 정상에 三巨石의 지주신은 『記紀』신화의 시대에 이미 宗像三女神과 결합되었으며, 宇佐氏 또한 신의 시대부터 유래한 명문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達日出典은 “宇佐氏가 이미 大和정권하에 편입되었음을 의미 한다”고 하였고<sup>249)</sup>, 河野康彦은 “宇佐氏의 조상신을 皇祖神에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미 왕권의 지배하에 있는 宇佐氏와의 관계를 종교적으로 한층 긴밀화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림<sup>250)</sup>”이 왕권 측에 있었다고 논하였다. 『記紀』신화에 이어 『센다이쿠지혼기(先代舊事本紀)』·『덴진혼기(天神本記)』에서 ‘豊前國 아메노미쿠다리노미코토(天三降命: 三女神)는 豊前宇佐國造等祖’라 기록함으로써 宇佐氏의 선조는 宗像三女神<sup>251)</sup>이 되어 宇佐氏는 三女神에 대한 제사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대부분에서 三女神을 현해탄의 宗像 일족과 관련이 있는 신으로 기술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三女神이 宇佐지방의 호족 宇佐氏의 조상신이라고 하나, 『古事記』에서는 엄연히 이즈모(出雲)계 신인 오쿠니누시노미고토(大國主命)의 자손이자 인척임을 기록하고 있다.<sup>252)</sup> 이것은

即ち日神の所生れませる三の女神を以ては、葦原中國の宇佐嶋に降り居さしむ。  
今、海の北の道の中に在す。号けて道主貴と曰す。

248) 『日本書紀』神武朝, その年の冬十月五日条

249) 앞의 책 註203, p.102.

250) 河野康彦(1997) 「宇佐國造について」 『大分縣地方史』 No.165 大分縣地方史  
研究會 p.7.

251) 저자불상(1644) 「天神本記」 前川茂右衛門, 코마6.  
(國會圖書館デジタル)

252) 『古事記』上卷·大國主命

故、此の大國主神、胸形の奥津宮に坐す神、多紀理毘賣命娶して生める子は、  
阿遲鋤高日子根神。次に妹高比賣命。亦の名は下光比賣命。此の阿遲すき高日  
子根神は、今、迦毛大御神と謂うぞ。

三女神의 한 명인 타기리히메노미고토(多紀理毘賣命)가 大國主命와 결혼하여 葛城御所の 高鴨神社<sup>253)</sup>의 아지스키타카히코네노미코토(阿遲鉏高日子根命), 그리고 타카히메노미고토(高比賣命)를 낳았기 때문이다. 御所에는 경상남도 양산(梁山)의 백성과 秦氏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sup>254)</sup>으로 秦氏와는 고대로부터 인연이 깊은 곳이다. 또한 『新撰姓氏錄』河内國神別・宗形君에 宗像氏は 大國主命의 6세손 아다카타스미노미코토(吾田片隅命)의 자손<sup>255)</sup>으로 되어있다.

현재 宗像三女神은 宇佐八幡宮의 두 번째 제신인 比賣大神로 모셔져 있는데, 三女神 중에 市杵嶋姬가 701년 秦氏가 창건한 교토의 松尾大社에 진좌하고 있다. 秦氏가 이 여신만을 모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여신의 이름의 뜻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日本書紀』一書・第三에 “宇佐嶋에 강림하여 지금은 키타노우미지(北の海路)- 한반도에의 해로-에 진좌하여 미치누시노무치(道主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道主貴는 이 항로를 지키는 三女神을 지칭하고 있다. 秦氏는 가야 출신의 도래인으로 부산과 宗像를 잇는 일직선 상의 항로에서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바다의 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항로의 중간 지점이 沖ノ島인데, 현해탄 항로를 이용했던 많은 도래인들이 沖ノ島를 중간 기착점으로 이용,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실제로 이 섬에서 고대인들의 제사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宗像三女神 중에서 市杵嶋姬는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의 ‘齋く’의 발음과 흡사하며 이름 속의 嶋가 沖ノ島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무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해석이 가능하다면, 현해탄을 왕래하는 秦氏에게는 자신의 안전을 기원해 주는 市杵嶋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龜井輝一郎은 “湍津姬는 빠

253) 京都上鴨・下賀茂神社의 총본산

254) 『日本書紀』神功皇后朝, 五年春三月七日条,

襲津彦 新羅に詣りて蹈鞬津に次りて、草羅城を抜きて還へる。是の時の俘人等は、今の桑原・佐摩・高宮・忍海、凡て四の邑の漢人等が始祖なり。

255) 塙保己一編(1898) 『新撰姓氏錄』河内國神別 『群書類從』第十六輯 經濟雜誌社, p.184: 大國主命六世孫吾田片隅命之後也(宗形君)。

르게 흐르는 급류, 田心姫는 田霧姫라고도 표기해서 바다에 발생하는 안개의 의미를 가지며, 沖ノ島에 진좌하는 신이야말로 宗像神의 원형<sup>256)</sup>”이라 했다. 水野祐 또한 “田心姫는 일본해 특유의 농무(濃霧)를 신격화한 신, 湍津姫는 해류의 흐름을 형용하는 신, 그리고 市杵嶋姫는 포항(浦港)을 지배하는 무녀신<sup>257)</sup>”으로 해석했다. 이런 연유에서 秦氏は 市杵嶋姫를 씨족의 사찰인 松尾大社에 제신으로 모셨을 것이다. 전국의 宗像三女神을 모시는 6,442개의 신사 중, 市杵嶋姫만을 모시는 신사 수가 3,004개사에 이르러<sup>258)</sup>, 市杵嶋姫를 宗像三女神의 원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九州지방의 지방신이 어떻게 전국 각 지역에 진좌하고 있을까? 이유는 동천(東遷)하는 宗像의 해양족과 더불어 豊前國의 秦氏도 같이 움직였을 것이며, 그 사이에 교류나 인척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 『名類聚抄』 宗像郡내에 「辛家」<sup>259)</sup>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 宗像氏와 秦氏의 인척이나 혈연적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山城國 가도노(葛野)에 宗像神社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葛野지역은 秦씨족의 본거지로 宗像氏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宇佐八幡宮의 제신인 市杵嶋姫를 松尾大社の 제신으로 모신 것은 八幡神과 秦氏, 그리고 宇佐氏와 秦氏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宇佐氏が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宗像三女神은 그 존재가 宇佐八幡宮의 祭神으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八幡信仰의 여성신에서 応神天皇로 八幡神가 바뀔 때 제사씨족 宇佐氏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쇼와엔기(承和縁起)-

256) 龜井輝一朗(2011) 「古代宗像氏と宗像信仰」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研究報告I』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 世界遺産推進會議, p.112.

257) 水野祐(1977) 「出雲大神と宗像神—出雲文化の中の漁携文化」 『出雲學論攷』 神道學會編, pp.9-13.

北條勝貴(1997) 「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姫命の鎮座について」 『國歴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 第72集, p.47로부터 재인용함).

258) 矢田浩(2016) 「北部九州の宗像神と関連神を祭る神社の解釋」 『むなかた電子博物館紀要』 第7号 むなかた電子博物館, p.203.

259) 原順(1617) 「筑前國 第百二十五 宗形郷」 『倭名類聚抄20卷』 [5] [46] 那波道門.

辛島家主解狀라고도 한다. 『코닌간푸(弘仁官符)-大神清麿解狀-』·『후소라쿠기(扶桑略記)』·『도다이치요록쿠(東大寺要錄)』 등의 緣起文이나 문헌에는 새로운 八幡神의 출현에 대한 유래담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문서에서 원시 八幡神의 제사 씨족인 宇佐氏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원인은 527년에 일어난 이와이의 난(磐井の亂)<sup>260)</sup>에 있다고 할 것이다. 『筑後國風土記』에 의하면, 세(勢) 불리를 깨달은 磐井는 혼자서 宇佐氏의 본거지 부근인 豊前國 가미츠미케노아가타(上膳縣)-현 福岡縣 築上郡-로 도피하였다.<sup>261)</sup> 그의 아들 또한 救命을 위해 가스야(糟屋)-현 福岡縣 糟屋郡-의 미야케(屯倉)를 내놓았는데<sup>262)</sup>, 이곳도 宇佐氏의 세력 범위 내 지역이다. 이로 인해 宇佐氏도 大和조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達日出典는 磐井와 宇佐氏의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난을 통해서 宇佐氏의 급격한 쇠퇴는 틀림이 없다<sup>263)</sup>”고 하였다.

磐井의 亂이후 宇佐氏가 부활하게 된 계기는 720년의 남부九州의 ‘隼人’의 亂이었다. 大和조정의 정벌군에 협력하는 八幡神는 豊前國의 下毛郡 野仲-현 大分縣 中津市-에 있는 薦神社-大貞八幡宮라고도 한다. 경내의 三角池에서 자라는 薦로 베개를 만들고, 이를 八幡神의 靈驗으로 하여 가라시마노하즈메(辛島波豆米)가 앞장서 진군하여 隼人를 제압하였다. 그런데 薦神社는 宇佐八幡宮의 元宮이라고 불릴 정도로 八幡神와 연관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大宰管内志』·豊前國 下毛郡를 보면, “(薦神社) 社記에 의하면 宇佐神宮에 이어 八幡神의 탄생의 장소로 여기보다 이른 곳은 없다<sup>264)</sup>”고 한다. 그런데 八幡神가 수호신으로 살고 있다

260) 한반도 남부에의 출전을 반대한 이와이는 528년 大和조정의 物部麤鹿火에 진압되어 자결한다.

261) 『釋日本紀』卷十三「筑紫國造磐井」, 國史大系 第7卷. (國會圖書館デジタル) 獨自、豊前國上膳縣に遁れて南の山の峻しき嶺の曲に終せき。ここに官軍追ひ尋むるに蹤を失ひき。土、怒泄まず石人の手を撃ち折り石馬の頭を打ち墮しき。

262) 『日本書紀』繼體朝 二十二年十二月条.

263) 앞의 책 註203, pp.81-82.

264) 앞의 책 註222 豊前之七, (下毛郡).

社記には宇佐の宮につづきては八幡大神示現の地此社より先なるはなしと云うり。

는 저수지 三角池의 축성에 秦씨족인 辛島氏가 개입되어 있다. 『續日本紀』文武朝 大宝三年(703)九月二十五日条의 기록을 보면, “조정에서 호우렌(僧法蓮)에게 토지 40町<sup>265)</sup>을 하사하였다<sup>266)</sup>” 하며, 養老五年(721)六月三日条에는 “僧法蓮에게 宇佐君이라는 성을 하사하였다<sup>267)</sup>”한다. 大和조정의 이러한 보상은 法蓮의 三角池 개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통설이다. 中野幡能는 “法蓮과 그의 일족은 下毛郡에 三角池를 축조하여 오사다(大貞)평야를 개간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공적이 宇佐氏 부흥의 기반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축조술이 뛰어난 辛島氏와 연계하여 平安시대에는 다이구지(大宮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sup>268)</sup>”라 기술하고 있다. 즉, 秦氏계 辛島氏의 三角池 축조는 宇佐氏 부흥의 발판이 되었고, 宇佐氏는 宇佐八幡宮의 大宮司에 취임, 920년 대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大宮司직을 독점하게 되었다. 辛島氏의 三角池 축조의 개입은 薦神社 경내의 안내판에도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三角池의 축조는 (신사의 건물보다) 오래 되었다한다. 薦神社가 모시는 八幡神은 三角池를 지키는 수호신이였다. 당시 대륙의 기술을 지닌 도래인은 각지에 많은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755년 우사이케모리(宇佐池守)가 宇佐八幡宮의 최고위직인 大宮司가 되는데, 사실 池守라는 것은 薦神社의 저수지인 三角池를 지키는 못지기를 말한다. ‘磐井’의 亂 이후 쇠퇴했던 宇佐氏가 三角池를 통하여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그 뒤에는 三角池를 만든 秦氏계 辛島氏가 있었던 것이다.

宇佐八幡宮의 2대 중요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 언급한 放生會와 또 다른 하나는 行幸會이다. 이는 宇佐八幡宮 神官들이 薦神社 三角池의 薦를 잘라 薦枕을 만들어 이를 八幡神神의 분신으로 하여 田笛·鷹居·郡瀬·泉·乙·大根川の 관

265) 당시의 1町은 110미터에 해당.

266) 『續日本紀』文武朝 大宝三年(703)九月二十五日条. “施僧法蓮豊前國野三十町”

267) \_\_\_\_\_元正朝 養老五年(721)六月三日条 其僧三等以上親 賜宇佐君姓.

268) 앞의 책 註202, p.99.

런 신사를 순방하고, 다시 安心院妻垣·辛川·小山를 거쳐 豊後國 國東郡來繩郷 若宮·田染元宮·田原社를 방문한 다음, 安岐郷奈多八幡宮에 薦枕를 봉납한다. 이 순례는 八幡神가 宇佐로부터 上京하여 처음으로 東大寺大仏을 방문한 孝謙天皇朝 天平勝宝元年(749) 부터 시작된 朝廷주도의 행사-勅祭-로, 근세에 들어와 단절되었으나 八幡信仰에 있어서 薦神社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행사이다.

### 3.3 大神氏와 秦氏

6세기후반 大和조정에 의해 宇佐지방에 파견된 大神比義는 ‘磐井’의 亂 이후 쇠퇴한 宇佐氏의 뒤를 이어 驛館川 右岸에 본거지를 두고, 辛島氏와 함께 八幡神의 제사씨족이 되었다. 驛館川의 左右에 포진한 두 씨족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우호설을 주장한다.

大神氏<sup>269)</sup>는 『미와코우노미야가케이(三輪高宮家系)』<sup>270)</sup>에 따르면 大國主命를 원조로 하는 大田々根子の 자손으로 나와 있다. 이 계보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진위가 가려지지 않는 상태라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학설도 존재하나, 앞에서 언급한 辛島氏의 「辛島家主解狀」<sup>271)</sup>에서 八幡神인 応神天皇가 새롭게 탄생하여 宇佐의 진좌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宇佐郡辛國宇豆高島→야마토쿠니 이부키미네(大和國 膽吹嶺)→ 기이노쿠니 나구사미시마(紀伊國名草海島)→ 기비미야 코우노시마(吉備宮神島)→ 宇佐郡 마키미네(馬城嶺)”로 하고 있다. 여기서 ‘膽吹嶺’가 大和岩雄는 大和의 三輪神社 뒤쪽의 ‘大和國 우다군 오가미(宇陀郡大神)-현 奈良縣宇陀市菟田野大神-<sup>272)</sup>로, 達日出典는 ‘宇陀郡 이나사산(伊那佐山)-현 奈良縣宇陀市’<sup>273)</sup>-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奈良 宇陀郡大神 출신이라고 추정되

269) 三輪氏は 시대에 따라 三輪、大三輪、神、大神로 표기되었으며 모두 미와(みわ)로 읽었다. 그러나 우사지방에 파견된 大神는 오가(おおが)로 발음한다.

270) 大神神社社務所編(1928) 『三輪叢書』系譜 大神神社社務所, コマ312. (國會図書館デジタル)

271) 앞의 註242와 앞의 책 註243 참조.

272) 大和岩雄(2016) 『續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162.

는 大神氏는 大和 三輪神社와 관련이 있는 씨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古事記』 崇神朝를 보면 大田々根子は 三輪氏와 가모씨(鴨氏)의 조상으로 기록<sup>274)</sup>되어 있으므로, 大神氏는 三輪神社의 제사족인 三輪氏의 자손이며, 동시에 京都의 가미카모·시모카모(上賀茂·下鴨神社)의 제사씨족인 賀茂氏와도 동족이 된다.

『古事記』와 『日本書紀』 崇神朝에는 유명한 ‘三輪山伝説’이 나온다. “매일 밤 딸의 거소를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어 옷에 실을 꿰어 따라가 보니 三輪山の 작은 뱀이었다”거나 혹은 ‘三輪山の 신’이었다는 오다마키(葶環)-실꾸리-型 설화인데, 瀬間正之는 “이 전설은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의 설화<sup>275)</sup>와 유사하며, 견훤의 설화 또한 백제 무왕의 전설<sup>276)</sup>을 차용한 것이다. 400년 백제, 금관가야,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였을 때, 신라를 구하기 위해 광개토왕이 금관가야까지 침범하여, 많은 가야인들이 규슈 지역으로 피신, 이 도래인 집단이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에 三輪山으로 옮겨와 三輪氏が 되었다. 그리하여 이 피난민들이 지니고 있던 설화가 三輪山伝説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77)</sup><sup>278)</sup> 金祥圭는 “이러한 전승은 도래계 집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전승의 루트가 고대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sup>279)</sup>”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日本書紀』 崇神朝에서 三輪氏의 선조인 大田々根子が 발견된 곳이 지누노아가타스에무라(茅渟縣陶邑)-현 堺市, 和泉市, 岸和田市, 大阪狹山市 부근-로, 이곳은 가

273) 앞의 책 註203, p.p. 90-91.

274) 『古事記』 崇神朝：この多多泥古，神君，鴨君の祖.

275) 『三國遺史』 卷第二，紀異第二，後百濟·甄萱，출생에 관한 이설.

276) \_\_\_\_\_, 武王、무왕의 출생.

277) 瀬間正之(2018) 「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 『東洋文化研究』 第20号、p.132, pp.150-152.

278) 광개토대왕릉비：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晨城 倭寇大潰 城內(이하 16자 결손) 十九 盡拒隨倭 安羅人戍兵。

279) 金祥圭(2007) 「三輪山伝承考」 『일어일문학』 제3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231.

야 도래인들이 모여 도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거주하던 大田々根子 역시 가야 도래인이다. 또한 아베 신지(阿部眞司)는 “(三輪氏)의 선조는 5세기에 조선반도로부터 도래하여, 6세기 대에는 이즈미(和泉)의 陶邑에 정주하고 도자기 제작에 종사하였으며, 다시 大和 御諸山으로 이주하여 오모노누시노미코토(大物主命)의 제사에 관여하였다<sup>280)</sup>”고 한다. 松前健도 “스스로의 집안을 三輪神의 후손으로 칭하고, 과거의 고향인 한토(韓土)에 널리 퍼져 있던 苧環式 신흔담을 퍼트려 그 제사권의 독점을 노렸다<sup>281)</sup>”고 논하였다. 따라서 사쿠라이(櫻井) 三輪神社의 제사씨족 三輪氏は 가야 도래인의 후손이며, 三輪氏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大神氏 또한 가야계 도래인의 피를 나누고 있다.

三輪氏의 동족인 鴨氏は ‘니누리야(丹塗矢)’라는 전승을 지니고 있다. 내용은 京都 下鴨神社의 제신인 賀茂建角身命의 딸 다마요리히메(玉依姬)가 이시가와(石川)에서 놀고 있을 때, 丹塗矢가 흘러 내려와 이를 주워 참자리 곁에 두었더니 멋있는 남자로 변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설화이다.<sup>282)</sup> 한편 秦氏도 유사한 설화를 가지고 있다. 秦氏의 딸이 葛野河에서 빨래를 하다 흘러 내려온 丹塗矢를 곁에 두었더니 남자로 변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다.<sup>283)</sup> 두 씨족이 같은 설화를 전승하고 있다는 기록에 일찍이 江戸시대의 국학자 伴信友는 『瀬見の小川』에서 ‘秦氏의 偽造’라고 비판하였다.<sup>284)</sup> 이에 반해 肥後和男는 「賀茂伝説

280) 阿部眞司(1993) 「古代三輪君の一考察」 『高知医科大学一般教育紀要』 九号 高知医科大学, p.3.

281) 松前健(1975) 「三輪山伝説と大神氏」 『山邊道』 19 天理大學國語國文學會, p.9.

282) 卜部兼方(1901) 「釋日本紀」 卷九 「山城國風土記逸文」 『國史大系.第7卷』 所收, 經濟雜誌社.

“玉依日賣石川の瀬見の小川に川遊び爲る時、丹塗矢、川上より流れ下る。乃ち取り、床の辺に挿し置く。遂に孕み、男子を生む”

283) 塙保己一編(1902) 「本朝月令」 卷八十一 『群書類從』 第五輯 經濟雜誌社, p.91. (『山城國風土記逸文』의 형태로 남아있음)

又云はく初め秦氏女子葛野河に出でて衣裳を濯ぎし時に一の矢ありて上流より下りき。女子取りて還り來、戸の上に刺置く。是に女子夫無くして子を孕む。既にして男子を生む。(中西賀茂祭事)

284) 伴信友(1907) 『瀬見小川』 三之卷, 國會刊行會, pp.306-307.

考」에서 민속학적 입장에서 “같은 마을에 살았던 씨족으로서 같은 내용의 설화를 지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sup>285)</sup> 실제 奈良縣 御所市에는 鴨氏와 관련있는 鴨三社가 존재하는데, 이 지역은 葛城襲津彦가 양산(草羅城-梁山-)의 백성들을 御所の 桑原・佐麿・高宮・忍海에 살게 하였다는데, 이들 4개 부락과 鴨三社는 반경 1-2킬로미터의 거리 이내이다. 또한 『新撰姓氏錄』山城國諸藩 秦忌寸条에 “弓月가 127현의 백성을 이끌고 와 御所の 아사즈마와키카미(朝津間腋上)에 살게 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 역시 鴨三社와 매우 가까워 鴨氏와 秦氏는 예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鴨氏が 秦氏의 사위가 되었다는 기록이 상술한 「秦氏本系帳」<sup>286)</sup>에 나타나 있는데, “秦氏가 사위 鴨氏를 사랑하여 교토의 鴨社の 제사를 맡겼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가야 도래인인 三輪氏は 鴨氏와 동족이며, 鴨氏와 가야인 秦氏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三輪氏의 후손인 大神氏は 가야의 동향인 秦氏계 辛島氏를 의지하여 大和조정의 파견인이 되어 宇佐로 온 것으로 추측된다. 大和岩雄는 3씨의 관련성에 대해 “鴨氏・三輪氏が 동일계보를 전승하고 있으며, 秦氏・鴨氏・三輪氏の 3씨가 丹塗矢 전승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로 보아 三輪氏와 秦氏는 결부되어 있다<sup>287)</sup>”라 하였다.

6세기 말에 宇佐지방에 진입한 大神氏は 八幡神의 제사족인 秦氏의 동족 辛島氏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초기 八幡神에 대신하여 応神天皇과 어머니인 神功皇后를 八幡의 제신으로 변환시켜 오늘 날의 宇佐八幡宮 祭神을 형성한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신 応神天皇의 어머니 神功皇后는 『古事記』에 의하면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鉾)의 자손이다. 이후 八幡神은 聖武天皇의 염원이었던 奈良 東大寺大仏 조성에 크게 공헌, 宇佐의 지방신에서 전국적인 신으로 확산

285) 肥後和男(1945), 「賀茂伝説考」『日本神話研究』河出書房 第5版, p.255

286) 앞의 책 註283.

鴨氏の入秦氏の賀と爲る。秦氏賀を愛ひむとして鴨祭を以ちて譲り与ふ。故今鴨氏禰宜して奉祭る。

287) 앞의 책 註272, pp.140-142.

되어 갔으며, 源氏武士의 氏神가 되어 모든 전투에서 이들의 수호신이 되었다.

859년 僧行教가 宇佐의 八幡神의 신탁을 받아 京都男山에 石清水八幡宮를 창건, 수도 근처에 八幡神를 모시게 된다. 세이와텐노(清和天皇)의 혈통을 이었다는 河内源氏 중흥의 무장 源義家は 1045년 7살의 나이로 八幡神 앞에서 元服式을 올려 八幡太郎로 불렸다.

본 장에서는 고대 八幡神의 3대 제사족인 辛島氏, 宇佐氏, 大神氏와 秦氏씨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고, 이러한 秦氏는 八幡神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했다.

香春山の 古宮八幡宮와 香春神社에서 八幡神의 원형인 豐比咩神을 모시는 신관 鶴賀氏, 八幡神의 신체인 동경(銅鏡)을 제작하는 長光氏, 香春神社의 辛國息長 大姫大目命와 忍骨命의 제사씨족이며, 奈良 東大寺大仏의 도금공으로 활약한 赤染氏は 모두 秦氏의 동족으로 알려져 있다. 豊前國에서 세력을 불린 秦氏 일족은 宇佐 평야지대를 향해 동진, 驛館川の 좌안에 辛島郷을 건설, 동안의 宇佐지방의 호족인 宇佐氏와 함께 초기 八幡信仰를 형성한다. 大和조정에 편입된 宇佐氏는 지주신으로 모시던 御許山の 三巨石을 宗像三女神으로 변환시킨다. 현재 三女神은 宇佐八幡宮의 祭神으로 모셔져 있는데, 秦氏는 이 三女神 중 市杵嶋姫를 701년 그들이 창건한 교토 松尾大社에 祭神으로 모시고 있다. 가야 도래인인 秦氏는 고향 김해와 북규슈 지방 사이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는 무녀의 성격을 가진 市杵嶋姫를 祭神으로 모신 것이다.

예부터 八幡神의 제사씨족 이었던 宇佐氏は 6세기 중반, ‘磐井’의 亂에 연루되어 급속히 쇠퇴하게 되어 応神天皇로 변환된 八幡神의 탄생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豊前國下毛郡의 薦神社는 실제로는 宇佐八幡宮의 元宮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내의 三角池의 수호신은 八幡神이다. 720년 ‘隼人’의 亂이 발생, 八幡神의 靈驗로써 三角池의 薦로 만든 薦枕를 神輿에 태우고 辛島波豆米가 앞장 서 진군하여 隼人를 제압하였다. 三角

池는 秦氏일족인 辛島氏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三角池의 관리자였던 宇佐池守는 宇佐八幡宮의 大宮司가 되어 宇佐氏가 역사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大宮司의 직위는 宇佐氏가 독점, 현대에 이르렀는데, 宇佐氏의 부활 뒤에는 秦氏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6세기 후반에는 몰락한 宇佐氏를 대신하여 大和조정으로부터 과견된 大神氏는 가야 도래인이며 三輪神社의 제사족인 三輪氏의 후손인데, 三輪氏は 鴨氏와 동족이며, 鴨氏は 秦氏와 동일한 전승과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三輪氏 후손인 大神氏는 宇佐에 있는 동향의 도래인 秦氏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応神天皇와 어머니인 神功皇后를 八幡祭神으로 부여하여 오늘의 八幡信仰을 형성한 주인공이었다.

따라서 八幡神의 제사씨족 辛島氏와 宇佐氏, 大神氏는 秦氏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河内源氏 義家は 秦氏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八幡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 제4장. 하타씨(秦氏)와 카모씨(賀茂氏)의 관련성

### 1. 머리말

源氏무사와 平家무사와의 투쟁을 묘사한 겐페이 세이사이키(『源平盛衰記』)<sup>289)</sup>에서 源賴朝의 5대조인 요리노부(賴信)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문의 번영을 위해 세 아들을 세 곳의 신사에 바친다. 첫째 義家は 八幡大菩薩, 둘째 義綱은 賀茂大明神, 셋째 義光는 新羅權現에게 바친다<sup>290)</sup>”라고 하며 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게 한다.

장남인 義家が 성인식을 올린 石清水八幡宮 祭神인 八幡神은 가야로부터 일본 열도로 건너간 秦氏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셋째아들인 義光가 성인식을 올린 園城寺 新羅明神은 智証大師 엔진(円珍)이 유학했던 唐으로부터 일본으로 귀국할 때 꿈에 나타나 스스로를 園城寺에 모시도록 계시하였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차남인 義綱가 성인식을 올린 下鴨神社와 賀茂氏は 秦氏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2. 선행연구

秦氏와 賀茂氏は 京都를 건설한 씨족이었기에 두 씨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우선 秦氏에 대한 연구로써는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도래인의 역할을 명확히 밝힌 上田正昭의 『歸化人』<sup>291)</sup>, 秦氏가 지닌 문화적 특성과 체질에 대해서 논한 平野邦雄의 『秦氏の研究』<sup>292)</sup>, 秦氏의 생산활동과 지배조직에 관하여 기술한 加藤

289) 『源平盛衰記』卷第二十八、「賴朝義仲中惡き事」。작자불명.

290) 國家を守らん爲家門の繁盛を思ふ故に三社の神に進る。所謂る太郎義家は八幡大菩薩次郎義綱賀茂大明神三郎義光新羅權現。

291) 上田正昭(1965) 『歸化人』 中央公論新社.

292)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 『史學雜誌』 第70編 第3・4号 史學會.

健吉의 『秦氏とその民』<sup>293)</sup> 등이 있는데, 大和岩雄는 『秦氏の研究』<sup>294)</sup>에서 “秦氏は 일본인의 천지지신 신앙·불교·예능·기술·식산(殖産)·학예 등 일본의 문화와 신앙에 깊이 관여한 도래집단이었다”고 언급, 일본에서의 秦氏의 공헌을 크게 평가하였다. 賀茂氏의 경우, 京都의 上賀茂神社·下鴨神社의 유래와 관련된 신에 대한 고증을 한 伴信友 『瀬見の小河』<sup>295)</sup>와 肥後和夫의 『賀茂伝説考』<sup>296)</sup>가 있다. 上·下賀茂神社의 창건에 관해서 규명한 井上光貞의 「カモ縣主の研究」<sup>297)</sup>가 있고, 두 씨족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논한 中村修也는 『秦氏とカモ氏』<sup>298)</sup>에서 “하타씨 혼케이조(秦氏本系帳)가 창작이 전혀 아니라면 가모씨는 단바노쿠니(丹波國)-현 京都府 중부、兵庫縣 북동부、大阪府의 북부에 해당-의 씨족뿐만 아니라 秦氏와도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양 씨족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 3. 賀茂氏의 출신지

카모씨(カモ・鴨・賀茂)는 두 계통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大國主命의 후예로, 大田々根子の 아들 오카모쓰미노미고토(大鴨積命)를 조상으로 하는 가쓰라기카모씨(葛城賀茂氏)-地祇系賀茂朝臣이라고도 한다- 계통이 있다. 두 번째는 간무스비노미코토(神皇産靈尊)의 후예로, 초대천황 神武天皇 東征 때 산속에서 길을 잃은 神武天皇를 위해 야타가라스(八咫鳥)가 되어 길을 밝힌 가모 타케쓰누미노미코토(賀茂建角身命)를 조상으로 하는 계통으로, 아마시로 카모씨(山城賀茂氏)-天神系鴨縣主-라고도 한다.

293) 加藤謙吉(2000)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294) 大和岩雄(1993) 『秦氏の研究』 大和書房.

\_\_\_\_\_(2013) 『續秦氏の研究』 大和書房.

295) 伴信友(1907) 『瀬見小川』 三之卷 國會刊行會.

296) 肥後和男(1945) 「賀茂伝説考」 『日本神話研究』 河出書房.

297) 井上光貞(1962) 「賀茂縣主の研究」 『日本古代史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298) 中村修也(2004) 『秦氏とカモ氏』 臨川書店.

### 3.1 葛城賀茂氏(地祇系賀茂朝臣)

『新撰姓氏錄』 및 『古事記』에 다음과 같이 葛城賀茂氏의 계보에 대한 언급이 있다.

大和國 神別 地祇(지상의 신), 가모아손(賀茂朝臣), 성(姓)은 아손(朝臣). 오미와아손(大神朝臣)과 조상이 같다. 大國主神의 자손이다. 大田々祢古命의 손자 오카모쓰누미노미코토(大賀茂都美命)는 賀茂社에서 제사 지낸다.<sup>299)</sup>

오호타다네코노미코토(此意富多多泥古命)는 미와키미(神君)·가모키미(鴨君)의 조상이다.<sup>300)</sup>

위 인용에서 賀茂朝臣과 大神朝臣은 동족이라 하는데, 大神朝臣은 三輪神社-현 奈良縣櫻井市-를 모시는 씨족으로 가야계 도래인의 일족임이 밝혀져 있다. 『古事記』, 『日本書紀』 崇神朝에 ‘三輪山伝説’이 있는데, 이 전설은 삼국유사 백제 무왕의 전설과 유사하다.<sup>301)</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瀬間正之는 “400년 광개토왕이 금관가야를 침범시 많은 가야인들이 규슈 지역으로 피신, 이 도래인 집단이 三輪山으로 옮겨와 三輪氏が 되었다” 하며, 金祥圭는 “전승의 루트가 고대 한국에 있었다”고 하였다. 『日本書紀』 崇神朝를 보면, 大神氏와 賀茂氏의 선조인 大田々根子を 지누노아가타노 스에무라(茅渟縣陶邑)에서 찾았는데, 스에키(須惠器)는 가야의 도기이다. 이곳은 가야 도래인들이 모여 도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거주하던 大田々根子 역시 가야 도래인이다.

秦氏が 거주했던 葛城御所에는 신사의 명칭에 「鴨」자가 붙은 곳이 3군데 있는데, 高鴨神社-祭神은 阿遲鉏高日子根<sup>302)</sup>-와 鴨都波神社-祭神은 事代主神과 下照

299) 『新撰姓氏錄』

大和國 神別 地祇 賀茂朝臣 朝臣 大神朝臣同祖 大國主神之後也 大田田祢古命孫大賀茂都美命 奉齋賀茂神社也。

300) 『古事記』 崇神天皇朝 三輪山伝説.

此意富多多泥古命者、神君・鴨君之祖。

301) 『三國遺史』 卷第二, 紀異第二武王, 무왕의 출생.

302) 『古事記』 大國主神条,

姫命-, 그리고 葛木御歳神社가 그곳이다. 이 ‘鴨三社’는 고대 鴨族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이다. 高鴨神社의 祭神인 아지스키타카히코네(阿遲鉏高日子根)는 大國主神의 아들이며, 鴨都波神社의 事代主神 또한 大國主神의 아들이다.<sup>303)</sup> 大國主神는 미와씨(三輪氏)가 모시는 三輪神社의 祭神인데, 大國主神의 아들들을 동족인 賀茂氏가 御所에서 祭神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葛木御歳神社의 祭神 御歳神는 『古事記』·『日本書紀』에서 한반도에 다녀왔다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의 손자이다.<sup>304)</sup> 이처럼 葛城는 賀茂氏가 鴨神을 모시던 지역으로 葛城賀茂氏의 발상지이며 賀茂氏가 京都로 향했을 때, 鴨神도 함께 모셔갔던 것이다. 三社 중에 高鴨神社는 京都 上賀茂·下鴨神社의 총본산으로, 祭神인 阿遲鉏高日子根命는 『古事記』에서 ‘가모오미카미(迦毛大御神)<sup>305)</sup>’로 불리고 있는데, 일본의 신 가운데 大御神로 불리는 신은 일본 황실의 神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御大神)’와 迦毛大御神의 두 신밖에 없다. 이 정도로 阿遲鉏高日子根命는 위대한 신인데, 신명(神名) 중에 ‘스키(鉏, 혹은 鋤)’-삽의 의미-의 字가 들어가 있다. 『日本書紀』에서 같은 문자가 사용된 예를 보면, 神代上、素戔鳴尊의 아마타노오로치(八岐大蛇) 퇴치장면에서의 ‘가라사히노쓰루기(韓鋤之劔)<sup>306)</sup>’의 예가 있고, 神武朝의 ‘이나히노미코토(稻飯命)’의 전사(戰死) 장면에서 ‘사히모치노카미(鋤持神)<sup>307)</sup>’가 나온다. 주로 날카로운 ‘칼’이나 ‘쇠’와 관련이 있는 장면에 ‘鋤’가 쓰이고 있다. 鋤는 고대 우리말의 삽(鍤)-sap-의 의미로 한반도 전래의 예리한 작은 칼을 일컫는 단어로<sup>308)</sup>, 신명(神名)에 이 단어가 들어 있는 阿遲鉏高日子根命도 역시 칼이나

此大國主神、娶坐胸形與津宮神・多紀理毘賣命、生子、阿遲二字以音鉏高日子根神、次妹高比賣命、亦名・下光比賣命、此之阿遲鉏高日子根神者、今謂迦毛大御神者也。

303) 『古事記』 大國主神條：大國主神，亦娶神屋楯比賣命，生子，事代主神。

304) 『古事記』 速須佐之男命條，其速須佐之男命(略)又娶大山津見神之女、名神大市比賣、生子、大年神、次宇迦之御魂神。其大年神(略)又娶香用比賣此神名以音生子、大香山戶臣神、次御年神。

305) 앞의 註302 줄친 부분 참고.

306) 素戔鳴尊乃以蛇韓鋤之劔斬頭斬腹。

307) 言訖乃拔劔入海。化爲鋤持神

쇠와 관련이 있다. 神功皇后五年(206)条에서 葛城襲津彦가 경남 양산의 양민들을 포로로 연행하여 葛城의 4개의 마을에 살게 하는데, 이들의 주거지에서 제철(製鐵)과 관련이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 이때 끌려온 백성들의 직업은 대장장이로 추정된다. 平林章仁는 “뛰어난 철제기구를 의미하는 阿遲鉏高日子根神은 원래 葛城襲津彦가 데리고 온 도래계 금속공 집단인 사미노스구리씨(佐味村主氏)와 다카미야 스구리씨(高宮村主氏)가 믿었던 신이며, 신의 제사는 葛城의 鴨氏が 담당하였다”고 한다.<sup>309)</sup>

그러나 葛城賀茂氏와 秦氏는 호족 葛城氏의 멸망과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葛城땅을 떠나게 된다. 武内宿禰-혹은 建内宿禰-의 자손으로 명문 葛城氏의 멸망은 『日本書紀』 雄略朝에 기록되어 있다. 소위 ‘眉輪王’의 변이 安康天皇三年八月(456)에 발생한다. 眉輪王는 자신의 아버지 오쿠사카노미코(大草香皇子)가 安康天皇에게 살해당하고, 어머니인 나카시히메노미코토(中蒂姬命)는 安康天皇의 황후가 된 사실을 알고 수면 중인 천황을 찔러 죽인다. 眉輪王는 그대로 葛城襲津彦의 손자 쓰부라노오오미(円大臣)의 집으로 피신을 하지만 살해당한 安康天皇의 동생인 雄略天皇에게 포위되어 결국에는 円大臣와 함께 불타죽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葛城氏는 멸망, 보호를 받던 葛城賀茂氏는 山城(京都)쪽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 시기에 秦氏도 葛城를 떠났다고 추정된다.

308) 小學館編(1994) 『日本書紀』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p.97(註釋)에서 인용

309) 平林章仁(2007) 『謎の古代氏族葛城氏』 祥伝社新書, pp.220.

### 3.2 山城賀茂氏(天神系鴨縣主)

山城賀茂氏は 神皇產靈尊를 조상으로 하며, 神武東征때 八咫鳥로 공을 세운 賀茂建角身命의 자손이다. 八咫鳥가 賀茂建角身命의 화신이며, 山城賀茂氏의 선조임을 밝히는 기록이 『日本書紀』 및 『新撰姓氏錄』에 있다.

진무천황 2년 2월, 세운 공에 따라 상을 내리다. (생략) 그리고 쓰루기네(劔根)를 葛城國造로 임명하였다. 또한 야타가라스(頭八咫鳥)도 포상을 받았는데 가도노 노토노모리노아가타누시베(葛野主殿縣主部)가 후손이다.<sup>310)</sup>

가모아가타누시(鴨縣主)는 賀茂縣主와 조상이 같다. 간야마토이와레히코 스메라미고토(神日本磐余彥天皇)-시호는 神武-가 大和로 향할 때, 산중이 험준하여 산야를 헤메다 길을 잃었다. 이때 神魂命의 손자 鴨建津之身命가 큰 새로 변하여 날아올라 길을 안내, 드디어 大和에 도착하였다. 천황을 그 공로를 어여삐 여겨 특별히 포상하여 아메노야타가라스(天八咫鳥)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의 시작이다.<sup>311)</sup>

神武天皇는 瀬戸内海를 거쳐 大阪를 공략, 이코마야마(生駒山)를 넘어 大和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나가스네히코(長髓彥)에게 패배, 紀伊반도를 크게 우회하여 현재의 和歌山縣 니이미야(新宮) 근처의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天照大御神의 명령을 받은 賀茂建角見命가 八咫鳥가 되어 길을 인도, 神武天皇는 우다(宇陀)를 거쳐 카시하라(橿原)에 도착, 大和조정을 세우게 되었다. 위 『日本書紀』의 인용문에서 八咫鳥의 자손이 “八咫鳥의 후예는 즉, 葛野主殿縣主部이다”라고 하는데, ‘葛野’는 현재 京都의 北區·中京區·下京區·右京區·左京區·西京區·南京區에 해당하며, 山城賀茂氏가 많이 살았던 지역이다. 그리고 ‘主殿縣主部’에 대해서는 『三代實

310) 『日本書紀』 神武天皇

復以劔根者爲葛城國造。又頭八咫鳥亦人賞例。其苗裔即葛野主殿縣主部是也。

311) 『新撰姓氏錄』 「山城國神別鴨縣主」

鴨縣主 縣主 賀茂縣主同祖 神日本磐余彥天皇[謚神武]欲向中洲之時。山中嶮絶。跋涉失路。於是。神魂命孫鴨建津之身命。化如大鳥翔飛奉導。遂達中洲。天皇嘉其有功。特厚褒賞。天八咫鳥之号。從此始也。

錄』에서 “主殿寮의 도노베(殿部)는 日置・子部・車持・笠取・鴨의 5가지 성씨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鴨氏가 主殿寮의 殿部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sup>312)</sup> 또한 『新撰姓氏錄』에서는 鴨建津之身命가 八咫烏이며, 山城鴨縣主・山城賀茂氏의 조상은 武津之身命, 즉 八咫烏라 한다. 따라서 葛野主殿縣主部는 山城賀茂(鴨)氏이며 八咫烏의 자손이다. 下鴨神社 祭神은 바로 山城賀茂氏가 모시는 賀茂建角見命이며, 神武天皇의 길을 밝힌 八咫烏의 자손으로 천황가의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씨족이다.

한편 八咫烏와 賀茂氏의 관련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학설도 존재한다. 위의 『日本書紀』의 인용문을 보면,

쓰루기네(劔根)를 葛城國造로 임명하다. 또한 야타가라스(頭八咫烏)도 포상을 받았는데 카도노토모리노 아가타누시베(葛野主殿縣主部)가 후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葛野主殿縣主部の 「部」의 字인데, 部는 직능, 직무에 관련된 씨족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賀茂氏는 도노모료(主殿寮)의 殿部인 日置・子部・車持・笠取・鴨의 5성(五姓)에 포함되어 있다. 『養老律令』<sup>313)</sup>의 職員令 四十三 主殿寮條에는 主殿寮 殿部の 직무로써 “행차시의 가마(供御輿輦, 비웃(蓋笠), 부채(繖扇), 장막(帷帳), 목욕물(湯沐), 정원청소 및 등촉(殿庭洒掃・燈燭, 장작(松柴)・탄 및 화톳불(炭燎)<sup>314)</sup>” 등의 직무내용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

312) 『三代實錄』 卷第四十二 元慶六年十二月廿五日条(882),

檢職員令殿部聽主殿寮殿部十人、以異姓入色加補其闕。先是、宮内省申請。檢職員令殿部四十人、日置・子部・車持・笠取・鴨五姓人爲之。

313) 孝謙天皇, 天平宝字元年(757)에 藤原仲麻呂의 주도로 시행된 기본법령이다.

314) 現代語譯「養老律令」職員令四十三,

(<http://www.sol.dti.ne.jp/hiromi/kansei/yoro02c.html> , 검색일: 2019. 7. 17.)

職掌は供御輿輦 蓋笠 繖扇 帷帳 湯沐 殿庭及び燈燭・松柴炭燎。

頭一人 助一人 允一人 大屬一人 少屬一人 殿部四十人 使部二十人 人直丁二人 驅吏丁八十人

중에서 鴨氏(賀茂)는 등촉(燈燭) 작업을 담당했을 것이다.<sup>315)</sup> 이 직무는 천황의 행차 시에 길을 밝히고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직무와 神武天皇의 東征 때의 八咫鳥의 役割을 관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佐伯有清는 “山城의 鴨縣主가 천황의 신변의 업무관리를 하며, 행차 시에 길을 열고, 등촉을 밝히는 등,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主殿의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八咫鳥 전승은 창작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sup>316)</sup> 한편 鈴木健一은 “鴨氏が 大和조정에서 主殿로서 길을 밝히는 책무를 했다고 해서 이 설화의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鴨氏の 계보는 복잡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sup>317)</sup>”고 했다. 伴信友는 『瀬見の小河』의 「別記」에서 主殿寮殿部に 대해 자세하게 고증하고 있으나 八咫鳥 전승과 등촉의 직접적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318)</sup>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위의 『新撰姓氏錄』의 예시문인데, “山城國 鴨縣主는 賀茂縣主와 조상이 같다”라고 하였다. 同書 賀茂縣主의 원문을 보면,

山城國 神別 天神 賀茂縣主는 神魂命孫의 손자 다케츠미노미코토(武津之身命)의 후손이다(後也). (山城國 神別 天神 賀茂縣主 縣主 神魂命孫武津之身命之後也)

앞서 언급했다시피, 『新撰姓氏錄』에서는 “각 씨족을 ‘三例’라는 기준에 의거해 다시 분류<sup>319)</sup>”하는데, “三例란 出自, 同祖之後, 之後가 있어 ‘出自’는 그 계보관계가 확실한 씨, ‘同祖之後’는 그 유래가 古記와 본계 어느 쪽인가에는 기록이 보이는 씨, ‘之後’는 本枝關係가 분명치 않는 씨를 의미한다”고 한다.<sup>320)</sup> 위 인용문에서 賀茂縣主는 “神魂命孫武津之身命之後也”로 기록되어 있어 선조 武津之身命과

315) 前川明久(1957) 「日置氏の研究」 『法政史學』 10卷 法政大學史學會, p.103.

316) 關祐二(2016) 『ヤタガラスの正体』, 廣濟堂親書, p.153.으로부터 인용.

317) 鈴木健一(1978) 「カラス考」, 『駒澤短大國文』 8, p.4

318) 伴信友(1907) 「瀬見小河 別記」 二之卷 『伴信友全集』 第2. 國書刊行會, pp.230-231.

319) 서보경(2012)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 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p.44.

320) 앞의 논문 註319.

賀茂縣主의 관계가 분명치 않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賀茂縣主와 八咫鳥 전승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생겨난다.

『山城國風土記』의 「賀茂社」에는 賀茂建角身命와 八咫鳥의 설화, 그리고 山城賀茂氏가 葛城를 떠나 山城의 賀茂川에 이르러 賀茂社(鴨神社)를 창건하기까지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山城賀茂氏의 출신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가모의 신사(可茂の社)

히무카(日向) 소(曾)의 산정에 강림하신 신, 賀茂建角身命는 神倭石余比古(神武天皇)의 동정(東征)에 앞장 서고, 야마토의 가츠라기산(大倭葛木山)의 꼭대기에 머무셨다. 여기서 山代國의 오카다(岡田)의 가모에 이르렀다. 山代河(木津川)를 따라 내려가서 가쓰라가와(桂川)와 賀茂河가 합류하는 곳에 이르러 賀茂川를 둘러보며 말하시기를, ‘좁지만 맑고 깨끗한 이시가와(石川)이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石川の 세미노오가와(瀬見の小河)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 구가노쿠니(久我の國)의 북쪽의 산록에 진좌하였다. 以來로 이름하여 賀茂라 불렀다.<sup>321)</sup>

위 인용문 속의 賀茂建角身命의 山城國 진출 경로가 九州의 日向→葛木山→山城岡田→葛野川와 鴨川の 합류점→瀬見の小河(下鴨神社)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착지인 葛木山는 葛城御所市の 高鴨神社의 바로 옆이다. 만약 八咫鳥의 설화가 山城賀茂氏의 主殿部の 직무에 따른 창작이라고 가정한다면, 山城賀茂氏의 출발점은 御所市 高鴨神社부근의 葛木山가 된다. 그런데 京都 上賀茂神社·下鴨神社를 포함한 일본 전국의 가모신사(鴨·賀茂)의 총본산은 御所의 高鴨神社임은

321) 小學館編(2016), 「風土記逸文·山城の國」 『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p. 437. 日向の曾の峯に天降りましし神、賀茂建角身命、神倭石余比古(神武天皇)の御前に立ちまして、大倭の葛木山の峯に宿りまし、彼より漸に遷りて、山代の國の岡田の賀茂に至りたまひ、山代河(木津川)の隨に下りまして、葛野河(桂川)と賀茂河との會ふ所に至りまし、賀茂川を見廻(はる)かして、言りたまひしく、狹小くあれども、石川の清川なり」とのりたまひき。仍りて、名づけて石川の瀬見の小川と曰ふ。彼の川より上りまして、久我の國の北の山基に定まりましき。爾の時より、名づけて賀茂と曰ふ。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下鴨神社도 高鴨神社와 동일한 계통이며 山城賀茂氏와 葛城賀茂氏도 출신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 高鴨神社 홈페이지의 「御由緒」를 읽어 보면, “가모 일족은 전국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가모의 신을 제사 지낸다. 賀茂(加茂・賀毛)를 군(郡)의 이름으로 하는 지역이 安芸・播磨・美濃・三河・佐渡 등에 있고, 마을 이름으로 하는 곳은 수십 곳에 이른다. 그 중에서 京都의 賀茂大社가 유명한데, 본 사는 이러한 많은 賀茂社の 總社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sup>322)</sup> 賀茂建角見命을 主祭神으로 하는 下鴨神社와 阿遲鉏高日子根命을 主祭神으로 하는 高鴨神社는 동일 계통임을 명시하고 있다. 梅田俊一은 “역시 山城賀茂氏도 본래는 葛木の 賀茂氏로, 葛木賀茂氏의 인구증가와 그 외의 사정에 의해 일부가 이주해 왔다는 것이 자연적이지 아닐까 한다<sup>323)</sup>”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中村修也는 紀氏의 예를 들면서 씨족의 분화와 통합을 설명하였다. 즉, “紀伊國의 지방호족인 紀氏는 생존책으로 기노아타이씨(紀直氏)를 고향에 두고, 중앙에 동족을 보내어 기노아손씨(紀朝臣氏)를 분리시킨다. 이후 紀朝臣氏가 세력이 강해지면 오히려 고향의 紀直氏를 포섭하여 선조의 전승을 통합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葛城賀茂氏와 山城賀茂氏의 관계를 설명하였다.<sup>324)</sup>

下鴨神社를 방문하면 본전의 앞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7개의 수호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각각의 이름이 「大國魂神」・「顯國魂神」・「大物主神」・「大國主神」・「志固男神」・「大己貴神」・「八千矛神」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 이름을 달리 하고 있으나 大國主命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앞에서 大國主命을 모시는 三輪氏와 葛城賀茂氏は 선조가 같다고 했는데, 山城賀茂氏의 선조를 모시는 下賀茂神社의 본전 앞에 高鴨神社의 祭神 阿遲鉏高日子根命의 아버지인 大國主神를 모셔 놓았다는 것은 바로 葛城・山城賀茂 두 씨족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라 하겠다.

322) 高鴨神社 HP: <http://www5.kcn.ne.jp/~takakamo/> (검색일: 2019.7.17)

323) 梅田俊一(1952) 「賀茂神社の創建に關する一考察(一)」 『人文』第一号, 西京大學, p.112.

324) 中村修也(2004) 『秦氏とカモ氏』 臨川書店, p.60.

### 3.3 秦氏와 賀茂氏의 관련성

秦氏와 賀茂氏의 관련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근접성이며, 두 번째는 씨족 간의 동일 전승의 보유이다. 『新撰姓氏錄』와 『古事記』에서 三輪氏와 賀茂氏는 大國主神을 조상으로 하는 동족으로, 가야계 도자기를 굽는 陶邑에 살던 意富多多泥古命(혹은 大田々根子命)을 선조로 한다. 大國主神을 제신으로 모시는 三輪神社로부터 葛城賀茂氏가 살았던 御所市까지는 지도상 직선거리로 불과 11여 km에 지나지 않는다. 葛城御所市에 소재하는 ‘鴨三社’ 중 高鴨神社의 祭神은 大國主神의 아들 阿遲鉏高日子根, 鴨都波神社에서는 大國主神의 아들이며 阿遲鉏高日子根의 이복형제인 事代主神을 모시고 있다. 신앙의 대상으로써도 三輪氏와 賀茂氏가 동일 계통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葛木御歲神社의 祭神 御歲神은 『古事記』에서 素戔鳴尊의 손자이며, 御歲神의 아들 오야마쿠이노카미(大山咋神)는 秦氏가 창건한 松尾大社에 宗像三女神 중의 市杵嶋姬와 함께 주신(主神)으로 모셔져 있다.<sup>325)</sup> 그리고 가야 도래인의 자손인 葛城賀茂氏와 그들이 제사지내는 鴨三社の 주위에 가야계 도래인의 거주가 『日本書紀』와 『新撰姓氏錄』를 통해서 확인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日本書紀』神功皇后紀 五年春三月条에 葛城襲津彦가 양산의 대장장이들을 연행하여 葛城御所に 살게 하였고, 『新撰姓氏錄』左京 漢 太秦公宿祢条에서는 가야의 도래인 弓月君과 127현의 백성을 葛城御所の 朝津間腋上에 살게 하였다. 鴨三社와 秦氏의 주거지는 지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秦氏가 거주한 朝妻間掖上을 현재 御所市の 掖上和 朝妻로 분리된 지역으로 해석한다면, 朝妻로부터 高鴨神社까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0.7km, 葛木御歲神社까지는 1.8km, 그리고 掖上로부터 鴨都波神社까지는 2.8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葛城御所에는 鴨神을 모시는 葛城賀茂氏와 秦氏를 포함한 가야 도래인 출신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25) 『古事記』大國主神条

次大山上咋神, 亦名 山末之大主神 此神者 坐近淡海國之日枝山 亦坐葛野之松尾, 用鳴鏑神者也。

456년 ‘眉輪王’의 변에 의해 호족 葛城氏が 멸망하자 葛城賀茂氏は 葛城를 떠나게 된다. 이후의 여정은 『山城國風土記』의 「賀茂社」에 기술된 바와 같이 葛木山→山城國 岡田→葛野川와 鴨川の 합류점→瀬見の小河→下鴨神社의 여정을 밟게 된다. 한편 秦氏 또한 朝妻掖上를 떠나 山城의 深草、葛野、嵯峨野 등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秦氏와 賀茂氏의 어느 쪽이 먼저 京都의 땅에 진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주장이 다르다. 中村修也는 “6세기 경 秦氏가 먼저<sup>326)</sup>”라고 하며, 田中嗣人는 “カモ族은 縄文(縄文) 시대 후기, 出雲族は 4세기 후반, 秦氏는 5세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27)</sup>”한다. 한편 平林章仁는 “대체적으로 秦氏와 賀茂氏의 葛城로부터 山背에의 이주는 일련(一連)의 사건으로 그 시기도 모두 5세기부터 6세기 초가 아닐까 추정한다<sup>328)</sup>”고 하여 두 씨족의 京都분지에서의 진출을 동시에 보고 있다.

앞뒤를 다투어 葛城를 떠난 秦氏와 賀茂氏は 각각 가츠라가와(桂川)의 左岸과 賀茂川에 정착하게 되고, 葛城에서 시작된 두 씨족의 친밀한 관계는 京都에서도 계속된다. 두 씨족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전승을 보유함으로써 그 친밀함을 더 하고 있다.

「本朝月令 秦氏本系帳」

전해지기를, 처음에 秦氏의 딸이 가도노 강(葛野河)에 나가 세탁하고 있었는데, 화살 하나가 상류로부터 떠내려 오고 있었다. 딸은 그 화살을 주어 집으로 와서 침상 위에 꽂아 두었다. 딸은 남편 없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略) 어린 소년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본 다음, 침상 위의 화살을 가리켰다. 바로 번개가 되어 지붕을 꿰뚫고 오늘로 올라 가 버렸다. 그리하여 가모노 카미샤(鴨上社:上賀茂社)를 와케카미니리노카미(別雷神)라 이름짓고, 가모시모샤(鴨下社)를 가모미오야카미(御祖神)라 불렀다. 침상 위의 화살은 마쓰오다이묘진

326) 앞의 책 註324, p.70.

327) 田中嗣人(2004) 「賀茂祭考」 『華頂博物館學研究』 11 華頂短期大學博物館學芸員課程編, p.3.

328) 平林章仁(2000) 『蘇我氏の實像と葛城氏』 百水社, p.152.

(松尾大明神)이라한다. 이런 연유로 秦氏는 세 군데의 大明神을 제사지냈다. 그리하여 鴨氏가 秦氏의 사위가 되었다. 秦氏가 사위를 어여삐 여겨 가모의 축제(鴨祭)를 시점으로 제사를 넘겨 주었다. 지금 鴨氏가 네기(禰宜)가 되어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연유가 있었기 때문이다.<sup>329)</sup>

「山城國風土記逸文」 「頭八咫鳥」條

다마요리히메(玉依日賣)가 이시가와(石川)의 세미노오가와(瀬見の小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니누리아(丹塗矢)가 강 상류로부터 떠내려 왔다. 화살을 주워서 침대 위에 꽂아 두었다. 갑자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점점 아이가 성장하자 (略) 외조부 다케쓰누미노미코토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이 술을 마시도록 하여라’고 하였다. 바로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잔을 올리고, 지붕의 기와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하여 외조부의 이름에 따라 가모와케카미나리노미코토(可茂別雷命)라 이름 지었다. 소위 말하는 丹塗矢는 오토쿠니(乙訓)의 절에서 모시는 호노이카쓰지노미코토(火雷命)이다. 가모타케쓰누미노미코토(可茂建角身命), 단파(丹波)의 玉依日賣 세 분의 신(三柱の神)은 다데구라사토(蓼倉里)의 미이노야시로(三井の社)에 진좌한다.<sup>330)</sup>

『群書類從』 「年中行事秘抄・賀茂大社」

옛 기록에서 이르기를 미오야타다스 타마요리히메노미코토(御祖多々須玉依媛命)가 강에서 놀고 있을 때 아름다운 화살이 흘러내려와 몸 가까이 붙었다. 이를 주워 침대 밑에 꽂아 두었다. 밤이 되어 남자로 변하여 다마요리 히메는 임신을 하였다.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으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우케히사케(宇氣比酒)를 만들어 아이에게 그 잔을 아버지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아이는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흔들면서 말했다. 나는 천신의 아들이다. 지금 하

329) 塙保己一編(1902) 「本朝月令 秦氏本系帳」 卷八十一 『群書類從』 第五輯 經濟雜誌社, p.91.

330) 卜部兼方(1901) 「釋日本紀」 卷九 「山城國風土記逸文」 『國史大系』 第7卷 所收 經濟雜誌社, コマ330.

(<http://dl.ndl.go.jp/info:ndljp/pid/991097/268?viewMode=> , 검색일: 2019.7.18)

늘로 오를 것이다. (略) 御祖神는 꿈에서의 가르침대로 즉시 따랐다. 아이의 제사에는 달리는 말과 접시 꽃, 단풍나무 넝쿨(葵蔓楓蔓)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야마모토(山本)에 진좌한 천신(天神)의 아들을 와케카미나리노 미카미(別雷神)라 불렀다.<sup>331)</sup>

「秦氏本系帳」는 秦氏의 적자(嫡子) 가문인 코레무네 키미가타(惟宗公方)가 편찬한 『本系月令』 속에 수록되어 있다. 『山城國風土記』 逸文은 책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釋日本紀』 卷九 속의 「頭八咫烏」 條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sup>332)</sup> 『群書類從』 「年中行事秘抄・賀茂大社」의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각 인용문의 편찬시기를 비교해 보면, 肥後和男는 “秦氏本系帳의 편찬시기를 元慶(877년-885년)로 보고, 年中行事秘抄・賀茂大社は 永仁嘉曆(1293년-1299년)에 서사(書寫)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구기(舊紀)는 平安時代의 문헌일 것이다”고 추정하고 있다.<sup>333)</sup> 『風土記』는 721년에 元明天皇의 風土記 편찬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山城國風土記』의 逸文이 진본이라면 奈良시대의 문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용문들의 편찬의 순서는 『山城國風土記』 逸文→「年中行事秘抄・賀茂大社」→「秦氏本系帳」의 순이 되어, 가장 늦게 편찬된 「秦氏本系帳」는 자연히 앞의 문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편찬 순이 전승내용의 순서는 아니라는 것이 유념할 부분이다.

인용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秦氏本系帳」에서는 秦氏의 딸이 葛野河에서 흘러온 화살을 쫓아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된다. 외조부인 賀茂建角身命는 괴이하게 생각하여 생부를 규명한 결과 松尾大社の 松尾大明神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鴨上社(上賀茂神社)를 別雷神라 이름짓고, 鴨下社(下鴨神社)는 御祖神로 명명한다. 이로써 秦氏는 3개의 신사와 절(上・下賀茂神社と松尾大社)의 大明神을

331) 塙保己一編(1898) 「卷第86 年中行事秘抄 四月 賀茂大神」 『群書類從』 第五輯 經濟雜誌社, p.346.

예시한 書き下し文은 肥後和男의 『日本神話研究』 「賀茂伝説考」, pp.147.을 인용함.  
332) 앞의 책 註330.

333) 肥後和男(1945) 「賀茂伝説考」, 『日本神話研究』 河出書房, pp.141-148.

제사지내게 된다. 鴨氏が 秦氏の 사위가 되고, 秦氏は 上·下賀茂神社의 제사를 鴨氏에게 맡기게 된다. 한편 『山城國風土記』 逸文에서는 賀茂建角身命의 딸 玉依日賣가 '石川瀬見の小河'에서 「秦氏本系帳」의 내용과 극히 닮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생부는 松尾大明神이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秦氏와 賀茂와의 혼인관계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꼭 닮은 전승에 대해 伴信友は 『瀬見の小川』에서 「秦氏本系帳」의 설화를 위설(僞說)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즉, “賀茂川를 松尾에 가까운 葛野川로 바꾼 것도 그리하며, (中略) 鴨氏에게 賀茂上下社の 네기(禰宜) 자리를 양보해 맡겼다는 것도 그야말로 위설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肥後和男는 『賀茂伝説考』에서 “각 지방, 부락, 씨족은 각자 자신의 지방, 부락, 씨족에게 일어난 일로 대대로 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반론하고 있다. 肥後和男는 ‘지방, 부락, 씨족’이라는 낱말을 통해 秦氏와 賀茂氏が 葛城의 같은 마을, 같은 씨족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찬비론에 대해 편찬시기가 『山城國風土記』 逸文보다 늦지만 「年中行事秘抄·賀茂大社」의 경우는 御祖神(下賀茂神社의 神)의 딸 玉依媛命가 낳은 아이를 단숨에 別雷神로 부르고, 鴨氏が 秦氏の 사위가 되고, 秦氏は 上·下賀茂神社의 제사를 鴨氏에게 맡겼다는 설화 등을 생략함으로써 내용적으로 보다 객관화 되어 있다. 내용이 다르거나 생략된 인용문의 존재에 대해 肥後和男는 「생각하기에 따라 오래된 형태의 賀茂伝説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씨족의 관계에 대해 찬반론이 있으나, 한편으로 두 씨족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추가적 자료가 ‘엔기시킴(『延喜式』) 賀茂祭’에 기록되어 있다.<sup>334)</sup>

下社。上社。松尾社。社別禰宜。祝各一人。下上兩社。各物忌一人<sup>335)</sup>

(下鴨社、上賀茂社、松尾社、社別로 네기(禰宜), 하후리(祝) 각 1명씩, 上下兩社 童男

334) 醍醐天皇의 명에 의해 927년에 완성한 조정율령(朝廷律令)의 시행세칙.

335) 皇典講究社(1932) 「卷十五內藏式 賀茂祭」『訂校延喜式』·上卷 大岡山書店, p.559.

혹은 童女 1명씩)

위 인용문은 上・下賀茂神社 賀茂祭<sup>336)</sup>의 행사 때 松尾大社 측으로부터 네기(禰宜)와 祝(하후리)를 각 1명씩 참가시키도록 한다는 『延喜式』의 규정이다. 「秦氏本系帳」에서 양가는 혼인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秦氏は “鴨(賀茂)祭에서 양보하는” 형태로 제사권을 賀茂氏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위의 『延喜式』의 기록을 더한다면 京都에서의 양가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양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예는 賀茂氏가 秦氏 가문에 양자로 입양했다는 ‘養子 입양설’이다. 伏見稻荷神社 祠官家-제사관-의 가문인 「大西家系図」<sup>337)</sup>에 따르면 京都 松尾大社를 창건한 ‘하타토리(秦都理)’와 稻荷神社를 창건한 ‘하타이로구(秦伊呂)’는 원래는 賀茂氏였으나 나중에 秦氏의 양자가 되었다 한다. 稻荷神社 홈페이지의 연혁 중의 「大西家系図」를 보면 秦伊呂具는 출신이 “賀茂建角身命의 24세손인 가모 아가타누시쿠지라(賀茂縣主久治良)의 막내이다. 和銅四年(711) 壬午에 稻荷明神 진좌 때 禰宜가 되었다”고 쓰여 있으므로 원래는 賀茂家の 자손임이 분명하다. 또한 연혁의 설명문에는 “秦氏は 山背國의 예부터 유서있는 호족인 賀茂縣主族과 일찍이 혼인관계를 맺어 종내에는 賀茂縣主의 자손이라고 자칭하게 되었다”고 하며, 秦氏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양가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源義綱는 賀茂建角身命를 제신으로 하는 下鴨神社에서 元服式을 올렸다고 하여 賀茂次郎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서 義綱는 왜 上賀茂神社보다 창건의 역사가 짧은 下鴨神社에서 성인식을 올렸을까?

下鴨神社로부터 賀茂川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上賀茂神社가 나타난다. 역

336) 京都市의 賀茂御祖神社(下鴨神社)와 賀茂別雷神社(上賀茂神社)에서 매년 5월 15日(陰曆四月中의 酉날)에 거행되는 축제로 아오이마쓰리(葵祭)라고도 한다.

337) 伏見稻荷神社 홈페이지, (<http://inari.jp/about/num11/> , 검색일: 2019.7.18.)

사적으로는 上賀茂神社가 먼저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井上光貞은 “750년에 下鴨社가 분사(分社)되었으며, 분사의 이유는 上賀茂社의 葵祭가 너무 인기 있어 탐탁하지 않게 여긴 조정이 이를 조절하기 위한 政策의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다.<sup>338)</sup> 이미 언급한 『群書類從』·『年中行事秘抄·賀茂大社』를 보아도 賀茂祭의 진정한 유래는 上賀茂社의 제신 別雷神을 기리기 위해 외할아버지가 “말을 달리게 하고 접시 꽃, 단풍나무 넝쿨(葵蔓楓蔓)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야마모토(山本)에 진좌한 천신(天神)의 아들을 別雷神라고 불렀다”고 한다.<sup>339)</sup> 따라서 현재의 賀茂祭는 上賀茂社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賀茂祭는 역사서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의 京都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지나친 인기를 의식한 조정에서는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실제 조정의 견제기록은 『續日本紀』文武二年(698)三月二十一日條에 “山背國의 賀茂祭의 날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므로 말위에서 활을 쏘는(騎射) 행위를 금지하였다”고 나와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下鴨神社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어 延暦12년(793) 桓武天皇가 平安遷都의 성공을 위해 축원을 올린 곳이 下鴨神社였다. 또한 弘仁元年(810) 嵯峨天皇는 ‘구스코’의 난(藥子の變)<sup>340)</sup>이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下鴨社에 齋王<sup>341)</sup>를 파견하는 등 황실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도 平安京를 수호하는 중요 신사로 인식되고, 당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던 源氏 무사 義綱은 명망있는 下鴨神社를 그의 元服장소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河內源氏 源賴義의 차남 義綱가 성인식을 올린 下鴨神社의 제사

338) 田中嗣人(2004) 「賀茂祭考」 『華頂博物館學研究』 11 華頂短期大學博物館學芸員課程編, p7.로부터 井上光貞의 논문명을 인용함.

339) 재인용: 田中嗣人(2004) 「賀茂祭考」 『華頂博物館學研究』 11 華頂短期大學博物館學芸員課程編, p.7의 논문 속에서 井上光貞의 기술을 재인용함.

340) 선대 平城天皇와 그의 첩 藥子が 복위를 꾀하자 당대의 嵯峨天皇와가 이를 저지, 藥子は 음독자살하였다.

341) 伊勢神宮와 下鴨神社의 무녀로, 미혼여성의 천황의 자식이 임명되었다.

씨족 賀茂氏와 秦氏의 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가야에 머물고 있던 百廿七縣의 백성과 弓月君은 応神朝에 일본으로 도래, 葛城御所の 朝妻間掖上에 거주하게 되었다. 豪族葛城氏의 滅亡에 의해 秦氏는 葛城를 떠나 京都분지로 이주하여 深草, 葛野, 嵯峨野에 정착하게 된다. 이후 秦氏는 京都의 건설, 日本의 産業・信仰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한편 『日本書紀』의 기록에 의하면, 神功皇后 시절, 葛城襲津彦가 사와라조(草羅城: 현 慶南梁山)로부터 건너온 도래계 금속공인 집단(金屬工人集團)이 葛城御所の 桑原・佐摩・高宮・忍海の 4개 마을에 살게 되었고 製鐵의 신인 阿遲鉏高日子根를 모시게 된다. 이 신의 제사를 담당하던 葛城賀茂氏는 三輪神社의 三輪氏와 동족이며 가야도래인의 후손이다. 賀茂氏는 葛城氏의 쇠퇴와 함께 京都분지로 이주, 賀茂川에 이르러 上賀茂神社・下鴨神社를 창건한다. 이들을 山城賀茂氏라 하며, 大國主命의 後裔、太田々根子を 조상으로 하는 葛城賀茂氏와 다른 계통이라 한다. 그러나 山城賀茂氏의 조상 賀茂建角身命의 京都 진입경로를 보면 그 출발점을 葛城御所로 하고 있어 결국은 葛城賀茂氏와 山城賀茂氏는 동일계통임에 차이가 없다. 京都 桂川の 秦氏와 賀茂川の 賀茂氏는 葛城에서는 서로 이웃사촌이었으며, 京都에서는 서로 같은 전승을 가지고 있었으며, 혼인관계와 양자 입양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였다. 秦氏는 사위가 된 賀茂氏에게 上賀茂・下鴨神社의 제사권을 넘겨 주었다는 「秦氏本系帳」의 기록, 『延喜式・内藏寮』에 보이는 賀茂祭에서의 秦氏의 개입의 자료를 보면 秦氏와 下賀茂神社과의 깊은 관련성을 알게 된다. 차남 源義綱는 이런 인연을 가진 下賀茂神社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 제5장. 秦氏와 신라명신(新羅明神)과의 관련성

### 1. 머리말

風林火山 (疾如風, 徐如林, 侵掠如火, 不動如山)<sup>342)</sup>의 깃발 하에 戰國時代 최강의 기마군단을 자랑한 가이(甲斐)-현 山梨縣-의 맹주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先代인 源義光는 近江國 大津 園城寺의 북쪽 숲속에 있는 新羅明神 앞에서 元服式을 올려 新羅三郎로 불렸다. 장남인 義家が 성인식을 올린 石清水八幡宮의 원형은 秦氏一族이 모신 가야의 여신 辛國息長大姫大目命이었으며, 차남 義綱가 성인식을 올린 下鴨神社의 경우, 신사의 제사족인 山城賀茂氏와 秦氏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다.<sup>343)</sup> 그렇다면 삼남 義光가 성인식을 올린 大津園城寺의 新羅明神과 秦氏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群書類從』<sup>344)</sup>에는 조정의 봉헌을 받는 京都와 근교의 중요 신사 명단인 ‘二十二社註式’<sup>345)</sup>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石清水八幡宮과 下鴨神社는 포함되어 있으나, 義光의 園城寺는 사찰이어서 그런지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정의 봉헌을 받는 중요 신사도 아닌 절에서, 거기다 新羅라는 명칭이 붙은 新羅明神의 앞에서 義光는 어떤 연유로 성인식을 올렸던 것일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秦氏의 가지야(鍛冶屋)-대장장이-의 특성에 주목, 이 특성과 新羅明神의 鎮座地를 연계시킴으로써 新羅明神의 기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園城寺 이외의 지역에 진좌하고 있는 新羅明神을 찾아내어 그 지역에 鐵과 관련 있는 산업이나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秦氏의 집단거주지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鎮座地

342) 「疾(はやき)こと風のごとく、徐(しずか)なること林のごとく、侵掠すること火のごとく、動かざること山の如し」의 의미. 그러나 당시의 실제 전투에는 이 구호가 사용되지 않았고, 현대의 창작물(연속극)이라 알려져 있다.

343) 崔景振, 金祥圭(2017) 「秦氏と賀茂氏の係わりについての考察」 『동북아문화연구』 第50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pp.303-323.

344) 塙保己一編 (1902) 「卷二十二 二十二社註式」 『群書類從』 第一輯 經濟雜誌社, pp.759-760.

345) 二十二社: 伊勢、岩清水、賀茂上下、松尾、平野、稻荷、春日、大原野、太神、石上、大和、廣瀬、龍田、住吉、丹生、貴船、日吉、梅宮、吉田、廣田、祇園、北野。

의 이러한 특징들이 大津園城寺의 환경과 부합하는지를 알아본다.

## 2. 선행연구와 문제의 제기

### 2.1 선행연구

新羅明神는 智証大師 円珍이 天安二年(858)에 당나라로부터 일본에 귀국할 때 선상(船上)에 나타난 이후, 훗날 円珍에 의해서 大津 園城寺의 수호신으로 모셔졌다고 전해진다. 園城寺는 덴다이산문슈(天台寺門宗)의 본산으로 平安時代 후기에 源義光가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림으로써 후세 연구자들은 新羅明神 기원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기원에 있어서 덴다이산문슈(天台寺門宗)의 세키잔묘진(赤山明神)에 대항하기 위해 지몬하(寺門派)가 新羅明神을 모시게 되었다는 辻善之助의 「新羅明神考」<sup>346)</sup>, 新羅明神은 아야히토(漢人)계 오토모토스구리(大伴村主)가 모시던 신이라는 宮地直一の 「園城寺の研究」<sup>347)</sup>가 있고, 近江 大友村主와 新羅明神의 관계를 논한 金文經의 「唐・日文化交流と新羅神信仰」<sup>348)</sup>가 있다. 辻善之助의 「新羅明神考」와 논지가 다른 논문으로는 円珍의 귀국선에 나타난 이 신은 “사실은 円珍이 믿었던 적도 없으며, 더구나 赤山明神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며 『三國遺事』·未尸朗說話의 ‘山靈’에 주목, “더구나 이 산신이 일본신화의 시오쓰지노오지(塩土老翁)와 결합하여 新羅明神이 탄생했다”고 하는 袴田光康의 「平安仏教における新羅明神」<sup>349)</sup>가 있다. 新羅明神과 장보고(張保臯)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은 특히 한국에서 많이 발표되어 논문만으로도 적어도 수 백편에 이르고 있다.<sup>350)</sup> “중국의 산동지방 뿐만 아니라 北九州 방면에서도 영향력을 가

346) 辻善之助(1915) 「新羅明神考」·『日本仏教史研究』第一卷 岩波書店(1983)에 收録.

347) 宮地直一(1982) 「平安期における新羅明神」·『園城寺の研究』天台宗寺門派御遠忌事務局編(1978).

348) 金文經(1987) 「唐・日文化交流と新羅神信仰」 『東方學志』 Vol.54-56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pp.141-165.

349) 袴田光康(2012) 「平安仏教における新羅明神」 『淵民學志』 第17輯, pp.87-88.

진 張保臯의 신라 해상세력의 위용이 설화가 되어 円珍에 의해 新羅明神으로 化現했다”고 하는 金泰燾 「新羅明神考」<sup>351)</sup>、그리고 “엔닌(円仁)과 円珍이 赤山明神과 新羅神을 일본에 勸請한 것은 張保臯에 대한 감사와 은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李炳魯 「日本での新羅神と張保臯」<sup>352)</sup>가 있다. 또한 시마네(島根)·노토(能登)반도·도호쿠(東北)·후쿠이(福井)의 신라계 신사의 존재를 밝힌 魯成煥의 다양한 연구<sup>353)</sup>, 1646년 松前景廣가 편찬한 『新羅之記錄』<sup>354)</sup>과 新羅明神의 사료를 비교 검토한 新藤透 「新羅之記錄と新羅明神史料」<sup>355)</sup> 등이 있다.

## 2.2 문제의 제기

新羅明神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고대 신라 도래인이 모시던 신, ②오토모미코(大友皇子)·오토모스구리(大伴村主) 족이 모신 신, ③入唐僧 円珍이 귀국할 때 선상에 나타난 신, ④天台山門派와 寺門派의 대립·갈등 시에 寺門派가 山門派의 赤山明神에 대항하기 위해 창작된 신, ⑤張保臯의 화현으로서의 新羅明神 등의 5개의 설로 분류할 수 있다.<sup>356)</sup> ①의 설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②의 설은 大伴氏의 출신과 大伴村主 이전의 園城寺 前身寺院跡에 대한 문제, ③의 설에는 円珍과 新羅明神의 전승이 후세의 추가적 작성이라는 점이라는 반론이 있다. ④의 설에 대해서는 新羅明神 (971) 쪽이 사료상의 서위(叙位)가 赤山明神(993)보다 먼저로, 오히려 赤山明神이 新羅明神을 따라가는 형태였

350) 李炳魯(2010) 「円珍の唐留學と新羅人」 啓明大學校・桃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p1 (附註2).

351) 金泰燾(2000) 「新羅明神考」 『日本文化學報』 9 韓國日本文化學會, pp.165-184.

352) 李炳魯(2006) 「日本での新羅神と張保臯」 『東北亞文化研究』 第1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pp.319-341.

353) 魯成煥 「시마네의 한국계신사에 관한 일고찰」 「노토반도의 한국계 신사에 관한 일고찰」 「일본동북지방의 신라신사와 전승」.

354) 『新羅之記錄』는 北海道最古의 歴史書라 하는데, 내용 중에 松前家の 선조는 清和源氏 義光라 한다.

355) 新藤透(2005) 「新羅之記錄と新羅明神史料」 『図書館情報メディア研究』 三卷一号 筑波大學校, pp.19-28.

356) 앞의 책 註351·註352의 분류를 참고로 하였다.

다고 하는 반론이 있다.<sup>357)</sup> ⑤의 설은 한국에서는 많이 연구되어 있으나, 円珍·新羅明神과 張保皋의 시기가 맞지 않는 난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논지에 맞는 ①의 설, 山門과 寺門의 갈등에 관한 ④의 설, 그리고 이미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⑤의 설은 본장의 검토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

### 가) 大伴村主氏와 園城寺

1062년 藤原實範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園城寺龍華會緣起』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논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新羅明神의 최초의 등장과 園城寺의 유서에 관한 점이다.

드디어 円珍이 ①일본(本朝)으로 돌아갈 때, 어떤 노옹이 배에 나타나 가로되, 나는 신라의 명신이라 하고, 스님(和尚)의 호지불법(護持佛法)을 지키기 위하여 미륵자존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불법문(佛法文)을 태정관(太政官)에게 바치는 전날에 노옹이 나타나 이르기를,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부디 여기에 가람을 건립하여 불법은 안치하소서’ (이하 생략). 그때 ②교대(敎待)가 집안사람을 부르니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하길, 선조는 오토모요다(大友興多)이며, 덴무 천황(天武天皇)을 위해 절을 세웠다. 이곳은 원래 오토모 다이쥬다이진(大友太政大臣)의 집터이다. 太政大臣은 덴치 천황(天智天皇)의 칙(勅)을 받들어 이 터에 宗福寺를 건립하였고, 6개의 미륵상의 안치하였다. 천황의 꿈속에 계시가 있어 太政大臣에게 건립하도록 한 것이 지금의 宗福寺이다. 그리고 興多是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절을 세웠다고 하였다.<sup>358)</sup>

357) 앞의 논문 註349, p.91.

358) 神宮司廳古事類苑出版事務所編(1896) 『古事類苑』 宗教部25 神宮司廳.

(<http://dl.ndl.go.jp/info:ndljp/pid/897774/6?tocOpened=1>, コマ番号34,

검색일: 2019.07.20.國會圖書館デジタル)

遂歸本朝、有一老翁現於船中曰、我是新羅明神也、爲和尚護持佛法、期以慈尊作是言畢、其形不見矣。和尚歸朝之日、公家令所持佛法門運納于太政官、于時前日老翁來曰、此日本國有一勝地、宜建立一伽藍安置此佛法。(省略)

최초의 ①부분은 입당(入唐)수업을 마친 円珍은 귀국길에 나서는데, 배에 新羅明神이 나타나 円珍의 호지불법(護持佛法) 신이 되겠다는 내용과 재차 新羅明神이 노옹의 모습으로 나타나 일본 제일의 명당에 불법안치(佛法安置)를 위해 절의 건립을 원하는 장면이다. 후반부 ②에서는 원래 이곳은 天智天皇의 아들 오토모미코(大友皇子)의 집터였으며 ‘壬申’의 난에서 패배한 아버지 大友皇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興多王가 건립하였다는 園城寺의 건립유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후반부의 大友氏の 園城寺창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園城寺緣起』<sup>359)</sup>, 『今昔物語』<sup>360)</sup>, 『古今著聞集』<sup>361)</sup>, 『元享釋書』<sup>362)</sup>, 『太平記』<sup>363)</sup> 등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나 그 내용은 위 예시문인 『園城寺龍華會緣起』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園城寺는 황족 大友氏の 氏寺가 아니고 도래인 大友村主의 氏寺라는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大日本史』·『古今著聞集』 등에는 “園城寺는 天武帝 시절 大友興多王가 건립하였다 하나 본 사찰은 大友村主의 氏寺이다. 후세사람들이 잘

教待呼氏人出來云先祖大友興多、爲天武天皇建立也。本是大友太政大臣之家也。太政大臣奉天智天皇勅、以宗福寺建立此地造顯丈六彌勒像安置訖、爰天皇夢中有示現、勅太政大臣更亦始建立、今崇福寺也。因茲興多隨父遺誡、建立此堂舍也。

359) 앞의 註358, 12番号32, 검색일 : 2019.07.20.

建立近江滋賀郡-右當寺者、天武天皇十五年歲次丙戌、大友與多磨爲父大相國所建立道場也。

360) 『今昔物語集』卷11第28話 智証大師初門徒立三井寺語 第廿八。

所々に求め行き給ふに、近江の國の志賀の、昔し大伴の皇子の起たりける寺有り。

361) 經濟雜誌社編(1897)「古今著聞集」卷二 釋教 第二 ‘智証大師歸朝を新羅明神擁護の事並びに園城寺創建の事’ 『國史大系』十五卷 經濟雜誌社, p.185.

此寺建立之後經百八十餘年也。有建立檀越子孫。去即教待呼彼氏人、姓名大友都堵牟麻呂。出來云都堵牟麻呂生年百四十七也。此寺先祖大友與多奉爲天武天皇所建立也。此地先祖大友太政大臣之家地也。

362) 『元享釋書』第二十八「寺像志」

園城寺者。大友興多之所建也。初天智帝敕太師大友氏。移崇福寺建此地。安丈六彌勒像。天皇有夢。又敕太師環遷本地。太師薨。其子興多承願命。奏天武帝創之。亦此是太師之家基也。

363) 『太平記』卷第十五「園城寺戒壇事」

園城寺何ぞ眞言の三摩耶戒を建ざらんやとて、後朱雀院の御宇長曆年中に、三井寺の明尊僧正、頻りに勅許を蒙らんと奏聞しけるを、山門堅く支申ければ 彼寺の本主太政大臣大友皇子後胤、大友夜須磨呂の氏族連署して官府を申す。

못하여 大友帝皇子 興多王의 이름을 빌려썼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64)</sup> 그리고 『古今著聞集』·『太平記』·『本朝皇胤紹運錄』에는 쓰토무마로(都堵牟麻呂)와 야스마로(夜須磨呂)가 大友皇子의 손자와 증손으로서 園城寺를 계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sup>365)</sup>, 이는 “후세의 위칭(僞稱: 假冒)이다”라고 지적하는 설도 있다.<sup>366)</sup> 太田亮의 『姓氏家系大辭典』에서는 “증손의 夜須磨呂의 형인 구로누시(黑主)가 大友皇子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 하며, “黑主가 大友村主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라고 하였다.<sup>367)</sup>

大友村主氏와 新羅明神의 관련성에 있어서 그 출신지를 밝히는 자료는 『日本書紀』의 應神朝二十年秋九月条와 『續日本紀』 桓武天皇延暦四年(785)六月条이다. 즉, “야마토야야노아타이(倭漢直)의 선조 아치노오미(阿知使主)가 應神朝에 17현의 백성을 이끌고 귀화하였다”라는 『日本書紀』 기록과 阿知使主는 “근본은 後漢靈帝의 후손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선의 대방(帶方) 땅을 거쳐 7종류의 성을 가진 인민만을 이끌고 와서 應神朝때 귀화하였고, 백제와 고구려에 잠시 머물고 있는 백성은 천황이 사자를 보내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였다고” 하는 『續日本紀』의 기록이 있다. 한반도 잔류 후 일본으로 건너온 백성의 자손 중에 西大友村主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신라에 머물 때 모시던 신이 新羅明神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大友村主 氏神설이나, 그러나 西大友村主족이 신라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실한 자료는 없다. ‘村主’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신라의 관직이기 때문에 大友村主가 신라 출신이라고 하나, 815년 편찬된 『新撰姓氏錄』에는 “右京諸蕃坂田村主·河內國諸蕃古市村主·和泉國諸蕃葦屋村主·同諸蕃百濟村主”의

364) 『大日本史』의 引用部分은 註358의 『古事類苑』 宗教部25에 수록. 127番号33. 古今著聞集引智証大師緣起文、古今集目錄、伊呂波字抄引本朝文集云、大友興多爲天武帝建之、水鏡云、葛野皇子建野、今按、本寺爲大友村主氏寺。故後人誤託名大友帝皇子興多王。又葛野皇子也。

365) 塙保己一編(1898) 「卷第六十 本朝皇胤紹運錄」 『群書類從』 第四輯 經濟雜誌社, p.26

366) 佐伯有清(2008版) 『円珍』 吉川弘文館, p.209.

367) 太田亮(1934) 「オホトモ」 項 『姓氏家系大辭典』 第一卷 姓氏家系大辭典刊行會, p.1239.

출신지가 백제국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村主가 일률적으로 신라계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신라계는 일본에서 村主보다 ‘스구리(勝)’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金泰燾는 “막연히 신라에서 숭배되었던 신이기 때문에 新羅明神으로 단정할 뿐으로 신라에서 모시던 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sup>368)</sup>”고 하며, 袴田光康도 「平安仏教における神羅明神」에서 “後漢獻帝의 후예라고 하는 大友村主 일족이 왜 신라라는 국명을 지닌 신을 제사 지내는가 명확하지 않다<sup>369)</sup>”고 논하고 있다.

園城寺가 소재하고 있는 시가군(志賀郡)은 예부터 大友씨족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近江國輿地志略』을 보면, “志賀群에는 오토모 마을(大友郷)이 있다<sup>370)</sup>”고 기록되어 있고, 『近江』에서는 滋賀郡(志賀郡)의 씨족으로 “오토모야히토(大友漢人), 오토모베(大友部), 大友村主, 오토모오사(大友日佐) 오토모후히토(大友史), 大友氏, 오토모쿠와하라후미(大友桑原史), 오토모단파후히토(大友但波史) 등의 각 씨족이 살고 있었다<sup>371)</sup>”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大友씨족이 같은 지역의 園城寺의 창건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園城寺가 大友村主의 氏寺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면 현재의 園城寺의 밑에는 ‘園城寺前身社院’의 터가 남아있다. 바꾸어 말하면, 園城寺 이전에 이미 오래된 사원이 있었고, 그 터 위에 大友村主 씨족이 새로운 절을 세웠다고 생각되며, 이는 大友村主 이전에 어떤 씨족이 園城寺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園城寺前身社院 터의 존재는 日本國土交通省의 심의회 기록에도 “현 園城寺의 하층에는 확실히 大津京 시대 전후에 창건된 전신의 사원 터가 존재한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72)</sup> 또한 葛野泰樹는 “前身寺院의 발

368) 앞의 논문 註351, p.167.

369) 앞의 논문 註349, p.93.

370) 寒川辰清(1915) 「卷之二 建置沿革・郷」 『近江國輿地志略 上』 大日本地誌大系刊行會, p.10.

371) 太田亮(1925) 「近江 滋賀郡 氏族」 『日本國誌資料叢書』 磯部甲陽堂, pp.299-301.

372) 國土交通省社會資本整備審議會都市計畫・歴史的風土分科會, 第5回歴史的風土部會議事要旨, 資料5-2, p9.(平成15年11月13日) .

굴조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sup>373)</sup>”고 하였다 .

山尾幸久는 「大津宮の興亡」에서 “고대의 비와코(琵琶湖) 서안은 신라계 씨족의 거주지라고 생각된다. 아즈미 마을(安曇郷)로부터 滋賀郡에 걸쳐 그들의 유적이 남아있다. 아노우(穴太), 大友, 니시코리(錦織)의 村主들은 애초부터 志賀津 주변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정착했던 大和나 가와치(河内)로부터 국가의 계획에 의해 그 땅에 배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74)</sup>

#### 나) 円珍과 新羅明神

園城寺 新羅明神의 起源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것이 円珍과의 설화이다. 이 설화는 920년 良勇의 서사(書寫) 『園城寺緣起』<sup>375)</sup>, 1063년 작성의 『園城寺龍華會緣起』, 『園城寺伝記』, 『古今著聞集』, 『伊呂波字類抄』, 「園城寺」의 해당 항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내용은 노옹이 선중(船中)에 나타나 新羅明神임을 밝히며, 和尚(円珍)을 위해 불법을 수호할 것이라 약속한다.

이 설화에 관하여 小山田和夫는 「園城寺緣起考」에서 “『古今著聞集』와 『伊呂波字類抄』의 円珍 관련기사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며 『園城寺緣起』로부터 인용했다”고 하며, “이것은 智証大師의 저술이 아니고 円珍에 의탁하여 쓴 것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sup>376)</sup> 또한 中前正志는 「園城寺緣起の享受」에서 “園城寺緣起는 실로 후세의 위작(偽作)으로, 円珍을 빌려서 円珍의 일인칭 유래담과 유훈을 창작함과 동시에 거기다

373) 葛野泰樹(2014) 『大津京と寺院配置』 都城制研究』(8) 奈良女子大學古代學學術研究中心, p.37.

374) 出羽弘明(2007) 『新羅の神々と古代日本』 同成社, p.189 참고. 本出典은 水野正好(1992) 『古代を考える・近江』 吉川弘文館에 所收.

375) 小山田和夫(1987) 「園城寺緣起考」 『立正大學文學部論叢』 立正大學 文學部, p.37 참고. 予依山王御語、渡於大唐國受持佛法還本朝。海中老翁現於予船而稱、我新羅國明神也、和尚受持佛法、至于慈尊出世、爲護持來向也者。如是言說之後畢、其形既隱。予着岸、申公家。既遣官使、所持佛像法門被運納於大政官。于時海中老翁來云、此日本國一勝地、我先至彼地、早以点定。申於公家建立一伽藍安置此佛法。

376) 앞의 註375, p39.

위조의 문서 2통을 첨부하였다”고 하였다.<sup>377)</sup> 인용한 후세의 문헌내용에도 의문의 여지가 많아 円珍과 新羅明神의 관련은 설화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円珍의 入唐求法の 行程은 仁壽三年(853)七月十六日 博多港 출발→같은 날 松浦 值嘉島정박→八月九日 值嘉島출발→八月十三日 대만표류→八月十五日 福州連江縣-현 중국 福建省- 도착, 博多-대만-福州의 루트를 值嘉島로부터 7일 걸려 福州에 도착했다. 그러나 귀국은 天安二年(858)六月八日 台州出發→六月十九日 肥前國 松浦郡美旻樂崎 到着으로 귀국의 경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11일이 걸렸다. 이 일정에 대하여 李炳魯는 「円珍の唐留學と新羅人」에서 당시의 다른 입당 경험자의 동지나 항해 루트의 소요 날짜를 조사했다. 840년대의 惠運의 6일(입당 시)과 3일(귀국 시), 860년대의 眞如親王의 4일과 5일의 예를 들며 円珍의 귀국 시의 11일은 너무 길었다고 보았다.<sup>378)</sup> 따라서 ‘한반도 남부를 따라 귀국했다고 볼 수가 있다’ 한다. 한편 佐伯有清는 円珍은 동지나해 횡단의 항로를 택하였기 때문에 『円珍』에서 “円珍을 둘러싼 전승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닌, 園城寺 창립 이전에 大友村主氏의 집안의 신(氏神)인 新羅明神이 후세에 円珍의 전승에 연결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円珍과 新羅明神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sup>379)</sup>

이상과 같이 園城寺의 창건과 新羅明神의 기원에 있어서 大友皇子와 大友村主 氏族의 관계에 대해서 논했는데, 園城寺의 밑에는 유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園城寺前身寺院跡의 존재는 명확한 것이고, 大友村主 氏族과 新羅明神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円珍과 新羅明神과의 관계도 후세의 작위로, 사실은 円珍과는 관계가 없다는 반론도 소개하였다. 따라서 제설(諸說)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다른 관점에서 新羅明神의 기원을 고찰해 보고자 함이 본 장의 취지이다.

377) 中前正志(2003) 『大谷學報』 「園城寺緣起の享受」 第82卷第1号 大谷大學, pp.20.

378) 李炳魯(2010) 「円珍の唐留學と新羅人」 『啓明大學校・桃山學院大學國際學術セミナー』 Vol.2010 No.3 啓明大學校産業經營研究所, p.27.

379) 앞의 책 註366, p.216.

### 3. 秦氏와 新羅明神의 관련성

新羅明神의 起源을 모색하기 위해 園城寺 이외의 新羅明神 鎮座地를 찾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그 존재나 흔적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廢寺 또는 合祀되었거나 혹은 메이지(明治) 시대의 神仏分離政策에 따라 인위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新羅明神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sup>380)</sup> 이 중에서도 아직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옛 新羅明神의 鎮座 기록을 바탕으로 고찰을 진행하기로 한다.

#### 3.1 福井縣南条郡今庄의 新羅明神

후쿠이켄(福井縣) 남조군(南条郡) 콘조(今庄)의 新羅明神은 문헌상의 기록으로 『特選神名牒』에서 “福井藩神社 조사서에 南条郡今庄村新羅神社가 있다. 시로오니가와시라가와(白鬼川叔羅川)라고도 한다. 구베쓰조(區別帳)에 今庄驛의 新羅神社는 그 씨족이 1,534 가구(戸)나 되는 신사를 시키가이(式外)<sup>381)</sup>로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적혀 있다.<sup>382)</sup>

씨족의 식구가 1,534가구라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신사인데, 이 新羅神社의 터는 원래 히우치가조(燧ヶ城)로, 源賴朝의 이복동생인 요시나카(義仲)가 이 자리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현재의 今庄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新羅神社緣起」에서 “이 신을 위해 후세사람들이 에치젠(越前)의 燧山에 新羅大明神의 신사를 건립하여 素戔男命을 주신으로 모셨다”는 기록과 부합하며<sup>383)</sup>, 건립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燧ヶ城에서 옮겨져 현재의 자리에 진좌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380) 魯成煥(2013) 「일본 후쿠이현의 신라계 신사의 변용과 정착」 『일어일문학』 59輯 대한 일어일문학회, p.318.

381) 『延喜式』 第9卷・第10卷 「神名帳上下」에 등재되지 않는 신사 (式外社) .

382) 教務省編(1918) 「信露貴彦神社」 『特選神名牒』 磯部甲陽堂, p.502.

神仏分離政策以後各式内社の 祭神, 神位, 社格, 所在等を 調査한 報告書이다.

383) 앞의 논문 註380, p.318으로부터 再引用.

보인다. 1816년 발행의 『越前名蹟考』·「南条郡今庄村」에는 “新羅明神社는 조구(上宮)라고 하는 슈쿠한(宿半)보다 위에 자리 잡은 우부스나가미(産土神)-태어난 지역의 수호신-이다. 옛 부터 진좌하였으며 元和년 중에 (1615년부터) 수리하였다<sup>384)</sup>”는 기록이 있어 이 지역에서 新羅明神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同書에 “今庄의 新羅明神은 신라국으로 간 素戔男命의 환생이며 円珍이 당으로부터 귀국할 때 선상에 나타났으며, 관동의 佐竹, 柏木, 逸見, 加賀美, 小笠原, 武田 일족의 선조인 源義光가 新羅明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려 新羅三朗로 불리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 한반도의 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今庄村誌』에도 “延喜式 神祇官 神名下에 쓰루가군(敦賀郡) 四十三座 중에 시라기히코신사(信露貴彦神社)가 있다. 후세에 今庄에 新羅神社가 있다”고 한다.<sup>385)</sup>

新羅明神이 진좌하고 있는 南条郡 南越前町 부근에는 현재도 「福井鉱山」·「南条鉱山」·「今庄鉱山」이 조업 중(혹은 휴업 중)일 정도로 철광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大正一年(1912)에 출간된 南条郡의 『福井縣南条郡要覽』을 보면 당시에도 南越前町 소마야마무라(杣山村)-今庄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5km 동북방향-에는 금·은·동을 캐는 7개의 광산이 있었다 한다.<sup>386)</sup> 지금도 南越前町에는 이모노시무라(鑄物師村), 가네가스무라(金粕村), 마키다니(牧谷) 등의 쇠와 관련 있는 마을이름이 존재한다. 鑄物師村은 광산지대인 杣山村에 있다. 사철(砂鐵)이 나오는 광산지역에 주물업을 직업으로 하는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마을 이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옛날부터 광산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宮下文明는 “南條郡은 다케오(武生)로부터 히노가와(日野川)를 따라 7-8km 거슬러 올라가는 곳에 있다. 이 부근의 北杣山村에는 鑄物師村라는 지명이 있다. 越前市 고부이치(五分市), 島町, 鑄物師村은 日野山 주변에 있고, 日野山으로부터 砂鐵이 産出되고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당시의 채광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384) 井上翼章(1902) 「新羅明神社」 『越前名蹟考』 首卷 卷之二 中村興文堂, p.210 .

385) 庭本雅夫(1929) 『今庄村誌』 村誌刊行會, p.10-14.

386) 南條郡編(1913) 「第十六 鉱山」 『福井縣南條郡要覽』 大正元年 南條郡, p.48.

이 지역의 철광업의 시초는 제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 한다.<sup>387)</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新羅明神이 진좌하고 今庄와 그 부근 지역은 옛날부터 채광 지역임은 알 수가 있는데, 다음은 이 지역의 秦氏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倭名類聚抄』에 의하면 “越前國은 丹生郡(丹生郡), 쓰루가군(敦賀郡), 이마다테군(今立郡), 아스와군(足羽郡), 오노군(大野郡), 사카이군(坂井郡)”의 6개 군으로 형성<sup>388)</sup>되어 있다. 『倭名類聚抄』가 미나모토 시타고(源順)에 의해 편찬된 때가 931년부터 938년 사이인데, 이 시기에 今庄村가 속해 있는 南条郡은 『倭名類聚抄』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南条郡은 敦賀郡의 북부, 丹生郡의 남부, 今立郡의 남서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아마 이 3개 군의 어딘가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敦賀郡은 『日本書紀』에 대가야의 왕자 都怒我阿羅斯等の 설화가 등장하는 지역으로 가야나 동해남부의 신라계 도래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다. 여기서부터 日野川를 따라 쉽게 今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福井縣史』에 “신라족은 天日槍 이래 고대부터 살기 좋은 이곳으로 이주해 왔으며, 敦賀郡 松原村의 시라가진자(白髮神社), 信露貴神社, 南條郡의 新羅神社는 진한(秦漢), 백제민의 제사 장소였는데, 후세에 신라족의 선조를 모시는 곳이 되었다<sup>389)</sup>”고 하므로 고대부터 敦賀郡과 南條郡에 다양한 도래인이 거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후세에 이르러 신라인이 정착하였다는데, 『今庄村誌』를 보면 “今庄를 흐르는 日野川를 옛날에는 시로키가와(信露貴川) 혹은 시라가와(淑羅川)라 불렀고, 후에는 시로키메가와(白鬼女川)라 하였다”고 하므로 今庄의 신라인 정착을 짐작 할 수 있다.<sup>390)</sup> 그런데 秦氏도 이 지역에 집단 거주했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다. 「越前國國司解」에 의하면, 고대에 南條郡이 속해 있었던 敦賀郡에 “天平神護二年(766) 쓰모리 마을(津守郷)의 秦下子公磨, 이베사토(伊部郷)의 하타오사야마(秦曰佐山)

387) 宮下文明(1973) 「越前・若狹の鑄物産地」 『早稻田商學』 卷240号 早稻田商學部, p.165.

388) 源順(1617刊) 「北陸郡 第六十三 越前國」 『倭名類聚抄』・二十卷之三 那波道門, pp.18-19.

389) 福井縣編(1920) 『福井縣史』 第一冊第一編 福井縣, pp.18-19.

390) 앞의 책 註385, p.10.

가 거주하였고, 그 외 아스와군(足羽郡) 足羽郷·上家郷·村刈郷에 하타후미마로(秦文曆)·하타아베(秦阿部)·하타이데쓰키마로(秦井手月曆), 사카이군(坂井郡)·赤江郷·金戸郷에 하타아카마로(秦赤曆)·하타사미(秦佐弥), 에누마군(江沼郡) 미타고(彌太郷)의 하타토쿠마로(秦得曆) 등의 秦氏が 살았고<sup>391)</sup>, 그리고奈良시대의 목간에 오노군(大野郡) 大沼郷·大山郷의 하타오쿠마로(秦奥麻呂)·하타토요타리(秦豊足), 坂井郡 赤江郷의 하타키요히토(秦淨人)의 이름이 보인다.<sup>392)</sup> 太田亮는 “秦氏は 越前 지역에 대단히 많이 거주하였는데, (中略) 敦賀郡부터 足羽, 坂井, 江沼의 여러 군에 산재하여 그 존재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sup>393)</sup> 加藤謙吉도 越前國의 “足羽郡·坂井郡·大野郡·丹生郡·敦賀郡에 秦氏の 집단 주거지 분포가 광범위하게 보이므로<sup>394)</sup>” 越前國 전체에 秦氏が 거주하였다 말할 수 있다.

### 3.2 島根縣仁多郡奥出雲町の 新羅明神

出雲의 新羅明神은 島根縣 니타군(仁多郡) 오쿠이즈모초(奥出雲町)의 나카유노무라(中湯野村)-현 龜嵩-에 鎮座하고 있는데, 마을 내의 ‘도리가미센쓰잔(鳥上船通山)’이라는 지명은 이미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신대(神代)에 등장하고 있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는 쫓기어 出雲國의 히노가와(肥の河) 상류의, 도리가미(鳥髮)라는 땅에 내렸다.<sup>395)</sup>

素戔鳴尊, 아들 이소타케루(五十猛)를 이끌고 신라국에 강림하여 소시모리(曾尸茂梨)에 살았다. 시간이 지나 말하기를, ‘나는 이땅에 살고 싶지 않구나’라고 말하고는 흙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出雲國의 히노가와(簸の川) 상류의 鳥上峯에 내렸다.<sup>396)</sup>

391) 太田亮(1942) 『姓氏家系大辭典』 第5卷 國民社, p.4726.

392) 松村恵司 「木簡庫」 奈良文化財研究所 (<https://mokkanko.nabunken.go.jp/ja/>), 검색일 2019.07.23)

393) 앞의 책 註391.

394) 加藤謙吉(2000) 『秦氏とその民』 百水社, p.26.

395) 『古事記』·神代の八俣大蛇

신라로부터 돌아온 素戔鳴尊-『古事記』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가 일본에 강림한 곳이 지금의 히이가와(斐伊川)의 상류에 있는 仁多郡奥出雲町の ‘鳥上の船通山’인데, 『古事記』의 주석부분<sup>397)</sup>과 『島根縣史要』에 의하면 ‘鳥髮’·‘鳥上’가 현재의 奥出雲町の ‘鳥上船通山’를 가리킨다고 한다.<sup>398)</sup> 神代の 素戔鳴尊의 전승이 지금도 남아있는 奥出雲町の 中湯野村에 新羅明神이 鎮座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 마을이 옛날부터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中湯野村에 新羅明神가 진좌하고 있었던 사실은 지금은 그 어떤 흔적도 없이, 단지 문헌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뿐이다. 江戸時代の 국학자 반 노부토모(伴信友)의 「中外経緯傳草稿」와 『大日本地誌大系』·「雲陽誌·中湯野」를 보면,

그 책머리에 同 군내(仁多郡)의 나카유노무라(中湯野村)에 新羅大明神社라는 것이 있다.<sup>399)</sup>

신라사의 창건기록(新羅社緣起)이 없어 그 유래를 모른다. 3척 정도의 社上分이라는 곳에 있으며 祭日は 九月十三日이다.<sup>400)</sup>

新羅明神의 기원도 유서(由緒)도 이미 없어져 버렸으나 제삿날이 지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절 자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仁多郡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기록될 만큼 한반도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지만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 岡谷公二는 『神社の起源と古代朝鮮』에서 “出雲에서는 어떤 시점부터 出雲의 지방권력자(國造家)의 의사에 따라서

396) 『日本書紀』·神代上の八俣大蛇.

397) 『古事記』講談社學術文庫, p.102의 (註)를 참조.

398) 藤本充安(1907) 『島根縣史要』 川岡清助, p.103.

船通山とは須佐の男命と興御子五十猛神二神、今朝鮮へ下りまして、木の種を取りて埴土を以て船をこしらへ、乗て此の山に着し玉ふ。故に船通路と云とぞ。

399) 伴信友(1907) 「中外経緯傳草稿」 『伴信友全集』 第三 國會刊行會, p.174.

其の首書に同郡中(仁多郡)中湯野村に、新羅大明神社と申すもありといへり。

400) 蘆田伊人(1930) 「雲陽誌卷之五·仁多郡」 『大日本地誌大系』 第27卷 雄山閣, p.151. 新羅社緣起なし、故に由來しれず、三尺ばかりの社上分といふ所にあり、祭日九月十三日。

신라색, 넓게 얘기해서 조선 한반도의 색을 점차 지워나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01)</sup> 魯成煥도 “出雲와 오키(隱岐)에는 신라계를 표방하는 신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역에 있어서의 신라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신사의 이름도 바뀌어, 祭神과 신화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서 변용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짓고 있다.<sup>402)</sup>

新羅明神이 진좌하고 있는 仁多郡과 인근 이이시군(飯石郡)-현 雲南市와 飯南郡一部-·노기군(能義郡)-현 아키군-·大原郡-현 雲南市-의 고대 제철의 역사에 대해서는 『出雲國風土記』·「仁多郡」条에 “三津郷, 横田郷의 여러 마을에서 생산되는 철은 단단하여 생활도구를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sup>403)</sup>, 仁多郡의 인접한 飯石郡의 경우에도 “波多의 小川에 철이 생산된다”는 기록이 있어 仁多郡과 인접지역으로부터 양질의 광물이 채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04)</sup> 簸伊川 부근인 仁多郡과 飯石郡은 사철광(砂鐵鉾)의 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島根縣誌』에 의하면 “아마 옛날부터 천연 광물을 발견하여 채취하였다. 지금의 가나야마히코노미코토(金山彦命) 고사를 보아 신화의 시대부터 광물을 채취하였다고 보는데, 옛날의 일은 상세히 알 수가 없다. 현재의 仁田·飯石 등의 광산은 天分(1532-1554) 때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므로 仁多郡·飯石郡의 古代製鐵의 오래된 역사를 엿볼 수 있다.<sup>405)</sup> 지금도 仁多郡奥出雲町에는 코마키(小馬木)광산(폐광)·히다치토리가미(日立鳥上)鉾山(폐광)·鳥上簸伊川광산·鳥上하나이다니(羽内谷)광산·鳥上철광산 등이 존재하고 있어 新羅明神이 진좌하고 있는 仁多郡과 飯石郡이 고대 제철의 발상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仁多郡과 주변의 飯石郡, 大原郡, 能義郡의 秦氏의 집단거주 유무에 대해서 알아본다. 문헌상으로는 먼저 『出雲國風土記』·飯石郡条를 보면, 飯石郡에 波多郷이 있고, “하타쓰미노미코토(波多都美命)가 하늘로부터 강림한 곳으로, 이곳을 波多라고

401) 岡谷公二(2014) 『神社の起源と古代朝鮮』 平凡社新書, p.108.

402) 魯成煥(2014) 『日本島根の地域伝承を通して見た新羅』 『東北亞細亞文化研究』 第38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p.451.

403) 萩原千鶴(2007) 『出雲國風土記』 「仁多郡」条 講談社學術文庫, p.268.

404) 앞의 주 註403, p.259.

405) 島根縣教育會編(1923) 『島根縣誌』 島根縣教育會, p.139.

부르는 까닭이다”고 波多郷의 지명유래를 설명하고 있다.<sup>406)</sup> 이 ‘波多都美命’은 현재의 飯石郡 가케아이초(掛合町) 波多村 소재의 波多神社에 진좌하고 있는데, 역사서에 그 유래나 이름을 볼 수가 없고, 오직 波多神社에서만 볼 수 있는 신으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飯石郡 내 波多郷을 흐르는 ‘波多の小川’라는 하천이 同 風土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밑에 “철이 생산된다”는 추가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倭名類聚抄』 飯石郡 항에도 군내(郡内)에 波多郷라는 지명이 보여<sup>407)</sup> 太田亮(1934)는 이를 근거로 하여 『姓氏家系大辭典』에서 “出雲의 秦氏로서, 出雲國 飯石郡에 波多郷있으며, 和名抄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명기, 飯石郡 波多郷에 살고 있었던 波多族을 出雲의 秦氏로 간주하고 있다.<sup>408)</sup>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仁多郡 부근에는 秦氏의 집단거주지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波多神社가 소재하는 掛合町와 마을 안에 있는 사나가진자(狹長神社)의 경우, 『掛合村誌』·「郷社狹長神社」기록에 의하면 神社의 歷代社司(제사장)는 秦氏로, 초대부터 4대까지의 봉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5대 제인 天文八年(1593)부터 18대의 明治二十二年(1889)까지 秦氏 집안이 긴 세월을 걸쳐 마을 神社의 제사장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秦氏가 지역의 종교적 리더였으며, 부근에 秦氏의 집단 거주지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09)</sup>

### 3. 3 兵庫縣姫路市の 新羅明神

과거의 히메지(姫路)는 시카마군(飾磨郡)에 속해 있었는데, 飾磨郡내에 新羅明神이 모셔져 있었던 신사가 3군데 있다. 우선 군내 시고초(四郷町) 아케다(明田)에는 지금도 新羅神社라고 불리는 ‘明田新羅大明神’가 있다. 『播磨名所巡覽図

406) 앞의 책 註403, 「飯石郡」, pp.247-262.

407) 앞의 책 註388, 20卷の四, p.8.

408) 앞의 책 註391, p. 4727.

409) 白築祐久編(1926) 「掛合村狹長神社」 『掛合村誌』, p.133, pp.141-143.

會』에서 “新羅明神社는 明田村에 있다. 이국(異國)의 왕자를 모시고 있다한다. 그래서 王子祭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상으로도 新羅明神의 鎮座가 확인된다.<sup>410)</sup> 그 외에 『播磨鑑』, 『古跡便覽』의 기록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가능하나<sup>411)</sup>, 여기에서 ‘이국의 왕자’라는 것은 후세의 조작으로 보이며, 동서에 의하면 이전부터 신라인들이 모시던 조상신의 사당으로 알려져 있다.

明田의 新羅明神社로부터 北上하면 같은 飾磨郡内の 시라쿠니진자(白國神社)와 히로미네진자(廣峯神社)가 있다. 『特選神名帳』에는 白國神社에 대해서 “옛날 신라인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던 곳으로 新羅의 나라라 불렀고, 신라인의 조상을 모시던 곳이다<sup>412)</sup>”고 한다. 廣峯神社는 고즈덴노(『牛頭天王』)에서 “옛날에는 이 신을 新羅明神이라 부르고 모셨는데, 하쿠헤이산(白弊山)은 이 신이 강림하여 진좌했던 자리라 하여 이 땅을 新羅國山이라 불렀다”<sup>413)</sup>고 하므로 廣峯神社의 新羅明神 진좌가 확인된다.

播磨國-현 兵庫縣 남서부지역-는 播磨灘에 면해 千種川, 揖保川, 市川, 加古川가 播磨灘로 흘러 들어가는데, 각 수원지로부터 播磨灘까지의 강변에서는 옛날부터 양질의 사철(砂鐵)이 생산되었다. 특히 ‘千種鐵’와 ‘宍粟鐵’는 고대 제철지역으로 유명한데 이 千種·宍粟에 대한 기록으로 『播磨國風土記』에서 ‘사요군(讃容郡)·宍粟郡’条에 “철을 생산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新羅明神가 진좌하였던 飾磨郡도 고대 제철지로 잘 알려져 있다. 『播磨國風土記』·‘神崎郡’의 ‘오와치노(邑日野)’条에서는 토착신인 伊和大神와 도래인 天日槍와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는데 두 신은 철의 신으로, 사실은 철광을 둘러싼 싸움으로 해석한다. 平野邦雄는 “『播磨國風土記』에서 天日槍 관련 설화가 있는 지역은 秦氏씨의 거주 지역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略) 즉 飾磨郡·揖保郡·神崎郡·宍粟郡이 그런 지역이다”고 한다.<sup>414)</sup> 伊和大神가 飾磨郡 이타테사토(因達里)에 다시 등장하는데, “因達리에 伊和大神가 鎮座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因

410) 村上石田 (1804) 「大日森」 『播磨名所巡覽図會』 五卷 [4] 塩屋忠兵衛.

411) 앞의 책 註374, p.116로부터 재인용.

412) 앞의 책 註382, p.715.

413) 廣嶺忠胤(1919) 「廣峯神社」 『牛頭天王』 廣峯神社, p.30.

414) 平野邦雄(1969) 『大化前代社會組織の研究』 吉川弘文館, p.167.

達は 이타데(射楯) 로 쓸 수 있고, 따라서 伊和大神는 射楯大神가 되는데<sup>415)</sup>, 현재의 姫路市 중심부에 위치하는 ‘射楯兵主神社’의 주변은 고대 제철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風土記에는 『因達里』 항에 ‘아나시노사토(安師里)’라는 마을이름이 나오는데, ‘安師(あなし)’는 ‘아나시(穴師)’ 로, 穴師는 탄광굴에 들어가 철광을 채굴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므로 穴師兵主大神은 철의 신(鍛冶神)이 된다. 射楯大神와 穴師兵主大神을 祭神으로 하고 있는 곳이 飾磨郡 내-현 姫路市内-‘이타데효즈진자(射楯兵主神社)’이며 神社의 서쪽에 ‘穴師」를 의미하는 ‘아나리(阿成)’라는 마을이름이 존재<sup>416)</sup> 하고 동쪽에 바로 新羅明神이 鎮座하고 있는 ‘四郷町明田’이다.

姫路 시내에는 지금도 ‘가기마치(鍵町)’· ‘가지마치(鍛冶町)’· ‘가타나데(刀出)’· ‘가나야쵸(金屋町)’ 등의 철과 관련 있는 마을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 1981년까지 있었던 ‘히메지이모노시쵸(姫路鑄物師町)’-현 京口-도 과거의 飾磨郡의 가지야(鍛冶屋)-대장장이-집단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지명이다. 大和岩雄는 ‘鍛冶에는 大鍛冶와 小鍛冶가 있는데, 大鍛冶는 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소위 말하는 鉱山師·山師를 가리키고, 小鍛冶는 무기, 농구, 목공, 용기 등을 만드는 철기 제작공을 말한다’고 구분했다. 그래서 姫路鑄物師 집단은 ‘千種鐵’와 ‘穴栗鐵’를 사용하여 철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철공인이었다. 특히 姫路野里町の ‘하리마 나베(播磨鍋)’는 江戸까지 팔려나갔을 정도로 유명했다 한다. 『播磨風土記』에서 飾磨郡 ‘伊和里 테가리오카(手狩丘)’ 와 ‘오노사토(大野里)’라는 마을이름은 낫(手狩)과 솥 돌(砥)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sup>417)</sup>

播磨國의 秦氏族의 집단거주는 『播磨國風土記』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飾磨郡內에 서만 ‘伊和里手狩丘’<sup>418)</sup>· ‘韓室里’<sup>419)</sup>· ‘枚野里新羅訓村’<sup>420)</sup>등의 마을이 한반도 도래

415) 大和岩雄 (2016版) 『續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p.64-69.

416) 앞의 책 註415.

417) 福島好和(2006), 「播磨國風土記にみえる鐵について」, 『關西學院史學』 Vol. 33、關西學院大學史學會, p.10.

418) 別の伝えでは韓人たちがはじめて來たとき,鎌を使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ただ手で稻を蒔きただけだった。だから手狩の村と言った。

419) 韓室というの韓室というのは韓室首宝等の祖先の家が大変富み榮えて、韓室を造った。だから韓室と名づけた。

인·신라인들의 관련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同郡의 ‘고치사토(巨智里)’는 飾磨郡과 秦氏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예이다. ‘巨智里’의 기원에 대하여 同『風土記』에서 “巨智들이 처음으로 이 마을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巨智里라는 마을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구사가미(草上)라고 하는 연유는 가라히토야마무라(韓人山村)의 선조 나라노코치가나(櫛巨智賀那)가 이 마을의 밭을 개간할 때, 한 무더기의 풀이 있었는데 그 냄새가 지독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인분을 사용한 거름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太田亮(1934)는 “巨智部(己智部)는 秦氏族類”라하고<sup>421)</sup>, 『姓氏類別大觀』<sup>422)</sup>의 秦氏 계보에서 秦氏의 선조인 弓月君의 10대 先祖로서 「가나코치(伽那巨智)」의 이름이 실려 있으므로 여기서의 「伽那巨智」와 風土記의 「巨智賀那」가 동일인일 것이다.

加藤謙吉는 播磨國에서 秦氏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飾磨郡·揖保郡·赤穂郡 등을 지적했는데, 여기서도 新羅明神이 鎮座했던 飾磨郡과 秦氏의 관련성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播磨灘을 바라보고 있는 赤穂郡의 경우, 일본 고대 제철(製鐵)의 발상지라는 千種川가 흐르고 있는데, 이 강변을 따라 27개의 오사케 진자(大避神社)가 있다. 이 모든 신사는 秦氏의 선조 秦河勝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어 이 철광지역에서 秦氏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新羅明神이 鎮座하는 장소는 주변이 광산지역이거나 혹은 이 광산지역으로부터 채굴한 광물을 재료로 철제품을 생산하던 마을이었고, 여기에 秦氏가 집단거주지가 존재하였다.

420) 新良訓と名づけた理由は、昔新羅の國の人が來朝した時、この村に宿泊した。それで、新羅訓と名づけた。

421) 앞의 책 註391, 第二卷 p.2327. ㄱ번호 257.

422) 姓氏類別大觀, ([http://www.myj7000.jp-biz.net/clan/fclan\\_index.htm](http://www.myj7000.jp-biz.net/clan/fclan_index.htm), 검색일자: 2019.07.24.)

### 3.4 大津園城寺의 新羅明神

이상에서 언급한 福井縣南條郡今庄, 島根縣仁多郡奥出雲町, 兵庫縣姫路에서의 공통점이 園城寺 新羅明神에도 부합하는지 알아보자. 天智朝六年(667) 三月十九日, 天智天皇는 近江大津로 수도를 옮긴 후 다음해 봄에 즉위한다. 九年条에 “이 해, 수력을 이용한 절구를 만들어 쇠를 녹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6세기 중반부터 近江에서 이미 제철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3)</sup> 天智天皇가 충남 서산군 금강하구에서 ‘白村江’ 전투에 패한 후 수도를 大津에 옮긴 것은 소개(疎開)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sup>424)</sup>, 한편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기의 원료가 되는 철의 확보를 위해 사철(砂鐵)이 아닌 단단한 花岡岩의 채굴이 가능한 大津로 수도를 옮겼다는 설도 있다. 新羅明神이 鎮座하고 있는 園城寺의 인접 군인 高島郡은 大道和人에 의하면 “이미 5세기 말 단계에 철생산이 가능했을 것<sup>425)</sup>”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강암 지대로 알려져 있는 滋賀縣 남부지역-琵琶湖 서안 일부와 남부지역-에는 오사카야마(逢坂山) 제철유적, 세다(瀬田) 구릉 제철유적, 남고타가미(南郷田上) 제철유적 등이 남아있다. 특히 逢坂山 제철유적은 京都 아마시나(山科)로부터 園城寺에 걸쳐서 양질의 화강암지대가 존재한다.<sup>426)</sup> 天智天皇부터 약 100년이 지나 『續日本紀』 淳仁天皇六年(762) 二月二十六日条에 “후지와라에미아손 오시카쓰(藤原惠美朝臣 押勝)에게 近江國 淺井·高嶋의 2개 군의 철공(鐵穴)-철광석을 채취할 수 있는 광산-을 한 곳씩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近江는 고대 제철지역임을 알 수 있다.<sup>427)</sup>

423) 『日本書紀』 天智天皇九年(670),

是歲、造水碓而冶鐵(この年、水臼を造って鐵を鑄る)。

424) 中村修也 (2013) 「天智朝 一敗戰處理政府の實態」 『韓日關係史研究』 第46輯, 韓日關係史學會, p.22.

425) 大道和人(1994) 「高島郡の鐵生産とその周辺」 『紀要』 第七号 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 p.61.

426) \_\_\_\_\_(1996) 「鐵鉍石の採掘地と製鐵遺跡の關係についての試論」 · 『紀要』 第九号, pp.165-167.

427) 岡谷公二(2014) 『神社の起源と古代朝鮮』 平凡社, pp.14-15.

近江琵琶湖 서안은 한반도 동해남부 지역의 신라계 씨족의 주거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도래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지형적으로 보아 동해남부와 若狹·敦賀 지방은 위도가 거의 비슷하고 마주 보고 있으므로 왕래가 용이했을 것이다. 특히 琵琶湖 東岸의 愛知郡은 「秦氏王國」이라 불릴 정도로 朴市秦氏-愛智 혹은 依智-가 집단거주 하였다.

園城寺가 있는 志賀郡에 살았던 고대 씨족 중에 구루마모치씨(車持氏)가 있는데, 『續日本紀』 延暦二年(783)七月十八日条를 보면 “越前國의 秦人部武磨가 車持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sup>428)</sup> 이 기사는 車持氏가 본래는 秦氏 일족인 秦人部라는 내용인데, 車持氏는 日置·子部·笠取·鴨氏와 함께 천황의 시중을 드는 집안(천황의 수레를 담당)이었다. 또한 『三代實錄』 元慶元年(877)十二月二十五日条에 車持氏는 毛野·大野·池田·佐味氏와 조상이 같다고 하는데<sup>429)</sup>, 이 중에 사미씨(佐味氏)는 秦氏의 첫 번째 주거지인 葛城御所の 朝妻부근에 佐味城이라는 유적이 있고, 秦氏가 御所를 떠난 후에 정착한 奈良磯城郡의 田原本町에 佐味村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佐味氏와 車持氏는 秦氏 일족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sup>430)</sup> 따라서 新羅明神이 진좌한 志賀郡에 秦氏가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志賀郡에 인접한 高島郡은 近江秦氏의 집단거주지 중의 한 지역<sup>431)</sup>인데, 군내의 시로시진자(志呂志神社)의 앞에는 가모이나리산(鴨稻荷山)고분과 그 주변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秦氏의 이름이 발견되었다.<sup>432)</sup> 그리고 군내의 미오사토(三尾郷)에 미즈오진자(水尾神社)가 있었는데, 이 신사는 ‘후리히메(振姫)’가 게이타이(繼體) 천황을 낳은 곳으로, 남편인 히코누시히토노오키미(彦主人王)가 사망하자 振姫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미쿠니(三國)로 돌아갔다. 三國는 越前國-현 福井縣-의 坂井郡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은 고대 秦氏의 집단거주지이다.<sup>433)</sup> 坂井郡을

428) 越前國人外正七位上秦人部武志麻呂依請賜本姓車持。

429) 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之後、与上毛野、大野、池田、佐味、車持朝臣同祖也。

430) 平凡社編(1979) 『日本歴史地名大系』。

431) 앞의 책 註394, p.26.

432) 水谷千秋(2013) 『謎の大王 繼體天皇』 文芸春秋, pp.58-60.

관통하는 구즈류가와(九頭龍川) 하구에 三國港이 있는데, 그 앞의 미호우라(三保浦)에 오미나토진자(大湊神社)가 있으며, 제신은 미호다이묘진(三保, 혹은 三尾大明神)이다. 그런데 園城寺 경내에도 똑 같은 이름의 三尾神社·九頭龍川가 존재하며 현재 園城寺 앞의 거리 이름이 「미호가자키(三保ヶ崎)」이다. 이런 지명의 동일함을 보더라도 三國의 「三保大明神」과 園城寺 「三尾大明神」은 깊은 관계에 있고 서로가 분신(分身)으로 생각된다.<sup>434)</sup> 『寺門伝記補録』에는 “三尾大明神은 나가라산(長等山)의 지주신이며 新羅明神, 白山明神과 함께 園城寺의 수호신이다”고 한다.<sup>435)</sup> 이 三神을 모시는 제례가 매년 三月二日 園城寺에서 거행되었는데, 『近江國輿地志略』에는 “秦河勝의 자손인 오미쿠니(臣國)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례의 제사장(社司)이 된 이래, 秦氏의 자손만이 이 자리를 상속한다<sup>436)</sup>”고 되어 있어 秦氏와 園城寺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상으로 大津市園城寺의 新羅明神의 경우도 越前國今庄、出雲國仁多郡、播磨國明田의 新羅明神과 동일한 환경, 즉 新羅明神은 ①鉾山地帶에 ②秦氏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에 진좌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大津園城寺의 新羅明神 앞에서 元服式을 올린 源義光는 新羅三朗로 불리는데, 이 新羅明神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설이 있다. 옛날부터 ①고대 近江에 살았던 新羅人이 모시던 신, ②太友村主氏族의 신, ③入唐僧 円珍이 귀국할 때 선상에 나타난 신, ④天台宗山門派와 寺門派의 대립·갈등의 시절에 寺門派가

433) 앞의 책 註394, p.27.

434) 滋賀縣神社廳, 三尾神社의 由緒로부터 인용.

([http://www.shiga-jinjacho.jp/ycBBS/Board.cgi/02\\_jinja\\_db/db/ycDB\\_02jinja-pc-detail.html?mode=view=1&view.oid=58](http://www.shiga-jinjacho.jp/ycBBS/Board.cgi/02_jinja_db/db/ycDB_02jinja-pc-detail.html?mode=view=1&view.oid=58), 검색일 2019.07.024.)

435) 寒川辰清(1915) 「卷之十三 志賀郡 園城寺」 『近江國輿地志略』上 大日本地誌大系刊行會, p.102. 三尾明神、往昔伊弉諾尊垂迹於此地、遂爲長等南境地主神、(略)此即ち三尾神、現加賀國号白山權現、彼此一体分身神。”-三尾明神、昔伊弉諾尊が降臨して遂に長等山南境の地主神になり。(略)三尾神、現在の加賀國の白山權現と言ひ、三尾神と加賀國の白山權現は一体分身神なり。

436) 앞의 책 註435, p.103.

社司秦河勝之胤有臣國と云う者あり。始任当社神職自加厥以來、秦氏連綿相續。

山門派의 赤山明神에 대항하기 위해 창작된 신, 그리고 ⑤張保臯의 화신 등의 설이 존재하나 각각의 설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어 있어 아직은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秦氏의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적 특성을 통해서 園城寺의 新羅明神의 기원을 모색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론적으로 今庄·仁多·明田의 新羅明神의 鎮座地는 모두 광산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광산업에 종사하는 秦氏의 집단 거주지가 존재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공통점은 大津園城寺의 新羅明神의 鎮座地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新羅明神은 철을 다루는 각 지역의 秦氏가 모시던 신으로, 源義光는 철광신이 모셔져 있는 園城寺에서 성인식을 올렸다는 것이 된다. 義光는 만년에 출가하여 新羅明神가 모셔져 있는 新羅善神堂 부근에 金光堂을 건립하여 살다가 大治二年(1127)十一月,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義光의 큰 형인 義家は 京都男山の 岩清水八幡宮의 八幡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는데, 이 八幡神이 가야의 여신에서 조정의 종교정책에 따라 応神天皇로 전환되는 순간을 묘사한 「宇佐八幡宮託宣集」의 장면을 보면, “豊前國 宇佐郡 히시가타(菱形池) 근처에서 오구라야마(小倉山)의 밑에 대장장이 노옹이 나타났다. 기이한 모습을 지녔고 한 몸에 8개의 머리를 가졌다”<sup>437)</sup>고 한다. 八幡神은 九州의 秦氏가 모시던 철광신이었는데, 園城寺의 新羅明神도 秦氏가 모시던 철광신이라 생각한다.

八幡信仰의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中野幡能는 “원시 八幡信仰은 가라시마스구리(辛島勝氏)를 대표로 하는 귀화인의 종교, 그것은 豊前田河郡의 新羅明神이 대표하는 比咩神信仰 그 자체”이라고 하며, “豊前田河郡의 新羅明神은 香春岳의 신”<sup>438)</sup>이라 하였다. 즉 新羅明神은 香春岳의 광부였던 秦氏가 모시던

437) 柏木寧子외 4명(2014) 「宇佐八幡宮託宣集 託宣·示現·年表」山口大學, p.12.

筑紫豊前國宇佐郡菱形池の辺、小椋山の麓に鍛冶の翁が居た。ひとつの身体に八つの頭という奇異な姿で、人がこれを見に行けば、五人行けば三人が死に、十人行けば五人死んだので、畏れて誰も行かなくなった。

438) 中野幡能(1975) 『八幡信仰史の研究』吉川弘文館, p.112.

신으로, 園城寺의 新羅明神도 大津의 秦氏가 모시던 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園城寺의 新羅明神의 神像은 노인이며, 香春岳의 新羅明神은 여신인 辛國息長大姬大目命를 가리키므로, 모순이 생긴다.

원시 八幡神은 香春岳의 辛國息長大姬大目命와 宇佐氏의 比賣神이 습합된 것이며, 7세기 이후부터 八幡神은 応神天皇로 변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園城寺의 新羅明神은 흔히 다양한 八幡神 관련 유래담(緣起)에 나타나는 노인(翁) 상(像)으로, 応神天皇로 전환되기 전 단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八幡宇佐宮御託宣集』에는 応神天皇의 전신이라고도 할 기이한 모습의 ‘카지야 노인(鍛冶屋翁)’이 나타난다. 그 모습이 新羅明神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1052年九月 園城寺新羅明神社에서 「新羅祭」를 거행, 1106년에는 義光의 큰형 義家が 新羅明神에게 매년 72석(石)을 기진(寄進)할 것을 약속하였으며<sup>439)</sup>, 그 자손인 室町幕府의 초대 장군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는 園城寺新羅善神堂을 건립하는 등, 園城寺는 清和源氏와도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大和岩雄(2016) 續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154 참조)

439) 新羅祭가 거행된 해(1052)는 義光가 7살 때이었고, 義家が 기부한 해(1106)에 義家は 사망했다.

## 제 6장. 秦氏와 河內源氏와의 관련성

### 1. 神前元服式

河內源氏라 함은 清和源氏로부터 分派하여 河內-현재의 大阪의 일부-지방을 근거지로 한 무사단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언급한 源義家·義綱·義光 삼 형제가 속해 있다. 후대에 河內源氏로부터 鎌倉幕府, 室町幕府를 창설한 源賴朝, 足利尊氏가 나왔기 때문에 清和源氏를 대표하는 집안이다. 이 무사단의 元祖는 清和源氏 滿仲의 셋째아들인 賴信로, 長兄 賴光보다 약 20살 아래로 서자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6대손인 源賴朝가 鎌倉幕府를 창설하여 권력을 잡은 후에는 清和源氏의 嫡統(嫡統)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명문 무사집단인 河內源氏 삼 형제가 八幡神, 賀茂神,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는데, 왜 이 神들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무사들의 성인식은 흔히 주군 앞에서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源氏 삼 형제는 神의 앞에서 식을 올렸기 때문에 ‘神前元服’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尾形裕康의 조사에 따르면, 平安期·中世의 무사 104명 중에 神前元服을 올린 경우는 19명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경우이다.<sup>440)</sup> 源氏 삼형제를 제외한 16명은 賴朝의 사촌 義仲(1166년 石清水八幡宮에서 元服)와 新羅三朗 義光의 후손 小笠原氏 14명 등으로, 1명을 제외한 모든 이가 源氏武士 집안사람으로, 神前元服는 河內源氏의 독특한 의례이다. 小笠原氏 14명은 1236년부터 1581년까지 약 350년 간 집안 대대로 新羅明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sup>441)</sup> 따라서 小笠原氏의 전통을 보아 源義家·義綱·義光 삼형제의 神前元服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今野慶信는 삼 형제의 성인식에 대해 “동시대의 사료에 의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sup>442)</sup> 1395년 후지와라킨사

440) 尾形裕康(1950) 「成年礼の史的考察」 『日本學士院紀要』 第8卷3号 日本學士院, p.383.

441) 神宮司廳古事類苑出版事務所編(1896) 「小笠原系図」 『古事類苑 礼式部5』 神宮司廳, pp.859-860.  
小笠原長政(1236년)·宗長(1284년)·貞宗(1306년)·政長(1331년)·長基(1359년)·長秀(1377년)·政康(1388년)·持長(1408년)·清宗(1439년)·長朝(1449년)·貞朝(1471년)·長棟(1492년)·貞慶(1558년)·秀政(1581년).

다(藤原公定)에 의해 편찬된 『尊卑分脈』에 삼 형제의 神前元服式 거행은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거식 연월일은 나와 있지 않다.<sup>443)</sup> 다행히 「小笠原氏系図」에는 거행 장소와 일시가 나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義家は 長久元年(1040) 출생으로 永承元年(1046)正月十一日 七歳の 나이로 성인식을 올렸고, 義綱은 天喜三年(1055) 출생으로 延久元年(1069) 十五歳の 나이로, 義光은 天喜五年(1057) 출생에 延久二年(1070)十一月十五日 十四歲 때 元服式을 올렸다고 하는데, 큰형과 막내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이 난다.<sup>444)</sup> 義家の 성인식으로부터 義綱·義光은 각각 23년, 24년의 차이가 나므로 삼형제의 성인식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伴信友는 「若狹國神名帳私考」에서 神前元服을 언급,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으나, 八幡神를 源氏武士의 氏神로 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sup>445)</sup> 이외에도 많은 문헌에서 삼 형제의 성인식이 언급되어 왔으나, 今野慶信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료적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小笠原氏が 약 350년간 선조와 동일한 신 앞에서 성인식을 거행한 점, 그리고 약 1,000년에 걸쳐 문헌에 언급되거나 인구에 회자되어 온 점 등으로 보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 2. 河内源氏와 諸神과의 관련성

義家·義綱·義光가 성인식을 올린 諸神들과 河内源氏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義家は 永承元年(1046)正月十一日 七歳の 나이로 石清水八幡宮의 八幡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는데, 義家와 八幡神과의 관계는 그의 조부(祖父) 賴

442) 今野慶信(2017) 「鎌倉武家社會における元服儀式の確立と変質」 『駒澤女子大學研究紀要』 第24号 駒澤女子大學, p.38.

443) 藤原公貞編(1903) 「清和源氏 下」 『新編纂図本朝尊卑分脈系譜雜類要集』 9. 吉川弘文館, p.3.

444) 고문서 상의 생년월일은 기록에 오류가 많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義綱의 경우도 「前九年の役」에 참전하여 1058년에 右衛門尉에 임명되므로 小笠原氏系図의 1040년 출생은 성립할 수 없다.

445) 伴信友(1907) 「神社私考 卷五·若狹國神明帳私考」 『伴信友全集』 第二 國會刊行會, コマ99 (國會圖書館デジタル)

信로부터 비롯된다. 永承元年(1046) 후루이치(古市)-현재의 大阪府 히비키노시(羽曳野市) 古市-의 応神天皇陵에 봉납한 「賴信告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증조 陽成天皇는 곤젠(応神天皇)의 18대손이며, 賴信는 陽成天皇의 4대손이다.<sup>446)</sup>

이 賴信의 행위는 告文을 통해 자신이 八幡神 応神天皇의 자손임을 선언하고 손자 義家를 八幡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함으로써 천황의 피를 이어 받은 명문 가문임을 널리 알리고, 八幡神을 河内源氏の 氏神로 독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陽成天皇의 자손이자 八幡神을 氏神로 선언한 賴信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 賴義는 康平六年(1063) 鎌倉由比에 京都 石清水八幡를 勸請, 훗날 그의 5대손 賴朝에 의해 현재의 쓰루오카하치만궁(鶴岡八幡宮)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河内源氏 賴信가 清和天皇의 자손이 아닌, 그의 아들 陽成天皇의 후손이라는 「賴信告文」의 내용은 후세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 陽成天皇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궁중 내 살인사건에 연루<sup>447)</sup>되는 등 불상사로 인해 17살에 퇴위하게 되는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鎌倉幕府와 室町幕府를 창설한 河内源氏는 清和天皇를 조상으로 하는 清和源氏로 알려져 있는데, 賴信가 清和天皇가 아닌, 그의 아들인 陽成天皇의 후손이라 하므로 후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源氏계보가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石清水八幡宮에 소장되어 있는 「賴信告文」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위조문서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논쟁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八幡神을 河内源氏の 氏神로 독점한 것에 대하여 후세 학자들의 평가는 비판적이다. 江戸時代の 伊勢貞丈는 “義家를 八幡

446)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所編(1909), 『大日本古文書. 家わけ四之一, 』, 東京帝國大學, コマ77. (國會デジタル)  
(<http://dl.ndl.go.jp/info:ndljp/pid/1915619/6?tocOpened=1>, 검색일: 2019.08.02)  
所謂曾祖陽成天皇者、權現十八代也。賴信者彼天皇之四世孫也。

447) 『三代實錄』 陽成天皇 元慶七年(883) 11月10日條,  
源朝臣蔭之男益侍殿上猝然被格殺。

太郎로 부른다고 해서 八幡神을 氏神로 한다면, 義綱의 氏神는 賀茂神, 義光의 氏神는 新羅大明神이 되므로, 같은 형제끼리 다른 氏神를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氏神보다 수호신으로 불려야 한다<sup>448)</sup>”고 하며, 神道學者 宮地直一은 “요슈후지(雍州府志)-山城國지리지-에서 이르길, 嵯峨天皇가 왕자들에게 源姓을 내리면서 八幡神을 氏神로 정해 주었다. 이 후로 岩清水는 제2의 종묘가 되었다. 따라서 八幡神을 源氏의 氏神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후에 清和源氏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그 집안의 專祠가 되었다 ”고 하였다.

이에 반해 賴信가 八幡神을 河内源氏의 氏神로 선언한 행위에 대해 그 이유를 실리적으로 해석한 연구결과도 있다. 有賀喜左衛門은 “氏神라고 해서 祭神이나 출신의 선조와 관계없이 영주의 氏神를 자신의 계보관계로 가져가는 행위에 의해 일정지역의 수호신이 된다”고 하여 氏神는 바로 혈연이라는 관계를 무시하였으며<sup>449)</sup>, 尾形裕康는 神前元服에 대해 “적당한 加冠者가 없는 경우, 혹은 관례적으로 정해져있는 加冠者에 대해 불평등이 있어 이를 거부하고 할 수 없이 神前에서 거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 賴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sup>450)</sup> 실제로 清和源氏 창시자 滿仲의 庶子로 태어난 賴信는 장남 賴光보다 24살 아래였다. 모든 재산은 장남인 賴光에게 승계되었고, 출세도 더더 아버지에게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다. 大山眞一은 “경제력을 보증하는 소령(所領)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이나 권위를 정당화하고, 신하를 통제하기 위한 사장이나 신앙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 통일화를 위해서는 조정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진 유서 있는 신앙의 통제와 구축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고 하였다.<sup>451)</sup>

그러나 河内源氏가 천황의 자손임을 주장하고 八幡神을 氏神로 하는 이유가 신앙의 통제를 통한 무사집단의 단결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은 문제를 단순

448) 今泉定介(1899)「安齊隨筆」卷之十二『故實叢書』吉川弘文館, p.424.

449) 有賀喜左衛門(1967)「先祖と氏神」『民族學研究』32/3 日本民族學會, p.181.

450) 앞의 논문 註440, p.380.

451) 大山眞一(2012)「武門源氏の思想と信仰」『日本大學綜合社會情報研究科紀要』No.13 日本大學綜合社會情報研究科, p.83.

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다. 그런 이유라면 동생들이 또 다른 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린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문의 번영과 집단의 단결을 위해서라면 굳이 다른 신이 필요했을까? 義綱, 義光의 神前元服의 배경을 살펴보자.

차남 義綱의 下鴨神社에서의 성인식에 대한 후세의 배경설명이나 연구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추측하건대, 義綱은 형제간의 불화로 유배지인 사도(佐渡)에서 자결하여 가문이 단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尊卑分脈』에 따르면, 義綱은 큰형 義家の 아들 요시타다(義忠)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近江의 甲賀山으로 피신하였으나 5명의 아들은 모두 자결하고 혼자 살아남았다. 다시 佐渡로 유배된 후에 자결하였다.<sup>452)</sup> 뒤에 알려진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는 동생인 義光였다.

이런 상황에서 義綱의 성인식의 배경을 추측하기 위해 당시의 史書인 『日本紀略』 속의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義家が 성인식을 올린 石清水八幡宮는 清和天皇의 즉위를 기원하기 위해 九州 宇佐八幡神을 京都에 勸請한 신사이다. 清和天皇가 즉위한 이후, 국가의 제2의 종묘로 불리며 총 240여 회에 걸쳐 역대 천황이 방문할 정도로 국가수호의 신사로 발전하였다.<sup>453)</sup> 이러한 石清水八幡宮의 기록과 賀茂神社에 대한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賀茂神社의 당시의 권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日本紀略』 石清水八幡宮 朱雀朝天慶三年(940)八月二十八日条

伊勢이하 여러 신사에 제사 공물을 바치다. 石清水에 25가구를 봉헌하였다.

『日本紀略』 村上朝天曆二年(948)五月十三日条

朱雀院에 法師를 들여보내다. 八幡, 賀茂에 봉헌사를 파견하다.

452) 앞의 책 註443.

爲義蒙追討宣旨向之時雖楯籠甲賀山忽裂剃髮爲義五人子息於其場自害依陳謝配流佐渡國之長承元年□被追討乃自害畢」

453) 출처: 石清水八幡宮 HP (<http://www.iwashimizu.or.jp/about/history.html>), 검색일: 2019.08.03)

『日本紀略』朱雀朝天慶二年(939)四月二十五日條  
천황 鴨神社에 행차하다.

『日本紀略』後一條朝長元二年(1029)十一月八日條  
石清水, 賀茂에 행차하기로 정했다.

위 기록에 따르면, 제 2의 종묘라고 하는 石清水八幡宮과 동일하게 939년과 1029년에 천황이 賀茂神社에 행차하고 있다. 賀茂神社의 祭神은 賀茂建角身命로, 초대 神武天皇이 東征때 熊野의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큰 새가 되어 神武天皇의 길을 밝혀 천황이 무사히 가시하라(橿原)에 도착하여 大和지역을 평정하게 하였다는 야타가라스(八咫鳥)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 황실의 賀茂神社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京都에는 조정에서 공물과 봉헌사를 보내는 3대 축제(三勅祭)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축제가 賀茂神社의 賀茂祭였다. 義綱은 이처럼 권위와 인기가 있는 賀茂神社에서 延久元年(1069) 15세의 나이로 성인식을 올렸다. 아버지 賴義는 제2의 종묘로 불리는 石清水八幡宮에 버금가는 유명신사인 賀茂神社에서 차남의 성인식을 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義綱 성인식의 배경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1년 후에 거행된 延久二年(1070) 義光의 성인식 장소는 장남과 차남의 유력 신사에 비해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인 義光가 당시의 조정의 봉헌을 받는 ‘二十二社註式’<sup>454)</sup> 속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의 사찰에서, 그것도 義綱과 義光처럼 천황이 행차하는 유명 신사도 아닌 곳에서 왜 성인식을 올리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더구나 神의 이름에 ‘新羅’라는 외국 나라의 국명이 붙어 있는 외래신이다.

園城寺와 河內源氏の 관계는 義光의 父 賴義부터 시작이 된다. 「園城寺伝記」에 의하면, 賴義는 자신의 아들 중 장남이며 서자(庶子)인 가이요(快譽)를 園城寺

---

454) 앞의 註345 참조.

에 제자로 보내었으며, 永承6年(1051) 무쓰노쿠니(陸奥國)-현 岩手縣, 宮城縣, 福島縣, 秋田縣北東部-의 아베씨(安倍氏)를 진압하기 위해 陸奥로 떠나기 전, 新羅祠(園城寺 新羅善神堂)를 방문하여 진압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新羅祠에 바치겠다고 서원(誓願)하였으며, 賴義는 약속대로 義光을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하였다.<sup>455)</sup> 장남 義家の 딸이 눈을 멀자 園城寺의 스님 行觀(錦織)이 영험을 발휘하여 개안(開眼)하게 되었는데, 義家は 눈물을 흘리면서 園城寺를 氏寺로 하였다.<sup>456)</sup> 또한 義光에서 시작된 ‘新羅源氏’로부터 武田·逸見·佐竹·平賀·小笠原 등의 걸출한 무사집안이 태어났으며, 義光 또한 아버지에 이어 그의 아들 覺義도 園城寺에 출가시켰다.<sup>457)</sup> 河內源氏와 新羅明神은 賴義-快譽-義家-義光-覺義 3대에 걸친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었다. 언급했다시피, 義光의 후손 중의 하나인 小笠原氏は 350년간에 걸쳐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치렀다.

장남 義家は 천황의 핏줄을 타고난 가문의 적자로서 石清水의 八幡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으며, 차남 義綱은 제2의 종묘라 불렸던 石清水에 버금가는 당대의 권위있는 賀茂神社에서 성인식을, 義光은 3대에 걸친 깊은 인연으로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이러한 삼 형제의 神前元服 이유에 관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키는 연구결과도 있다. 砥山洸一은 義綱의 下賀茂神社에서의 성인식을 당시 神社내에서 발생한 神主의 살해사건과 결부, 그 뒤를 이은 어린 아들이 유력 무사집단인 河內源氏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고, 義光의 경우는 천태종의 山門派와 寺門派의 격렬한 대립 속에 위기를 느낀 寺門派가 河內源氏를 자신의 편에 가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河內源氏 쪽은 왕성(王城)을 수호하는 유력 집단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sup>458)</sup>

源氏 삼 형제의 神前元服은 유례를 보기 힘든 경우였기 때문에 그 이유와 배

455) 仏書刊行會編纂(1915)「園城寺伝記三之四 新羅源氏事」『大日本仏教全書』127卷, p.27.

456) 앞의 책 註455.

457) 앞의 책 註455.「寺門伝記補録第二, 新羅源氏」, p.33.

458) 砥山洸一(2007)「河內源氏の神前元服とその背景」皇學館論叢 第40卷 第6号 皇學館, p.70.

경 설명도 다양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는 八幡神을 河内源氏が 氏神로 독점하는 것을 비난하는 경향이었던 반면, 昭和 초기에는 권위를 가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해하였다. 현대에 들어 와서는 집단의 단결과 충성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神前元服을 거행하였다는 실리적인 연구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 속에서, 본 장에서는 神前元服을 행한 세 곳의 신사와 절이 모두 秦氏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 3. 秦氏와 清和源氏와의 관계

秦氏와 清和源氏 무사의 관련성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山田繁夫가 『法然と秦氏』에서, 清和天皇의 6번째 親王-왕자-인 사다즈미(貞純)의 아들로, 臣籍降下를 통해 “황족(皇族)에서 신하로 신분이 바뀐 쓰네모토(經基)<sup>459)</sup>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秦氏에 의지하여 가문을 일으켰다. 그의 아들 滿仲는 토착화한 秦氏와 결합하여 무사단을 형성하여 攝津國-현 兵庫縣-에 攝津源氏를 일으켰다”고 언급했으나,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sup>460)</sup> 그러나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다천황(宇多天皇)의 8번째 親王인 아쓰미(敦實)의 아들 마사노부(雅信)는 臣籍降下로 미나모토(源)라는 성을 하사 받았다. 그의 자손 중에 미나모토 스케요시(源扶義)가 近江國 가모군(蒲生郡) 사사키쇼(佐々木庄)로 내려가 지역의 유력호족 佐々木氏와 결합, 近江源氏라는 무사집단을 형성한다. 佐々木氏의 선조 ‘狹々木山君’는 『日本書紀』 顯宗朝元年(485)二月条<sup>461)</sup>와 五月条에 ‘近江國狹狹城山君’·‘狹狹城山君韓袋’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시던 沙沙貴神社의 祭神은 스쿠나히코나가미(少彦名神)였으나 宇多源氏의

459) 武門清和源氏の 창시자인 源滿仲의 아버지.

460) 山田繁夫(2009) 『法然と秦氏』 學研パブリッシング, p.94.

461) 有一老嫗進曰。置目知御骨埋處。請以奉示。置目老嫗名也。近江國狹狹城山君祖倭宿禰妹。名曰置目。見下文。於是。天皇與皇太子億計。將老嫗婦幸于近江國來田綿蚊屋野中 (『日本書紀』 顯宗天皇元年二月是月)

합류에 의해 宇多源氏の 선조인 敦實親王를 모시게 되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佐々木氏와 宇多源氏は 다른 두 씨족이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奥富敬之는 『清和源氏の全家系』에서 經基와 아들 滿仲의 출생년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sup>462)</sup> 『尊卑分脈』에 經基를 天德五年(961) 45세로 사망하였다 하므로 출생년도는 역산하여 延喜十六年(916)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인 滿仲의 출생년도는 延喜十二年(912)<sup>463)</sup>이 되어 있고, 『系圖纂要』에는 寛平九年(897)<sup>464)</sup>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平安·중세의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기는 하나, 『尊卑分脈』가 편찬된 해가 1395년으로, 당시는 義家の 자손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가 室町幕府의 4대 將軍으로 28년간 재임하던 시기이다. 대선조의 부자간의 역전되는 출생년도를 室町幕府의 將軍가문이 용인했는가에 대해 궁금해진다.

『日本書紀』에서 秦氏의 성씨가 최초로 드러나는 곳이 雄略朝十二年(468)이고 清和源氏の 성은 清和天皇-재위기간 858년부터 876년까지-부터 나타나므로 秦氏의 성이 훨씬 오래된 것이다. 六國史나 고대 호적, 목간을 보면 700년대에는 秦氏의 거주지가 전국 도처에 퍼져 있었고, 京都 平安京의 왕궁 터를 제공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義家 삼 형제가 활약했던 1,000년대 초반에는 秦氏는 이미 거대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 씨족간의 교류는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가문과 재력가 秦氏가 1,000년의 역사 속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두 씨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은 현실이므로 현재 전해지는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그 관련성을 추구하기로 한다.

첫째 清和源氏의 창시자인 滿仲와 아버지 經基와의 연령의 문제를 살펴본다. 각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의 생몰(生沒)월일, 經基의 源氏賜姓-臣籍降下

462) 奥富敬之(1988) 『清和源氏の全家系』 新人物往來社, p.36-39.

463) 앞의 책 註443, 八卷 コマ26.

464) 앞의 註462의 인용 참조.

하여 源氏姓을 하사받음-의 연월일을 비교하여 연령의 차를 알아본다.

(표 6-1) 經基와 滿仲 연령비교

|    | 구분 | 尊卑分脈      | 小笠原<br>系図 <sup>465)</sup> | 清和源氏<br>系図 <sup>466)</sup> | 系図綱要 <sup>467)</sup> | 系図統覽 <sup>468)</sup> |
|----|----|-----------|---------------------------|----------------------------|----------------------|----------------------|
| 生年 | 經基 | 미표기       | 890.02.12                 | 미표기                        | 미표기                  | 미표기                  |
|    | 滿仲 | 912       | 912.04.08                 | 미표기                        | 미표기                  | 미표기                  |
| 没年 | 經基 | 45세 사망    | 958.11.10<br>(69세)        | 미표기                        | 미표기                  | 미표기                  |
|    | 滿仲 | 997(85세)  | 997<br>(85세)              | 미표기                        | 997<br>(85세)         | 미표기                  |
| 賜姓 | 經基 | 961.06.15 | 성인식 13세                   | 960.06.15                  | 960.06.15            | 960.06.15            |
|    | 滿仲 | 미표기       | 성인식<br>14세                | 미표기                        | 미표기                  | 미표기                  |

위의 표에서 小笠原系図 이외에는 經基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알 수 없으므로, 滿仲와의 연령차도 알 수 없다. 『尊卑分脈』에서 經基의 사망월일에 관해서 “961년 6월15일 처음으로 겐지아소미(源朝臣)의 성을 하사받았다. 한 해 걸러 신유년 11월4일 사망, 45세(天德五年六月十五日始而賜源朝臣姓. 間年(辛酉)十一月四日卒四十五歲)”라 기록되어 있는데, ‘間年’이란 한해 거른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다음해는 天德六年(962)이 된다. 그러나 辛酉년은 961년임으로, 혼동이 생긴다.

다행히 두 사람의 생년월일에 대해, 최근에 이르러 『日本人名大辭典』<sup>469)</sup>, 『日本國語大辭典』<sup>470)</sup>, 『日本大百科全書』<sup>471)</sup>, 『國史大辭典』<sup>472)</sup>, 『デジタル大辭

465) 『續群書類從』卷第二百二十四, 系図部十九에 수록되어 있음.

466) 앞의 책 註465, 卷第一百, 系図五, 國會刊行會.

467) 大田亮(1923) 『系図綱要』磯部甲陽堂, p.188.

468) 國會刊行會(1915) 『系図統覽』國會刊行會, p.150.

469) 講談社編(2001) 『日本人名大辭典』.

470) 小學館(2000) 『日本國語大辭典』

471) 小學館(2001) 『日本大百科全書』

472) 吉川弘文館(1979) 『國史大辭典』

泉』<sup>473)</sup> 등의 사전류에는 經基의 출생년도를 916년으로 직접표기하거나, 또는 사망년도만을 961년으로 표기하여, 經基가 45세에 사망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출생년도를 916년으로 짐작하게 하고 있다. 한편 위 사전류에는 滿仲의 출생과 사망년도를 912년-997년으로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 滿仲의 나이가 아버지 經基보다 4살이나 연상이 된다. 900년대 전후의 출생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 하나, 여러 문헌과 현대의 사전류를 볼 때,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만은 없다.

둘째로, 滿仲가 근거지로 한 다다노쇼(多田莊)내의 다다진자(多田神社)와 927년에 완성된 『延喜式』에 등재된 원래의 다다노진자(多太神社)에 대해 알아본다.

多田莊는 원래 多太神社의 영지(領地)로, 多田莊 영지 내에는 平野村, 銀山村, 多田院村 등의 74개의 마을이 있었고, 平野村에 多太神社가 있었다.<sup>474)</sup> 927년에 완성된 『延喜式』 河辺郡의 기록에는 이 多太神社<sup>475)</sup>를 ‘다다노진자’로 읽었다. 한편 滿仲는 970년 그의 아들 겐켄(源賢)으로 하여금 多田莊 내에 천태종 사찰인 다다인(多田院)을 창건하게 하였고, 주위에 있는 多田銀山の 광물을 채굴하여 막대한 부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훗날 清和源氏の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사찰인 多田院은 明治維新 이후 神仏 분리정책에 의해 滿仲와 그의 자손들을 모시는 다다진자(多田神社)로 바뀌었다. 그래서 多田莊 내에는 고대부터 平野 마을에 있었던 ‘다다노진자(多太神社)’와 明治維新 이후 사찰에서 신사로 바뀐 ‘다다진자(多田神社)’의 2개의 같은 이름의 多田神社가 존재하게 되었다. 지금은 두 신사를 구분하기 위해 원래의 ‘다다노진자’로 불리었던 多太神社를 ‘다후토진자’로 바꾸고, 明治維新 이후에 생긴 多田神社를 ‘다다진자’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다후토진자’로 불리게 된 多太神社 본사는 『延喜式』에 의하면 大和國 葛上郡-현 御所市-의 ‘다다노’진자(多太神社)<sup>476)</sup>이다. 이 신사의 위치는 秦氏が

473) 小學館(2012) 『大辭泉』 第二版.

474) 清水正建編(1933) 『莊園志料』 上卷 帝都出版社, pp.209.

475) 皇典講究所(1929) 『延喜式』 校訂 上卷 河辺郡 大岡山書店, p.282.

476) 앞의 책 註475, 大和國 葛上郡. p.262.

낙동강 유역에서 도래하여 처음으로 정착하였던 葛上郡의 朝妻, 掖上로부터 3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현주소는 奈良縣御所市大字多田304番-. 이 신사의 祭神은 가야의 도래인으로 동족인 三輪氏, 賀茂氏의 조상인 오타다네고(大田々根子)이다. 즉 秦氏가 살았던 御所の 다다노진자(多太神社)와 맥락을 같이 하는 신사는 현재 ‘타후토진자’로 불리는 多田莊 平野村의 多太神社로, 이 신사의 현재의 祭神은 야마토타케루(日本武尊)이나, 초창기에는 大田々根子였다고 한다.<sup>477)</sup> 따라서 清和源氏の 근거지인 다다쇼(多田莊)는 오타다네고와 관련이 있고, 오타다네고는 秦氏가 살았던 御所の 다다노진자(多太神社)의 祭神이다. 吉岡範明은 “오타다네고(意富多多泥古命)의 다다(多多)는 지명이며, 神名帳에 攝津國 河辺郡의 多太神社가 있는데, 이 신사는 多田莊 내의 平野村에 있다”<sup>478)</sup> 하였다.

셋째로, 滿仲는 多田莊 부근의 多田銀山로부터 막대한 부를 얻었다고 했는데, 多田銀山の 광맥이 지나가는 川西郡과 豊島郡은 언급한 바와 같이 秦氏의 집단 거주지이다. 745년 奈良 東大寺 盧遮那仏의 조성을 위해 聖武天皇는 多田銀山으로부터 銅을 공급받았으므로<sup>479)</sup>, 秦氏도 채굴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다.

넷째로 秦氏와 武門 清和源氏와의 사이에 동일 성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나가오카씨(長岡氏)·오사다씨(長田氏)는 『續日本紀』 宝龜八年(777)七月十五日条에 “山城國左京의 나라오사카와치(橿日佐河内) 등 3명에게 長岡忌寸란 성을 하사하였다”<sup>480)</sup>고 하는데 橿日佐는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秦氏 동족이다.

『續日本紀』 神護景雲三年(769)十一月十八日条에 “하타 오사다미야마(秦長田三山), 하타쿠라히토 아자누시(秦倉人皆主), 하타조 쓰나마로(秦姓綱麻呂)에게 秦忌寸라는 성을 내렸다”<sup>481)</sup>고 한다. 한편 上野國新田郡長岡村의 清和源氏新田氏族에 義

477) 平凡社編(1979) 『日本歴史地名大系』, 多太神社 項目(JapanKnowledge 판)

478) 吉岡範明(1938) 『古事記伝略』 12卷下, p.94.

479) 西尾次郎(1911) 「維新以前二於ケル本邦ノ鉱業」 日本鉱業會誌 27卷 313号 日本鉱業會, p.190.

480) 左京人從六位下橿日佐河内等三人賜姓長岡忌寸。

481) 彈正史生從八位下秦長田三山。造宮長上正七位下秦倉人皆主。造東大寺工手從七位下秦姓綱麻呂。賜姓秦忌寸。

家の 4대손 우지요시(氏義)를 長岡二郎 혹은 長田二郎로 불렀다. 오타키씨(大瀧氏)는 『續日本後紀』 承和十年(843)十二月条에 “데와노쿠니(出羽國)-山形縣과 秋田縣-河邊郡 백성 나라오치 토요쓰구(奈良己智豐繼)등 5명에게 大瀧宿禰를 하사하였다<sup>482)</sup>”는데, 奈良己智氏 또한 秦氏이다. 信濃國水内郡大瀧邑 大瀧氏 또한 清和源氏 義家の 후손이라 한다. 그리고 山城國 伏見稻荷神社神主家 秦姓松本氏와 信濃國치쿠마군(筑摩郡)松本邑의 清和源氏 미쓰요시(滿快)-武門清和源氏의 창시자 滿仲의 동생-의 7대손 松本彦太郎(源行光), 사누키노쿠니(讃岐國)-香川縣-미키군(三木郡) 하라마을(幡羅郷)의 秦原公와 清和源氏 미쓰마사(滿政)-滿仲의 동생-의 5대손인 사도노겐타(佐渡源太) 源重實, 그리고 左京의 秦氏의 嫡子 코레무네(惟宗)와 鹿兒島の 清和源氏 惟宗도 같은 성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동족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 清和源氏는 700년 간 권력을 가졌던 가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清和源氏와 연관시켰을 것이다.

清和源氏가 清和天皇(혹은 陽成天皇)의 손자로 臣籍降下한 經基의 자손이라 하나, 清和源氏의 창시자인 滿仲와 經基의 관계를 보여주는 系図는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부족하다. 滿仲가 본거지로 삼았던 多田莊의 多太神社는 秦氏가 가야로부터 도래하여 처음으로 정착한 葛城御所の 多太神社의 分社이며, 祭神은 가야도래인 三輪氏, 賀茂氏의 조상인 大田々根子이다. 多田銀山の 부근인 川西郡과 豊島郡은 秦氏의 집단 거주지로, 문헌상의 자료는 없으나 秦氏가 多田銀山에 어떤 형태이든 관련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아 滿仲와 秦氏는 일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의 자손인 義家, 義綱, 義光가 秦氏와 관련이 있는 神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린 것도 두 씨족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아닐까 한다.

秦氏와 滿仲의 연결은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82) 出羽國河邊郡百姓外從五位下勳八等奈良己智豐繼等五人。賜姓大瀧宿禰。

滿仲는 한때 攝津國의 수령을 역임하는데, 재직 시 영향력을 발휘하여 多田莊園을 접수하여 본거지로 삼았을 경우이다. 平安시대의 무사집단은 조정의 정규군이 아닌 사병(私兵) 조직이므로, 경쟁상대보다 강해지기 위한 훈련장도 필요했을 것이고, 조직원을 고용할 자금도 필요했을 것이다. 多田莊 내에는 광산이 있어 滿仲에게는 최적의 장소이다. 莊園 부근에 多田銀山이 있었고 주위의 豊島郡, 川西郡, 川辺郡, 西成郡, 能勢郡에는 秦氏의 집단거주지가 있었으므로 秦氏는 多田銀山과는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700년 후반 秦氏의 경제력은 막강하였는데, 900년경의 秦氏는 이미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여기서 두 씨족 간의 접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宇多源氏의 경우이다. 宇多源氏의 雅信가 近江國의 유력 씨족 佐々木氏와 결합, 近江 佐々木庄에 들어가 近江源氏 무사단을 형성했던 경우이다. 臣籍降下한 源經基의 아들 滿仲가 막강한 경제력의 攝津 秦氏와 결합하여 多田莊에 들어가 武門 清和源氏의 기초를 쌓게 된다. 多田莊는 원래 莊内の 平野마을의 多太神社의 영지였고, 多太神社의 본사는 秦氏의 최초 정착마을인 葛上郡 御所の 多太神社이므로, 秦氏와 多田莊는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 번째는 재력을 쌓은 秦氏가 臣籍降下한 經基와 결합하여 源氏武士가 되었다는 추측이다. 河内源氏의 창설자 賴信가 손자 義家 삼형제를 秦氏와 관련이 깊은 神들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한 것도 秦氏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이상의 3가지의 주장은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재력가와 권세가가 어떤 형태이든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 III. 결론

『日本書紀』에 따르면, 應神朝十六年(285), 가락국에 머물고 있던 弓月君와 그의 백성들이 일본으로 도래하여 葛城의 朝妻掖上에 정착한 이래, 秦氏의 인구는 540년에 약 17만 명에 이른다. 600년대에 大和·山城·近江·播磨·若狹·越中·備前國 등에 秦氏의 거주기록이 보이고, 700년대에는 일본 전국 어디에도 秦氏의 거주가 확인된다. 특히 70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秦氏는 京都 궁궐조성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八幡神社, 稻荷神社, 松尾大社를 창건하였는데,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사 數를 가지고 있는 곳이 稻荷神社, 八幡神社이다. 고대 秦氏는 32개 國 81개 郡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고, 秦氏로부터 뻗어나간 성씨가 43개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그 姓氏의 유래와 출신지, 인구의 이동과 분포, 義家 삼 형제의 神前元服와 秦氏의 관련성, 그리고 清和源氏 滿仲와 秦氏의 결합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日本書紀』에서 ‘秦’를 ‘하타’로 읽은 최초의 기록은 雄略朝十二年(468)이다. 同書에서 秦氏로 추정되는 최초의 기록은 應神朝十六년에 弓月君와 그의 백성들이 도래하였다는 기사이긴 하나, 여기에서 이들이 秦氏라는 언급은 없다. 이 도래 집단이 秦氏였다는 사실을 안 것은 815년 『新撰姓氏錄』에서 弓月君은 중국 秦始皇의 자손이며, 秦氏의 선조라는 기록이 나온 이후이다. 따라서 雄略朝十二年 이전에 ‘하타’의 원래 문자가 ‘秦’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471년 雄略天皇으로부터 ‘우즈마사(禹豆麻佐)’라는 姓을 하사 받은 이후, 742년 聖武天皇로부터 새롭게 ‘太秦’의 姓을 하사받아 ‘우즈마사’라고 읽은 경우와 같이, 이전의 ‘하타’는 ‘秦’가 아닌, 波多·波陀·幡多·羽田·八田·幡·八太 등의 다른 문자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秦’라는 자는 중국의 秦나라와 秦始皇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하타’라고 불리는 씨족의 후손들이 秦始皇의 자손임을 내세우기 위해 ‘秦’으로 바꾸었으리라 추측된

다. 『日本書紀』 允恭朝四年(415)九月九日条에 천황은 고의로 고귀한 집안의 姓를 사칭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815년 완성된 『新撰姓氏錄』의 편찬목적 또한 자신의 가문이 중국이나 한반도의 왕족 출신임을 사칭하는 도래인이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니, 秦氏도 이러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秦氏의 출신지에 관한 학설은 다양하다. 『新撰姓氏錄』에서 秦氏는 중국 秦始皇帝의 자손이라 하나, 井上滿郎가 언급했다시피, 秦나라가 멸망한 때가 기원전 207년이므로 일본에 도래하기까지 약 700년 가까이 가야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秦氏가 秦왕조의 자손으로 중국인이라는 설은 무리가 있고, 한반도 남해안 출신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日本書紀』 應神朝十四年(283)二月条에 弓月君가 백제로부터 일본에 와서 이르기를, ‘저는 120현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만, 신라가 방해하여 가락국에 머물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이 기록에 따라 秦氏의 출신지를 백제, 가야, 신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인 설의 문헌적 근거는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옛날에 秦나라 사람들이 사역을 피해 한국에 망명해 왔으며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三國志』 「魏書東夷傳」의 기술일 것이다. 마한을 이어받은 것이 백제이고, 마한의 동쪽이 진한이므로 秦氏의 출신지는 백제라고 하는 설이다. 가야인 설은 『日本書紀』에서 弓月君가 가야에 머물다 도래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한다. 신라인 설은 1988년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된 「蔚珍鳳坪新羅碑」의 비문 내용 중에 “미선지하단(弥宜智波旦)이라는 인명이 있는데, 이 하단(波旦)의 문자가 秦자의 발음과 비슷하며, 이 사람들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간 秦氏이다”는 주장으로, 秦氏의 출신지를 파악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書紀』에서 弓月君가 가야에서 출발하여 도래했다는 기록, 宗像三女神 중의 한 여신이며 京都 松尾大社の 祭神인 市杵嶋姬가 『日本書紀』에서 ‘북쪽 해로(北の海路)를 지키는 수호신(道主貴)’, 즉 동해안이 아닌, 현해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秦氏

의 고향은 낙동강 유역으로 생각한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秦氏의 인구가 540년 欽明朝 시대에 이미 17만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수만 명의 秦氏가 한꺼번에 특정지역에서 일본으로 도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秦氏는 일정지역이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일본열도로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도래 이후 秦氏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노동현장과 관련된 것이 많다. 『日本書紀』와 『古事記』에서 河內國 茨田 제방공사에 秦氏를 동원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播磨風土記』에는 河內國 茨田郡 枚方마을의 사람들이 播磨國 揖保川の 제방공사를 위해 揖保郡 枚方리에 이주해 살았다 한다. 葛城御所를 떠난 秦氏는 大和國 田原本町에 秦庄를 설치하여 집단거주지를 형성한다. 이 근처에 韓人池가 있는데, 『日本書紀』 應神朝7年(276)九月条에 의하면 “고려인, 백제인, 가야인, 신라인을 동원하여 韓人池 공사를 하였다” 한다. 또한 『日本書紀』 持統朝四年(690)에 천황이 御所市 腋上陂 池之内 부근에 행차하였는데, 이 제방 밑의 사라기(蛇穴) 마을에 秦氏의 후손인 河內國 茨田 마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다. 近江國 愛知郡內를 흐르는 愛知川の 제방공사를 위해 秦氏 뿐만 일본으로 피신한 백제의 귀족과 백성들이 투입되었는데, 이후 秦氏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秦王國’라고 불렸다. 武藏國의 荒川 상류와 多摩川에도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秦氏를 이주시켰으며 京都의 桂川の 제방공사를 담당했던 것도 秦氏였다. ‘隼人’의 난에서 조정의 정벌군은 豊前國 下毛郡 薦神社 경내의 三角池에서 자라는 薦를 八幡神의 靈驗으로 앞세워 隼人를 정벌하였는데 이 三角池를 축성한 것이 秦氏였다.

『豊前國風土記』에는 “豊前國 田川郡香春岳에 신라의 신이 스스로 건너 와 살았으며, 철과 석탄이 풍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千種鐵·穴栗鐵’라고 불리는 유명한 철을 생산해내었던 播磨國의 千種川 유역에는 秦氏의 조상인 秦河勝를 모시는 大遯神社가 27개나 된다. 攝津國 猪名川 주변의 川辺郡, 西成郡, 豊島郡, 能勢郡에도 秦氏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이곳을 清和源氏의 재정적 기반이 되

있던 多田銀山の 광맥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해 도래인 秦氏의 씨족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식산적(殖産的), 지방 지향적, 하급 씨족집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六國史를 비롯하여 고대 목간, 호적, 여타 기록 등을 보면 秦氏는 간과할 수 없는 고대의 거대 씨족 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六國史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초기단계에서 秦氏는 이미 최고 권력의 중요층근이었으며, 欽明朝 무렵 인구수 17만 명의 거대 집단이기도 하였다. 700년대 들어서는 秦氏 일족이 전국적으로 퍼져 해당 지역의 유력씨족이 되었고 경제적 부도 축적하였다. 특히 恭仁京·長岡京·平安京의 왕궁(皇居) 건설에 秦氏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보였다. 따라서 秦氏의 씨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鎌倉幕府와 室町幕府를 창설한 源賴朝와 足利尊氏의 선조인 河內源氏 源義家 삼 형제는 石清水八幡宮 八幡神, 下鴨神社 賀茂建角身命, 大津園城寺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려 八幡太郎, 賀茂次郎, 新羅三朗라 불렸다. 일본 중세 무사들이 성인식을 주군 앞에서 거행하는 것과 달리 삼 형제는 神前에서 성인식을 올렸다 하여 ‘神前元服’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아 이들이 올린 신사나 절이 모두 가야 도래인 秦氏와 관련이 있었다.

첫째, 義家が 성인식을 올린 八幡神은 豊前國 田川郡香春岳의 광부 秦氏가 모시던 가야의 辛國息長大姫大目命가 그 원형이다. 香春岳로부터 평야지대인 宇佐 지방으로 진출한 秦氏는 지역호족 宇佐氏의 地主神 三巨石神과 습합하여 초기 八幡信仰을 형성하였다. ‘磐井’의 亂에 연루되어 침체되어 있던 宇佐氏는 秦氏의 일족인 辛島氏의 三角池 축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 이 못을 지키던 宇佐池守는 대대로 宇佐八幡宮의 大宮司가 되었다. 大和조정에 의해 宇佐에 파견된 三輪의 제사씨족 大神氏는 가야의 도래인 賀茂氏와 동족이며, 賀茂氏와 秦氏는 葛城御所の 동향(同郷)이며, 같은 전승을 보유하는 인척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八幡神의 제사족 辛島氏, 宇佐氏, 大神氏는 秦氏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義綱가 성인식을 올린 下鴨神社의 賀茂建角身命는 賀茂氏가 모시는 신이

다. 秦氏씨와 賀茂씨는 456년 ‘眉輪王’의 變으로 인한 葛城氏의 쇠퇴와 함께 京都 분지로 이주, 賀茂씨는 賀茂川에 이르러 上賀茂神社・下鴨神社를 창건하였고, 秦氏는 深草, 葛野, 嵯峨野에 정착하여 日本 고대의 산업과 信仰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桂川の 秦氏와 賀茂川の 賀茂氏는 葛城에서 서로 이웃사촌이었으며, 京都에서는 동일 전승을 보유하며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였다. 秦氏는 사위가 된 賀茂氏에게 上賀茂・下鴨神社의 제사권을 넘겨 주었다는 「秦氏本系帳」의 기록, 『延喜式』(卷第十五) 內藏寮에 보이는 秦氏의 賀茂祭 참여 관련문헌을 보면 秦氏와 下賀茂神社 제사씨족 賀茂씨와의 깊은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셋째, 義光가 성인식을 올린 園城寺 新羅明神은 神의 이름에서부터 신라로부터의 外來神임을 알 수 있다. 新羅明神과 河內源氏 義光와의 관계는 아버지 賴義부터 시작이 된다. 賴義는 장남이며 서자(庶子)인 카이요(快譽)를 園城寺에 제자로 보내었으며, 1051년 陸奥國 安倍氏를 정벌하기 위해 陸奥로 떠나기 전, 園城寺 新羅善神堂를 방문하여 승리를 기원하였다. 진압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新羅祠에 바치겠다고 서원(誓願)하였으며, 약속대로 義光를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하였다. 義光에서 시작된 ‘新羅源氏’로부터 武田・逸見・佐竹・平賀・小笠原 등의 걸출한 무사집안이 나왔으며, 義光 또한 아버지에 이어 그의 아들 覺義도 園城寺에 출가시켰다. 이와 같이 河內源氏 3대에 걸친 인연으로 義光는 園城寺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게 되었다. 義光의 후손 小笠原氏는 350년간에 걸쳐 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을 치렀다. 越前國今庄、出雲國仁多郡、播磨國明田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新羅明神은 ①鉾山地帶에 ②秦氏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에 鎮座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大津市 園城寺의 新羅明神 역시 秦氏의 집단 거주지역에 鎮座하고 있는바, 秦氏와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新羅善神堂의 新羅明神은 정자관을 쓴 기묘한 모습의 노인상이다. 八幡神이 가야의 여신에서 応神天皇로 전환되는 유래를 묘사한 「宇佐八幡宮託宣集」의 장면을 보면, “豊前國 宇佐郡 히시가타(菱形池) 근처 오구라야마(小倉山)의

밑에 鍛冶屋(대장장이) 노옹이 나타났다. 기이한 모습을 지녔고 한 몸에 8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八幡神은 九州의 秦氏가 모시던 철광신이었는데, 園城寺의 新羅明神은 지금의 八幡神인 応神天皇로 변환되기 직전의 鍛冶屋 노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반도 도래인이 일본에 도착하는 지점은 3군데가 있다. 우선 남해안을 출발하여 九州에 도착하는 항로로 豊前國 秦氏의 거점이며, 여기에 秦氏는 宇佐八幡宮의 기초를 쌓았다. 두 번째 경로는 한반도 동해남부 해안에서 출발하여 出雲 등을 거쳐서 敦賀에 도착하여 近江에 정착하는 경로로, 이 지역에는 大津園城寺 新羅明神이 진좌하고 있다. 세 번째 항로는 남부지방을 출발하여 瀬戸内海를 경유하여 難波에 도착하여 葛城御所に 정착하였던 경로인데, 御所の 秦氏와 친밀했던 賀茂氏は 京都 鴨川에 下鴨神社를 창건하였다. 鎌倉幕府를 창설한 源頼朝의 中祖 源義家は 宇佐八幡宮로부터 勸請한 岩清水八幡神 앞에서, 둘째 義綱는 下鴨神社의 賀茂大明神 앞에서, 셋째 義光는 大津園城寺 新羅明神 앞에서 神前元服式을 가졌다.

이상과 같이 河内源氏 義家 삼 형제는 秦氏 집단거주지에 鎮座하던 신들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는데, 秦氏와 河内源氏は 어떤 관련성은 가지고 있었을까? 두 씨족의 관련성을 언급한 역사적 자료나 연구결과가 희소한 상황이나, 다음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 관련성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清和源氏 창시자이자 河内源氏의 선조인 滿仲와 아버지 經基와의 연령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이다. 전해지는 다양한 家系図 속에 小笠原系図 이외에는 經基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기재해 놓지 않아 아들 滿仲와의 연령차를 짐작할 수 없다. 다행히 오늘에 이르러 『日本人名大辭典』, 『日本國語大辭典』, 『日本大百科全書』, 『國史大辭典』, 『デジタル大辭泉』 등의 일본의 사전류에 經基의 출생년도를 916년으로 직접표기하거나, 또는 사망년도만을 961년으로 표기하여, 經基가 45세에 사망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출생년도를 916년으로 짐작하게 하고 있다. 한편 위 사전류에는 滿仲의 출생과 사망년도를 912년-997년으로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 滿仲의 나이가 아버지 經基보다 4살이나 연상이 된다. 900년대 전후의 출생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 하나, 여러 문헌과 현대의 사전류를 볼 때, 오기나 누락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經基와 滿仲의 부자관계, 두 인물의 계보상의 관계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로, 滿仲가 清和源氏の 근거지로 한 多田莊 내의 多田神社와 927년에 완성된 『延喜式』에 등재된 원래의 多太神社의 관계를 따져본다.

多田莊는 원래 다다노진자(多太神社)의 영지(領地)로, 多田莊 영지내의 平野村에 多太神社가 있었다. 927년에 완성된 『延喜式』 河辺郡의 기록에는 이 多太神社를 ‘다다노진자’로 읽었다. 970년 滿仲는 多田莊 내에 천태종 사찰인 다다인(多田院)을 창건하였고, 明治維新 이후 神仏 분리정책에 의해 多田院은 滿仲와 그의 자손들을 모시는 다다진자(多田神社)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多田莊 내에는 원래의 ‘다다노진자(多太神社)’와 明治維新 이후에 생긴 ‘다다진자(多田神社)’의 2개의 多田神社가 존재하게 되었다. 두 신사를 구분하기 위해 원래의 多太神社를 ‘다후토진자’로 하고, 明治維新 이후에 생긴 多田神社를 ‘다다진자’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多太神社 本社は 大和國 葛上群-현 御所市-에 있는 ‘다다노’진자(多太神社)이다. 이 신사의 위치는 秦氏が 낙동강 유역에서 도래하여 처음으로 정착하였던 葛上群의 朝妻, 掖上로부터 불과 3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이 신사의 祭神은 가야의 도래인으로 동족인 三輪氏, 賀茂氏의 조상인 오오타다네고(大田々根子)이다. 즉 秦氏が 살았던 御所の 多太神社와 맥락을 같이 하는 신사는 현재 ‘타후토진자’로 불리는 平野村의 多太神社이다. 이 신사의 현재의 祭神은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이나, 초창기에는 大田々根子였다고 한다. 역사상 이와 유사한 예로 宇多源氏の 경우를 들 수 있다. 宇多天皇의 8번째 親王인 아쓰미(敦實)의 아들 마사노부(雅信)는 936년 臣籍降下로 源라는 성을 하사 받았다. 그의 자손 중에 미나모토 스케노리(源扶義)가 近江國 蒲生郡 佐々木庄로 내려가 지역의 유력 호족 佐々木氏와 결합, 近江源氏라는 무사집단을 형성한다. 佐々木氏의 선조 ‘狹々木山

君'는 『日本書紀』顯宗朝元年(485)二月条와 五月条에 '近江國狹狹城山君'·'狹狹城山君韓  
 袞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시던 沙沙貴神社의 祭神은 少彦名神였으나 宇多源氏의 합  
 류에 의해 宇多源氏의 선조인 敦實親王를 바뀌게 되었다. 清和源氏의 경우에도 臣籍降  
 下한 經基의 아들 滿仲가 攝津國 多田莊園에 합류한 이후, 多田莊 旧多太神社의 祭神  
 은 후세에 가야도래인 大田々根子에서 滿仲와 그의 자식들로 바뀌었다. 700년대에 이미  
 막대한 경제력을 자랑하던 秦氏이므로, 攝津國 秦氏도 재정적으로 풍부하였을 것이다.  
 900년대 후반에 多田莊에 들어온 滿仲와 秦氏는 宇多源氏의 경우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않았나 추측한다.

셋째로, 滿仲는 多田莊 부근의 多田銀山로부터 막대한 부를 얻었다고 했는데, 多田銀  
 山の 광맥이 지나가는 川西郡과 豊島郡은 언급한 바와 같이 秦氏의 집단 거주지이다.  
 745년 奈良 東大寺 盧遮那仏의 조성을 위해 聖武天皇는 多田銀山으로부터 銅을 공급받  
 았으므로, 900년대 후반에 들어온 滿仲 이전에 이미 秦氏는 多田銀山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부유한 秦氏와 臣籍降下한 신흥의 무사집안은 多田莊에서 일련의 관계  
 를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도래한 이후, 수많은 제방공사, 광산, 염전, 그리고 미개척지의  
 현장에서 秦氏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秦氏는 재력을 이루고, 신앙,  
 예능 방면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일본 전국의 治水공사와 산업의 근간인 철  
 을 공급한 秦氏는 초기 일본의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완성시킨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의 과제로서는 한반도 내의 秦氏의 출신지를 찾는 일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단행본

- 金富軾(2011) 卷三十五 雜誌第四 地理二·蔚珍郡 『三國史記』 한길사, p.383.  
李荇(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三 東來縣 祠廟 高麗大學校海外韓國學資料센터.  
일연 卷第一 紀異第一, 「延烏郎 細烏女」 『三國遺事』.

### 국내 논문

- 金文經(1987) 「唐·日文化交流와新羅神信仰」·『東方學志』 Vol.54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pp.141-165.  
金祥圭(2007) 「三輪山伝承考」 『일어일문학』 제3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231.  
金泰燾(2000) 「新羅明神考」·『日本文化學報』 9집 韓國日本文化學會, pp.165-184.  
金賢旭(2005) 「秦氏と八幡信仰」 『일어일문학연구』 54권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김후련(2004) 「母子신과 하치만(八幡신앙)」 『동아시아 고대학』 第9輯 동아시아고대학회.  
노성환(2012) 「일본 현지설화를 통해서 본 연오랑과 세오녀의 정착지」 『일어일문학』 56輯 대한일어일문학회, p.329.  
\_\_\_\_\_(2013) 「일본 후쿠이현의 신라계 신사의 변용과 정착」 『일어일문학』 59輯 대한일어일문학회, p.318.  
\_\_\_\_\_(2014) 「일본 시마네의 지역전승을 통해서 본 신라」·『동북아시아문화연구』 第38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p.451.  
백승옥(2017) 「가야의 개념, 그리고 그 위치와 영역」 『내일을 여는 역사』 68집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pp.140-141.  
서보경(2012)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 연구』 제41집 한일관계사학회, p.51.  
\_\_\_\_\_(2016) 「8세기 秦氏의 씨족 분화와 官人化」 『日本研究』 제67호 일본 연구소, p.124.  
연민수(2017), 「秦氏의 渡來伝承과 후에씨족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제58집 한일관계사학회, pp.14-15.  
윤명철(1995) 「해양조건을 통해본 고대 한일 관계사의 이해」 『日本學』 14권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pp.84-107.

- 윤종유(1985)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少考」 표1, 표2 『한국인구학』 8(2)  
한국인구학회, p.5.
- 이광래(2000) 「일본 고대의 신화적習合現象으로서 八幡神信仰에 관한연구」  
『일본역사연구』11집 일본사학회, p.62.
- 李炳魯(2006) 「日本での新羅神と張保臯」 『동북아시아문화연구』 第十輯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pp.319-341.
- \_\_\_\_\_(2010) 「門珍の唐留學と新羅人」・『啓明大學校・桃山學院大學國際學術セミナー』  
Vol. 2010 No.3 啓明大學校産業經營研究所, pp.23-28.
- 이원홍(2002) 「진씨설화를 통해 본 고대 한일관계」 『어문연구』 제 38집 어문  
연구학회, p.p. 254.
- 전금선(2012) 「도래인 하타씨(秦氏) 의 고대예능 연구」 『비교일본학』 27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진은숙(2016) 「秦氏の 도래전승 및 명의고찰」 『日本語文學』 第72輯 일본어문  
학회, p.436.
- \_\_\_\_\_(2017) 「우사하치만궁 제신에 관한 고찰」 『日本語文學』 第78輯 일본어문학회.
- 崔景振·金祥圭(2017) 「秦氏と賀茂氏の係わりについての考察」 『동북아시아문화연구』  
第50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pp.303-323.
- \_\_\_\_\_(2017) 「秦氏と新羅明神との係わりについて」 『동북아시아문화연구』  
第52輯 東北亞細亞文化學會, p.411.

## 국외(일본) 단행본

- 蘆田伊人(1930) 「雲陽誌卷之五·仁多郡」 『大日本地誌大系』 第27卷 雄山閣, p.151.
- 鮎貝房之進(1938) 『雜攷·第二輯』 下卷 (大和岩雄 『秦氏の研究』 참고)
- 石原進·丸山龍平(1984) 『古代近江の朝鮮』 新人物往來社, pp.222-231.
- 井上翼章(1903) 『越前名蹟考』 首卷 卷之二, p.210.
- 井上滿郎(1999) 『古代の日本と渡來人』 明石書店, pp.108-109.
- 伊藤常足編(1908) 『太宰管内志』 中卷 日本歷史學會 豊前之二 (田川郡上).
- 今泉定介(1899) 「安齊隨筆」 卷之十二 『故實叢書』 吉川弘文館, p.424.
- 齊部廣成(2013版) 『古語拾遺』 岩波文庫, pp.42-43.
- 上田正昭 (1994) 『歸化人』 中央公論社.
- \_\_\_\_\_(2004) 『三輪山の神々』, 學生社.

- 卜部兼方(1901)「釋日本紀」卷九所收「山城國風土記逸文」『國史大系.第7卷』  
經濟雜誌社.
- 大田亮(1923)『系図綱要』礒部甲陽堂, p.188.
- \_\_\_\_\_(1925)『日本國誌資料叢書』礒部甲陽堂, p.516.
- \_\_\_\_\_(1925)『近江』第三章氏族、滋賀郡、礒部甲陽堂, p.229.
- \_\_\_\_\_(1934)『姓氏家系大辭典』姓氏家系大辭典刊行會, 赤染 大里 高尾氏 寺氏  
各條項.
- 大橋信弥(2004)『古代 豪族と渡來人』吉川弘文館, pp.257-259.
- 大道和人(1994)「高島郡の鐵生産とその周辺」・『紀要』第七号, 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 p.61.
- 大和岩雄(1993)『秦氏の研究』大和書房.
- \_\_\_\_\_(1993)『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白水社.
- \_\_\_\_\_(2013)『續秦氏の研究』大和書房.
- 尾形裕康(1950)「成年礼の史的考察」『日本學士院紀要』第8卷3号 日本學士院, p.383.
- 荻原千春(2007)『出雲國風土記』講談社學術文庫. pp.57.
- 奥富敬之(1988)『清和源氏の全家系』新人物往來社, p.36-39.
- 柏木寧子 외 4명(2014)「宇佐八幡宮託宣集 託宣・示現・年表」山口大學, p.12.
- 加藤謙吉(2000),『秦氏とその民』白水社, p.75.
- \_\_\_\_\_(2002)『大和の豪族と渡來人』, 吉川弘文館, p.31.
- 門脇禎二 外4名(1988)『河内王朝論』六興出版, p. 64.
- 喜田貞吉(1912)『讀史百話』三省堂書店, p.233.
- \_\_\_\_\_(1939)『帝都』日本學術普及會, p.259.
- 教務省編(1918)「信露貴彦神社」『特選神名蝶』礒部甲陽堂, p.502.
- 栗田寛(1900)『新撰姓氏錄考証』吉川弘文館.
- 經濟雜誌社編(1901)「土左大神 釋日本紀卷十五」『國史大系.第7卷, 經濟雜誌社, p.714.
- 『源平盛衰記』卷第二十八「賴朝義仲中惡き事」.
- 皇典講究所(1929)『延喜式』校訂 上卷, 河辺郡 大岡山書店, p.282..
- \_\_\_\_\_(1932)「卷十五内藏式 賀茂祭」『訂校延喜式』・上卷 大岡山書店, p.559.
- 國會刊行會(1915)『系図統覽』國會刊行會, p.150.
- 小林照郎(1910)『社會學論叢』第二卷 金港堂書籍, p.143, p.239
- 澤田吾一(1927)『奈良時代民政經濟の數的研究』富山房, p.286.
- 小學館(1994)「豊前國風土記鹿春郷」『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p. 548.
- \_\_\_\_\_'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p.97(註釋)

- \_\_\_\_\_「風土記逸文・山城の國」『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p. 437.
- \_\_\_\_\_ (2000)『日本國語大辭典』.
- \_\_\_\_\_ (2001)『日本大百科全書』.
- \_\_\_\_\_ (2012),『大辭泉』第二版.
- 經濟雜誌社編(1897)『釋日本紀』卷十三「筑紫國造磐井」(國史大系 第7卷 所收)  
經濟雜誌社, p.684.
- \_\_\_\_\_ (1897)「古今著聞集」卷二 釋教 第二 ‘智証大師歸朝を新羅明神擁護の  
事並びに園城寺創建の事’『國史大系』十五卷 經濟雜誌社, p.185.
- 『今昔物語集』卷11第28話 智証大師初門徒立三井寺語 第廿八.
- 佐伯有清(1990)『円珍』吉川弘文館, pp.207-217.
- 寒川辰清(1915)「卷之二 建置沿革・郷」『近江國輿地志略 上』大日本地誌大系刊行會, p.102.
- 島根縣教育會編(1923)『島根縣誌』島根縣教育會, p.139.
- 清水正建編(1933)『莊園志料』上卷 帝都出版社, pp.209.
- 白築祐久編(1926)『掛合村誌』掛合村, pp.133-143.
- 神宮司廳古事類苑出版事務所編(1896)「小笠原系図」『古事類苑 礼式部5』神宮司廳, p.859.
- 關晃(2009)『歸化人』講談社學術文庫, pp.112-113.
-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所編(1909)「宇佐八幡宮弥勒寺建立緣起」『大日  
本古文書』家わけ四ノ二 東京帝國大學, p.83.
- 辻善之助(1915)「新羅明人考」・『日本仏教史研究』第一卷 岩波書店.
- 出羽弘明(2004)『新羅の神々と古代日本』同成社, p.9.
- 泊勝美(1974)『古代九州の新羅王國』新人物往來社, p.75
- 中野幡能(1975)『八幡信仰史の研究』吉川弘文館, p.112.
- \_\_\_\_\_ (2000)『八幡信仰』塙書房.
- 中村明藏(2001)『隼人の古代史』平凡社新書.
- 並河永(1929)『五畿内誌』中卷 日本古典全集刊行會, p.241, p.325.
- 奈良縣磯城郡編(1915)『磯城郡誌』磯城郡, p.431.
- 中村修也(2004)『秦氏とカモ氏』臨川書店.
- 南條郡編(1913)「第十六 鉦山」『福井縣南條郡要覽』大正元年 南條郡, p.48.
- 西島政之編(1914)「日本三代實錄」卷七 清和天皇『國史大系』經濟新聞社, p.151.
- 庭本雅夫(1929)『今庄村誌』村誌刊行會, p.10-14.
- 萩原千鶴(2007)『出雲國風土記』・「仁多郡」條 講談社學術文庫, p.268.
- 塙保己一編(1893)「古語拾遺」『群書類從』第拾七輯 經濟雜誌社, p.9.

- \_\_\_\_\_ (1898) 「新撰姓氏錄」 『群書類從』 第十六輯, p.131.
- \_\_\_\_\_ (1898) 「卷第86 年中行事秘抄 四月 賀茂大神」 『群書類從』 第五輯, p.346.
- \_\_\_\_\_ (1898) 「卷第六十 本朝皇胤紹運錄」 『群書類從』 第四輯 經濟雜誌社, p.26
- \_\_\_\_\_ (1902) 「卷第八十一 本朝月令」 『群書類從』 第五輯, p.91.
- 伴信友(1907) 「瀬見小川 三之卷 秦氏本系帳の中の疑説」 『伴信友全集』 第二  
國會刊行會, p.306.
- \_\_\_\_\_ 「中外経緯傳草稿」 『伴信友全集』 第三 國會刊行會, p.174.
- \_\_\_\_\_ 「神社私考 卷五 若狹國神明帳私考」 『伴信友全集』 第二, 國會刊行會 コマ99.
- 平野邦雄(1969) 『大化前代社會組織の研究』 吉川弘文館, p.167.
- 廣嶺忠胤(1919) 『牛頭天王』 廣峯神社, p.30.
- 福井縣編(1920) 『福井縣史』 第一冊第一編 福井縣, pp.18-19.
- 肥後和男(1945) 「賀茂伝説考」 『日本神話研究』 河出書房 第5版, p.255.
- 平林章仁(2013) 『謎の古代豪族葛城氏』 祥伝社新書, pp.220.
- \_\_\_\_\_ (2000) 『蘇我氏の實像と葛城氏』 百水社, p.152.
- 藤原公貞編(1903) 「清和源氏 下」 『新編纂圖本朝尊卑分脈系譜雜類要集』 9. 吉川弘文館, p.3.
- 藤本充安(1907) 『島根縣史要』 川岡清助, p.103.
- 仏書刊行會編纂(1915) 「園城寺伝記三之四 新羅源氏事」 『大日本仏教全書』 127卷  
仏書刊行會, p.27.
- 万多親王(1812版) 「右第二十四卷 山城國諸藩」 『新撰姓氏錄』 三卷,  
加賀屋善藏, p.130.
- 三木彊(1980) 『宇佐八幡宮原像』 學生社, p.109.
- 水谷千秋(2009) 『謎の渡來人秦氏』 文芸春秋.
- \_\_\_\_\_ (2013) 『謎の大王繼体天皇』 文芸春秋, pp.58-60.
- 水野正好(1992) 『古代を考える・近江』 吉川弘文館.
- 源順 撰(1617) 「河内國 第七十 茨田郡 大縣郡」 『倭名類聚鈔』 20卷 [3], 那波道圓.
- \_\_\_\_\_ 「筑前國 第二百二十五 宗形郡」 『倭名類聚鈔20卷』 [5] [46].
- \_\_\_\_\_ 「北陸郡 第六十三 越前國」 『倭名類聚鈔』 20卷 [3].
- 源光圀 編(1907) 「第128-130 志」 『大日本史』 徳川總子.
- 大神神社社務所編(1928) 『三輪叢書』 系譜 大神神社社務所, p.581.
- 達日出典(2007) 『八幡神と神仏習合』 講談社現代新書.
- 村井康彦(2013) 『出雲と大和』 岩波新書, pp.145-166.
- 村上石田 (1804) 「大日森」 『播磨名所巡覽図會』 五卷 [4] 塩屋忠兵衛.

本居宣長『古事記傳』44卷 [33], pp.37-38.  
 山尾幸久(외 2명의 저자)(1985)『古代最大の内戦磐井の亂』大和書房.  
 山田繁夫(2009)『法然と秦氏』學研パブリッシング, p.94.  
 吉岡範明(1938)『古事記伝略』12卷下, p.94.  
 吉川弘文館編(1979)『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 高安城 項.

## 국외(일문) 논문

阿部眞司(1989)「事代主神考」『高知医科大学一般教育紀要』五号高知医科大学, pp.1-24.  
 \_\_\_\_\_(1993)「古代三輪君の一考察」『高知医科大学一般教育紀要』九号, p.3.  
 阿部武彦(1963)「負名氏と律令官人制」『北海道大学文学部紀要』11号 北海道大学文学部, pp.88.  
 有賀喜左衛門(1967)「先祖と氏神」『民族學研究』32/3 日本民族學會, p.181.  
 飯沼賢司(1997)「八幡大菩薩の登場の歴史的背景-聖武天皇の國家構想と關連して」『史學論叢』27号 別府大学史學研究會, pp.51-52.  
 井上孝夫(1992)「古代採鉱民族の構成-長門周防豊前を中心に」『下關市立大學論集』36 下關市立大學學會.  
 井上光貞(1962)「賀茂縣主の研究」『日本古代史論集』上卷 吉川弘文館.  
 今野慶信(2017)「鎌倉武家社會における元服儀式的確立と変質」『駒澤女子大學研究紀要』第24号 駒澤女子大學, p.38.  
 梅田俊一(1952)「賀茂神社の創建に關する一考察(一)」『人文』第一号, 西京大學, p.112.  
 大山眞一(2012)「武門源氏の思想と信仰」『日本大學綜合社會情報研究科紀要』No.13 日本大學綜合社會情報研究科, p.83.  
 尾形裕康(1950)「成年礼の史的考察」『日本學士院紀要』第8卷3号 日本學士院, p.380.  
 岡田精司(2013)「歴史研究から見た上賀茂神社の特色」『賀茂縣主同族會』, pp.1-3.  
 岡谷公二(2014)『神社の起源と古代朝鮮』平凡社新書, pp.14-15/p.108.  
 小山田和夫(1987)「園城寺縁起考」『立正大學文學部』, pp.20-39.  
 葛野泰樹(2014)「大津京と寺院配置」・『都城制研究』(8) 奈良女子大學古代學學術研究センター, p.37.  
 龜井輝一郎(2011)「古代宗像氏と宗像信仰」『宗像・沖ノ島と關連遺産群研究報告I』宗像・沖ノ島と關連遺産群 世界遺産推進會議, p.112.  
 河野康彦(1997)「宇佐國造について」『大分縣地方史』No.165 大分縣地方史研究會, p.7.  
 國土交通省社會資本整備審議會都市計畫・歴史的風土分科會 第5回歴史的風土部

- 會議事要, 資料5-2, p9.(平成15年11月13日) .
- 佐志傳(1958)「宇佐八幡宮の祀官について」『史學』31卷 三田史學會, pp.187-189.
- 佐藤一明(2016)「夫婦別姓」『日本經大論集』45(2) 日本經濟大學, p.p.99-100.
- 新藤透(2005)「新羅之記錄と新羅明神史料」・『図書館情報メディア研究』三卷  
一号 筑波大學校, pp.19-28.
- 鈴木健一(1978)「カラス考」『駒澤短大國文』8, p.4
- 鈴木正信(2012)「五～六世紀における大神氏の氏族的展開」『滋賀大學經濟學部  
研究年報』第19卷 滋賀大學經濟學部.
- 關祐二(2016)『ヤタガラスの正体』廣濟堂親書, pp.153.
- 瀨間正之(2018)「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東洋文化研究』第20  
東洋文化研究, pp.150-151.
- 瀧浪貞子(1990)「大仏造立への道程:聖武天皇の彷徨五年」研究紀要(03)京都  
女子大學宗教文化研究所, p. 87.
- 田中嗣人(2004)「賀茂祭考」『華頂博物館學研究』vol.11 pp.3-7.
- 築山治三朗(1954)「河内における古代聚落と歸化人」『西京大學學術報告 人文』4卷 西京大學.
- 塚口義信(1985)「葛城の一言主大神と雄略天皇」『堺女子短期大學紀要』20, pp.1-38.
- 寺尾美智子(1999)「八幡信仰の成立」『種智院大學密教資料研究所紀要』種智院  
大學密教資料 研究.
- 砥山洸一(2007)「河内源氏の神前元服とその背景」皇學館論叢 第40卷 第6号 皇學館, p.70.
- 中野幡能(1975)「八幡信仰の研究について」『八幡信仰史の研究上卷』吉川弘文館.
- 中前正志(2003)『大谷學報』「園城寺縁起の享受」第82卷第1号 大谷大學p., 20.
- 中村修也(2013)「天智朝－敗戦處理政府の實態－」・『韓日關係史研究』第46輯 韓  
日關係史學會, p.22.
- 西尾次郎(1911)「維新以前ニ於ケル本邦ノ鋳業」日本鋳業會誌 27卷 313号 日本鋳業會, p.190.
- 袴田光康(2012)「平安仏教における神羅明神」『淵民學志』第17輯, pp.87-88.
- 久武綾子(1991)「古代の戸籍」『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芸術・保健体育・  
家政・技術科學』第40輯 愛知教育大學 p.144.
- 飛野博文(1984)「古墳からみた5・6世紀の山城地方」『京都大學構内遺跡調査研究年報』  
京都大學.塙保己一編(1902)
- 平野邦雄(1961)「秦氏の研究」(二)『史學雜誌』第七十輯, 史學會, pp.61-62, p.73.
- 福島好和(2006)「播磨國風土記にみえる鐵について」『關西學院史學』Vol.33、  
關西學院大學史學會, p.10.

- 藤本文雄(2012)「賀茂縣主の原像」『賀茂縣主同族會』, pp.6-14.
- 北條勝貴(1997)「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姫命の鎮座について」『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第72集 國立歷史民族博物館, p.47.
- 前川明久(1957)「日置氏の研究」『法政史學』10卷 法政大學史學會, p.103.
- 松前健(1975)「三輪山伝説と大神氏」『山邊道』19 天理大學國語國文學會, p.9.
- 水野祐(1977)「出雲大神と宗像神—出雲文化の中の漁撈文化」『出雲學論攷』神道學會編, pp.9-13.
- 宮下文明(1973.12)「越前・若狹の鑄物産地」『早稻田商學』卷240号, p.165.
- 宮地直一(1932)「平安期における新羅明神」『園城寺之研究』天台宗寺門派御遠忌事務局編.
- 矢田浩(2016)「北部九州の宗像神と關連神を祭る神社の解釋」むなかた電子博物館紀要第7号, p.203.
- 吉野裕(1975)「タタラと大田田根子の話」日本文學24卷 8号『日本文學會』, p.79-81.

## 인터넷 자료

- 伏見稻荷神社 HP, (<http://inari.jp/about/num11/>)
- 石清水八幡宮 HP (<http://www.iwashimizu.or.jp/about/history.html>)
- 木津川市 HP, (<https://www.city.kizugawa.lg.jp/index.cfm/8,28723,36,420,html>)
- 講談社編(2001)『日本人名大辭典』(Digital JapanKnowledge 판).
- 堺市 HP (<http://www.city.sakai.lg.jp/index.html>, 검색일: 2019.08.25)
- 滋賀縣神社廳 (HP: <http://www.shiga-jinjacho.jp>) 「三尾神社」· 由緒.  
「姓氏類別大觀」, [http://www.myj7000.jp-biz.net/clan/fclan\\_index.htm](http://www.myj7000.jp-biz.net/clan/fclan_index.htm),  
검색일: 2019.06.25)
- 新日本古典籍總合データベース, (<https://kotenseki.nijl.ac.jp/>)
- 高鴨神社 HP: <http://www5.kcn.ne.jp/~takakamo/> (검색일: 2019.7.17)
- 奈良文化財研究所『古代地名檢索システム』(<https://mokkanko.nabunken.go.jp/ja/>,  
검색일: 2019.09.04)
- 唐魏徵等奉敕撰(1844)『隋書』85卷 [25] 列伝 倭國, 高松講道館, コマ17.  
(<http://dl.ndl.go.jp/info:ndljp/pid/2576307>, 國會圖書館デジタル)
- 東京大學史料編纂書 (<https://www.hi.u-tokyo.ac.jp/index-j.html>)
-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編(1925)『大日本古文書』卷之一; 卷之五 東京帝國大學,  
pp.494, pp.505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書データベース, 검색일: 2019.06.30)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ldata/850/8500/05/0001/0494?m=all&s=0333&n=20> )  
東洋經濟オンライン編集部(2016) 「日本に多い神社仏閣名トップ500」 東洋經濟  
オンライン版, (<https://toyokeizai.net/articles/-/110031>).  
平凡社編(1979) 『日本歴史地名大系』 多太神社 項目(JapanKnowledge 刊)  
松村恵司「木簡庫」 奈良文化財研究所 (<https://mukkanko.nabunken.go.jp/ja/> ,  
검색일 2019.07.23)  
「養老律令」, 職員令四十三, (<http://www.sol.dti.ne.jp/hiromi/kansei/yoro02c.html> ,  
검색일: 2019.1.17.)  
六國史檢索, (<http://www013.upp.so-net.ne.jp/wata/rikkokusi/index.html> , 검색일:  
2019.6.30)

